# 차례 Contents




## Ⅰ 2015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1

1. 축제 현황 ····· 3
2. 축제 평가 ····· 8

## Ⅱ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13

1. 개요 ····· 15
   (1) 조사개요 • 15
   (2) 축제 설문 • 16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 17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17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18
   (3) 평가항목 • 19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 20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0
   (2) 항목별 만족도 • 21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3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24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25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 29
   (1) 전제 • 29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9
   (3) 항목별 소비지출 • 30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30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31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31
5. 외지관광객 비율 ····· 34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35

## Ⅲ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37


서울특별시

1. 한성백제문화제 ····· 39

부산광역시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 40

대구광역시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41

인천광역시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 42

광주광역시

5.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43

대전광역시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 44

경 기 도

7. 이천 쌀문화축제 ····· 45
8.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46
9. 여주 오곡나루축제 ····· 47

강 원 도

10. 화천 산천어축제 ····· 48

11. 평창 효석문화제 ····· 49
12. 춘천 마임축제 ····· 50
13. 고성 통일고성 명태축제 ····· 51

## 충청북도

14. 괴산 고추축제 ····· 52
15. 충주 세계무술축제 ····· 53

## 충청남도

16. 강경 발효젓갈축제 ····· 54
17. 부여 서동연꽃축제 ····· 55
18.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56
19. 홍성 역사인물축제 ····· 57
20. 금강 여울축제 ····· 58

## 전라북도

21. 김제 지평선축제 ····· 59
22. 무주 반딧불축제 ····· 60
23. 순창 장류축제 ····· 61
24.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 62

## 전라남도

25.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63
26. 강진 청자축제 ····· 64
27. 담양 대나무축제 ····· 65
28.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 66
29. 목포 항구축제 ····· 67
30. 보성 다향대축제 ····· 68
31. 영암 왕인문화축제 ····· 69

**경 상 북 도**

32.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70
33.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71
34. 봉화 은어축제 ····· 72
35. 포항 국제불빛축제 ····· 73
36. 경주 신라소리문화축제 ····· 74

**경 상 남 도**

37. 산청 한방약초축제 ····· 75
38. 통영 한산대첩축제 ····· 76
39.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 77

**제 주 도**

40. 제주 들불축제 ····· 78
41. 제주 도두오래물축제 ····· 79

## Ⅳ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81

**서울특별시**

1. 한성백제문화제 ····· 84
2. 서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제 ····· 90

**부산광역시**

3.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 94

**대구광역시**

4.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99

**인천광역시**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 106

**광주광역시**

6.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110
7. 광주 광산우리밀축제 ····· 117

**대전광역시**

8.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 123

**경 기 도**

9. 이천 쌀문화축제 ····· 127
10.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133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 141

**강 원 도**

12. 화천 산천어축제 ····· 145
13. 평창 효석문화제 ····· 153
14. 춘천 마임축제 ····· 161
15. 통일고성 명태축제 ····· 165

**충 청 북 도**

16. 괴산 고추축제 ····· 169
17. 충주 세계무술축제 ····· 175

## 충청남도


18. 강경 발효젓갈축제 ····· 182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 188
20.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193
21. 홍성 역사인물축제 ····· 197
22. 금강 여울축제 ····· 201


## 전라북도


23. 김제 지평선축제 ····· 204
24. 무주 반딧불축제 ····· 208
25. 순창 장류축제 ····· 212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 219


## 전라남도


27.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224
28. 강진 청자축제 ····· 230
29. 담양 대나무축제 ····· 235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 239
31. 목포 항구축제 ····· 246
32. 보성 다향대축제 ····· 250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 256


## 경상북도


34.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261
35.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268
36. 봉화 은어축제 ····· 274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 279
38. 경주 신라소리문화축제 ····· 282

## 경 상 남 도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 286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 289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 295

## 제 주 도

42. 제주 들불축제 ····· 303
43. 제주 도두오래물축제 ····· 310

# V 축제별 이미지 313

1. 2015 대표축제 ····· 315
2. 2015 최우수축제 ····· 316
3. 2015 우수축제 ····· 319
4. 2015 유망축제 ····· 322

# 2015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평가

# I



# 1 문화관광축제 현황

## (1) 연도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 및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는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광역도에서 8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1〉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개수 | 8 | 10 | 18 | 21 | 25 | 30 | 29 | 30 | 37 | 45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15 |
| 개수 | 52 | 52 | 56 | 57 | 44 | 44 | 45 | 42 | 40 | 44 |

## (2) 2015년 축제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44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대표 축제 2개, 최우수축제 9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임

○ 문화관광축제는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한 등급에서 3회 이상 선정된 축제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축제 일몰제의 문제점(지원이 중단된 축제의 쇠퇴, 문화관광축제 브랜드 가치 하락,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 상실 등)을 개선하였으며, 2015년에는 관광상품성이 큰 신규 축제 10개를 새롭게 발굴·선정함

○ 또한, 2015년부터는 명예대표축제(대표축제를 졸업한 축제)를 글로벌육성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글로벌육성축제(3개) :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2015년 축제 평가지표는 축제의 콘텐츠 차별성과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선정된 축제에는 등급별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대표축제 5억원, 최우수축제 2.5억원, 우수축제 1.5억원, 유망축제 0.99억원)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종합적인 해외홍보와 마케팅 등을 지원함

〈표 2〉 2015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 지역 | 등급 | 축 제 명 | 기 간 | 장 소 | 주요프로그램 |
|---|---|---|---|---|---|
| 서울 (2) | 유망 | 한성백제문화제 | 10.8~10.11 | 올림픽공원, 한성백제박물관, 위례성대로 등 | • 역사문화 거리행렬, 한성백제성곽 돌기, 백제체험마을 및 백제관아 체험 등 |
| | 유망 | 성북다문화음식 축제 누리마실 | 5.17 | 성북구 성북동 구간 | • 국가대표 요리사, 우리동네 요리사, 이웃동네 예술장 등 |
| 부산 (1) | 유망 | 동래읍성역사축제 | 10.9~10.11 | 동래문화회관, 동래온천장 일원 | •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성전투 실경 무지컬,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동래장터 재현 등 |
| 대구 (1) | 유망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4.5~4.19 |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 | • 수문장교대식, 사상체질&한방힐링센터 운영, 한방족탕체험, 악령어린이 과거시험 등 |
| 인천 (1) | 유망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 8.7~8.9 |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 | • 락 페스티벌, 슈퍼루키, 뮤지컨퍼런스, 라이브클럽, 키즈존/푸드존 운영 등 |
| 광주 (2) | 최우수 | 추억의7080 충장축제 | 10.7~10.11 | 광주 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일원 | •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변사극, 거리퍼드, 충장댄스, 아데이 등 |
| | 유망 | 광산우리밀축제 | 10.2~10.4 |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 | • 호남대 DRP응원단, 직장인밴드, 남도소리, 거리악사, 우리밀 요리체험, 우리밀 모래놀이 등 |
| 대전 (1) | 유망 | 대전효문화뿌리 축제 | 10.9~10.11 | 뿌리공원 및 스카이로드 일원 | • 문중퍼레이드,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수상창극 등 |
| 경기 (3) | 최우수 | 이천쌀문화축제 | 10.21~10.25 | 이천시 설봉공원 | • 농심풍년큰잔치, 사물판굿, 봉산탈춤, 거북놀이, 풍년대장군, 벼탈곡, 길놀이 등 |
| | 최우수 | 자라섬재즈 페스티벌 | 10.9~10.11 | 자라섬 및 가평읍 시내 일원 | • 아일랜드, 파티 스테이지, 페스티벌 라운지, 어쿠스틱 스테이지, 팝업 스테이지 등 |
| | 유망 | 여주오곡나루축제 | 10.30~11.1 | 신륵사 관광지 일원 | • 진상행렬, 마당극, 북춤, 고구마구워먹기, 가마솥 여주쌀·오곡비빔밥먹기 등 |
| 강원 (4) | 대표 | 얼음나라화천산천어 축제 | 1.10~2.1 | 화천읍 화천읍 일원 | • 산천어 얼음낚시 및 루어낚시체험, 아이스펀파크, 스노우 펀파크, 산천어 맨손잡기 등 |

〈표 계속〉

| 지역 | 등급 | 축 제 명 | 기 간 | 장 소 | 주요프로그램 |
|---|---|---|---|---|---|
| 강원 (4) | 우수 | 평창효석문화제 | 9.4~9.13 |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 전국효석백일장, 메밀꽃밭을 걷다, 작가와의 만남, 이효석문학상 시상식 등 |
| | 유망 | 춘천마임축제 | 5.24~5.31 | 중앙로터리, 극장 몸짓 등 춘천시 전역 | • 아!水라장, 미친금요일, 도깨비난장, 도깨비어워드, 몸짓그룹 몸꾼 프로젝트 등 |
| | 유망 | 강원고성명태축제 | 10.29~11.1 | 거진읍 거진항 일원 | • 풍어제, 제례행사, 명태걸기 덕장시연, 명태 탁본뜨기, 관태체험, 명태낚시체험 등 |
| 충북 (2) | 유망 | 괴산고추축제 | 8.27~8.30 | 괴산읍 수진교~괴산대교, 괴산읍 일원 | • 고추별별 마당, 고추 방아장터, 고추 놀이마당, 고추 핫 먹거리 마당, 고추따기 체험 등 |
| | 유망 | 충주세계무술축제 | 8.22~8.30 | 세계무술공원 | • 택견한마당, 국제무예연무대회, 세계택견대회, K-1대회, 태권도 고수회 대회 등 |
| 충남 (6) | 최우수 | 강경발효젓갈축제 | 10.14~10.18 | 강경읍 일원 | • 젓갈김치 담그기, 인력거 문화유산탐방, 젓갈맞춤이벤트, 젓갈체험관, 왕새우잡기체험 등 |
| | 우수 | 한산모시문화제 | - | 한산모시관 일원 | • 한산모시옷패션쇼, 저산팔읍 길쌈놀이, 거리퍼레이드 등 |
| | 우수 | 부여서동연꽃축제 | 7.10~7.19 | 부여서동공원 (궁남지) 일원 | • 주제공연, 연 음식 전시·시식, 마 전시회, 시화전, 서동선화 연극공연, 풍등날리기 등 |
| | 유망 |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 10.9~10.11 | 해미읍성 일원 | •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읍성축성마당, 축성일꾼 새참마당, 읍성관아마당 등 |
| | 유망 | 홍성역사인물축제 | 9.11~9.13 | 홍주읍성 일원 | • 생생한 역사현장체험, 역사인물 퓨전극, 역사인물 小小 마당극, 브론즈 퍼포먼스 등 |
| | 유망 | 금강여울축제 | 7.24~7.26 |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일원 | • 물체험, 노내기샘 금강족욕, 전통뗏목타기, 민물고기·다슬기잡기, 종이배 체험 등 |
| 전북 (4) | 대표 | 김제지평선축제 | 10.7~10.11 |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 |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벼고을 민속놀이마당,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벽골제 제사 등 |

※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으로 취소

〈표 계속〉

| 지역 | 등급 | 축 제 명 | 기 간 | 장 소 | 주요프로그램 |
|---|---|---|---|---|---|
| 전북 (4) | 최우수 | 무주반딧불축제 | 8.29~9.6 | 무주군 일원 | • 환경 곤충체험행사, 문화 예술 놀이 행사, 민속체험, 연계 부대 행사 등 |
| | 우수 | 순창장류축제 | 10.29~11.1 | 순창전통 고추장민속마을, 일품공원 일원 | • 장류포럼, 뮤지컬 고추장, 2015 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비빔밥 만들기, 장류체험, 세계소스박람회 등 |
| | 유망 |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 10.2~10.4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 상상마칭 퍼레이드, 와일드쿠킹쇼, 감자삼굿 개봉, 옛날 인형극, 시랑천 프로그램천렵 체험, 화덕체험, 감자삼굿 등 |
| 전남 (7) | 최우수 | 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 | 3.20~3.23 |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 신비의 바닷길 체험, 새벽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영등살 놀이,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등 |
| | 최우수 | 강진청자축제 | 8.1~8.9 |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 | •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국내 도예작가 초대전, 물레 성형하기, 청자 상감 체험 등 |
| | 우수 | 담양대나무축제 | 5.1~5.5 |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 대북타고식, 대나무 스토리미션, 운수대통 한마당, 대(大) 댓고을 신비체험, 통(通) 댓고을 문화체험 등 |
| | 유망 | 정남진장흥물축제 | 7.31~8.6 | 장흥읍 탐진강, 편백숲우드랜드 일원 | • 지상최대물싸움, 천연약초힐링,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개막퍼레이드살수대첩 등 |
| | 유망 | 목포항구축제 (구.해양문화축제) | 7.24~7.28 | 삼학도, 목포항 일원 | • 천년의 사랑'갯가 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 풍어제, 어물난장 파시, 사랑의 다리, 삼합존 삼합데이 등 |
| | 유망 |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 5.22~5.26 | 한국차소리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 • 다신제, 티아트페스티벌, 한국명차선정대회, 다례시연, 차만들기, 찻잎따기 등 |
| | 유망 | 영암왕인문화축제 | 4.9~4.12 | 왕인박사 유적지 등 일원 | • 왕인박사 춘향대제, 두드림 난장, 氣찬 풍년놀이, 영암민속놀이, 왕인 학생예술대회 등 |

〈표 계속〉

| 지역 | 등급 | 축 제 명 | 기 간 | 장 소 | 주요프로그램 |
|---|---|---|---|---|---|
| 경북 (5) | 최우수 |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 5.1~5.10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온천 일원 | • 도자기 빚기, 망댕이가마 소성 체험, 찻사발그림그리기, 다례체험, 문경관광30선다트게임, 찻사발 쌓기 등 |
| | 우수 | 고령대가야체험 축제 | 4.9~4.12 | 대가야 역사테마파크, 대가야 박물관 일원 | • 금동관 제작 체험, 유물발굴체험, 산성 쌓기 체험, 움집제작, 복식체험, 저울추무게달기, 생활체험 등 |
| | 우수 | 봉화은어축제 | 8.1~8.8 | 봉화읍 체육공원, 내성천 일원 |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야간반두잡이, 은어숯불구이, 은어주제관, 은어낚시체험 등 |
| | 유망 | 포항국제불빛축제 | 7.30~8.2 | 영일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일원 | • 멀티퍼포밍 국제불꽃쇼, 불빛락페스티벌,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Light 터널 체험, 불빛 추억만들기 등 |
| | 유망 | 경주신라소리축제 | 10.8~10.11 | 경주시 첨성대 일원 | • 길놀이, 에밀레전 점등식, 개막식, 대동탑(등) 돌이, 신라관등놀이, 신라전통차 시음 등 |
| 경남 (3) | 최우수 | 산청한방약초축제 | 5.1~5.10 |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일원 | • 한방·항노화 체험, 산청혜민서 무료진료, 산청한약방재현, 마당극, 산청힐링 목화패션쇼 등 |
| | 우수 | 통영한산대첩축제 | 8.12~8.16 | 통영시 일원 | • 삼도수군 통제영 군점 및 통제사 행렬재현, 한산대첩 학익진 재현, 승전축하 주막, 통제영 수책 가설 등 |
| | 우수 | 마산가고파국화 축제 | 10.30~11.8 | 마산항 제1부두 일원 | • 삼도수군 통제영 군점 및 통제사 행렬재현, 한산대첩 학익진 재현, 승전축하 주막, 통제영 수책 가설 등 |
| 제주 (2) | 우수 | 제주들풀축제 | 3.5~3.8 | 새별오름 일원 | • 오름불놓기 , 무사안녕 횃불 대행진, 오름"눌"태우기, 들불희망기원제, 별빛누리 체험 등 |
| | 유망 | 제주도두오래물 축제 | 8.14~8.16 | 도두항, 오래물광장 일원 | • 오래물 용천수 체험-분수터널, 에어바운스, 노천당 체험, 도두봉 올레길, 수산물잡기 체험 등 |

※ 글로벌육성축제(3개) : 보령머드축제, 안동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2 문화관광축제 평가

## (1)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문화관광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축제의 질적 제고를 위함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5년 1월 ~ 12월

○ 평가대상 : 문화관광축제 44개 ※「한산모시문화제」는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취소

○ 평가내용 : 전문가 현장평가(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성과평가(지자체)

-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평가위원 3인(축제 관련 민간전문가 2인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1인)

·축제 기획서 사전평가(5점),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40점), 축제운영의 적절성(30점), 축제의 발전성(15점), 축제의 성과(10점)

- 자체 성과평가

·축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축제 방문객 수 산출, 경제효과 분석

### 추진 경위

○ 전문가 현장평가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회 개최(2015. 2월)

○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워크숍 개최(2015. 3월)

○ 문화관광축제 평가 실시(2015. 1~12월)

### 2015년 주요 개선사항

○ 신규축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급별 기준 점수 폭 확대

| 등급 | 기준 점수 | |
|---|---|---|
| | 기존 | 변경(2015년) |
| 최우수축제 | 75~100점 | 70~100점 |
| 우수축제 | 70~95점 | 65~95점 |
| 유망축제 | 60~85점 | 60~90점 |

○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항목 배점 조정

| 등급 | 평가항목 배점 | | 비고 |
|---|---|---|---|
| | 기존 | 변경(2015년) | |
| 사전 평가 | 10점 | 5점 | 5점 축소 |
| 운영 평가 | 80점 | 85점 | 5점 확대 |
| 성과 평가 | 10점 | 10점 | 지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 2015년 만족도조사 항목 대폭 축소(29개 → 10개) 시행

○ 평가위원과 축제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위원 구성 등 개선
- 평가위원 구성 확대 및 평가위원의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폭 교체
- 평가위원과 관련된 축제 및 지역 등을 배제하고 평가 실시

## (2) 2015년 평가 내용

### 추진방향

○ 문화관광축제의 등급별 고착화를 완화하고, 신규축제 진입 활성화
- 축제 등급별 기준점수 폭 확대, 일정점수 이하 축제는 퇴출

○ 축제전문가 중심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문화관광축제 질 제고
- 전년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각 지자체에 통보, 축제개선에 반영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자체성과 평가결과를 문화관광축제 선정시 반영

○ 각 축제별 소재와 자원을 특화한 주제프로그램을 중점 평가
- 축제 주제 프로그램의 완성도, 타 축제와의 차별성 등 축제콘텐츠 평가에 중점

※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대중연예인 참여 등 과도한 행사는 감점

○ 축제운영의 효율성, 편의성 및 안전성 등 평가

### 전문가 현장평가 세부내용

○ 평가대상 축제 배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위원 활동상황 등을 고려(상피제 적용)하여 평가대상축제 배정 (상반기/하반기 구분)

○ 평가방법

- 축제 기간 중 2~3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포함)동안 축제장에 체류하며 축제의 핵심프로그램 반드시 평가
-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평가하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는 주심 평가위원이 주도적으로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축제기획서, 2014년 평가보고서를 축제 개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송부
- 평가위원은 각 축제별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점수표, 주심평가위원은 평가점수표와 평가보고서를 문체부로 제출
- 축제의 성과평가는 평가위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5점 범위내에서 평가하고, 나머지 5점은 지자체의 자체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위원은 점수부여시 등급별 배점 범위내에서 평가

  ·대표축제/최우수축제 70~100점, 우수축제 65~95점, 유망축제 60~90점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3인)의 평균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점 및 최하점의 편차가 10점 이상일 경우,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최하점과 최고점과의 편차를 10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지자체 자체성과평가 세부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방문객 만족도 조사 | • 축제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별 설문조사시 공통적으로 조사할 설문항목은 반드시 포함 |
| 축제 경제효과 (직접효과) 분석 | • 조사분석 근거 및 산출방법 제시, 허수 제출 시 불이익 등 조치 |
| 축제 방문객 수 산출 | • 축제 주관기관에서 조사,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br>• 조사방법(일시, 구체적인 장소, 횟수, 투입인원 및 조사기관 등)과 조사결과(산출서식 포함) 제출<br>※ 외국인 단체관광객 모객 및 해외매체 기사화 실적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협조를 받아 집계(문화체육관광부) |

## (3) 2015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대상

| 등급 | 대표축제 | 최우수축제 | 우수축제 | 유망축제 |
|---|---|---|---|---|
| 서울(2) | - | - | - | 한성백제문화제<br>성북다문화음식축제* |
| 부산(1) | - | - | - | 동래읍성역사축제 |
| 대구(1) | - | - | - | 대구약령시한방축제 |
| 인천(1) | - | - | - | 인천펜타포트축제 |
| 광주(2) | - | 추억의7080충장축제 | - | 광산우리밀축제* |
| 대전(1) | - | - | - | 대전효문화뿌리축제* |
| 경기(3) | - | 이천쌀문화축제<br>자라섬재즈페스티벌 | - | 여주오곡나루축제 |
| 강원(4) | 화천산천어축제 | - | 평창효석문화제 | 춘천국제마임축제<br>강원고성명태축제* |
| 충북(2) | - | - | - | 괴산고추축제<br>충주세계무술축제 |
| 충남(6) | - | 강경젓갈축제 | 한산모시문화제<br>부여서동연꽃축제 |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br>금강여울축제*<br>홍성역사인물축제* |
| 전북(4) | 김제지평선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 순창장류축제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 전남(7) | - | 강진청자축제<br>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담양대나무축제 | 보성다향제,<br>녹차대축제<br>목포해양문화축제<br>정남진장흥물축제<br>영암왕인문화축제* |
| 경북(5) | - | 문경찻사발축제 | 고령대가야체험축제<br>봉화은어축제 | 포항불빛축제<br>경주신라소리축제* |
| 경남(3) | - | 산청한방약초축제 | 통영한산대첩축제<br>마산가고파국화축제 | - |
| 제주(2) | - | - | 제주들불축제 | 도두오래물축제* |
| 계(44) | 2개 | 9개 | 10개 | 23개 |

주 : *는 신규 축제

## (4) 평가결과 활용

○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자료로 활용

- 전문가 현장평가 결과는 선정시 50% 반영

○ 축제별 현장평가 및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축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자체 개선실적을 축제 평가 및 선정 시 반영

# II

# 지자체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종합



# 1 개 요

## (1) 조사개요

### 목 적

○ 과학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2015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를 진단한 후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축제 발전을 도모함

-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주체 : 축제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 조사시기 : 축제 전체기간(토·일요일 포함)

○ 조사대상 :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 조사항목 : 총 23개 항목

○ 유효표본 : 각 대상축제별 200명 이상

○ 응답방법 :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

※ 7단계 측정을 임의로 구성하거나 항목을 생략할 경우 '0'점 처리

### 세부 설문내용

| 구분 | 항목 수 | 주요 내용 |
|---|---|---|
| 방문객 만족도 | 10개 | • 축제의 재미, 프로그램 , 먹거리, 살거리, 사전홍보 등 |
| 방문객 비용지출 | 6개 | •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등 |
| 기타 일반사항 | 7개 | • 방문목적, 체류기간, 숙박여부, 재방문 등 |

### 조사 및 분석시 주의사항

○ 설문기간은 축제 전체기간에 걸쳐 같은 비율로 설문지를 받아야 하고 무작위적이고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본 추출

○ 설문에 응한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된 동기가 축제를 보러온 경우가 아니면 설문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

## (2) 축제 설문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세요? 당 축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 및 정보는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 Ⅰ. 만족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Ⅱ. 소비지출 | **아래 금액은 본인 포함**하여 (_____**명**)이 **지출**한 총액입니다. | |
|---|---|---|
| **교 통 비** | _____원 | 주유비, 주차료,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
| **숙 박 비** | _____원 | 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
| **식음료비** | _____원 | 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
| **유 흥 비** | _____원 |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
| **쇼 핑 비** | _____원 | 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
| **기 타** | _____원 | 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

| Ⅲ. 일반사항 | | | |
|---|---|---|---|
| **성 별** | 남 □ 녀 □ | **연 령** | _____세 |
| **방문목적** | 축제 때문에 일부러 이곳에 왔다 ( 그렇다□ 아니다□ ) | | |
| **체류기간** | 지금까지 축제장에 머문 시간 (머물 시간 포함하여 _____시간) | | |
| **숙박여부** |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 3박 4일 □ | | |
| **재 방 문** | 올해 첫 방문□ 이전에도 방문했음 (총_____회) | | |
| **거 주 지** | 지역주민□ 외지인일 경우 (_____시·도 _____시·군) | | |

# 2 분석대상 및 평가항목

## (1) 종합분석 대상축제

○ 종합분석은 크게 방문객 만족도와 방문객 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이 중 방문객 만족도는 40개 축제, 방문객 소비지출은 41개 축제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함

- '한산모시문화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

○ 방문객 만족도 분석 대상 : 40개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광주 광산우리밀축제, 경주신라소리문화축제는 지자체의 방문객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맞지 않아, 분석 결과에 미반영함

○ 방문객 소비지출 분석 대상 : 41개

-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광주 광산우리밀축제는 방문객 소비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맞지 않아, 분석 결과에 미반영함

| 만 족 도 (40개) | 소 비 지 출 (41개) |
|---|---|
| 한성백제문화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추억의7080충장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여주오곡나루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 괴산고추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문경찻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제주들불축제, 도두오래물축제 | 한성백제문화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대구약령시한방축제, 인천펜타포트축제, 추억의7080충장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여주오곡나루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 괴산고추축제, 충주세계무술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강진청자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문경찻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경주신라소리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제주들불축제, 도두오래물축제 |

## (2) 대상축제 유형 구분

○ 전체 축제를 소재의 특성에 따라 산업형과 비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형 축제에 강경젓갈, 강진청자, 고성명태, 괴산고추, 김제지평선(쌀), 담양대나무, 대구약령시, 마산국화, 문경찻사발, 보성다향(녹차), 산청한방약초, 순창장류, 완주푸드, 여주오곡나루(쌀과 고구마), 이천쌀문화(쌀) 등 15개 해당

- 2014년에는 산업형 축제에 12개 포함하였으나 2015년에는 3개 추가(고성명태, 마산국화, 완주푸드)
- 2014년 산업형 축제 : 강경젓갈, 강진청자, 괴산고추, 김제지평선(쌀), 담양대나무, 대구약령시, 문경찻사발, 보성녹차, 산청한방약초, 순창장류, 여주오곡나루(쌀과 고구마), 이천쌀문화(쌀) 등이 해당

○ 설문지는 각 축제별로 200매 이상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는데, 최소 201매부터 최대 590매를 회수함

| 축제명칭 | 유효표본(매) | 유형 | 축제명칭 | 유효표본(매) | 유형 |
|---|---|---|---|---|---|
| 강경젓갈 | 210 | 산업형 | 순창장류 | 317 | 산업형 |
| 강진청자 | 461 | 산업형 | 여주오곡 | 201 | 산업형 |
| 경주소리 | 300 | - | 영암왕인 | 448 | - |
| 고령대가야 | 363 | - | 완주푸드 | 309 | 산업형 |
| 고성명태 | 590 | 산업형 | 이천쌀 | 332 | 산업형 |
| 광주충장 | 237 | - | 인천펜타포트 | 415 | - |
| 괴산고추 | 294 | 산업형 | 자라섬재즈 | 413 | - |
| 금강여울 | 215 | - | 장흥물 | 540 | - |
| 김제지평선 | 317 | 산업형 | 제주들불 | 427 | - |
| 담양대나무 | 537 | 산업형 | 진도바닷길 | 446 | - |
| 대구약령 | 257 | 산업형 | 춘천마임 | 270 | - |
| 대전효문화 | 483 | - | 충주무술 | 498 | - |
| 도두오래물 | 350 | - | 통영한산 | 400 | - |
| 동래읍성 | 312 | - | 평창효석 | 288 | - |
| 마산국화 | 451 | 산업형 | 포항불빛 | 370 | - |
| 목포항구 | 507 | - | 한성백제 | 278 | - |
| 무주반딧불 | 314 | - | 해미읍성 | 220 | - |
| 문경찻사발 | 317 | 산업형 | 홍성역사 | 259 | - |
| 보성다향 | 485 | 산업형 | 화천산천어 | 497 | - |
| 봉화은어 | 390 | - | | | |
| 부여연꽃 | 223 | - | | | |
| 산청약초 | 423 | 산업형 | | | |

## (3) 평가항목

○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함

○ 2015년에는 만족도 평가항목 10개, 소비지출 평가항목 6개로 2014년에 비해 축소·단순화하였으며, 만족도의 경우 7단계 측정(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을 적용하여 분석함

| 구 분 | 설 문 내 용 |
|---|---|
| 만족도 | 1 이 축제가 재미있다 |
| | 2 축제 관련 프로그램이 좋다 |
| | 3 축제 관련 먹거리가 좋다 |
| | 4 축제 관련 살거리가 좋다 |
| | 5 축제 관련 사전 홍보가 잘 되었다 |
| | 6 축제장 내 안내·해설이 좋다 |
| | 7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 됐다 |
| | 8 축제장 시설이 안전해 보였다 |
| | 9 축제장의 접근성 및 주차장이 좋다 |
| | 10 재방문하거나 타인에게 방문을 유도하겠다 |
| 소비지출 | 교통비(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 등) |
| | 숙박비(민박, 호텔, 모텔, 펜션, 콘도 등) |
| | 식음료비(축제 개최지역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
| | 유흥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
| | 쇼핑비(축제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비 등) |
| | 기타(체험비, 입장료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 |

# 3 방문객 만족도 결과 종합

## (1) 연도별 만족도 변화

○ 2015년 만족도 평가는 5.16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함

- 평가항목은 2014년 29개 항목에서 10개로 변경되었는데, 2014년 만족도 4.87점보다 개선된 5.16점으로 나타나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비록, 메르스 영향으로 '한산모시문화제' 취소 등 전국적으로 축제분위기가 침체되기도 했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향상·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냄

| 년도 / 항목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2015 |
|---|---|---|---|---|---|---|---|---|---|---|---|---|---|---|
| 전체만족도 평 균 값 | 4.60 | 4.67 | 4.70 | 4.71 | 4.69 | 4.68 | 4.70 | 4.71 | 4.78 | 4.69 | 4.76 | 4.84 | 4.87 | 5.16 |
| 행사다양 | 4.84 | 5.00 | 4.98 | 5.01 | 4.96 | 4.96 | 4.99 | 4.97 | 5.07 | 4.97 | 5.03 | 5.15 | 5.08 | 5.38 |
| 행사재미 | 4.89 | 5.04 | 5.00 | 4.99 | 4.95 | 4.98 | 4.98 | 4.92 | 5.07 | 4.97 | 5.04 | 5.15 | 5.09 | |
| 체험프로 | 4.74 | 4.85 | 4.83 | 4.94 | 4.87 | 4.87 | 4.89 | 4.92 | 4.95 | 4.83 | 4.93 | 5.02 | 4.96 | 5.32 |
| 상품다양 | 4.23 | 4.37 | 4.41 | 4.38 | 4.37 | 4.34 | 4.42 | 4.46 | 4.50 | 4.48 | 4.54 | 4.58 | 4.73 | 4.86 |
| 상품품질 | 4.36 | 4.43 | 4.50 | 4.50 | 4.47 | 4.46 | 4.50 | 4.53 | 4.54 | 4.52 | 4.59 | 4.61 | 4.75 | |
| 상품가격 | 4.16 | 4.24 | 4.31 | 4.30 | 4.27 | 4.25 | 4.31 | 4.37 | 4.36 | 4.35 | 4.41 | 4.45 | 4.60 | |
| 음식다양 | 4.28 | 4.38 | 4.51 | 4.41 | 4.41 | 4.34 | 4.39 | 4.44 | 4.45 | 4.42 | 4.46 | 4.57 | 4.69 | 5.03 |
| 음식가격 | 4.06 | 4.16 | 4.22 | 4.26 | 4.28 | 4.19 | 4.24 | 4.32 | 4.33 | 4.30 | 4.35 | 4.45 | 4.57 | |
| 사전홍보 | 4.54 | 4.62 | 4.68 | 4.75 | 4.76 | 4.84 | 4.81 | 4.77 | 4.87 | 4.73 | 4.84 | 4.92 | 4.74 | 5.09 |
| 안내시설 | 4.77 | 4.72 | 4.77 | 4.84 | 4.85 | 4.86 | 4.85 | 4.89 | 4.95 | 4.87 | 4.93 | 5.03 | 4.90 | 5.11 |
| 안내책자 | 4.96 | 4.88 | 4.93 | 4.95 | 4.93 | 4.95 | 5.00 | 4.98 | 5.07 | 4.99 | 5.00 | 5.11 | 5.01 | |
| 요원친절 | 4.92 | 4.91 | 4.95 | 4.98 | 4.98 | 5.00 | 5.02 | 5.02 | 5.05 | 4.98 | 5.01 | 5.12 | 5.26 | - |
| 신속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5.11 | - |
| 접근용이 | 5.52 | 5.51 | 5.44 | 5.44 | 5.32 | 5.36 | 5.35 | 5.25 | 5.42 | 5.26 | 5.26 | 5.35 | 5.35 | 4.82 |
| 주차편리 | 4.39 | 4.23 | 4.21 | 4.31 | 4.33 | 4.30 | 4.28 | 4.30 | 4.40 | 4.25 | 4.42 | 4.43 | 4.62 | |
| 휴식공간 | 4.36 | 4.45 | 4.40 | 4.41 | 4.46 | 4.44 | 4.35 | 4.51 | 4.55 | 4.48 | 4.59 | 4.65 | 4.71 | - |
| 화 장 실 | 4.45 | 4.59 | 4.70 | 4.64 | 4.66 | 4.62 | 4.64 | 4.67 | 4.73 | 4.57 | 4.66 | 4.71 | 4.79 | - |
| 공간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4.95 | - |
| 문화이해 | 4.76 | 4.93 | 5.04 | 4.94 | 4.88 | 4.85 | 4.85 | 4.81 | 4.92 | 4.82 | 4.89 | 4.98 | 4.99 | 5.19 |
| 시설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5.06 | 5.25 |
| 절대만족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상대만족 | - | - | - | - | - | - | - | - | - | - | - | - | 5.01 | - |
| 감정만족 | - | - | - | - | - | - | - | - | - | - | - | - | 5.07 | - |
| 계속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5.27 | 5.39 |
| 추천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5.34 | |

## (2) 항목별 만족도

### 측정항목 변화

○ 2015년에는 만족도 측정항목은 기존 29개 항목 중 중복적이거나 의미성이 미흡한 항목들을 통합·축소하여 10개 항목으로 평가함

- 2014년 29개 항목 → 2015년 10개 항목

○ 측정항목 통합

- 2014년 행사 관련 「다양성」, 「재미」는 2015년 「축제 재미」로 통합
- 2014년 상품 관련 「다양성」, 「품질」, 「가격」은 2015년 「축제 살거리」로 통합
- 2014년 음식 관련 「다양성」, 「가격」은 2015년 「축제 먹거리」로 통합
- 2014년 「안내시설」, 「안내책자」는 2015년 「축제장 안내·해설」로 통합
- 2014년 「접근용이성」, 「주차편리성」은 2015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으로 통합
- 2014년 「계속참여」, 「추천의향」은 2015년 「재방문 및 타인 방문유도의사」로 통합

○ 측정항목 유지

- 「축제프로그램」, 「축제 사전홍보」, 「지역문화 이해」, 「시설 안전」 항목

○ 측정항목 제외

- 「요원친절」, 「신속대응」,「휴식공간」, 「화장실」, 「공간배치」 등 항목

<table>
<tr><th colspan="2">측정항목</th><th colspan="3">측정항목</th></tr>
<tr><th>2014년</th><th>2015년</th><th colspan="2">2014년</th><th>2015년</th></tr>
<tr><td>행사다양</td><td rowspan="2">축제 재미</td><td colspan="2">휴식공간</td><td>-</td></tr>
<tr><td>행사재미</td><td colspan="2">화 장 실</td><td>-</td></tr>
<tr><td>체험프로</td><td>축제 프로그램</td><td colspan="2">공간배치</td><td>-</td></tr>
<tr><td>상품다양</td><td rowspan="3">축제 살거리</td><td colspan="2">문화이해</td><td>지역문화 이해</td></tr>
<tr><td>상품품질</td><td colspan="2">시설안전</td><td>축제장 시설 안전</td></tr>
<tr><td>상품가격</td><td rowspan="4">전반적 만족</td><td>기념품·음식 등</td><td>-</td></tr>
<tr><td>음식다양</td><td rowspan="2">축제 먹거리</td><td>홍보·안내</td><td>-</td></tr>
<tr><td>음식가격</td><td>환경</td><td>-</td></tr>
<tr><td>사전홍보</td><td>축제 사전홍보</td><td>사회적 요인</td><td>-</td></tr>
<tr><td>안내시설</td><td rowspan="2">축제장 안내·해설</td><td colspan="2">절대만족</td><td>-</td></tr>
<tr><td>안내책자</td><td colspan="2">상대만족</td><td>-</td></tr>
<tr><td>요원친절</td><td>-</td><td colspan="2">감정만족</td><td>-</td></tr>
<tr><td>신속대응</td><td>-</td><td colspan="2">계속참여</td><td rowspan="2">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td></tr>
<tr><td>접근용이</td><td rowspan="2">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td><td colspan="2">추천의향</td></tr>
<tr><td>주차편리</td><td colspan="2"></td><td></td></tr>
</table>

## 항목별 만족도

○ 2015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축제 재미」로 5.38점(7.0만점)을 기록함

- 그 다음으로「축제 프로그램」 5.32점, 「축제장 시설 안전」 5.25점, 「지역문화 이해」 5.19점, 「안내 해설」5.1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항목은「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으로 4.82점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살거리」 4.86점, 「먹거리」 5.03점, 「사전홍보」 5.09점 순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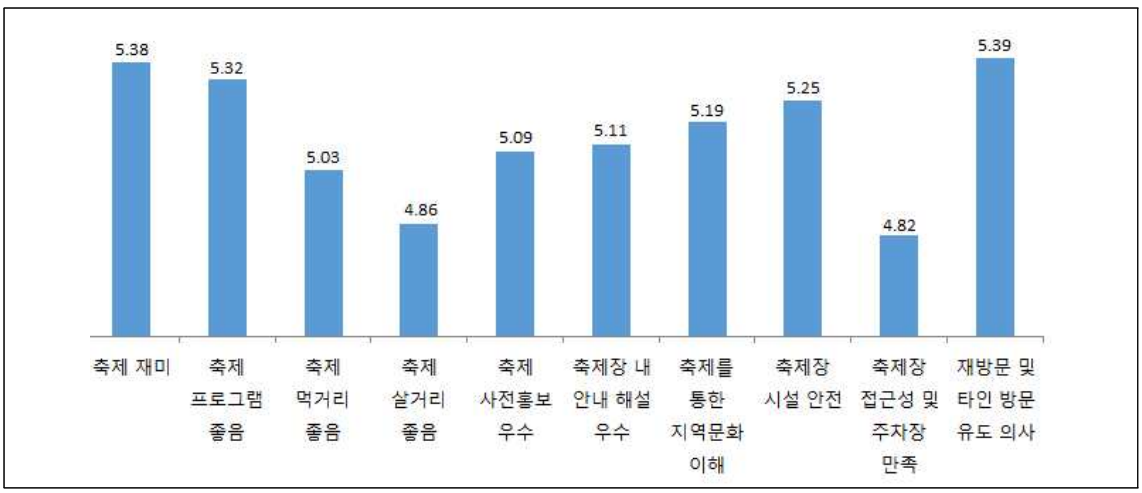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의 경우 5.39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축제 이미지 및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분석됨

○ 2014년에 비해 향상된 항목

- 행사재미 : 2014년 5.09점 → 2015년 5.38점
- 행사프로그램 : 2014년 4.96점 → 2015년 5.32점
- 살거리 : 2014년 4.69점 → 2015년 4.86점
- 먹거리 : 2014년 4.63점 → 2015년 5.03점
- 안내·해설 : 2014년 4.96점 → 2015년 5.11점
- 지역문화 이해 : 2014년 4.99점 → 2015년 5.19점
- 시설 안전 : 2014년 5.06점 → 2015년 5.25점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2014년 5.31점 → 2015년 5.39점

○ 2014년에 비해 감소한 항목

- 접근성 및 주차장 : 2014년 4.99점 → 2015년 4.82점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항목별 만족도 비교]

## (3) 축제 등급별 만족도

○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9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를 선정하여 지원·추진함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부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9개, 우수축제 9개, 유망축제 20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 보임

○ 등급별 만족도 평균에서는 대표축제가 5.29점, 우수축제 5.17점, 최우수 5.16점, 유망축제 5.14점 순으로 나타나 대표축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전년대비 등급별 만족도 향상

○ 2014년에는 대표축제 5.25점, 최우수 4.91점, 우수축제 4.85점, 유망축제 5.00점으로 나타나, 2015년 등급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등급별 상위항목 및 하위항목

○ 대표축제와 유망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재미」, 「프로그램」이 5.65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는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가 5.45점으로 가장 높게 분석됨

○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으로 나타났으며 우수축제는 「안내해설」, 유망축제는 「시설 안전」으로 분석됨

| 항목 \ 등급 | 대 표 | 최우수 | 우 수 | 유 망 |
|---|---|---|---|---|
| 평 균 값 | 5.29 | 5.16 | 5.17 | 5.14 |
| 축제 재미 | 5.65 | 5.36 | 5.24 | 5.41 |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5.65 | 5.35 | 5.17 | 5.34 |
| 축제 먹거리 좋음 | 5.05 | 5.04 | 4.99 | 5.05 |
| 축제 살거리 좋음 | 4.84 | 4.88 | 4.84 | 4.86 |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5.56 | 5.09 | 5.11 | 5.04 |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5.41 | 5.13 | 4.46 | 5.11 |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5.34 | 5.16 | 5.27 | 5.15 |
| 축제장 시설 안전 | 5.47 | 5.27 | 5.19 | 4.73 |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4.30 | 4.86 | 4.90 | 4.82 |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5.62 | 5.45 | 5.40 | 5.34 |

## (4) 축제 유형별 만족도

○ 전체 축제를 소재의 특성에 따라 산업형과 비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형 축제에 강경젓갈, 강진청자, 고성명태, 괴산고추, 김제지평선(쌀), 담양대나무, 대구약령시, 마산국화, 문경찻사발, 보성다향(녹차), 산청한방약초, 순창장류, 완주푸드, 여주오곡나루(쌀과 고구마), 이천쌀문화(쌀) 등 15개 해당

### 비산업형 축제가 높은 만족도 보임

○ 축제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비산업형 축제(5.43)가 산업형 축제(5.29)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이는 2014년 산업형 축제(5.01)가 비산업형 축제(4.89)보다 높았던 것과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항목별로는 산업형이 6개 항목, 비산업형이 5개 항목에서 우세

○ 산업형 축제가 더 높은 항목 : 6개 항목

- 「축제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안내·해설」, 「시설 안전,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항목

○ 비산업형 축제가 더 높은 항목 : 5개 항목

-「축제 재미」, 「사전홍보」, 「지역문화 이해」, 「접근성 및 주차장」항목

| 구 분 | 산 업 형 | 비산업형 | 차 이 |
|---|---|---|---|
| 평 균 값 | 5.29 | 5.43 | -0.14 |
| 축제 재미 | 5.23 | 5.37 | -0.14 |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5.14 | 4.97 | 0.17 |
| 축제 먹거리 좋음 | 5.08 | 4.72 | 0.36 |
| 축제 살거리 좋음 | 5.11 | 5.08 | 0.03 |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4.77 | 5.11 | -0.34 |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5.32 | 5.11 | 0.21 |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4.92 | 5.03 | -0.11 |
| 축제장 시설 안전 | 4.93 | 4.76 | 0.17 |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5.33 | 5.43 | -0.10 |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5.21 | 5.13 | 0.08 |

## (5) 축제별 만족도 비교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는 각 축제별 주최 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써,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 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전체축제 비교 (가나다 순)

| 항 목 | 평 균 | 강경젓갈 | 강진청자 | 고령 대가야 | 광주충장 | 괴산고추 | 금강여울 |
|---|---|---|---|---|---|---|---|
| 축제재미 | 5.38 | 4.53 | 5.15 | 5.37 | 5.43 | 5.41 | 5.25 |
| 프로그램 | 5.32 | 4.57 | 5.10 | 5.35 | 5.48 | 5.35 | 5.20 |
| 먹거리 | 5.03 | 4.74 | 4.81 | 5.06 | 4.86 | 5.15 | 4.49 |
| 살거리 | 4.86 | 4.80 | 5.02 | 4.93 | 4.35 | 5.20 | 4.41 |
| 사전홍보 | 5.09 | 4.95 | 4.99 | 5.25 | 4.87 | 5.09 | 4.65 |
| 안내해설 | 5.11 | 4.86 | 5.12 | 5.18 | 5.03 | 5.03 | 4.97 |
| 지역문화 | 5.19 | 4.87 | 5.45 | 5.43 | 4.81 | 5.38 | 5.08 |
| 시설안전 | 5.25 | 4.89 | 5.55 | 5.31 | 4.81 | 5.20 | 5.22 |
| 접근성/주차장 | 4.82 | 4.97 | 5.31 | 5.11 | 4.13 | 4.53 | 5.24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4.94 | 5.40 | 5.53 | 5.39 | 5.35 | 5.25 |

| 항 목 | 평 균 | 김제 지평선 | 담양 대나무 | 대구 약령시 | 대전 효문화 | 도두 오래물 | 동래읍성 |
|---|---|---|---|---|---|---|---|
| 축제재미 | 5.38 | 5.80 | 4.77 | 4.74 | 5.32 | 6.10 | 5.90 |
| 프로그램 | 5.32 | 5.70 | 4.78 | 4.70 | 5.39 | 6.10 | 5.80 |
| 먹거리 | 5.03 | 5.60 | 4.95 | 4.30 | 5.40 | 6.00 | 5.70 |
| 살거리 | 4.86 | 5.20 | 4.62 | 4.53 | 5.28 | 5.80 | 5.30 |
| 사전홍보 | 5.09 | 5.60 | 4.69 | 4.59 | 4.83 | 5.90 | 5.50 |
| 안내해설 | 5.11 | 5.30 | 4.60 | 5.14 | 5.23 | 6.00 | 5.40 |
| 지역문화 | 5.19 | 5.70 | 4.87 | 5.01 | 5.35 | 6.10 | 5.80 |
| 시설안전 | 5.25 | 5.50 | 4.83 | 5.07 | 5.39 | 6.10 | 5.60 |
| 접근성/주차장 | 4.82 | 4.30 | 4.40 | 4.84 | 5.50 | 5.90 | 5.20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50 | 5.09 | 5.22 | 5.29 | 6.10 | 5.80 |

〈표 계속〉

| 항 목 | 평 균 | 마산국화 | 목포항구 | 무주 반딧불 | 문경 찻사발 | 보성다향 | 봉화은어 |
|---|---|---|---|---|---|---|---|
| 축제재미 | 5.38 | 5.07 | 4.58 | 5.20 | 5.36 | 4.94 | 5.43 |
| 프로그램 | 5.32 | 4.75 | 4.55 | 5.30 | 5.38 | 4.96 | 5.38 |
| 먹거리 | 5.03 | 5.11 | 4.33 | 4.60 | 4.89 | 4.69 | 4.91 |
| 살거리 | 4.86 | 5.16 | 4.11 | 4.60 | 4.81 | 4.76 | 4.51 |
| 사전홍보 | 5.09 | 5.15 | 4.42 | 5.00 | 4.96 | 4.81 | 5.12 |
| 안내해설 | 5.11 | 5.37 | 4.32 | 5.10 | 5.06 | 4.83 | 5.22 |
| 지역문화 | 5.19 | 5.17 | 4.60 | 5.30 | 5.33 | 4.97 | 5.27 |
| 시설안전 | 5.25 | 5.29 | 4.69 | 5.40 | 5.28 | 4.92 | 5.21 |
| 접근성/주차장 | 4.82 | 5.29 | 4.40 | 4.00 | 4.94 | 4.39 | 4.60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46 | 4.63 | 5.20 | 5.40 | 5.15 | 5.41 |

| 항 목 | 평 균 | 부여서동 | 산청한방 | 순창장류 | 여주오곡 | 영암왕인 | 완주푸드 |
|---|---|---|---|---|---|---|---|
| 축제재미 | 5.38 | 5.51 | 5.73 | 5.60 | 5.58 | 5.05 | 5.60 |
| 프로그램 | 5.32 | 5.92 | 5.78 | 5.50 | 5.52 | 5.03 | 5.60 |
| 먹거리 | 5.03 | 5.16 | 5.47 | 5.50 | 5.62 | 4.89 | 5.60 |
| 살거리 | 4.86 | 5.02 | 5.43 | 5.50 | 5.46 | 4.72 | 5.10 |
| 사전홍보 | 5.09 | 5.07 | 5.43 | 5.40 | 5.05 | 4.99 | 5.40 |
| 안내해설 | 5.11 | 5.06 | 5.44 |  | 5.01 | 4.85 | 5.10 |
| 지역문화 | 5.19 | 5.47 | 5.70 | 5.80 | 5.50 | 4.94 | 5.40 |
| 시설안전 | 5.25 | 5.46 | 5.68 | 5.80 | 5.25 | 4.94 | 5.20 |
| 접근성/주차장 | 4.82 | 5.08 | 5.75 | 5.50 | 5.14 | 4.54 | 5.20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44 | 5.85 | 5.80 | 5.70 | 5.17 | 5.60 |

〈표 계속〉

| 항 목 | 평 균 | 이천쌀 | 인천 펜타포트 | 자라섬 재즈 | 장흥물 | 제주들불 | 진도 바닷길 |
|---|---|---|---|---|---|---|---|
| 축제재미 | 5.38 | 5.49 | 6.00 | 6.08 | 5.44 | 5.03 | 5.30 |
| 프로그램 | 5.32 | 5.47 | 5.72 | 5.83 | 5.24 | 4.79 | 5.27 |
| 먹거리 | 5.03 | 5.32 | 5.44 | 5.68 | 4.86 | 4.56 | 4.96 |
| 살거리 | 4.86 | 5.35 | 4.45 | 4.76 | 4.84 | 4.53 | 4.82 |
| 사전홍보 | 5.09 | 5.25 | 5.13 | 5.34 | 5.18 | 5.67 | 5.01 |
| 안내해설 | 5.11 | 5.23 | 5.11 | 5.20 | 4.97 | 5.16 | 5.14 |
| 지역문화 | 5.19 | 5.36 | 3.65 | 4.29 | 5.03 | 5.31 | 5.29 |
| 시설안전 | 5.25 | 5.38 | 5.46 | 5.22 | 5.06 | 4.85 | 5.19 |
| 접근성/주차장 | 4.82 | 4.86 | 4.73 | 4.63 | 4.43 | 5.23 | 5.11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56 | 5.58 | 5.96 | 5.39 | 5.75 | 5.37 |

| 항 목 | 평 균 | 춘천마임 | 충주무술 | 통영한산 | 고성명태 | 평창효석 | 포항불빛 |
|---|---|---|---|---|---|---|---|
| 축제재미 | 5.38 | 5.51 | 5.49 | 5.61 | 5.51 | 4.81 | 5.35 |
| 프로그램 | 5.32 | 5.25 | 5.43 | 5.49 | 5.36 | 4.53 | 5.21 |
| 먹거리 | 5.03 | 3.94 | 5.40 | 4.85 | 5.31 | 4.78 | 4.71 |
| 살거리 | 4.86 | 4.16 | 5.27 | 4.91 | 5.28 | 4.36 | 4.48 |
| 사전홍보 | 5.09 | 4.79 | 5.26 | 5.09 | 5.26 | 4.56 | 5.06 |
| 안내해설 | 5.11 | 5.18 | 5.21 | 4.96 | 5.52 | 4.61 | 4.84 |
| 지역문화 | 5.19 | 4.41 | 5.43 | 5.16 | 5.30 | 4.92 | 4.96 |
| 시설안전 | 5.25 | – | 5.46 | 5.07 | – | 4.93 | 5.01 |
| 접근성/주차장 | 4.82 | 4.07 | 5.24 | 4.07 | 4.49 | 4.86 | 4.29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86 | 5.34 | 5.21 | 3.93 | 4.88 | 5.31 |

〈표 계속〉

| 항 목 | 평 균 | 한성백제 | 해미읍성 | 홍성역사 | 화천 산천어 |
|---|---|---|---|---|---|
| 축제재미 | 5.38 | 5.36 | 5.70 | 5.44 | 5.49 |
| 프로그램 | 5.32 | 5.25 | 5.68 | 5.49 | 5.60 |
| 먹거리 | 5.03 | 4.78 | 5.28 | 5.12 | 4.49 |
| 살거리 | 4.86 | 4.29 | 4.95 | 4.79 | 4.48 |
| 사전홍보 | 5.09 | 4.49 | 5.29 | 5.04 | 5.51 |
| 안내해설 | 5.11 | 5.00 | 5.25 | 5.27 | 5.52 |
| 지역문화 | 5.19 | 5.16 | 5.57 | 5.35 | 4.98 |
| 시설안전 | 5.25 | 5.30 | 5.37 | 5.29 | 5.44 |
| 접근성/주차장 | 4.82 | 5.21 | 4.65 | 4.46 | 4.30 |
| 재방문 /추천의사 | 5.39 | 5.15 | 5.62 | 5.32 | 5.73 |

# 4 방문객 소비지출 결과 종합

## (1) 전제

○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교통비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됨

-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교통비 항목은 소비지출 비교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함

※ 단, 각 축제별 소비지출에서는 교통비 항목 제시

○ 아울러, 각각의 설문조사기관에서 집계한 소비지출 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를 보임. 일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였는 바,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숫자는 단순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람

## (2)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

○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48,131원으로써 최근 3년 평균값에 비해 11.6% 가량 감소함

(단위 : 원)

| 년 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2005 | 8,167 | 14,267 | 5,247 | 14,318 | 4,053 | 46,052 |
| 2006 | 9,542 | 15,382 | 5,056 | 14,886 | 4,108 | 48,974 |
| 2007 | 8,521 | 16,761 | 5,605 | 17,317 | 4,708 | 52,912 |
| 2008 | 7,707 | 15,128 | 5,150 | 14,876 | 5,393 | 48,254 |
| 2009 | 7,944 | 16,902 | 4,695 | 14,974 | 5,601 | 50,116 |
| 2010 | 8,712 | 16,163 | 4,777 | 14,846 | 4,112 | 48,610 |
| 2011 | 10,287 | 17,502 | 5,488 | 14,970 | 4,570 | 52,817 |
| 2012 | 11,334 | 17,758 | 6,742 | 15,614 | 5,273 | 56,721 |
| 2013 | 9,395 | 17,392 | 5,709 | 12,285 | 5,349 | 50,131 |
| 2014 | 11,135 | 21,099 | 5,548 | 13,233 | 5,445 | 56,460 |
| 최근 3년 평균 | 10,621 | 18,750 | 6,000 | 13,711 | 5,356 | 54,437 |
| 2015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3) 항목별 소비지출

○ 2015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3.5%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 22.0%, 숙박비 19.7%, 기타비 14.4%, 유흥비 10.3%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과 비교해 보면, 숙박비·기타비는 증가한 반면, 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년에 비해 숙박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류시간의 증대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되며 입장료 등의 유료화로 인해 기타수입도 증가함

○ 하지만 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상품·기념품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향후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먹거리·살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 |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2015년 | 금 액 (원)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 구성비(%) | 19.7% | 33.5% | 10.3% | 22.0% | 14.4% | 100.0% |
| 최근 3년 | 금 액 (원) | 10,621 | 18,750 | 6,000 | 13,711 | 5,356 | 54,437 |
| | 구성비(%) | 19.5% | 34.4% | 11.0% | 25.2% | 9.8% | 100.0% |

## (4) 축제 등급별 소비지출

○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 등급별로 비교해 보면 최우수축제가 54,29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망축제 50,180원, 우수축제 39,624원, 대표축제 37,141원 순으로 나타남

○ 등급별 소비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축제등급에서 식음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유흥비가 가장 낮았음

(단위 : 원)

|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전 체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대 표 | 3,347 | 14,181 | 2,989 | 9,834 | 6,791 | 37,141 |
| 최우수 | 9,157 | 17,055 | 5,056 | 16,073 | 6,956 | 54,297 |
| 우 수 | 8,633 | 14,460 | 3,349 | 8,176 | 5,006 | 39,624 |
| 유 망 | 10,561 | 16,662 | 5,833 | 9,379 | 7,745 | 50,180 |

## (5) 축제 유형별 소비지출

○ 2015년도 문화관광축제를 핵심소재에 따라 산업형 축제와 비산업형 축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비산업형 축제의 소비지출 규모가 산업형 축제의 107.2%를 기록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항목별로는 산업형 축제가 쇼핑비에서 절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의 항목에서는 비산업형 축제의 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남

(단위 : 원)

|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평 균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산업형 | 7,238 | 13,864 | 3,813 | 15,299 | 5,827 | 46,041 |
| 비산업 | 10,770 | 17,459 | 5,651 | 7,900 | 7,557 | 49,336 |
| 비산업/산업 | 148.8% | 125.9% | 148.2% | 51.6% | 129.7% | 107.2% |

## (6) 축제별 소비지출 비교

###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축제 : 인천펜타포트축제

○ 교통비를 제외하고 2015년에 열린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방문객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축제는 인천펜타포트축제(206,402원)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 88,899원, 통일고성명태축제 81,741원,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64,970원, 강진청자축제 61,970원 순으로 높았음

### 항목별로 소비지출이 높은 축제

○ 숙박비

- 인천펜타포트축제가 60,61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 28,034원, 통영한산대첩축제 22,291원, 경주신라소리축제 21,820원, 제주들불축제 19,44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식음료비

- 인천펜타포트축제가 40,32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남진장흥물축제 28,340원, 홍성역사인물축제 27,392원,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26,200원, 충주세계무술축제 21,88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유흥비

- 인천펜타포트축제가 30,417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청한방약초축제 18,777

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11,657원, 동래읍성역사축제 10,052원, 충주세계무술축제 9,693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쇼핑비

- 괴산고추축제가 29,31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진청자축제 26,720원, 이천쌀문화축제 25,903원, 문경전통찻사발축제 21,674원, 인천펜타포트축제 20,819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비

- 인천펜타포트축제가 54,23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고성명태축제 28,192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2,454원, 제주들불축제 17,323원, 춘천국제마임축제 14,344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원)

| 축 제 명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평 균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강경젓갈 | 2,034 | 15,886 | 344 | 14,616 | 197 | 33,077 |
| 강진청자 | 8,340 | 16,240 | 3,240 | 26,720 | 7,430 | 61,970 |
| 경주소리 | 21,820 | 21,869 | - | 6,865 | 3,048 | 53,602 |
| 고령대가야 | 1,796 | 10,945 | 1,146 | 6,326 | 2,860 | 23,073 |
| 광주충장 | 2,591 | 18,241 | 3,336 | 15,027 | 323 | 39,518 |
| 괴산고추 | 6,593 | 16,029 | 3,239 | 29,316 | 5,073 | 60,250 |
| 금강여울 | 2,234 | 13,312 | 530 | 3,061 | 2,118 | 21,255 |
| 김제지평선 | 3,456 | 12,166 | 1,446 | 10,579 | 2,295 | 29,942 |
| 담양대나무 | 8,895 | 16,385 | 4,075 | 5,500 | 4,715 | 39,570 |
| 대구약령시 | 3,911 | 5,835 | 1,562 | 7,700 | 1,949 | 20,957 |
| 대전효문화 | 8,752 | 19,330 | 11,657 | 9,235 | 7,047 | 56,021 |
| 도두오래물 | 11,877 | 5,549 | 9,434 | 19,651 | 4,094 | 50,604 |
| 동래읍성 | 14,270 | 7,492 | 10,052 | 9,561 | 4,304 | 45,677 |
| 마산국화 | 4,914 | 17,637 | 6,377 | 14,617 | 5,721 | 49,266 |
| 목포항구 | 6,560 | 15,255 | 6,115 | 5,765 | 4,960 | 38,655 |
| 무주반딧불 | 10,639 | 15,502 | 3,612 | 8,781 | 4,904 | 43,438 |
| 문경찻사발 | 5,885 | 12,892 | 2,291 | 21,674 | 6,190 | 48,932 |
| 보성다향 | 8,725 | 16,820 | 2,740 | 10,865 | 4,290 | 43,440 |
| 봉화은어 | 4,448 | 11,138 | 3,373 | 4,587 | 4,540 | 28,086 |

〈표 계속〉

(단위 : 원)

| 축 제 명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 타 | 합 계 |
|---|---|---|---|---|---|---|
| 평 균 | 9,478 | 16,144 | 4,978 | 10,607 | 6,924 | 48,131 |
| 부여서동 | 6,537 | 12,102 | 629 | 1,015 | 436 | 20,719 |
| 산청한방 | 28,034 | 13,320 | 18,777 | 16,599 | 12,171 | 88,899 |
| 순창장류 | 4,228 | 14,400 | 2,196 | 18,481 | 2,507 | 41,812 |
| 여주오곡 | 2,930 | 6,236 | 448 | 6,024 | 939 | 16,577 |
| 영암왕인 | 3,235 | 14,000 | 5,060 | 4,225 | 2,260 | 28,780 |
| 완주푸드 | 2,058 | 11,991 | 1,453 | 10,010 | 2,091 | 27,603 |
| 이천쌀 | 1,028 | 14,581 | 1,419 | 25,903 | 3,648 | 46,578 |
| 인천펜타포트 | 60,618 | 40,328 | 30,417 | 20,819 | 54,238 | 206,420 |
| 자라섬재즈 | 9,805 | 20,632 | 4,592 | 4,048 | 22,454 | 61,530 |
| 장흥물 | 8,840 | 28,340 | 4,380 | 6,430 | 3,560 | 51,550 |
| 제주들불 | 19,441 | 11,865 | 4,759 | 7,833 | 17,323 | 61,221 |
| 진도바닷길 | 14,060 | 26,200 | 7,890 | 11,290 | 5,290 | 64,730 |
| 춘천마임 | 5,740 | 15,842 | 5,238 | 4,056 | 14,344 | 45,219 |
| 충주무술 | 9,007 | 21,880 | 9,693 | 5,992 | 2,439 | 49,010 |
| 통영한산 | 22,291 | 18,049 | 5,148 | 5,822 | 4,319 | 55,629 |
| 고성명태 | 17,534 | 17,546 | 7,591 | 10,878 | 28,192 | 81,741 |
| 평창효석 | 5,145 | 17,624 | 2,439 | 9,400 | 2,636 | 37,243 |
| 포항불빛 | 8,914 | 17,212 | 6,121 | 5,713 | 5,239 | 43,197 |
| 한성백제 | 7,551 | 16,163 | 1,449 | 6,439 | 5,163 | 36,765 |
| 해미읍성 | 5,880 | 11,487 | 2,210 | 4,770 | 401 | 24,748 |
| 홍성역사 | 4,730 | 27,392 | 3,108 | 9,595 | 6,892 | 51,717 |
| 화천산천어 | 3,238 | 16,196 | 4,531 | 9,089 | 11,287 | 44,341 |

# 5 외지관광객 비율

## 전체 외지관광객 비율은 68.6% 차지

○ 2015년 문화관광축제를 방문한 참가자 중에서 외지관광객은 68.6%, 지역주민은 31.4%로 나타나, 외지관광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축제별 외지관광객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담양대나무축제·영암왕인문화축제가 9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96.6%, 정남진장흥물축제 93.3%, 봉화은어축제 93.1%, 화천산천어축제 93.0% 순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방문 비율이 높은 축제로는 총 12개로 나타나며 이 중,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87.2%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 82.5%, 대구약령시한방축제 80.9%, 도두오래물축제 72.0%, 제주들불축제 71.4%, 마산가고파국화축제 66.0% 순임

| 축제명칭 | 비율(%) | | 축제명칭 | 비율(%) | |
|---|---|---|---|---|---|
| | 지역주민 | 외지관광객 | | 지역주민 | 외지관광객 |
| 강경젓갈 | 21.9 | 78.1 | 산청한방 | 21.0 | 79.0 |
| 강진청자 | 10.4 | 89.6 | 순창장류 | 11.4 | 88.6 |
| 경주소리 | 28.7 | 71.3 | 여주오곡 | 41.8 | 58.2 |
| 고령대가야 | 13.2 | 86.8 | 영암왕인 | 2.2 | 97.8 |
| 고성명태 | 45.8 | 54.2 | 완주푸드 | 18.4 | 81.6 |
| 광주충장 | 18.4 | 81.6 | 이천쌀 | 20.4 | 79.6 |
| 괴산고추 | 23.1 | 76.9 | 인천펜타포트 | 27.7 | 72.3 |
| 금강여울 | 31.2 | 68.8 | 자라섬재즈 | 9.9 | 90.1 |
| 김제지평선 | 16.7 | 83.3 | 장흥물 | 6.7 | 93.3 |
| 담양대나무 | 2.2 | 97.8 | 제주들불 | 71.4 | 28.6 |
| 대구약령시 | 80.9 | 19.1 | 진도바닷길 | 3.4 | 96.6 |
| 대전효문화 | 87.2 | 12.8 | 춘천마임 | 57.8 | 42.2 |
| 도두오래물 | 72.0 | 28.0 | 충주무술 | 53.8 | 46.2 |
| 동래읍성 | 82.5 | 17.5 | 통영한산 | 37.1 | 62.9 |
| 마산국화 | 66.0 | 34.0 | 평창효석 | 10.1 | 89.9 |
| 목포항구 | 7.1 | 92.9 | 포항불빛 | 55.9 | 44.1 |
| 무주반딧불 | 10.2 | 89.8 | 한성백제 | 60.3 | 39.7 |
| 문경찻사발 | 10.1 | 89.9 | 해미읍성 | 44.5 | 55.5 |
| 보성다향 | 9.9 | 90.1 | 홍성역사 | 65.6 | 34.4 |
| 봉화은어 | 6.9 | 93.1 | 화천산천어 | 7.0 | 93.0 |
| 부여서동 | 14.8 | 85.2 | 평균 | 31.4 | 68.6 |

# 6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72.7% 차지

○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주 동기입니까?”라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즉,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사람의 비율은 72.7%로 높게 나타남

○ 축제별로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을 살펴보면, 평창효석문화제가 100.0%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통영한산대첩축제 97.7%,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95.1%, 김제지평선축제 95.0%,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4.8%, 봉화은어축제 93.8%, 순창장류축제 92.4%, 화천산천어축제 91.7% 순으로 높았음

○ 반면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이 낮은 축제를 살펴보면, 금강여울축제가 18.3%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춘천국제마임축제 29.8%, 경주신라소리축제 30.6%, 홍성역사인물축제 40.5% 순으로 분석됨

| 축제명칭 | 비율(%) | 축제명칭 | 비율(%) | 축제명칭 | 비율(%) |
|---|---|---|---|---|---|
| 강경젓갈 | 89.5 | 마산국화 | 43.7 | 장흥물 | 83.5 |
| 강진청자 | 82.6 | 목포항구 | 67.3 | 제주들불 | 72.8 |
| 경주소리 | 30.6 | 무주반딧불 | 90.8 | 진도바닷길 | 95.1 |
| 고령대가야 | 89.3 | 보성다향 | 73.6 | 춘천마임 | 29.8 |
| 고성명태 | 58.3 | 봉화은어 | 93.8 | 충주무술 | 75.0 |
| 광주충장 | 54.8 | 부여서동 | 83.4 | 통영한산 | 97.7 |
| 괴산고추 | 84.0 | 산청한방 | 86.3 | 평창효석 | 100.0 |
| 금강여울 | 18.3 | 순창장류 | 92.4 | 한성백제 | 59.0 |
| 김제지평선 | 95.0 | 여주오곡 | 68.0 | 해미읍성 | 81.4 |
| 담양대나무 | 66.7 | 영암왕인 | 88.6 | 홍성역사 | 40.5 |
| 대구약령시 | 42.0 | 완주푸드 | 94.8 | 화천산천어 | 91.7 |
| 도두오래물 | 51.0 | 이천쌀 | 80.2 | | |
| 동래읍성 | 90.4 | 자라섬재즈 | 49.4 | **평균** | **72.7** |

# III

# 지자체의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결과



# 1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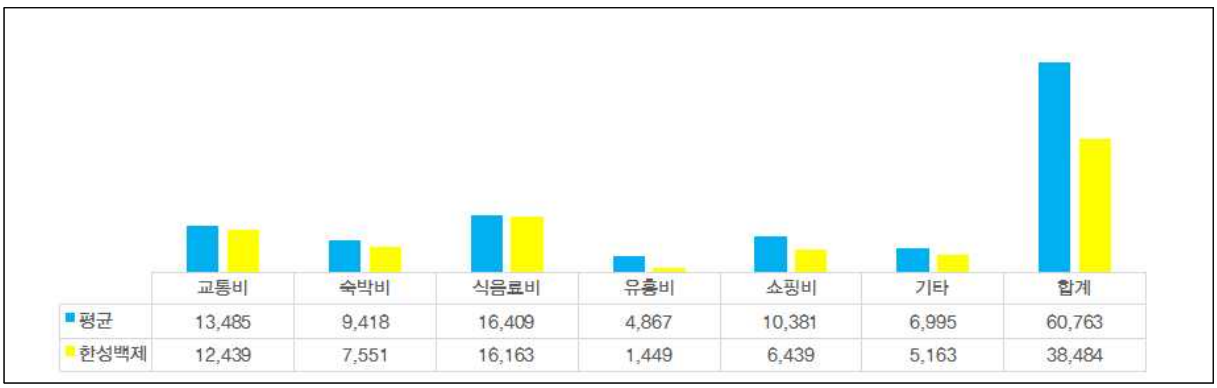
한성백제문화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장 시설안전과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 등은 낮게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들의 낮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제의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 확보 및 안내·홍보체계 개선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한성백제 | 5.36 | 5.25 | 4.78 | 4.29 | 4.49 | 5.00 | 5.16 | 5.30 | 5.21 | 5.15 | 5.00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3.3%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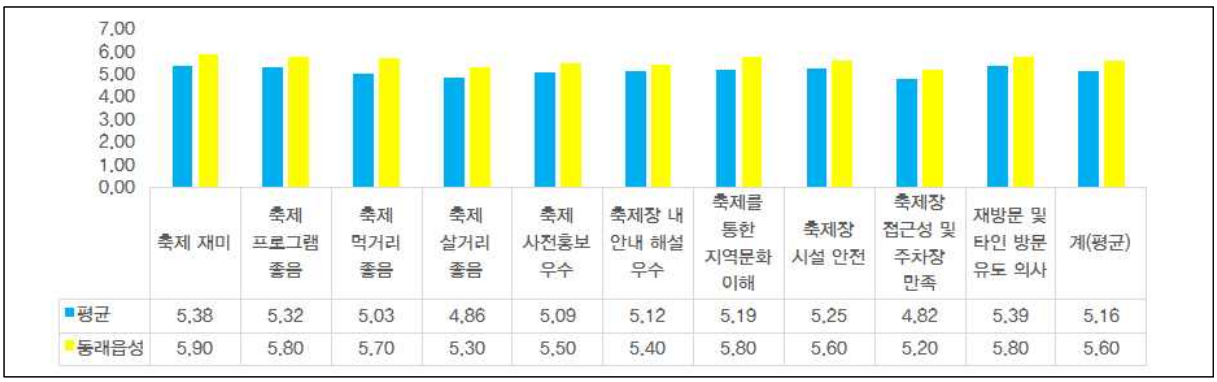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한성백제 | 12,439 | 7,551 | 16,163 | 1,449 | 6,439 | 5,163 | 38,484 |

# 2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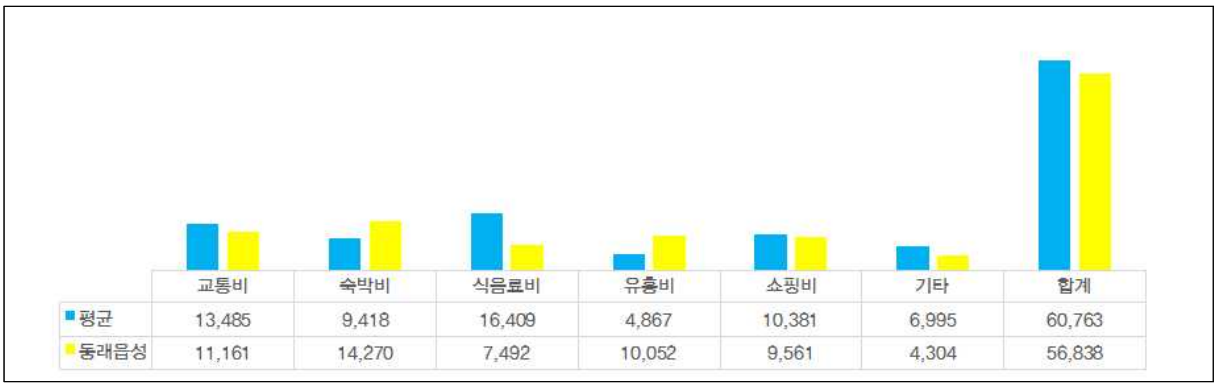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이러한 결과로 인해 축제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가 전국 평균(5.39)을 크게 상회함. 다만, 축제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 살거리, 접근성 및 주차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동래읍성 | 5.90 | 5.80 | 5.70 | 5.30 | 5.50 | 5.40 | 5.80 | 5.60 | 5.20 | 5.80 | 5.60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과는 달리,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3.5% 수준으로 다소 낮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흥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이색적인 먹거리·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동래읍성 | 11,161 | 14,270 | 7,492 | 10,052 | 9,561 | 4,304 | 56,838 |

# 3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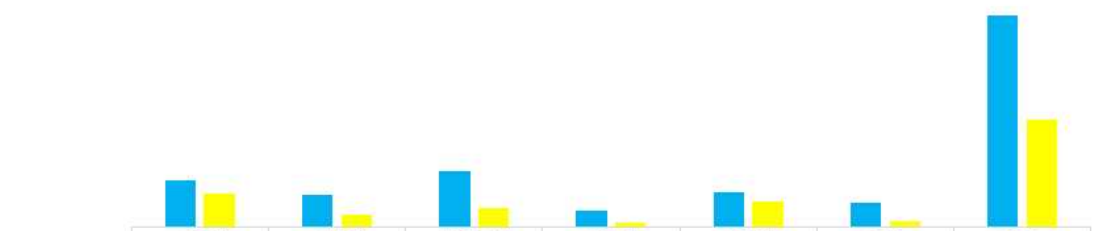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안내 해설,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높았던 반면,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지역문화 이해·시설안전·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등은 다소 낮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를 시설·프로그램·이벤트 등과 연계해야만 축제의 재미와 의미를 강화할 수 있음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대구약령한방 | 4.74 | 4.70 | 4.30 | 4.53 | 4.59 | 5.14 | 5.01 | 5.07 | 4.84 | 5.22 | 4.81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0.8%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유흥비·식음료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와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체류시간 확대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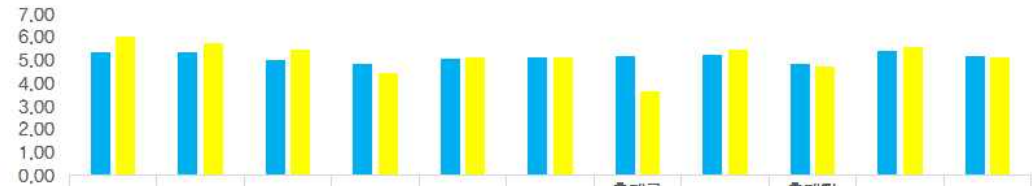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대구약령한방 | 9,929 | 3,911 | 5,835 | 1,562 | 7,700 | 1,949 | 30,886 |

# 4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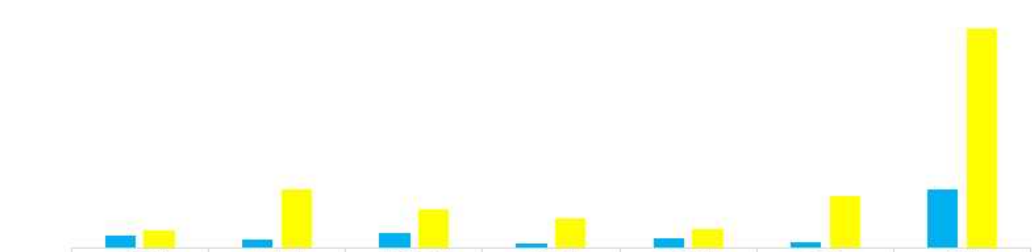
펜타포트음악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사전홍보·시설 안전 만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살거리·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또한,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만족도와 유사하게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지역문화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인천펜타포트 | 6.00 | 5.72 | 5.44 | 4.45 | 5.13 | 5.11 | 3.65 | 5.46 | 4.73 | 5.58 | 5.13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370.7% 수준으로 매우 높았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타 축제에 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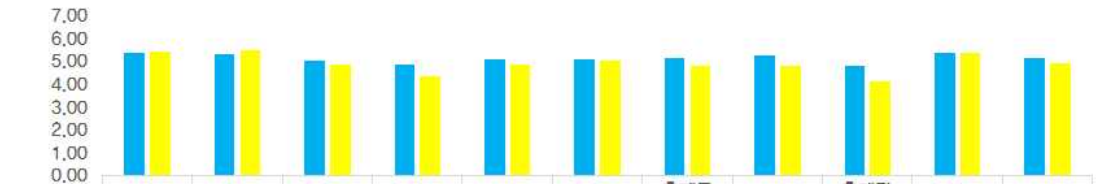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인천펜타포트 | 18,853 | 60,618 | 40,328 | 30,417 | 20,819 | 54,238 | 225,272 |

# 5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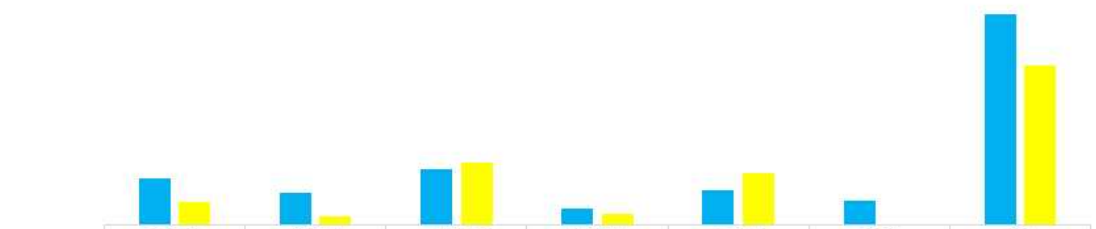
7080 충장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재방문과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동일한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은 높았던 반면,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당 축제가 도심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시설 안전, 주차장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홍보마케팅가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광주 충장 | 5.43 | 5.48 | 4.86 | 4.35 | 4.87 | 5.03 | 4.81 | 4.81 | 4.13 | 5.39 | 4.9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6.0%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쇼핑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숙박비·유흥비·기타비는 낮게 분석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야간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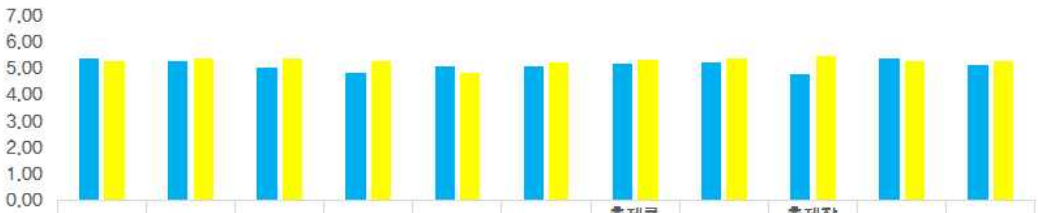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광주 충장 | 6,650 | 2,591 | 18,241 | 3,336 | 15,027 | 323 | 46,168 |

# 6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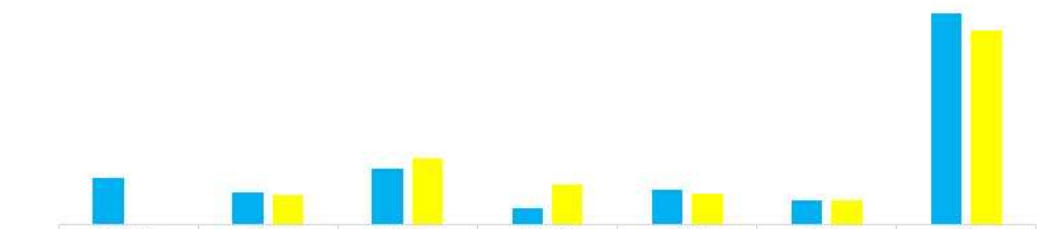
효문화뿌리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항목별로도 축제 재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다만, 만족도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이는 축제 프로그램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눈높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대전효문화 | 5.32 | 5.39 | 5.40 | 5.28 | 4.83 | 5.23 | 5.35 | 5.39 | 5.50 | 5.29 | 5.30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2.2% 수준으로 다소 낮았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숙박비·쇼핑비는 다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이색적인 살거리 발굴 및 체류시간 증대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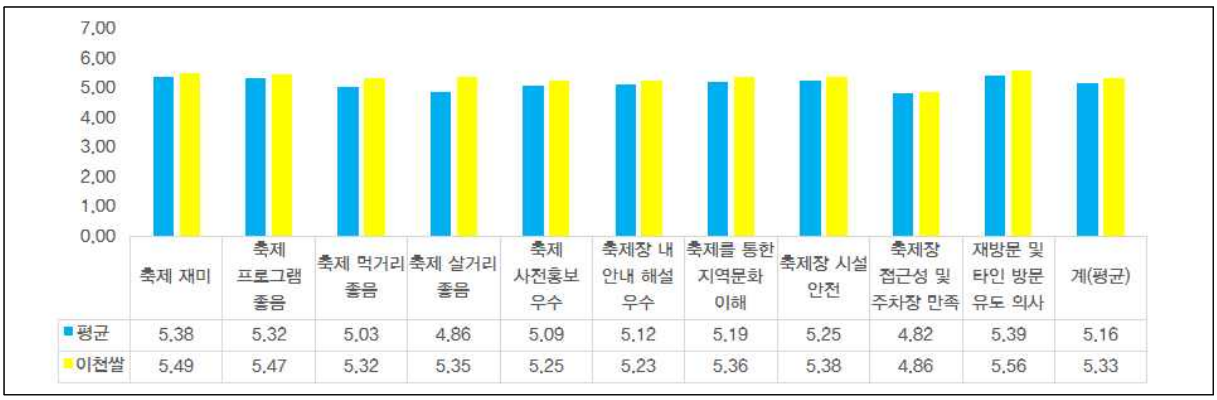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대전효문화 | – | 8,752 | 19,330 | 11,657 | 9,235 | 7,047 | 56,021 |

# 7 이천 쌀문화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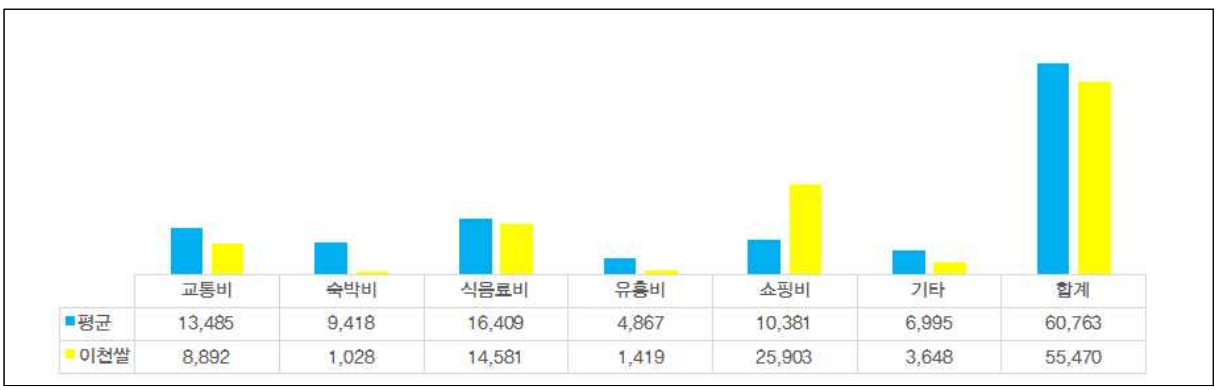
쌀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음. 또한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측면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 방문객들은 축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은 감안할 때, 교통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이천쌀 | 5.49 | 5.47 | 5.32 | 5.35 | 5.25 | 5.23 | 5.36 | 5.38 | 4.86 | 5.56 | 5.33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과는 달리,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1.3%로 다소 낮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우선적으로 체류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숙박관광객 증대로 인한 소비지출 확대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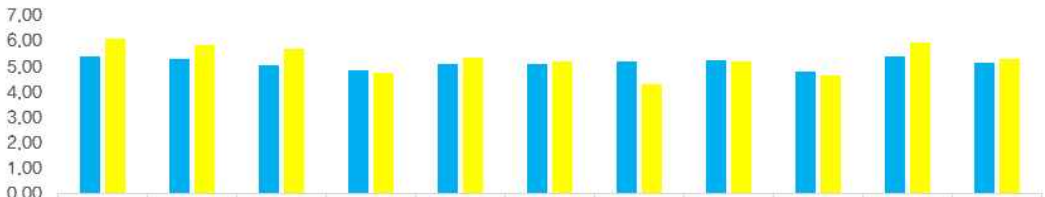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이천쌀 | 8,892 | 1,028 | 14,581 | 1,419 | 25,903 | 3,648 | 55,470 |

# 8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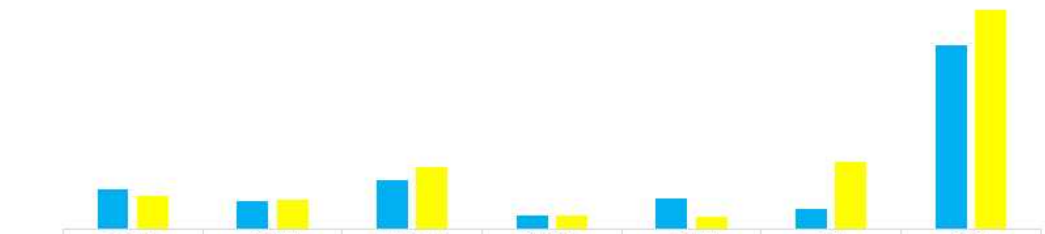
국제재즈페스티벌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 만족이 높았던 반면 살거리·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추겟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축제에 비해 집객력이 강한 축제라는 특성상 안전성·편의성 강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방문객들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높게 분석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자라섬재즈 | 6.08 | 5.83 | 5.68 | 4.76 | 5.34 | 5.20 | 4.29 | 5.22 | 4.63 | 5.96 | 5.30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19.5%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식음료비·기타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유흥비·쇼핑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특산품 등 설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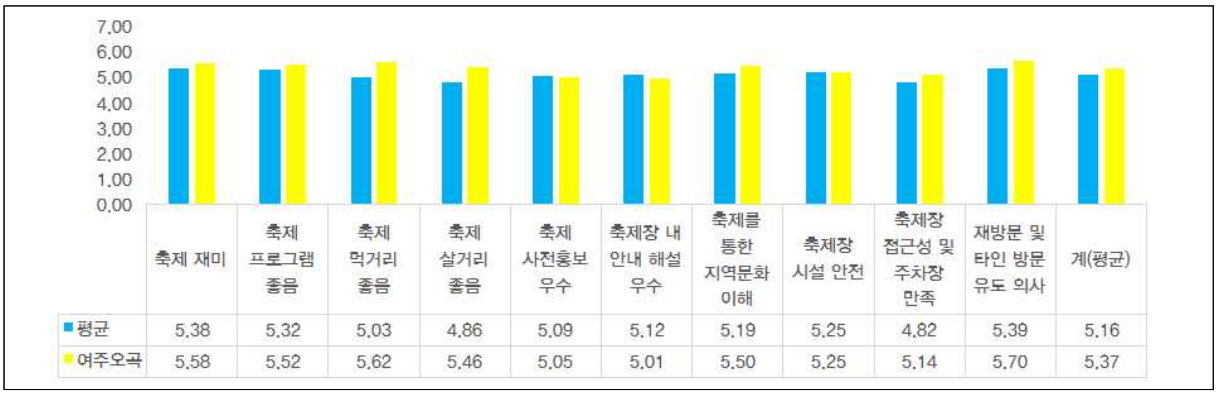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자라섬재즈 | 11,089 | 9,805 | 20,632 | 4,592 | 4,048 | 22,454 | 72,619 |

# 9 여주 오곡나루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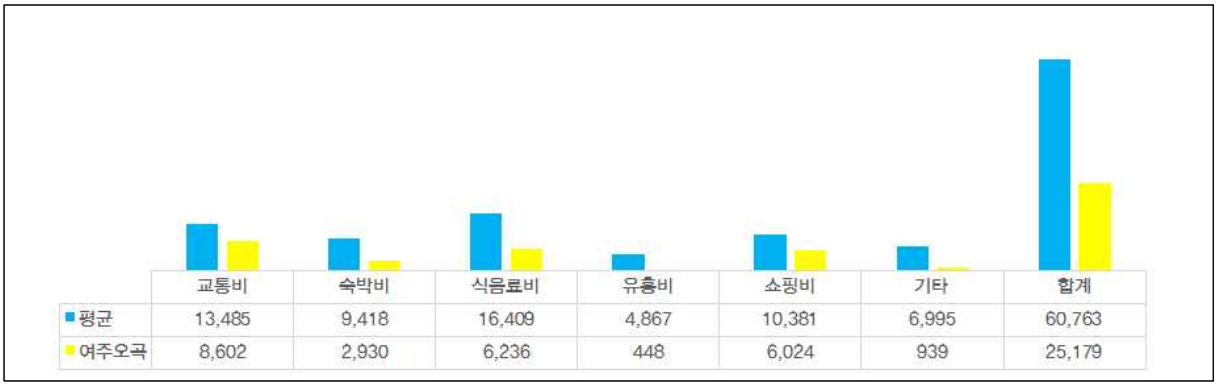
오곡나루축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높았던 반면, 사전홍보·안내해설 만족은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 서비스인 안내 해설 강화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여주오곡 | 5,58 | 5,52 | 5,62 | 5,46 | 5,05 | 5,01 | 5,50 | 5,25 | 5,14 | 5,70 | 5,37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41.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이는 만족도·재방문·방문유도의사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향토음식·특산품 등 먹거리 및 살거리의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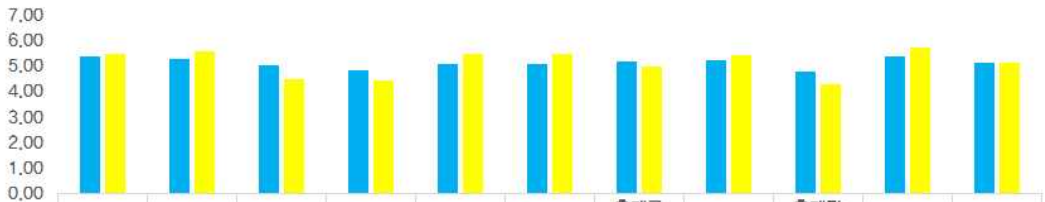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여주오곡 | 8,602 | 2,930 | 6,236 | 448 | 6,024 | 939 | 25,179 |

# 10 화천 산천어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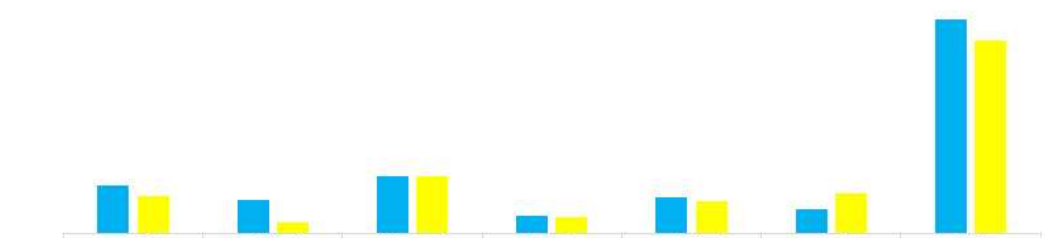
산천어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사전홍보·안내해설·축제안전은 높았던 반면, 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았음. 방문객의 재방문 및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높게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살거리의 상품화 방안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도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화천산천어 | 5.49 | 5.60 | 4.49 | 4.48 | 5.51 | 5.52 | 4.98 | 5.44 | 4.30 | 5.73 | 5.15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0.5%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타비 외에는 모든 항목에서 낮았으며 특히, 숙박비가 다른 지출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음. 이는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숙박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숙박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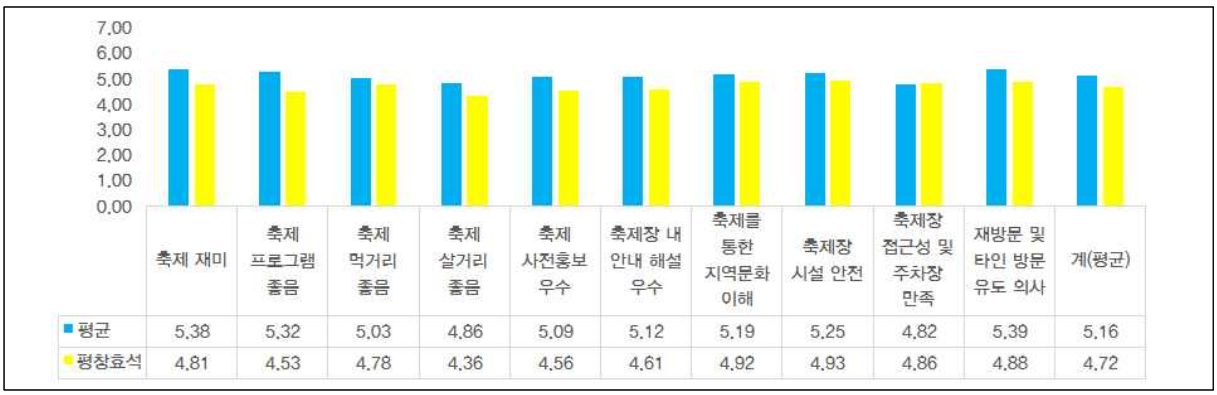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화천산천어 | 10,651 | 3,238 | 16,196 | 4,531 | 9,089 | 11,287 | 54,992 |

# 11 평창 효석문화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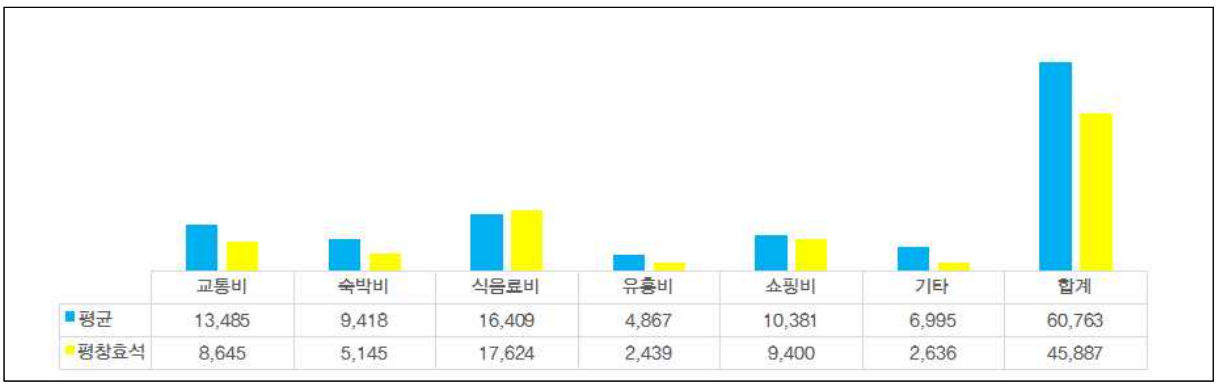
효석문화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의사 또한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제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평창효석 | 4.81 | 4.53 | 4.78 | 4.36 | 4.56 | 4.61 | 4.92 | 4.93 | 4.86 | 4.88 | 4.7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5.5%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와 유흥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방문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체류시간 증대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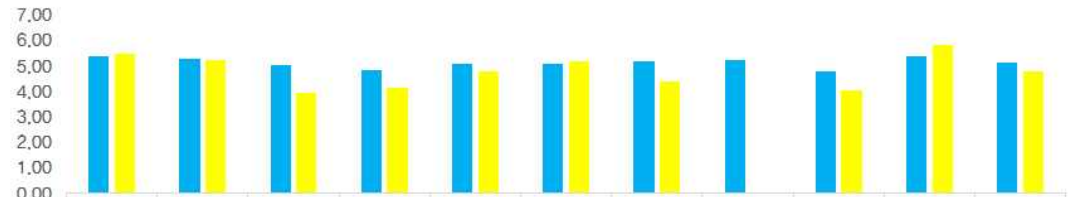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평창효석 | 8,645 | 5,145 | 17,624 | 2,439 | 9,400 | 2,636 | 45,887 |

# 12 춘천 마임축제

## 만 족 도

마임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안내 해설 만족은 높았던 반면, 축제 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낮았음.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전반적 축제 만족도와는 달리 높게 분석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먹거리·살거리 등의 발굴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춘천마임 | 5,51 | 5,25 | 3,94 | 4,16 | 4,79 | 5,18 | 4,41 | 0,00 | 4,07 | 5,86 | 4,80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8.1%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흥비·기타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쇼핑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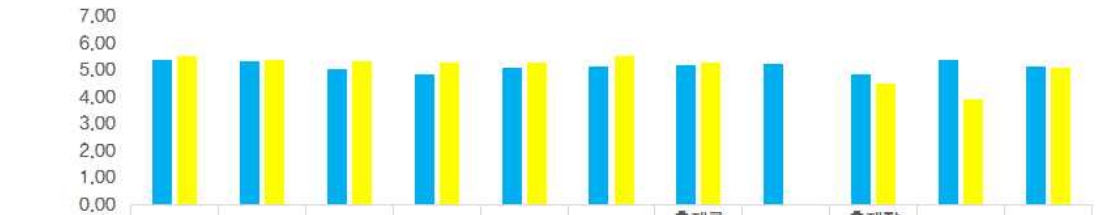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춘천마임 | 8,311 | 5,740 | 15,842 | 5,238 | 4,056 | 14,344 | 53,530 |

# 13 고성 통일고성 명태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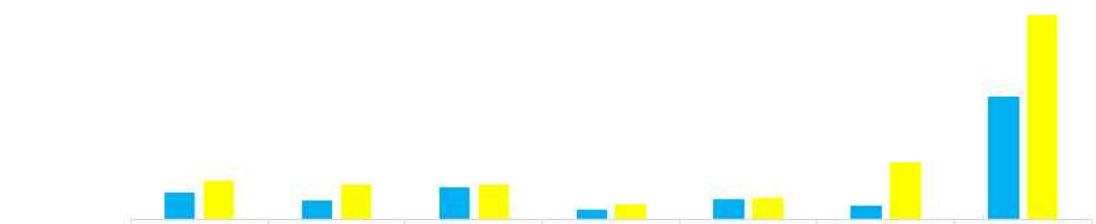
통일고성명태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축제장 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치를 보임(단, 시설 안전 만족이 조사상 오류로 인한 0점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전체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방문객 만족도 결과에 비해,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는 매우 낮게 나타나 면밀한 축제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통일고성명태 | 5.51 | 5.36 | 5.31 | 5.28 | 5.26 | 5.52 | 5.30 | 0.00 | 4.49 | 3.93 | 5.11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66.6%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다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쇼핑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이색적인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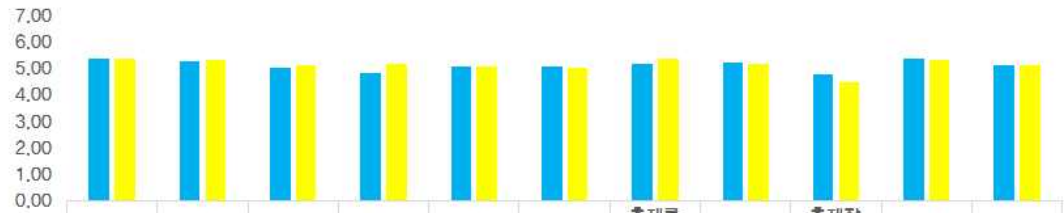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통일고성명태 | 19,369 | 17,534 | 17,546 | 7,591 | 10,878 | 28,192 | 101,233 |

# 14 괴산 고추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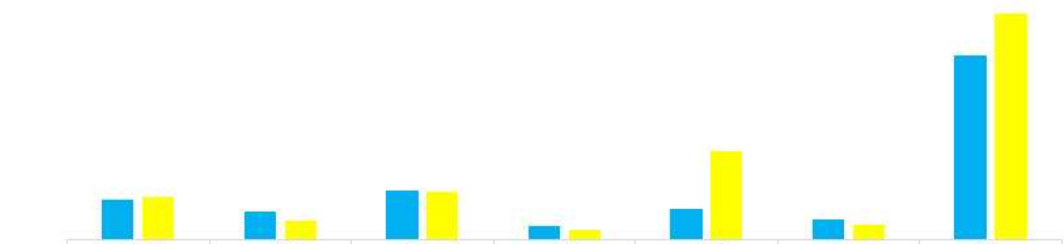
고추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방문객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또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지역문화 이해 만족은 높았던 반면, 안내 해설·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다소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안전 및 주차장 등 축제장 시설 관리운영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괴산고추 | 5.41 | 5.35 | 5.15 | 5.20 | 5.09 | 5.03 | 5.38 | 5.20 | 4.53 | 5.35 | 5.17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22.7%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 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쇼핑비가 높았던 반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가 다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숙박비·식음료비 증대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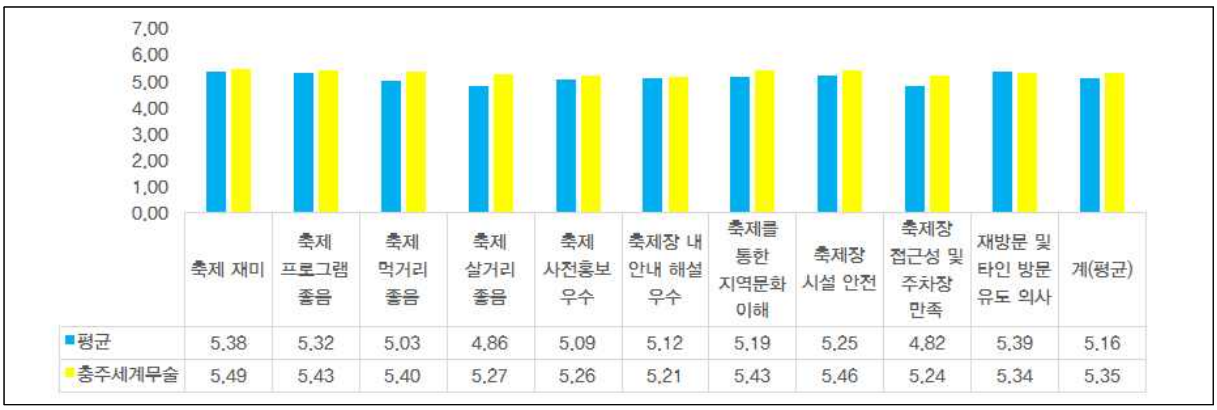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괴산고추 | 14,312 | 6,593 | 16,029 | 3,239 | 29,316 | 5,073 | 74,564 |

# 15 충주 세계무술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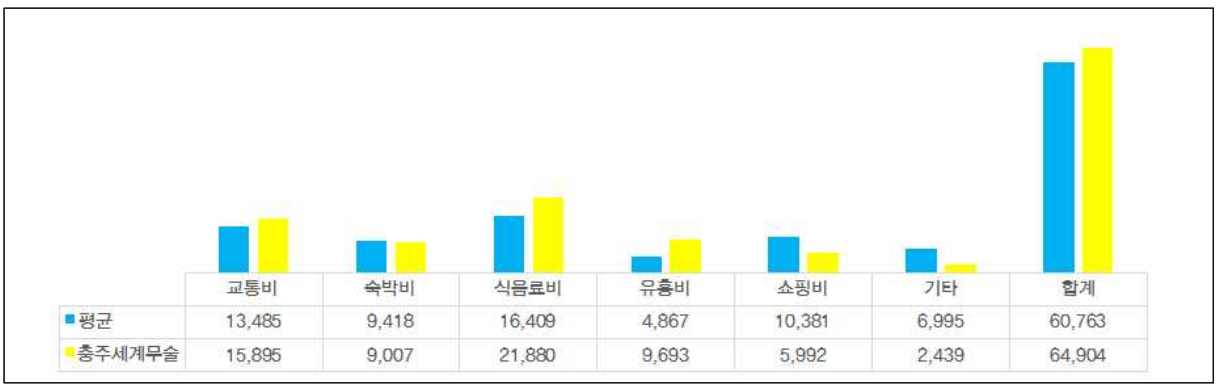
세계무술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이에 반해 방문객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여 만족도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냄.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위락성(재미) 강화 등을 강화하여 방문객의 지속적인 재방문률 제고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충주세계무술 | 5.49 | 5.43 | 5.40 | 5.27 | 5.26 | 5.21 | 5.43 | 5.46 | 5.24 | 5.34 | 5.35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06.8%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숙박비·쇼핑비·기타비가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 관광객 유치 방안과 지역특산품 등 살거리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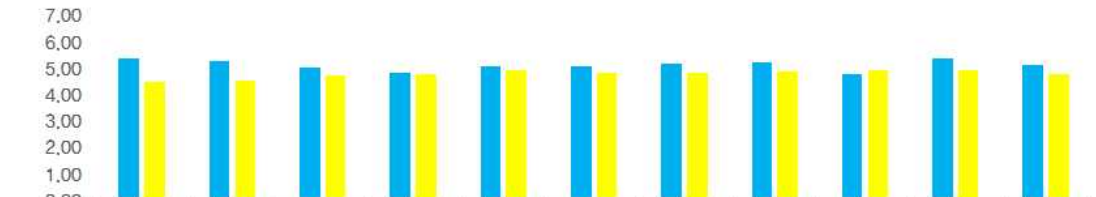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충주세계무술 | 15,895 | 9,007 | 21,880 | 9,693 | 5,992 | 2,439 | 64,904 |

# 16 강경 발효젓갈축제

## 만 족 도

젓갈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또한 낮았음. 항목별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축제 재미 부분이 가장 낮았음.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의 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 및 축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강경젓갈 | 4.53 | 4.57 | 4.74 | 4.80 | 4.95 | 4.86 | 4.87 | 4.89 | 4.97 | 4.94 | 4.81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3.2%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유흥비·기타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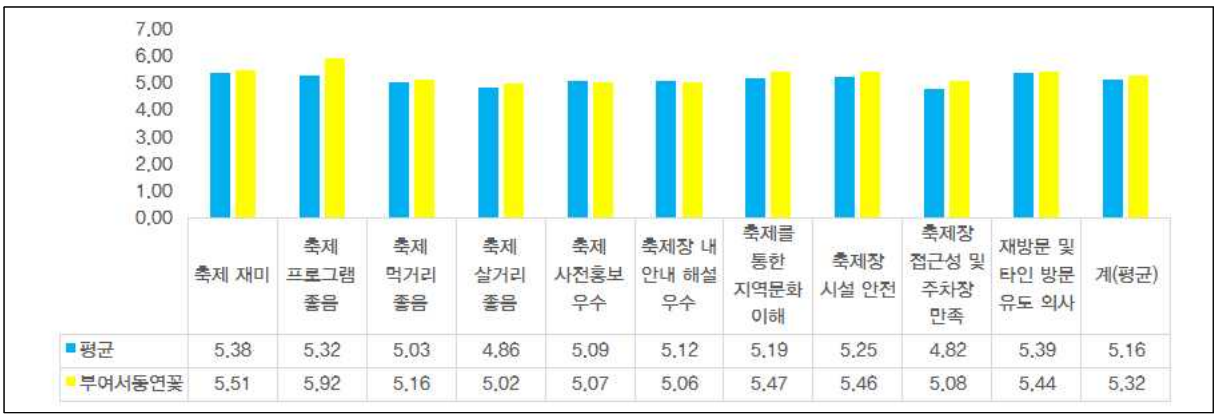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강경젓갈 | 11,383 | 2,034 | 15,886 | 344 | 14,616 | 197 | 44,460 |

# 17 부여 서동연꽃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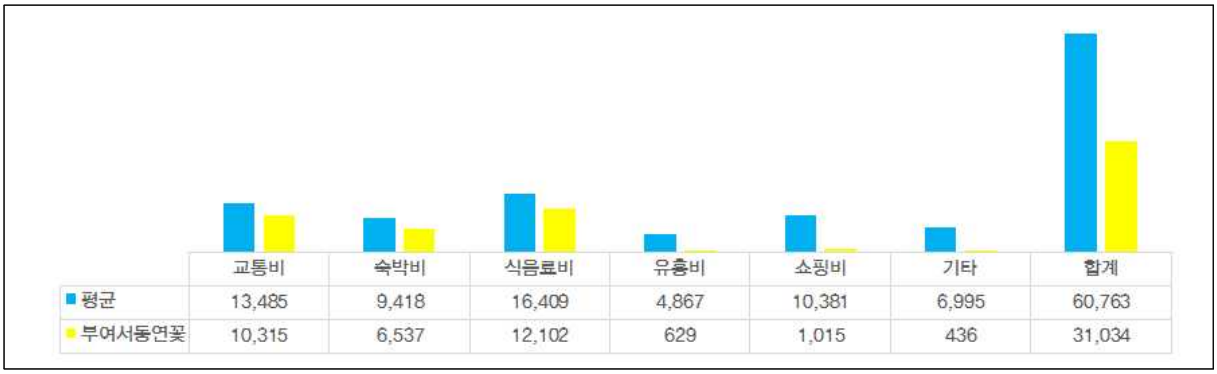
서동연꽃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항목별로도 사전홍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아울러, 방문객들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또한 높은 수치를 보임. 다만 보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내·홍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부여서동연꽃 | 5.51 | 5.92 | 5.16 | 5.02 | 5.07 | 5.06 | 5.47 | 5.46 | 5.08 | 5.44 | 5.3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1.1% 수준으로, 높은 방문객 만족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유흥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거리 및 지역특산물 등 살거리 발굴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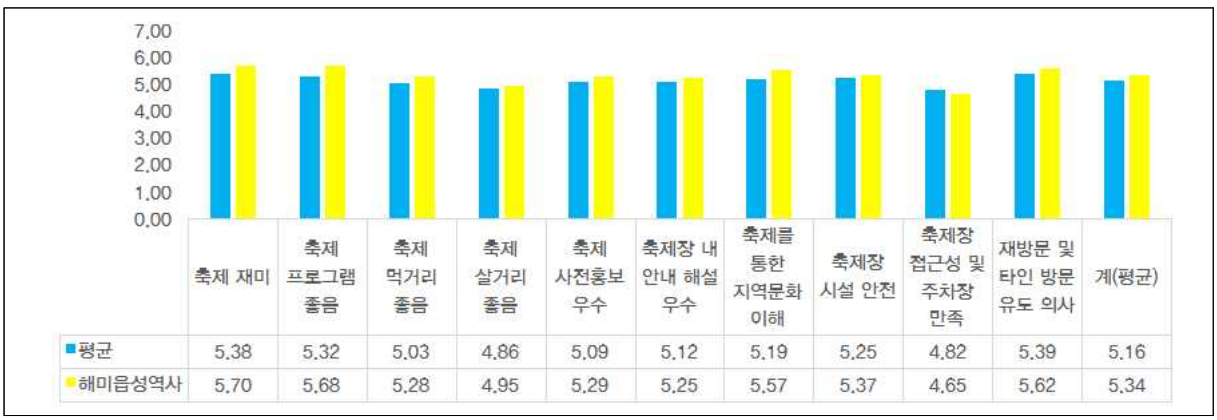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부여서동연꽃 | 10,315 | 6,537 | 12,102 | 629 | 1,015 | 436 | 31,034 |

# 18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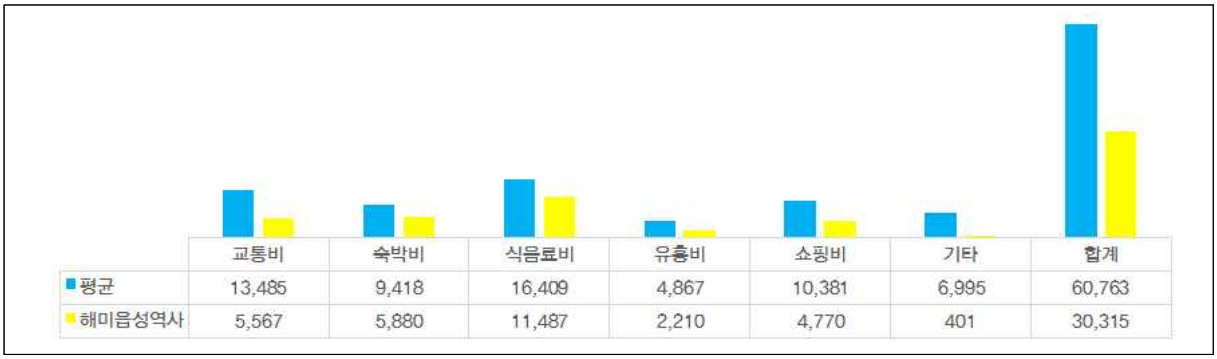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보임. 방문객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의 경우에도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방문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부분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산품 등 다양한 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해미읍성역사 | 5.70 | 5.68 | 5.28 | 4.95 | 5.29 | 5.25 | 5.57 | 5.37 | 4.65 | 5.62 | 5.34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49.9%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방문객 만족도와는 상반된 결과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낮은 비용을 나타냈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당일형 관광객 중심에서 먹거리·살거리·체험거리 발굴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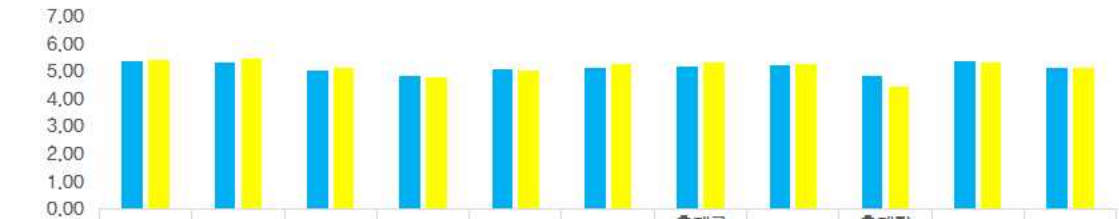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해미읍성역사 | 5,567 | 5,880 | 11,487 | 2,210 | 4,770 | 401 | 30,315 |

# 19 홍성 역사인물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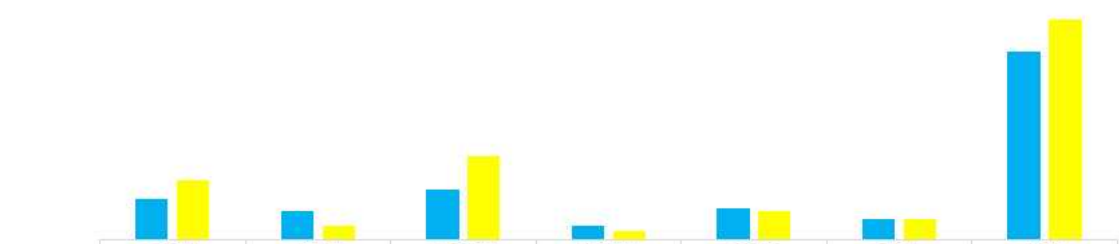
역사인물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또한 유사한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안내해설·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 만족은 높았던 반면, 살거리·사전홍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홍성역사 | 5.44 | 5.49 | 5.12 | 4.79 | 5.04 | 5.27 | 5.35 | 5.29 | 4.46 | 5.32 | 5.16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17.2%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 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는 높았던 반면, 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체류시간 확대를 통한 숙박객 유치 방안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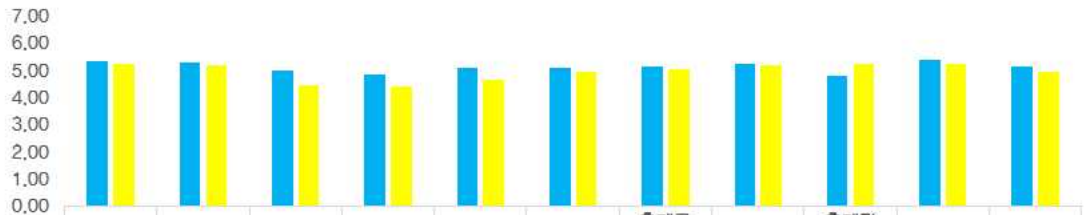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홍성역사 | 19,473 | 4,730 | 27,392 | 3,108 | 9,595 | 6,892 | 71,190 |

# 20 금강 여울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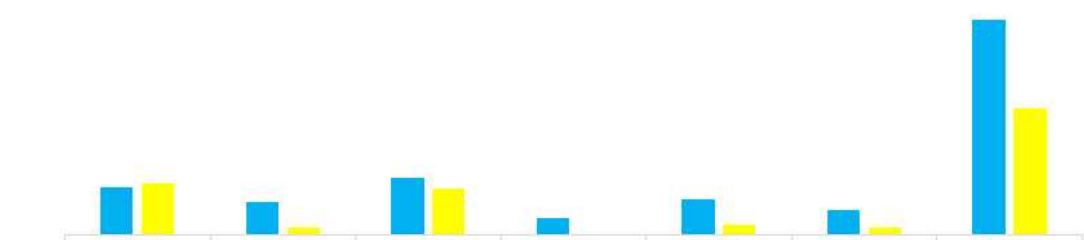
여울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항목별로도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았음. 특히, 살거리·사전홍보는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타 축제에 비해 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축제 전반에 걸친 전문가의 컨설팅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금강여울 | 5.25 | 5.20 | 4.49 | 4.41 | 4.65 | 4.97 | 5.08 | 5.22 | 5.24 | 5.25 | 4.98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9.1%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낮은 소비지출을 나타냄.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살거리·먹거리·즐길거리 발굴 및 숙박객 유치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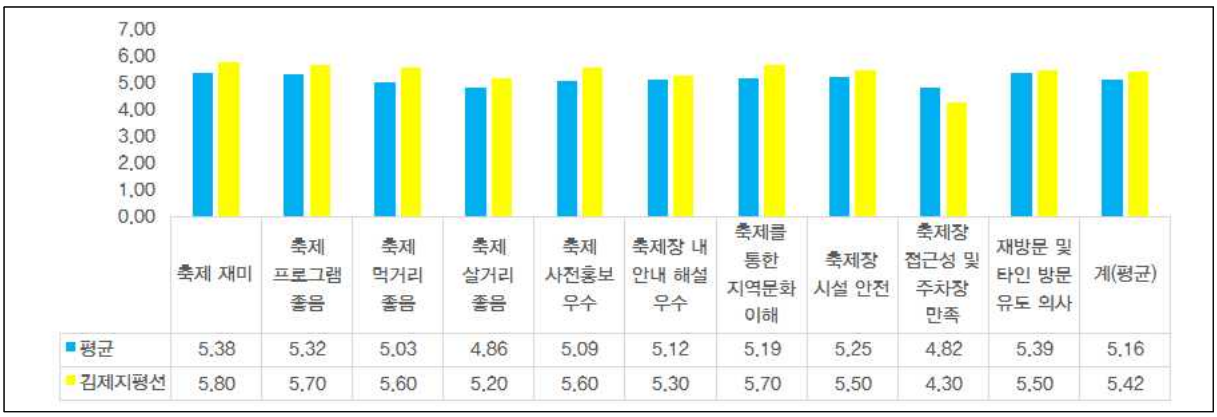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금강여울 | 14,636 | 2,234 | 13,312 | 530 | 3,061 | 2,118 | 35,891 |

# 21 김제 지평선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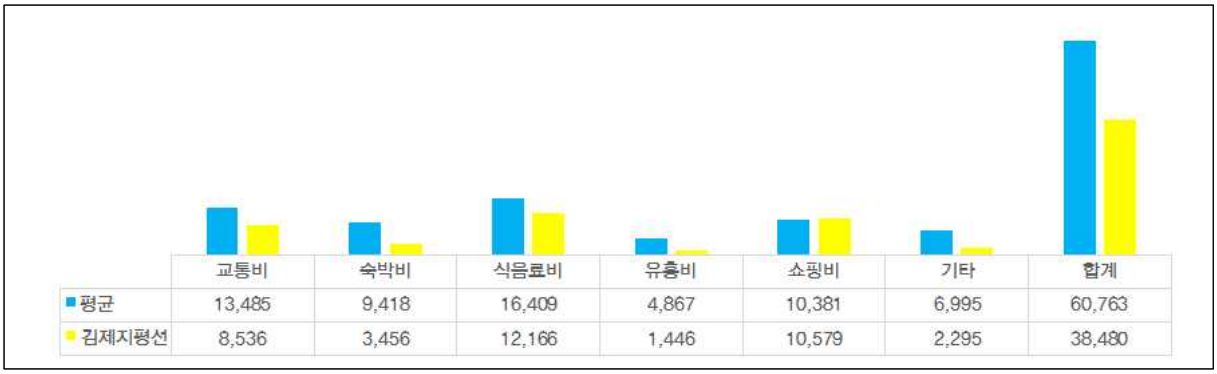
지평선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또한 높게 나타남. 항목별로는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김제지평선 | 5.80 | 5.70 | 5.60 | 5.20 | 5.60 | 5.30 | 5.70 | 5.50 | 4.30 | 5.50 | 5.4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3.3%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이는 높은 방문객 만족도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쇼핑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은 소비지출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숙박비·유흥비는 매우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즐길거리·먹거리 발굴 및 숙박객 유치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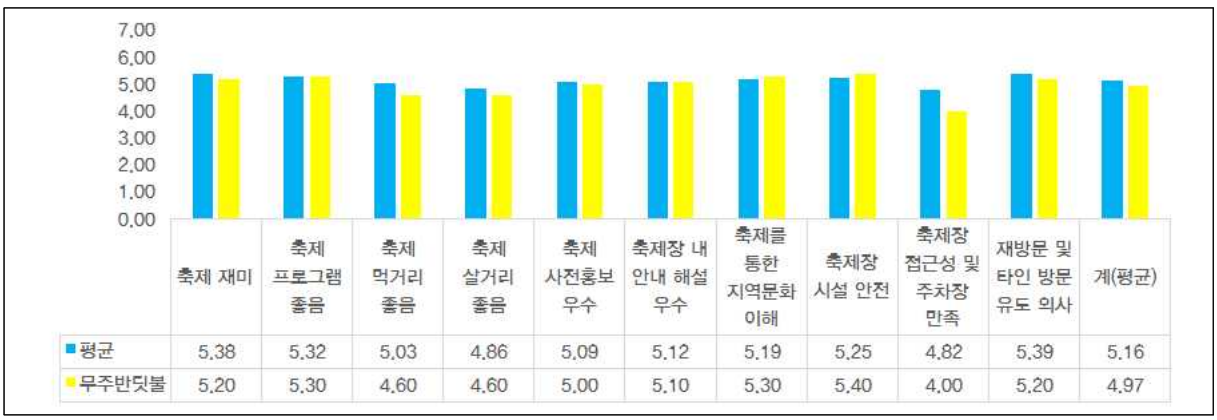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김제지평선 | 8,536 | 3,456 | 12,166 | 1,446 | 10,579 | 2,295 | 38,480 |

# 22 무주 반딧불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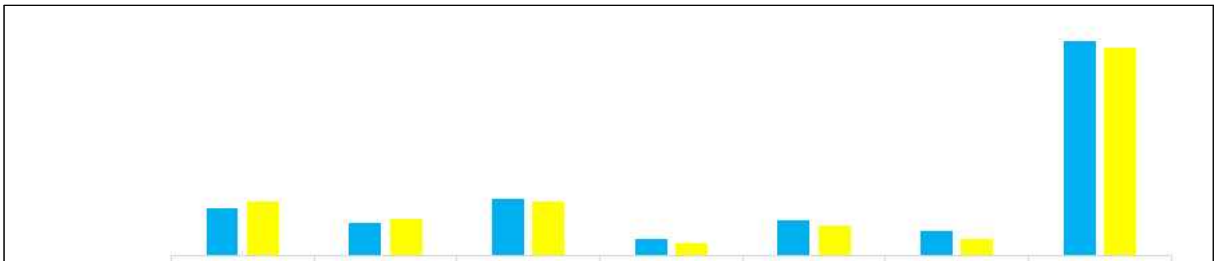
반딧불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항목별로는 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 만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낮게 나타남.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재미 부여와 적극적인 안내·홍보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무주반딧불 | 5.20 | 5.30 | 4.60 | 4.60 | 5.00 | 5.10 | 5.30 | 5.40 | 4.00 | 5.20 | 4.97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6.7% 수준으로, 낮은 방문객 만족도와는 달리 타 축제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방안이 요구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무주반딧불 | 15,326 | 10,639 | 15,502 | 3,612 | 8,781 | 4,904 | 58,767 |

# 23 순창 장류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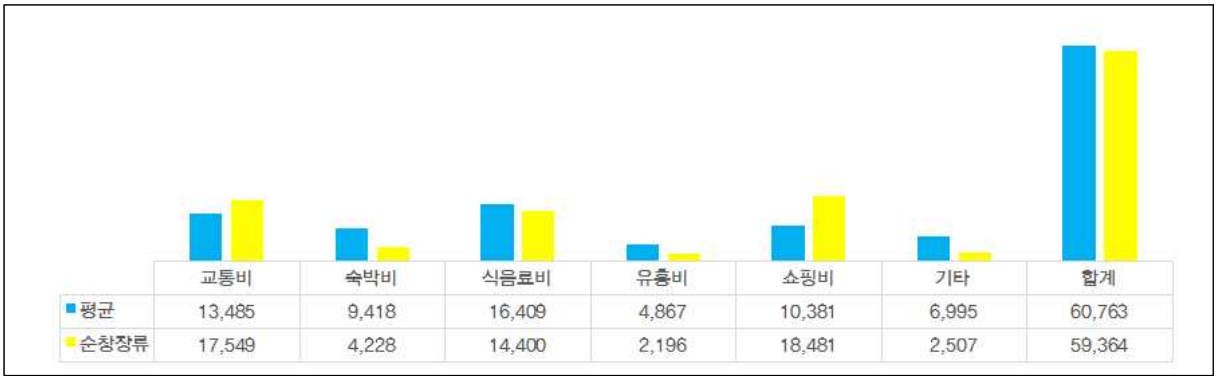
장류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방문객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높게 분석됨.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변화를 통해 재방문 관광객 확보 전략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순창장류 | 5.60 | 5.50 | 5.50 | 5.50 | 5.40 | 5.30 | 5.80 | 5.80 | 5.50 | 5.80 | 5.57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7.7% 수준으로 나타나, 높은 축제 만족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쇼핑비는 타 축제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게 보인 반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낮게 분석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즐길거리·먹거리·잘거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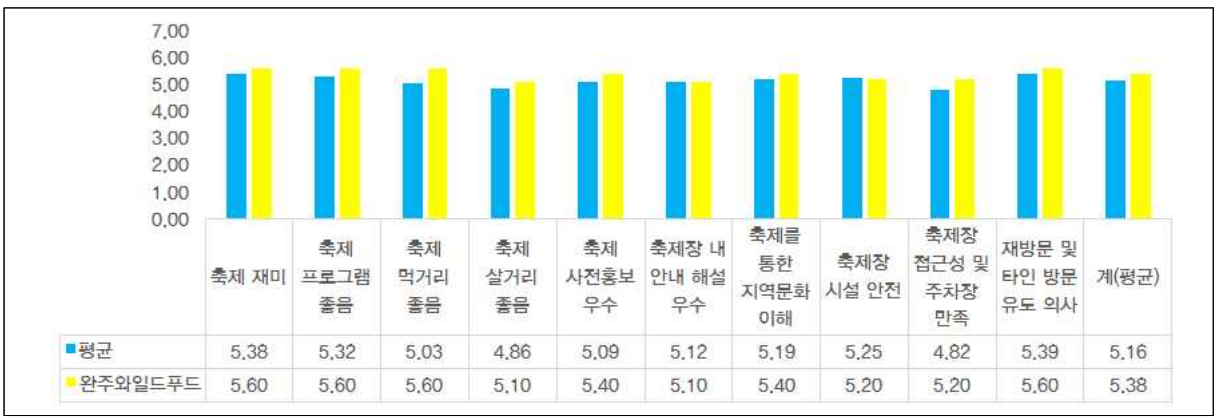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순창장류 | 17,549 | 4,228 | 14,400 | 2,196 | 18,481 | 2,507 | 59,364 |

# 24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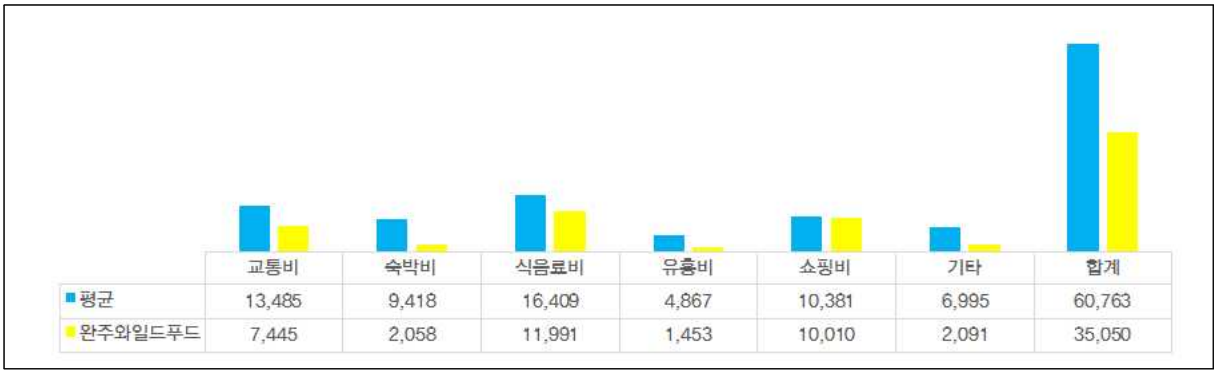
와일드푸드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접근성 및 주차장 등의 만족이 타 축제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사전홍보·시설 안전 만족은 다소 낮게 나타남. 아울러,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타 축제에 비해 높게 분석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완주와일드푸드 | 5.60 | 5.60 | 5.60 | 5.10 | 5.40 | 5.10 | 5.40 | 5.20 | 5.20 | 5.60 | 5.38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7.7%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높은 방문객 만족도와 상이한 결과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낮은 소비지출을 보임. 이에, 당 축제가 음식과 관련된 축제인 만큼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하고 이색적인 먹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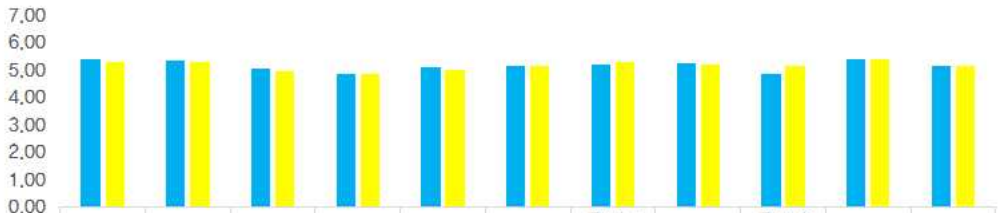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완주와일드푸드 | 7,445 | 2,058 | 11,991 | 1,453 | 10,010 | 2,091 | 35,050 |

# 25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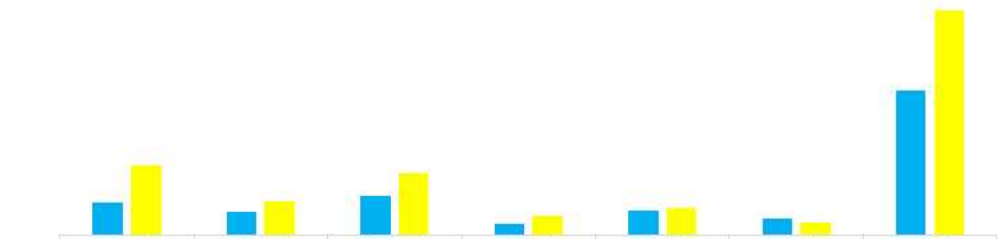
신비의 바닷길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방문객 재방문 및 타인 방문의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항목별로는 안내해설·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높은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시설 안전은 낮은 만족도를 보임.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먹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소득 창출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진도 신비의 바닷길 | 5.30 | 5.27 | 4.96 | 4.82 | 5.01 | 5.14 | 5.29 | 5.19 | 5.11 | 5.37 | 5.15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54.9%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 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 소비지출 보다 높게 분석됨.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유흥비 소비 증진을 위한 즐길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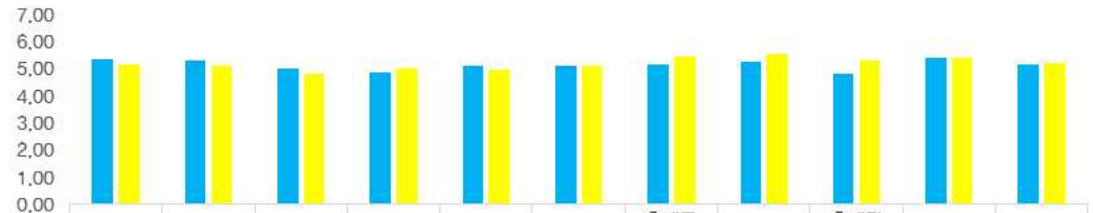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진도 신비의 바닷길 | 29,410 | 14,060 | 26,200 | 7,890 | 11,290 | 5,290 | 94,140 |

# 26 강진 청자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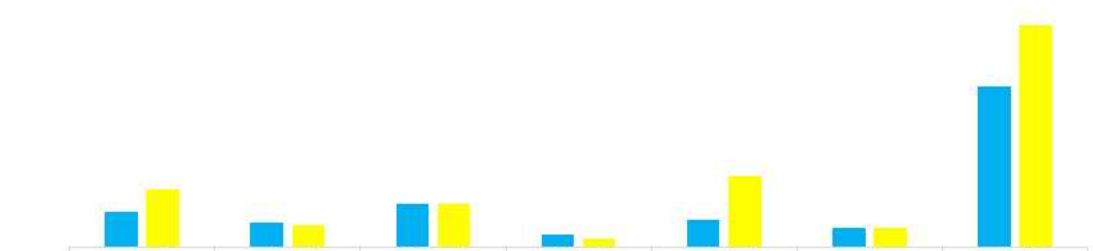
청자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다소 높은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살거리·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사전홍보는 낮게 분석됨.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타 축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및 체험거리 발굴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강진청자 | 5.15 | 5.10 | 4.81 | 5.02 | 4.99 | 5.12 | 5.45 | 5.55 | 5.31 | 5.40 | 5.19 |

## 소 비 지 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37.8%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쇼핑비·기타비는 타 축제에 비해 소비지출이 높은 반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는 낮게 분석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먹거리·즐길거리 발굴 등을 통한 체류시간 증대 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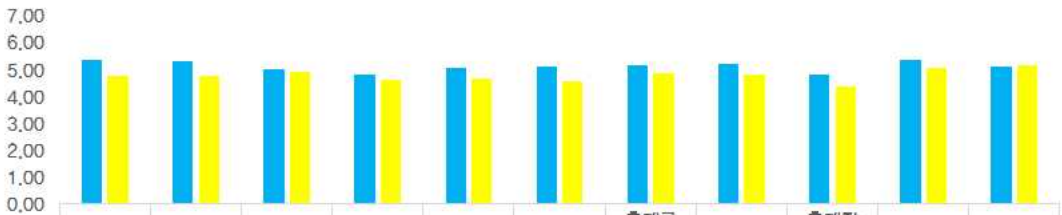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강진청자 | 21,790 | 8,340 | 16,240 | 3,240 | 26,720 | 7,430 | 83,760 |

# 27 담양 대나무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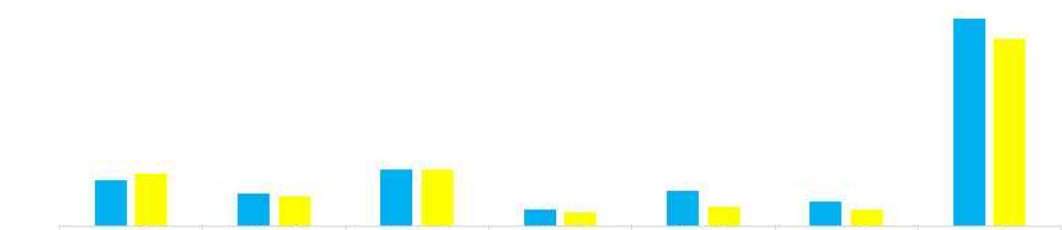
대나무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임. 항목별로는 축제장 시설안전과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 등은 낮게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들의 낮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해서는 축제의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 확보 및 안내·홍보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담양대나무 | 4.77 | 4.78 | 4.95 | 4.62 | 4.69 | 4.60 | 4.87 | 4.83 | 4.40 | 5.09 | 5.19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63.3%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형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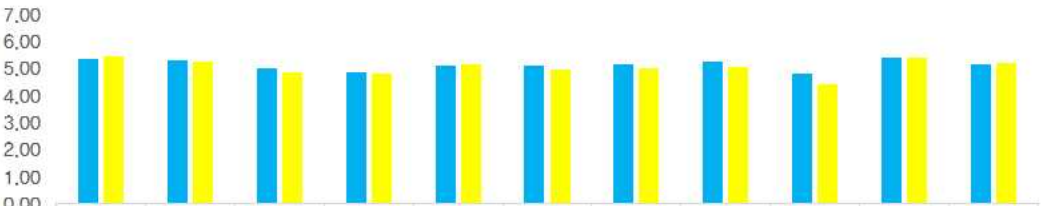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담양대나무 | 15,515 | 8,895 | 16,385 | 4,075 | 5,500 | 4,715 | 55,085 |

# 28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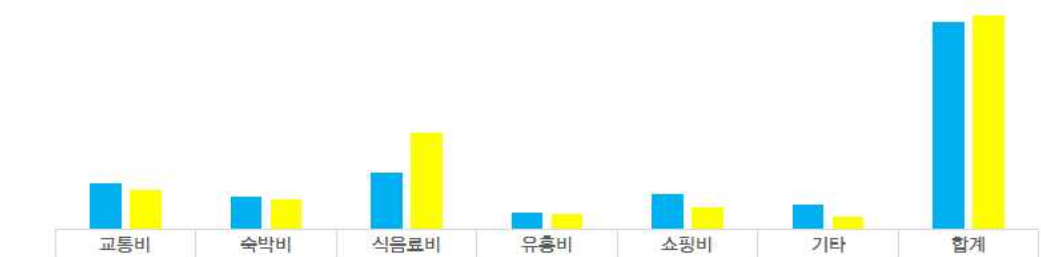
정남진장흥물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며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사전홍보 만족이 높았던 반면, 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안내해설·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았음.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전국 평균과 동일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의 정통성 부여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를 프로그램·먹거리 등과 연계함으로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정남진장흥물 | 5.44 | 5.24 | 4.86 | 4.84 | 5.18 | 4.97 | 5.03 | 5.06 | 4.43 | 5.39 | 5.19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03.6% 수준으로 나타남.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중, 쇼핑비와 기타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 확대 및 지역상권 연계 등 수익성 창출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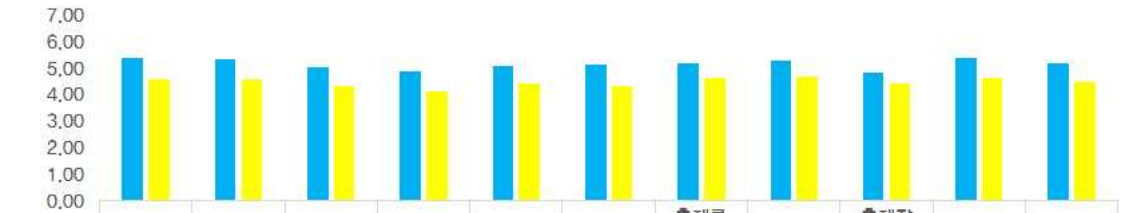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정남진장흥물 | 11,410 | 8,840 | 28,340 | 4,380 | 6,430 | 3,560 | 62,960 |

# 29 목포 항구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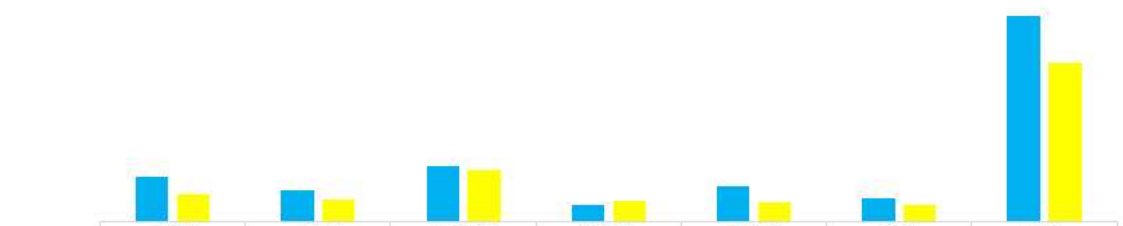
항구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분석됨. 이러한 결과는 방문객의 낮은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제 전반에 걸친 객관적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축제 프로그램·시설 기획과정에서 반영하여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축제 계획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목포항구 | 4.58 | 4.55 | 4.33 | 4.11 | 4.42 | 4.32 | 4.60 | 4.69 | 4.40 | 4.63 | 4.46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7.3%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유흥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중, 쇼핑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특산품, 수산품 등 살거리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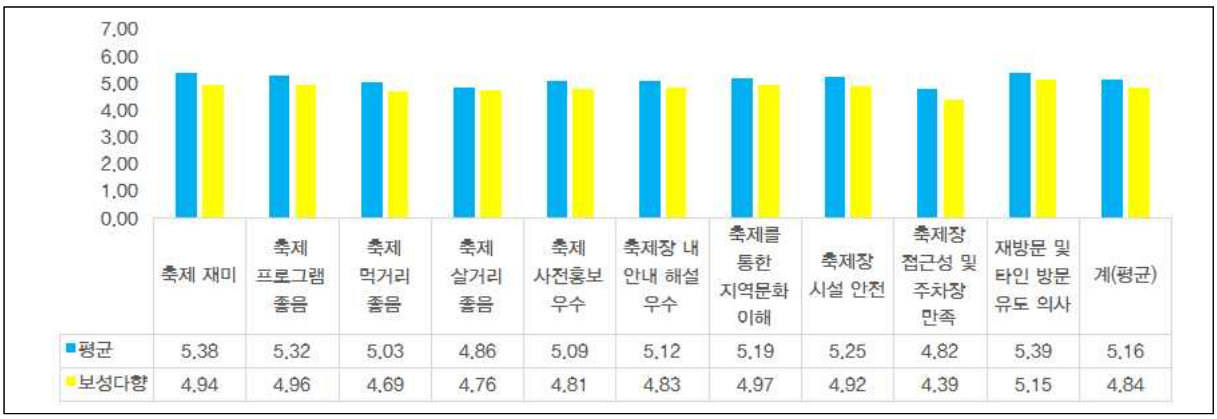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목포항구 | 8,305 | 6,560 | 15,255 | 6,115 | 5,765 | 4,960 | 46,960 |

# 30 보성 다향대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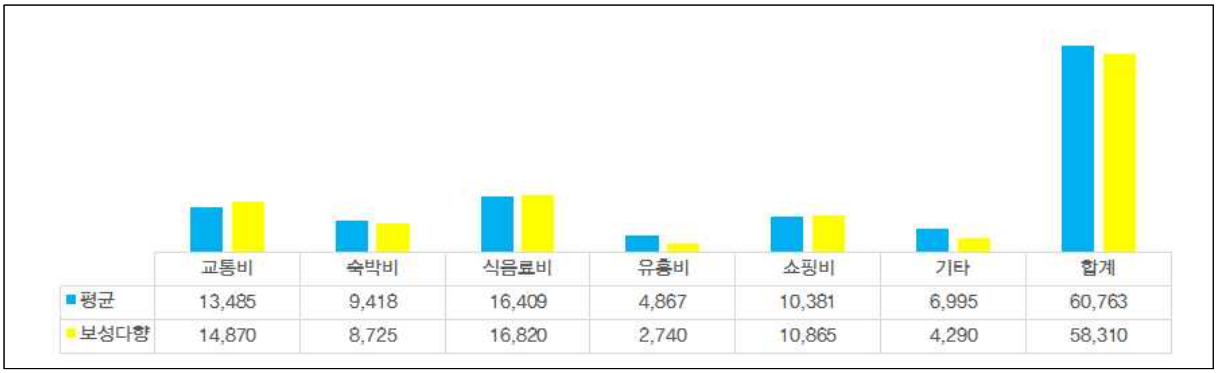
다향대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타 축제에 비해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인 진단 및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보성다향 | 4.94 | 4.96 | 4.69 | 4.76 | 4.81 | 4.83 | 4.97 | 4.92 | 4.39 | 5.15 | 4.84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6.0%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식음료비·쇼핑비는 높았던 반면, 숙박비·유흥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즐길거리·체험거리 발굴 및 체류시간 증대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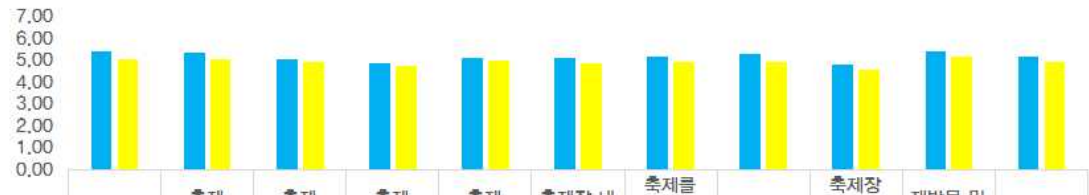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보성다향 | 14,870 | 8,725 | 16,820 | 2,740 | 10,865 | 4,290 | 58,310 |

# 31 영암 왕인문화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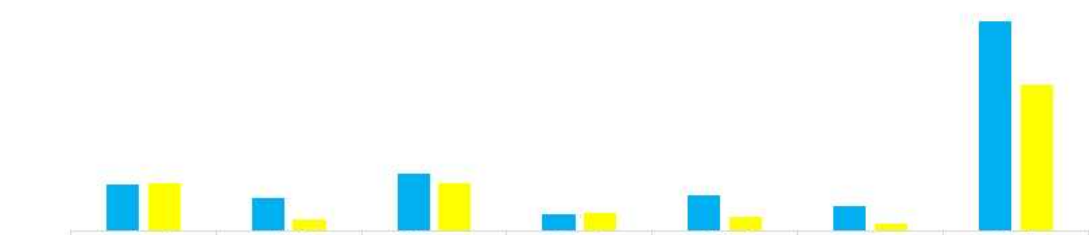
왕인문화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미흡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해설서비스 강화를 통한 축제의 흥미성(재미) 증대 및 먹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방안이 무엇보다도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영암왕인 | 5.05 | 5.03 | 4.89 | 4.72 | 4.99 | 4.85 | 4.94 | 4.94 | 4.54 | 5.17 | 4.91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70.1%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유흥비는 높은 반면, 숙박비·식음료비·쇼핑비 등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쇼핑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이색적인 살거리 개발과 함께 숙박객을 유도하기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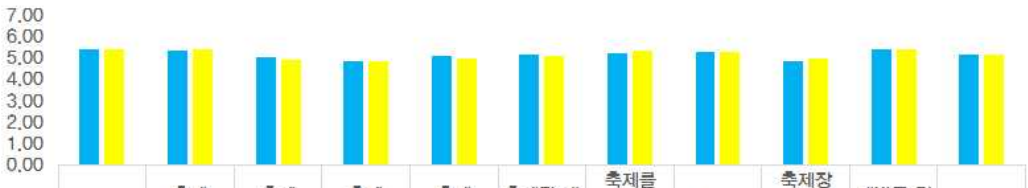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영암왕인 | 13,805 | 3,235 | 14,000 | 5,060 | 4,225 | 2,260 | 42,585 |

# 32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만 족 도

전통찻사발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며 항목별로는 축제 프로그램·지역문화 이해·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높았던 반면,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해설 등은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전국 평균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이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먹거리·살거리 발굴 및 해설 서비스 강화 등이 필요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문경전통찻사발 | 5.36 | 5.38 | 4.89 | 4.81 | 4.96 | 5.06 | 5.33 | 5.28 | 4.94 | 5.40 | 5.14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09.4% 수준으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쇼핑비는 높았던 반면, 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기타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특히, 숙박비·유흥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즐길거리 발굴 및 숙박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문경전통찻사발 | 18,139 | 5,885 | 12,892 | 2,291 | 21,674 | 6,190 | 66,456 |

# 33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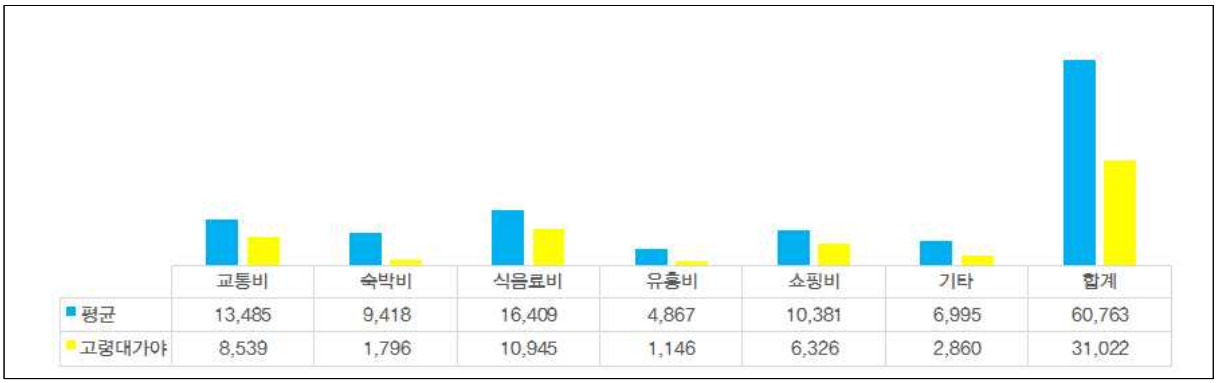
대가야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축제 재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게 분석됨. 방문객으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 다만 보다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색적인 연출 계획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고령대가야 | 5.37 | 5.35 | 5.06 | 4.93 | 5.25 | 5.18 | 5.43 | 5.31 | 5.11 | 5.53 | 5.25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51.1%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이는 높은 방문객 만족도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음.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특히, 숙박비·유흥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 및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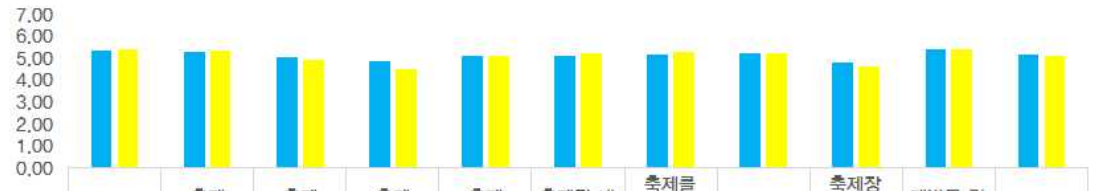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고령대가야 | 8,539 | 1,796 | 10,945 | 1,146 | 6,326 | 2,860 | 31,022 |

# 34 봉화 은어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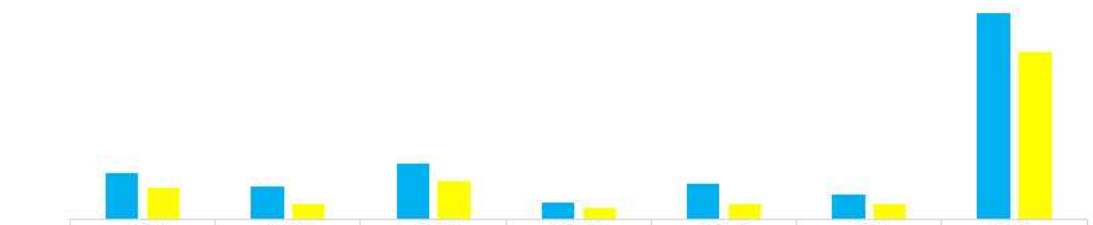
은어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사전홍보·안내 해설·지역문화 이해 만족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먹거리·살거리·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반면,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는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역 먹거리 및 살거리 발굴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방안 및 교통 편의체계 개선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봉화은어 | 5.43 | 5.38 | 4.91 | 4.51 | 5.12 | 5.22 | 5.27 | 5.21 | 4.60 | 5.41 | 5.11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1.2%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숙박비·쇼핑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 등 이색적인 살거리 발굴 및 숙박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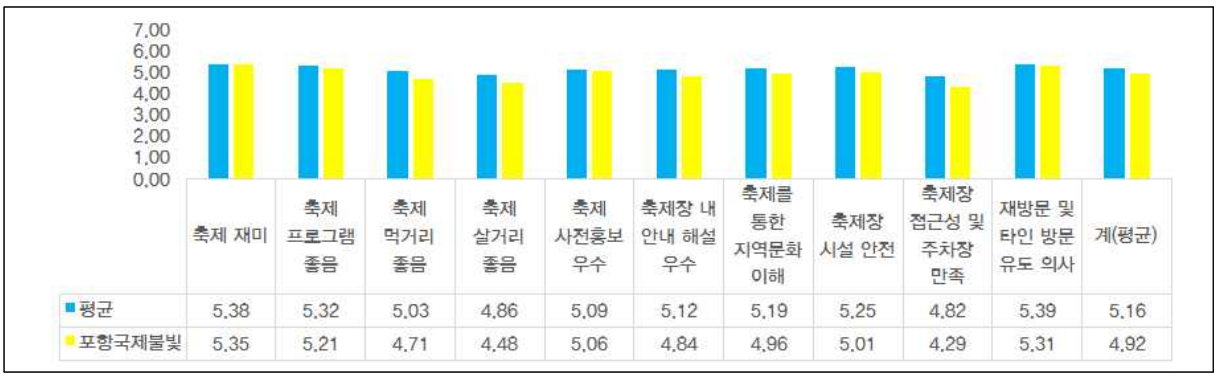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봉화은어 | 9,204 | 4,448 | 11,138 | 3,373 | 4,587 | 4,540 | 49,315 |

# 35 포항 국제불빛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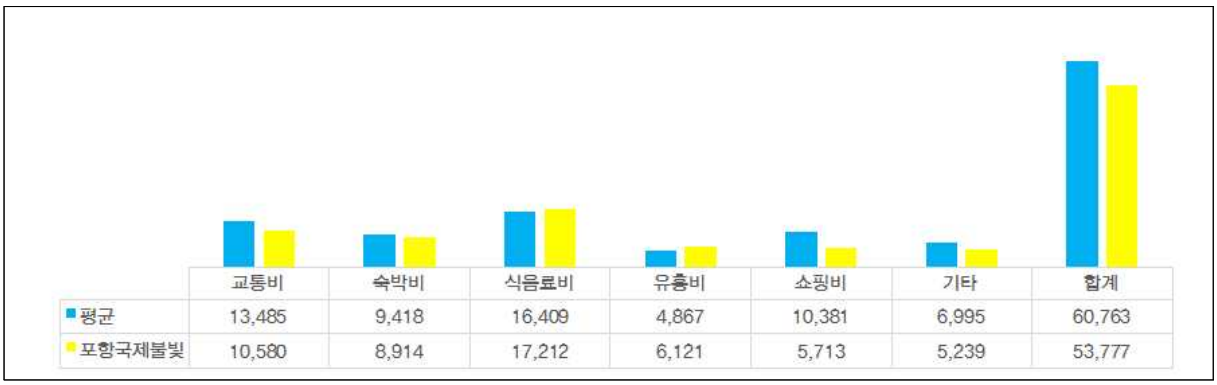
국제불빛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낮게 분석됨. 또한,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전반에 걸친 진단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및 성공적인 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포항국제불빛 | 5.35 | 5.21 | 4.71 | 4.48 | 5.06 | 4.84 | 4.96 | 5.01 | 4.29 | 5.31 | 4.9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8.5%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유흥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체류시간 증대 및 숙박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포항국제불빛 | 10,580 | 8,914 | 17,212 | 6,121 | 5,713 | 5,239 | 53,77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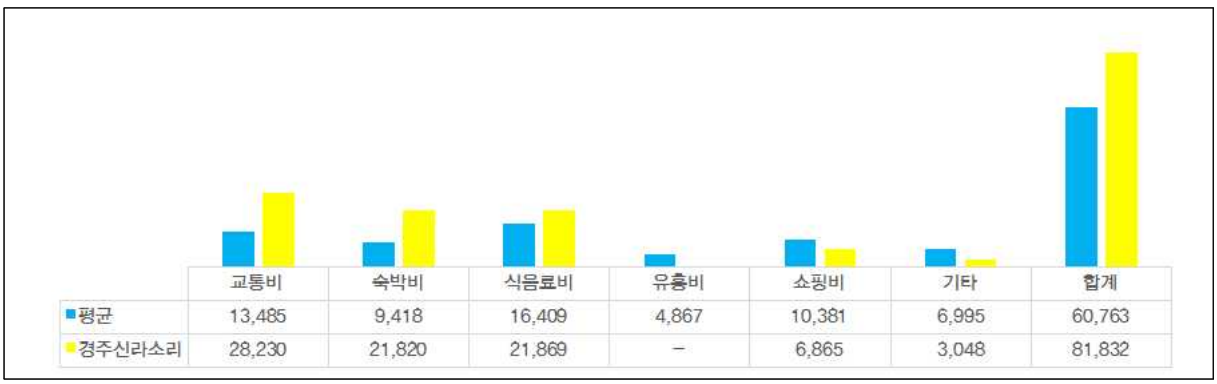
# 36 경주 신라소리문화축제

## 만 족 도

신라소리문화축제 만족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에 새롭게 제시한 공통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점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축제들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34.7%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는 높은 반면, 유흥비·쇼핑비·기타비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있는 살거리 발굴을 통해 쇼핑비 향상 방안이 필요함
(다만, 유흥비가 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상의 오류 검토 필요)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경주신라소리 | 28,230 | 21,820 | 21,869 | - | 6,865 | 3,048 | 81,832 |

# 37 산청 한방약초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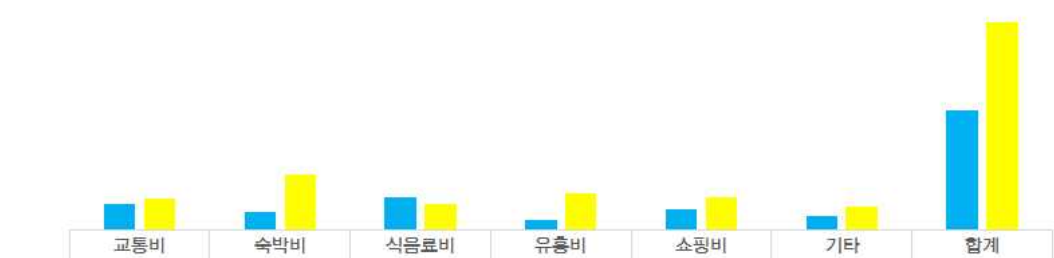
한방약초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높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 또한 타 축제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만, 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지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숙박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산청한방약초 | 5.73 | 5.78 | 5.47 | 5.43 | 5.43 | 5.44 | 5.70 | 5.68 | 5.75 | 5.85 | 5.63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73.2%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유흥비·쇼핑비·기타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식음료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 향토음식 등 먹거리 개발을 통한 식음료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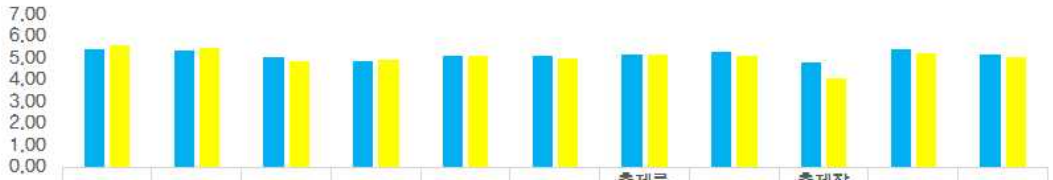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산청한방약초 | 16,332 | 28,034 | 13,320 | 18,777 | 16,599 | 12,171 | 105,231 |

# 38 통영 한산대첩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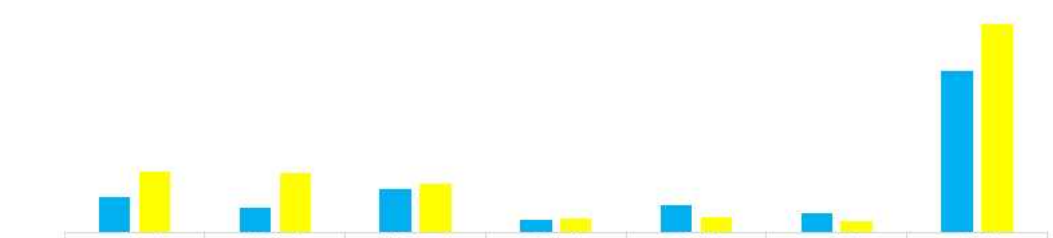
한산대첩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는 축제 재미·프로그램·살거리는 높게 나타난 반면, 먹거리·안내 해설·지역문화 이해·시설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은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 발굴 및 축제장 안전, 주차장 등 방문객 인프라 개선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통영한산대첩 | 5.61 | 5.49 | 4.85 | 4.91 | 5.09 | 4.96 | 5.16 | 5.07 | 4.07 | 5.21 | 5.04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128.9% 수준으로 방문객 만족도와는 달리 높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유흥비 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쇼핑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특산물, 기념품 등의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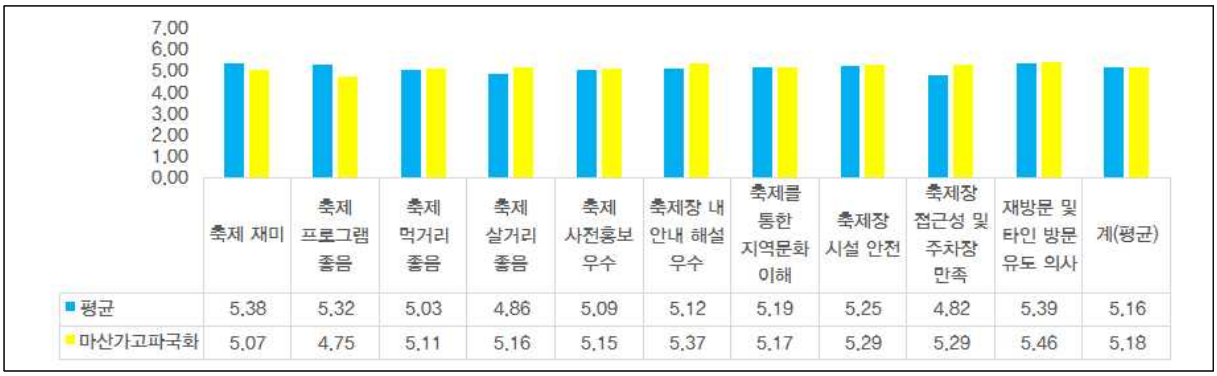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통영한산대첩 | 22,675 | 22,291 | 18,049 | 5,148 | 5,822 | 4,319 | 78,306 |

# 39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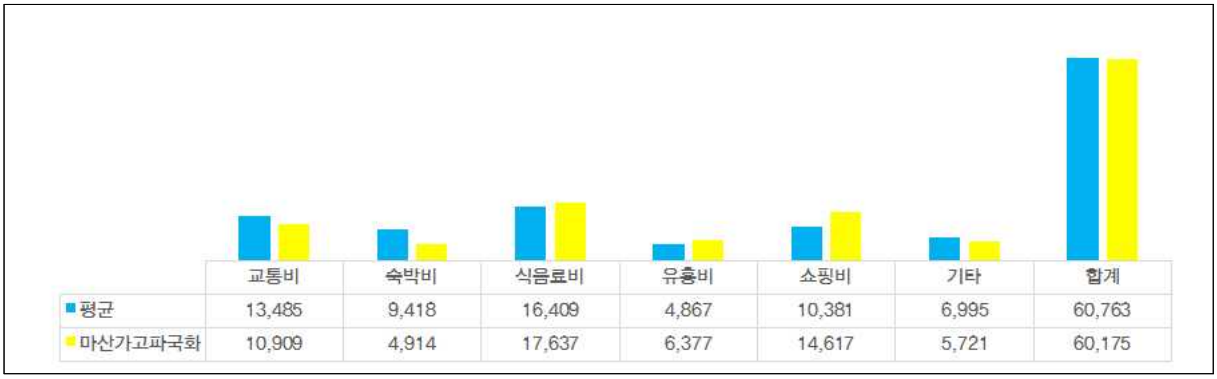
가고파국화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항목별로는 먹거리·살거리·사전홍보·안내 해설·시설 안전·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지역문화 이해 만족은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타 축제에 비해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객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흥미성 및 위락성 제고 방안이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마산가고파국화 | 5.07 | 4.75 | 5.11 | 5.16 | 5.15 | 5.37 | 5.17 | 5.29 | 5.29 | 5.46 | 5.18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99.0% 수준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숙박비·기타비는 타 축제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숙박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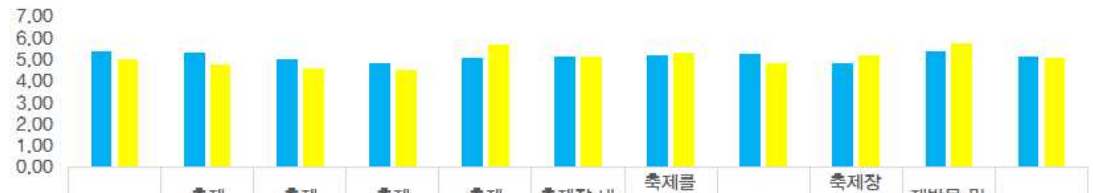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마산가고파국화 | 10,909 | 4,914 | 17,637 | 6,377 | 14,617 | 5,721 | 60,175 |

# 40 제주 들불축제

## 만 족 도

들불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는 축제 사전홍보·안내 해설·지역문화 이해·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이 높았던 반면, 축제 재미·프로그램·먹거리·살거리·시설 안전 만족은 타 축제에 비해 낮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는 높았음.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흥미성 제고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제주들불 | 5.03 | 4.79 | 4.56 | 4.53 | 5.67 | 5.16 | 5.31 | 4.85 | 5.23 | 5.75 | 5.09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8.9%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기타비는 높았던 반면 교통비·식음료비·유흥비·쇼핑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먹거리·살거리 발굴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제주들불 | 11,161 | 19,441 | 11,865 | 4,759 | 7,833 | 17,323 | 54,001 |

# 41 제주 도두오래물축제

## 만 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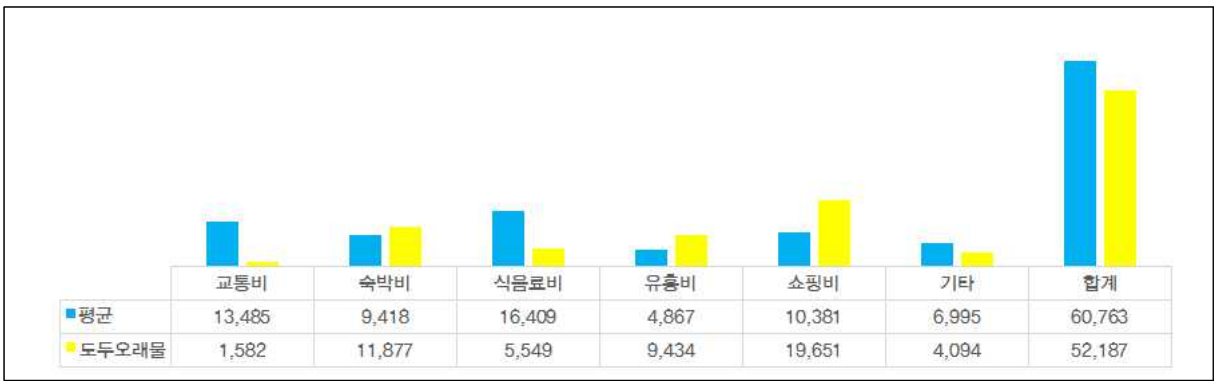
도두오래물축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항목별로도 모든 항목에서 타 축제에 비해 높게 분석됨. 방문객의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의사와 관련해서도 높게 나타남.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먹거리 발굴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 축제 재미 | 축제 프로그램 좋음 | 축제 먹거리 좋음 | 축제 살거리 좋음 | 축제 사전홍보 우수 | 축제장 내 안내 해설 우수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 축제장 시설 안전 |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만족 | 재방문 및 타인 방문 유도 의사 | 계(평균) |
|---|---|---|---|---|---|---|---|---|---|---|---|
| 평균 | 5.38 | 5.32 | 5.03 | 4.86 | 5.09 | 5.12 | 5.19 | 5.25 | 4.82 | 5.39 | 5.16 |
| 도두오래물 | 6.10 | 6.10 | 6.00 | 5.80 | 5.90 | 6.00 | 6.10 | 6.10 | 5.90 | 6.10 | 6.02 |

## 소비지출

당 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은 전국 평균의 85.9% 수준으로 높은 방문객 만족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 지출항목과 금액을 분석해 보면, 숙박비·유흥비·쇼핑비는 타 축제에 비해 높았던 반면 교통비·식음료비·기타비는 낮게 나타남. 이에 소비지출 확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지역음식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식음료비 증대 방안이 필요함



| | 교통비 | 숙박비 | 식음료비 | 유흥비 | 쇼핑비 | 기타 | 합계 |
|---|---|---|---|---|---|---|---|
| 평균 | 13,485 | 9,418 | 16,409 | 4,867 | 10,381 | 6,995 | 60,763 |
| 도두오래물 | 1,582 | 11,877 | 5,549 | 9,434 | 19,651 | 4,094 | 52,187 |

# Ⅳ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별 결과



# 개 요

○ 문화관광축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질적 제고를 위하여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 평가를 위하여 지역 대학의 문화관광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각 축제별로 2명의 평가위원은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직접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참관평가 항목기준'에 의거 평가함

〈2015년 문화관광축제 참관평가 항목기준〉

| 평가항목 | 세 부 내 용 |
|---|---|
| 1) 축제기획서 | ○ 축제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기획목적,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
| 2)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
| |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그 축제만의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 관광객의 유인·몰입 가능성 |
| | ○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br>-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축제 캐릭터 개발 등 |
| |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br>-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
| 3) 축제의 운영 |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br>○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br>○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
| |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
| |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
| |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4) 축제발전성 | ○ 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발전가능성 |
| | ○ 축제조직체 구성 여부 및 축제 재정자립도 |
| 5) 축제의 성과 |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br>- 관광객 수(외국인 포함), 지역 홍보효과 등 |
| |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br>- 관광객 비용지출, 재방문 가능성 등 |
| | ○ 축제 관광객 만족도 |

# 1 한성백제문화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8일(목) ~ 10월 11일(일) / 4일간**
- **장 소 : 올림픽공원, 위례성대로, 경당역사공원, 한성백제박물관 등**
- **주 최 : 송파구·송파문화원**
- **주 관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슬로건 : "한성백제의 꿈, 세계를 품다!"

○ 주요 프로그램

- 체험행사 : 한성백제체험마을, 백제문화체험, 백제관아체험, 백제장터체험, 한성백제음식전, 전통놀이 등
- 참여행사 : 역사문화거리행렬, 한성백제성곽돌기, 한성백제창작동요제
- 기획행사 : 2천년전 한성백제 몽교·주제등 설치
- 전시행사 : 걸어나온 예송미술관, 한성백제테마전시회, 한성백제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홍보관
- 연계행사 : 한성백제학술대회, 외국인 굴렁쇠굴리기 대회, 한성백제어울마당
- 야간행사 : 한성백제유등한마당(몽촌해자 및 평화의문), 공연프로그램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등 우수함

○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만의 주제성이 잘 반영되어 방문객들이 한성백제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고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성백제 유적을 축제의 장으로 편입하여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두드러짐

○ 한성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몽촌토성, 풍납동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한성 백제유적을 축제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제와 매우 잘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조성

○ 한성백제 체험마을로 조성된 입구부분에서 백제시대 의상을 직접 입고, 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엽전형태의 주화를 사용하여 마을 내의 각종 유료체험 등에 활용한 점과 체험마을 내 전문 연기자를 배치하여 방문객들과 실제와 같은 체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백제시대 현실감 확대를 통한 타임머신 효과를 배가시킴

○ 축제의 주제성 강화 및 도심 축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성백제박물관 인근 친환경적인 조각공원 잔디 내 한성백제체험을 갈라퍼레이드를 신설, 주제성에 적합한 송파산대놀이 등 공연프로그램을 축제장 곳곳에서 상설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함

○ 자원봉사자와 주민참여자의 적극적인 운영이 돋보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체제를 구축함

○ 대부분 서울에서의 축제는 공연문화형 축제이거나 현대형 축제가 대부분인데,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백제시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체험형 축제로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제공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한성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체험마을'이나,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치고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평화의 광장 근처에 형성된 많은 현대적 부스임

- 실제로 백제문화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각종 체험부스 및 음식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방문객들을 우선적으로 한성백제체험마을로 이끌 수 있는 전체적인 동선 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 날씨 리스크에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축제가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며 많은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비와 같은 궂은 날씨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과 함께 많은 방문객들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축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인 역사문화거리 행렬은 한성백제문화제의 대표프로그램중의 하나로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많은 의상과 소품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이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역사문화거리행렬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면, 5차선이 아닌 2~3차선 이내로 관람객들과 가깝게 행렬을 형성하여 집중도 및 밀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편도 5차선 도로를 모두 사용하여 행렬이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과 사람들의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마 및 배와 같은 각종 소품들이 왜소해 보

이고, 사람들의 의상도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됨

○ 한성백제체험마을을 친환경적인 조각공원 잔디 내 조성하여 좀 더 편안하고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였으나, 중간 중간 조각이나 예술품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접근금지의 빨간 줄로 혼란스럽게 둘러 쳐놓은 것은 어수선하고 관람에 불편을 야기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한성백제 역사문화 고유의 주제성 강화<br>- 몽촌토성, 풍납동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대표적인 한성백제유적을 한성백제문화제의 테마로 적절하게 기획 활용함으로써 서울에서 대표적 문화제 활용형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판단됨<br>- 역사문화거리행렬의 경우, 역사적 사건 및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형 퍼레이드를 구성하거나 행렬 중간에 공연 퍼포먼스형 퍼레이드를 연출 등을 통해 한성백제 역사문화 고유의 주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br>○ 지역주민의 참여<br>-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 축제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두드러진 축제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임<br>- 문화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역사문화거리행렬에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축제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도록 체계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br>- 기존 현대적 장소였던 평화의 광장에서 금년에는 한성백제박물관 앞 잔디 구역 내에 한성백제체험마을을 조성하였고, 기존 현대형 부스에서 마을 전체를 전통 초가부스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고풍스런 분위기 연출함<br>- 한성백제박물관과 연계한 한성백제시대 유적발굴 현장인 내성농장을 호돌이 열차를 타는 체험은 가족이 체험하는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긍정적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지역의 한성백제문화유적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성백제문화제의 테마화하여 문화재 활용형 축제로서 향후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br>- 외국인들이 많은 서울 소재의 문화축제로서 외국인들의 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구성하거나 외국인 관광홍보대사(51명)를 위촉하고, 최초의 한류문화로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인 개로왕의 동생(곤지)을 제신으로 모시는 일본의 오사카 하비키노시 주민을 거리행렬에 참여토록 하여 글로벌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 보유<br>- 한성백제시대 왕족·귀족 성씨를 보유하고 있는 부여서씨와 의령여씨를 한성백제 후손자격으로 혼불채화식, 역사문화거리행렬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주제성이 강화시킴<br>- 다만,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컨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br>○ 타 축제와의 차별성<br>- 한성백제 체험마을로 조성된 입구부분에서 백제시대 의상을 직접 입고, 마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엽전형태의 주화를 사용하여 마을 내의 각종 유료체험 등에 활용한 점과 체험마을 내 전문 연기자를 배치하여 방문객들과 실제와 같은 체험 상황을 재현하여 백제시대 현실감 확대를 통해 타임머신 효과가 배가됨<br>- 한성백제 유적발굴현장 및 한성백제박물관 연계하여 한성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전시 프로그램과 유적 발굴 현장인 내성농장을 가족 방문객들이 체험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성 강화에 기여함 |
| 3) 축제의 운영 | ○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br>-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 자원을 분리, 수거하여 송파구 주부 환경협의회와 연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은 긍정적임<br>- 자원봉사자와 주민참여자 적극 참여로 축제의 지속가능방안 마련되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주요행사장별로 배치하여 이들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매니저 제도를 운영, 효율성을 높임<br>- 다소 아쉬운 점은 행사 중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사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행사장에서 겉도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 기획의 전문성<br>- 지속가능한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매주 축제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축제 리스크를 개선하고, 국내외 유명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컨텐츠 보완·발전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 수행<br>- 전년에 지적된 체험마을 위치가 친환경적인 조각공원 잔디위로 변경되었고 주제성 강화 등 주요 개선이 이루어짐<br>- 다만, 축제가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고 많은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비와 같은 궂은 날씨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취소되고, 많은 방문객들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서둘러 행사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날씨 리스크에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br>- 한성백제문화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체험마을'이나,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치고 의도치 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은 평화의광장 근처 조성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임<br>- 따라서, 방문객들을 우선적으로 한성백제체험마을로 이끌 수 있는 전체적인 동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4) 축제 발전성 | ○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가능<br>- 역사문화거리 행렬에 전문 연기자들을 한성백제인으로 분장·참여하여 재미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행렬이 이어졌고, 일본, 뉴질랜드의 자매도시 및 세계 미녀대회 참가자 등이 거리행렬에 참여함<br>- 이와 같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br>- 서울에서의 축제는 대부분 공연문화형 축제이거나 현대형 축제가 대부분인데,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백제시대를 테마로 한 전통문화체험형 축제로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상품 제공 가능하므로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좀 더 전문적으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와 노력이 필요로 함<br>-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문화관광축제는 일반적으로 지역민들의 축제참여가 높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자발적 축제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두드러진 축제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자립도 제고 가능<br>- 축제기간 중 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연계한 각종 물품 등을 세일·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br>-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내 롯데호텔 및 면세점과 연계하여 축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스탬프를 찍어주면 텀블러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 상품을 할인해 줌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참여를 유도함<br>- 롯데그룹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기업의 축제 참여 및 스폰서십 지원(축제 예산의 40%) 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향상되었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한성백제체험마을 유료 체험프로그램 운용으로 축제의 자생력을 확보함 |
| 5) 축제 성과 | ○ 축제의 인지도 제고<br>- 건국우유 및 롯데주류와 같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제품 라벨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홍보함으로써 한성백제문화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고,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br>-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각종 현대적 공연이나 문화예술행사가 주축이 되는 현실에서 역사라는 부분을 테마로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타 축제와의 차별성에서도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br>○ 관광객 만족도<br>- 개막식 예산을 줄여 한성백제체험마을을 초가 및 너와 부스 설치로 축제의 주제성 및 체험 실제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됨<br>-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축제 리플릿 등을 전진 배치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관광객 만족도가 제고되었을 것으로 사료됨<br>○ 지역 경제파급 효과<br>-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연계한 각종 물품 세일 판매 및 송파구내 관광기업들과 협력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등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사료됨<br>- 그러나, 다른 지방의 축제와는 다르게 서울지역의 방문객들이 다수일 것으로 사료되어, 굳이 송파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최측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산업별 (ex 도로여객운송업, 숙박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2 서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17일(일) / 1일간**
- **장 소 : 성북구 성북동 구간 (한신아파트 입구~홍익중고 앞 정류장)**
- **주 최 : 성북구**
- **주 관 : 성북문화재단, 누리마실 친구들**
- **주요행사**
  - ○ 요리 (공식초청) : 국가대표 요리사
  - ○ 요리 (자유참가) : 우리 동네 요리사
  - ○ 체험놀이 I : 이웃동네 예술장 (체험)
  - ○ 체험놀이 II : 지구여행자 마켓
  - ○ 공연 : 이웃동네 예술장 (공연)

## (2) 총 평

- **잘된 점**
  - ○ 주요 행사의 기획안에 따라 다양한 요리 및 체험놀이, 공연 등이 구성되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임
  - ○ 공식초청 행사인 '국가대표요리사'의 경우 대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처음 의도했던 대로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독특한 문화관광축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음식장터 수준으로 축제가 운영됨으로 인해,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주체 및 민간 핵심주체의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범한 수준의 축제로 치러졌으며, 외국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참여확대와 구민의 화합마

당을 이루기보다는 단순 방문객들이 들렀다가는 일회성 행사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문화라는 독특한 주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유치 등에 적극적 홍보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축제기획 방향에도 불구하고, 음식, 공예품 판매, 공연 등 부스단위로 구색 갖추기 식의 축제가 이루어짐으로 목적과 운영, 콘텐츠들의 일관성이 이루어지지 못함<br>○ 기획서와 실제 축제 운영내용의 일치가 가장 중요함<br>- 프로그램의 마련과 공간의 배치 등에 있어 다양한 성원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br>- 문화다양성 중에서도 다문화 쪽에만 집중하여 세계음식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양한 인종·민족·국가·세대를 고려한 문화다양성 등 주제의 적용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핵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유참가 형식으로 '우리 동네 요리사'의 경우 일견 참신한 시도로 보이고 있지만, 사업의 충분한 이해와 목적성을 반영하여, 역할분담을 토대로 한 특성별, 국가별, 음식별 구성으로 콘텐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인근상인들의 판매장소를 마련해주는 부스참여 수준으로 이루어져 축제의 특이성과 매력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br>○ 이에 따라 프로그램 취지의 걸맞지 않게 인기 있는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부스 위주로 방문객이 몰림으로써 (다꼬야키, 핫도그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가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움 측면이 있음<br>○ 공식초청 행사인 '국가대표요리사'의 경우 대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사관에서 나와서 요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관광객의 경우는 다른 부스나 코너와의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음<br>- '우리 동네 요리사' 등 타 부스와의 음식의 차별성(국가대표 요리사의 경우, 실제 해당 국가의 대표 음식 및 문화를 곁들인 설명 등) 및 역할분담/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인근 전철역 존재 등 접근성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역 출구로부터의 안내 등 관광객을 고려한 동선 유도 등이 미흡하며, 간단한 표지판 부착 및 배너 설치 등 관광객을 고려한 친절한 안내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임<br>○ '음식'이라는 콘텐츠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교실의 운영에 있어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조리를 한다던가, 식수와 쓰레기 관리 등에 있어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한 점 등이 발견됨<br>○ 축제 당일 더운 날씨였으며, 잘못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보임<br>-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는 자원봉사자 및 staff들도 많지 않아, 안내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음<br>○ 일부 부스에서는 참여자의 자녀들이 나와서 판매금액을 수금하는 등 모습도 보여 관리상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br>- 잡상인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장 분위기가 정돈되지 못한 점이 있음<br>○ 사이트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행사장 특성으로 인해 종횡 측면에서 부스배치를 횡으로 했을 경우 특정 부스에 관광객이 몰릴 경우 보행을 방해할 정도의 길이 막히는 사례가 나타남으로 인해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br>- 음식을 구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도로에 앉아서 음식을 취식하는 등 보기 좋지 않는 장면도 나타남<br>- 구매고객이 한꺼번에 몰림으로 인해 적시에 음식이 잘 공급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함<br>(ex. 쌀국수의 경우 익지 않은 채로 음식이 제공되기도 함)<br>○ 기타 축제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축제장 배경 음악 등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으로 보임 |
| 4) 축제 발전성 | ○ 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단체 참여 등 의지와 발전 가능성은 엿보이며,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음식이라는 보편적이고, 인기있는 성격으로 인해 축제의 기본적인 발전 가능성은 기대됨<br>- 단, 축제기획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축제가 기획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장터형식의 단순 마당이 펼쳐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방향성을 정립하고, 자립성을 담보할 전략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회성 행사에 그칠 우려도 매우 큼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특히, 단순 장터 형식의 축제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인근 음식점 등 미 참여 업소의 경우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br>- 실제, 축제 당일 인근 부스 미 참여 업소의 경우 방문객이 거의 찾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br>○ 축제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예산 매칭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문화다양성을 염두로 다양한 관광객(외국인 포함)의 유발효과를 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참가자들의 부스가 대부분이었으며(예시. 지구여행자 마켓), 관광객도 인근 주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내국인 위주로 이루어짐<br>○ 섭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려운 경우 인근 대학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임<br>○ 향후 축제의 방향성에 맞춘 문화다양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초기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홍보전략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3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9일(금) ~ 10월 11일(일) / 3일간**
- **장 소 : 동래문화회관, 읍성광장, 온천장일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 관 : 동래문화원/동래읍성 역사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행사(6)

- 동래부사행차 길놀이, 동래성전투 실경 무지컬,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동래장터 재현, 동래온천 용왕제 길놀이, 동래부사 송상현 이야기 마당극

○ 공연프로그램(12)

- 동래부사집무극재현(마당극), 여는 마당(난타, 불꽃쇼), 전통줄타기공연, 전통 민속공연(동래학춤, 동래야류 등), 숲속프린지 음악회, 동해누리 국악공연, 국악 관현악단 공연, 여성 오케스트라공연 등

○ 체험참여행사(23)

- 읍성민 씨름대회, 저울추달기체험, 동래읍성 성곽밟기, 역사탐방, 동래파전 주막운영, 장영실 과학체험전, 엽전, 호패체험, 민속놀이체험, 제기차기 왕 선발대회, 국궁 및 무술체험, 타임캡슐 미래 우체통 등

○ 부대행사(11)

- 동래세일 대축제., 문화관광형 동래시장 먹거리장터 및 퓨전파전 경진대회, 명륜1번가 음식품평회, 먹거리장터 운영, 주민자치회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임진왜란 423주기 추모제향, Young & Old Busking Festival 등

## (2) 총 평

- **잘된 점**

○ 동래읍성축제는 역사의 자랑거리인 승전이나 승리를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패전” 이라는 소재를 축제의 핵심 컨텐츠로 삼아 역사의 교훈과 반성을 이끌어 내고 현대의 축

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Black Tourism"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축제 소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 또한 전문배우와 지역의 동호인 그리고 일반아마추어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축제의 주연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축제의 참 모습을 보여줌

○ 아울러 금년도 홍보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의 양과 질을 증대시킨 점을 감안하여 향후 모바일 등 더욱 다양한 방법의 관람객 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인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외로운 성”은 동래읍성 북문 성벽과 주변을 활용한 야외뮤지컬로 미디어파사트 연출기법으로 현장감을 높였으며, 특히 동래부사 송상현과 왜장 등 주요 배역만 전문배우가 출연, 나머지 출연진은 주민 70여명이 공개오디션 후 출연진으로 참여한 주민참여형태로 운영되어 예산절감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진행됨<br>- 공연 초반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관객들과 출연진 모두 동요없이 연기 및 관람을 하는 모습은 인상적임을 넘어서 비장하기까지 함<br>○ 작품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향후 유료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br>○ “동래세가닥 줄다리기”는 동래구 전체 13개동을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2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 부산은행, 온새미학교 등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br>- 줄다리기의 참가자 숫자는 많았으나 대부분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젊은층의 참여가 아쉬웠으며, 향후 활성화를 위하여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센티브 발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br>- 참여기관도 단 2곳에 그쳐, 향후 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참여시켜 동대항, 기관 대항 등 다양한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여 줄다리기라는 전통소재를 신구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br>○ 식전행사 개념으로 개최된 “동래온천용왕제 길놀이”는 화려한 퍼레이드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식후행사 개념으로 진행된 농심호텔의 옥토버 페스트도 행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효과가 있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동래부사 납시오 마당극”은 동래부 동헌에서 개최되었으며 신호등 파손, 하수도 배관문제, 악성 민원인 퇴치 등 구청의 실제 민원내용을 극화하여 부사가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 관객들의 공감대를 높혔으며, 오프닝무대로 진행된 여성 7인조 합창공연도 과거와 현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음<br>○ “동래부사 송상현 이야기 인형극”은 어린이 시각에 맞는 인형극을 통한 주제성 강화 및 역사적 교훈 습득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br>– 단, 식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어린이 춤 경연대회는 관심유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행사성격과 상이하여 부적절하였으며, 시작 전 음향문제로 행사자체가 수 분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남<br>– 또한, 죽기는 쉬어도 길은 내어 줄 수 없다는 “전사이 가도난”이라는 어린이에게는 다소 어려운 슬로건을 별도의 설명 없이 따라 하게 하는 등 진행상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도 눈에 띄었음 |
| 3) 축제의 운영 | ○ 통역자원봉사자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3인 1조로 배치, 운영되어 외국인 관람객들도 비교적 무리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동아대 국제학부 중국어 전공인 김채성 학생은 친절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본 평가위원이 감동할 정도의 안내활동을 전개하였음<br>○ 관람객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역 청년봉사회, 해병전우회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축제로 운영되고 있었음<br>○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외로운 성”의 음향 및 조명 등은 장소가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내뮤지컬 수준으로 인상적이었음<br>– 자연지형을 적절히 무대공간으로 활용하고 좌우 숲을 객석으로 활용하는 등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객과 출연진이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를 연출함<br>○ 행사장소가 동래문화회관, 동래읍성광장, 온천장 일원 등으로 삼원화 되어 있어 여러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동선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행사장간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으나 관람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br>o 성곽밟기 행사의 경우 일부 구간의 멸실 및 보수공사로 집결장소의 변경이 있었으나, 행사 참가 신청자들에게만 개별 통보되어 당일 참가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었음<br>– 행사 변경내용은 다양한 채널로 충분히 공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관람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2구역 읍성광장(동래장터)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년도에도 행사컨셉과 맞지 않다고 지적되었던 부쉬맨빵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음<br>- 향후 동래파전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동래파전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 4) 축제 발전성 | ○ 행사 첫날 동래부사행차 길놀이에 부산시장이 퍼레이드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축제 육성의지를 피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br>○ 아울러 야외공연장 불꽃쇼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인근 도로의 시민들도 행사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등 주민의 참여 열기가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br>○ 또한 기존 축제 컨텐츠에 퓨전파전 경진대회, 옥토버페스트 등 여타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제의 컨텐츠를 보강하고 외연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돋보임<br>○ 홍보채널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왔다는 Mr. Ryan 부부도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습득하였다고 하는 등 홍보채널 다양화로 관람객 증가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br>○ 동래시장입구에서 개최된 퓨 전파전 경진대회의 경우에도 50여명의 참가자 중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2명이 참가, 향후 행사의 국제화 및 규모 확대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었으며 참가상품도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할 수 있음<br>○ 관람객 편의와 상권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부스와 상품의 판매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다소 난립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음<br>○ 특히 북문출입구의 경우 행사컨셉과 동떨어진 매듭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 5) 축제 성과 | ○ 동래읍성역사축제는 21회차로, 현재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국축제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음<br>○ 또한 축제 컨텐츠의 지속적인 보강과 확장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었음<br>- 인형극 등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있어 가족형 축제, 체험형 축제, 교육형 축제로 성장 가능성를 제시함<br>- 역사 속에 잊혀진 “동래아리랑” 복원을 개막식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숲속 프린지음악회, 타임캡슐 미래우체통, 국궁무술체험, 로드매직, 인형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즐겁고 풍성한 축제장이 되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기 언급한 것처럼 행사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이동이 다소 불편하였으며, 셔틀버스의 증설이나 보다 정교한 방식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축제장이 산속 읍성에 소재하고 있어 치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명이나 가로등의 확대가 요망되며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도 필요함<br>○ 복식체험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복식수량을 늘렸다고는 하나 인기가 높아 대기자가 많았음<br>– 향후 복식수량의 증대와 연령대별 체험 복식의 다양화 등이 요구됨 |

# 4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4월 5일(일) ~ 4월 19일(일) / 15일간**
- **장 소 : 대구 중구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주 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보존회**
- **주 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보존회**
- **주요행사**

○ 2015년 행사는 소풍이라는 주제 하에 프로그램 구성

- 약령시로의 소풍 : 식전행사, 개막식, 수문장 교대식, 조형물 전시, 약령솔문, 약초꽃동산, 게릴라 홍보 & 버스킹 공연
- 한방으로의 소풍 : 사상체질 & 한방힐링센터 운영, 동의보감 33가지 수 이야기 & 약선요리 전시관, 전승기예 경연대회 및 황룡패기 한마당, 약손 상상공작소 등
- 함께하는 소풍 : 메인무대(주제공연, 레크레이션, 음악회), 한방 족탕체험, 민속놀이 체험마당, 초가집 형태의 한방문화체험, 약령어린이 과거시험 전시전, 약령 한방 멋내기 체험 마당, 길 위의 피아노
- 시장에서의 소풍 : 한방로드아트, 약령예술점빵, 약령 먹거리 잔치마당, 조형물 전시
- 애깃거리 : 근대 골목투어, 약령 1박 2일, 대구약령 1박 2일, 이동형 퍼포먼스

○ 2015 기획프로그램

- 허준 골든벨 : 한의약학 관련 대학생 및 관련 업무 종사자만 참여 퀴즈 프로그램
- 물 체험 홍보관 :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 한방·약전 디저트 공모전 및 전시
- 게릴라 홍보 및 버스킹 공연 : 동성로 젊은 층 유입 프로그램으로 기획
- 길 위의 피아노(“Play me, I’m yours”) :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들어온 곳, 대구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Play me, I’m yours” 축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 길 위의 한방 Art Market 개장

○ 메인무대 프로그램

- 한방 탐구생활 & 경매, 허준 골든벨, 약령프린지, 전통혼례시연,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주제공연(허준이 웃었다), 약령 힐링콘서트 등

○ 상설 프로그램

- 약초생태 체험관 행사 : 약초 꽃동산
- 전시행사 : 약령서고, 조형물 전시, 한방약선 요리, 힐링식품 전시, 약령어린이 과거시험 공모전, 신비의 약령솔문 등
- 한방 체험행사 : 한방힐링센터, 사상체험관, 한방족욕체험
- 시장행사 : 예술점빵, 약령시 먹거리 잔치마당
- 예술문화 체험행사 : 약초 상상공작소, 예술점빵, 버스킹 공연, 약전골목 사람들
- 한방문화행사 : 펀머틴 만들기, 약초꽃 담은 부채 만들기, 약초꽃 네일아트

## (2) 총 평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대구약령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고 있음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매년 특별한 주제 하에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소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들의 관심을 끄는데 일정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방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방골든벨, 사상체질체험관, 전승기예 경연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해 방문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령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약령시장의 문화전략을 통해 젊은 층들과 소통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젊은 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양하게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약령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 약령시장 한방문화축제를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축제활성화를 넘어 약령시의 지속적 발전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임

-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표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축제기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대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과거와 전통에만 매진하다가는 새로운 문화를 희구하는 잠재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없음
- 따라서 축제가 현재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더불어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기획서는 주제와 축제개최 의도에 맞게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됨<br>○ 2015년 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한방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과 기획에 있어서 테마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됨<br>– 약령시로의 소풍이라는 컨셉 하에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구성한 점은 자칫 한방이라는 테마가 진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좀 더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기획했다는 점이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br>○ 향후 성공적인 축제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방이라는 주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기획·반영될 필요가 있음<br>○ 다만, 소풍이라는 주제 하에 개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고, 특히 약령시장 골목이라는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니 다소 산만한 감을 지울 수가 없었음<br>○ 축제계획서에 개별 프로그램의 행사내용은 잘 드러나 있으나 기획의도와 목적, 주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이 없이 여러 아이디어를 나열해 놓았다는 느낌이 있어 이 점은 내년도 축제 기획 시 개선이 필요함<br>○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의도하는 방향과 주제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컨셉이 필요함<br>– 현재의 축제는 약령시를 알리기 위함인지, 한방이라는 주제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약령골목 지역주민들의 화합축제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소풍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대표 프로그램은 허준 골든벨,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 전승기예 경연대회 및 황룡패기 한마당 등임<br>- 이 중 동의보감 진서의 재현이나 전승기예 경연대회 등은 다른 축제에는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향후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br>○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나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나 기획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br>- 기획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축제 프로그램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으나, 축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해 보임<br>○ 2015년 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특히 프로그램 구성과 기획을 소풍이라는 주제로 테마화했다는 점이 좋았음<br>- 축제장이였던 약령시장 내 길을 축제프로그램 배치와 콘텐츠에 맞게 소풍으로 명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은 축제장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완성도를 높인 점은 높이 평가함<br>○ 축제장에서 한방이라는 주제에 맞게 공연/경연 프로그램보다는 쉼터형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었는데,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br>- 특히 한방족욕체험장, 신비의 약초터널 등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참여율 또한 높았음<br>○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장소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적으로 제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함<br>○ 그러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려다 보니 다소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서 차년도에는 운영장소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전시체험 프로그램 중 사상체질체험관과 한방 약선요리 전시관 등이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중 사상체질체험관은 축제장 내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장시간 기다리며 참여할 정도로 참여도 및 만족도도 높았음<br>○ 특히 2015년부터 전문한의사들을 배치, 체질 감별과 더불어 태양인과 소음인 등 체험방문객 각자에 맞는 음식과 주의해야할 음식, 체질에 맞는 건강상담 등을 하고 내용을 현장에서 출력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그러나 아쉬운 점은 방문자에 비해 배치된 한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상담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었으며, 안내를 맞은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불친절이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br>○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구중심에서 개최된다는 점이며, 축제 주최 측이 이를 고려하여 동성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게릴라 홍보 및 버스킹 공연, 길 위의 피아노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강화에 대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됨<br>○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스탬프 골목투어'프로그램을 대구 근대골목과 연계해 투어상품을 운영한 점은 축제 외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됨<br>○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우리나라의 우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우선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한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지 전시로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방을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br>○ 대표 프로그램 즉 킬러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모든 사람들은 이 축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보거나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이 필요함<br>– 이는 방문객의 만족과 축제 구전 홍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는 마트형 프로그램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구약령시의 문화를 반영한 대표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됨 |
| 3) 축제의 운영 |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대구시 의료산업과(종합상황실), 대구시 중구청(행정지원본부), 약령시 보존위원회 사무국(축제총괄본부, 사무국) 등이 역할분담 및 협력하에 축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특히 대구광역시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대구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여러 지원을 하고 있어 중구청 차원의 축제를 넘어 대구시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br>○ 한편, 축제조직위는 축제프로그램의 현장진행을 위해 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의전행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축제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김으로써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함<br>○ 단계별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축제개최 1개월 전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SNS,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사전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행사 매뉴얼 숙지 및 학생을 포함하여 일반인 봉사자를 부스마다 배치하여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br>- 그러나 일부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경우 체험부스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행사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차년도 축제 개최 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br>○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 내 대학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계프로그램 활성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br>○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축제 주제와 부합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점은 향후 힐링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br>○ 축제장 내 엽전 환전소를 운영, 방문객 소비를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주변 약령시장 내 상가들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br>○ 축제장 내 프로그램 및 운영에 있어서 공간 특성상 효율적인 동선구축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좁은 보행로에 많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웠으며 차년도 개최 시 이를 고려한 공간 활용 전략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br>○ 대구약령시 축제는 일반시민 참여 및 협조보다는 약령시 보존회를 중심으로 참여 열기가 높았다고 보여짐<br>- 그러나 최근 한방관련 산업의 위기로 인해 예년에 비해 지역상인들의 참여 열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4) 축제 발전성 | ○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약령시장 내 한약관련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축제 주관단체가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라는 순수 상인중심이라는 것이 축제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봄<br>○ 한편, 최근 대구시는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유치, 의료관광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대구의료관광도시 발전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육성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br>○ 이와 같이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전통성과 관의 지원 등을 통해 축제를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짐<br>○ 특히 대부분의 총괄운영을 사단법인 약령시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또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한의약 또는 약령시장의 옛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축제장인 약령시장이 대구근대골목 등과 연접해 있어 축제 외적인 연계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또한 향후 축제의 발전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br>○ 그러나 최근 약령시장 내 한의약업 상가들이 약령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점은 축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축제지원뿐만 아니라 약령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br>- 구체적으로 동성로 인근 젊은층을 약령시장내로 유인할 수 있는 거리 재생 계획이 문화전략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축제 성과 |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위기에 처해있는 약령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됨<br>- 특히 축제개최와 함께 지역 내 한의약 상가들이 다소나마 수익증대 및 매출이 평소보다는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령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짐<br>○ 또한 전통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켰고, 특히 방문객들에게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한의약 관련 지식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br>- 특히 한의약 관련 지식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됨 |

# 5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7일(금) ~ 8월 9일(일) / 3일간**
- **장 소 : 송도 달빛축제공원**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인천도시공사**
- **주요행사 : 락 페스티벌, 슈퍼루키, 뮤직컨퍼런스, 라이브클럽**
  - ○ 펜타 스테이지 : 국내외 헤드라이너 아티스트 라이브 콘서트
  - ○ 드림 스테이지 :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라이브 콘서트
  - ○ 문라이트스테이지 : 국내 아티스트 위주의 라이브 콘서트
  - ○ 레게 스테이지 : 락외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콘서트
  - ○ 펜타포트 오픈스테이지 : 유료사이트 밖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펜타슈퍼루키 콘서트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진행)
  - ○ VIP 라운지 : VIP 티켓 구매 고객의 편안한 공연관람과 휴식 등 편의 제공
  - ○ 키즈 존 : 유아 동반한 가족을 위한 콘텐츠 구성
  - ○ 스폰서 존 : 스폰서가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이벤트 존
  - ○ 캠핑 존 : 약 2,000여명의 캠핑이 가능한 캠핑존
  - ○ 푸드 존 :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F&B 부스
  - ○ 지역특가 존 : 인천의 다양한 음식 및 제품을 홍보하는 지역특가 존 구성

## (2) 총 평

- **잘된 점**
  - ○ 국내에서는 규모 있는 락페스티벌로서 10회째 운영해오며 명성을 갖고 있는 행사로서 고유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사임
  - ○ 축제 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은 넓은 녹지와 주위에 별다른 시설물들이 없는 확 트인 공간은 참가자들이 락음악을 매개로 마음껏 소리 지르고 발산하기에 좋으며, 녹색의 부지가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락음악축제를 하기에 쾌적한 공간임

○ 또한 지속적으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외식업체나 주류업체 등 입점하여 영업 및 홍보하는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의 외관이나 시설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기에 좋으며, 축제의 분위기와 어울림

○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축제 정보안내가 현장에서 게시판과 유인물을 통해 방문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되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안내도 잘 이뤄졌음

- 특히, 공연 행사장 위치 안내 등이 효율적이었으며, 안내요원은 대체로 친절하게 응대하였음

○ 화장실과 여자휴게실, 모기퇴치제 등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힘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장소인 달빛축제공원은 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 행사가 달빛축제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축제의 혼잡성이 존재하고 있음

- 특히 메인 무대(펜타스테이지)와 이외 무대(드림스테이지, 문라이트스테이지 등)와의 거리가 인접하고 있어 동시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외에도 축제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평지이다 보니 푸드존, 지역특화존 등과의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음

○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축제 성격과 참가자 층의 개성이 뚜렷한 행사로 티켓구입자만이 입장이 가능한 공연의 성격을 갖는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행사로 인식되고 있음(물론 지역민을 위한 별도의 오픈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더욱이 록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니아층들에 의해 유지되는 제한적인 행사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 오픈스테이지(유료사이트 밖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펜타슈퍼루키 콘서트 등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지하철에서 뮤직갤러리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인천시민의 축제로서 승화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축제장의 푸드존에서 영업하는 외식업체 및 주류업체의 독점적인 영업으로 인해 높은 가격의 먹거리는 불만사항이며,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

○ 푸드존에 입찰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은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지역상인 및 지역음식의 참여를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자유로운 공연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응급시설과 캠핑장 주변 치안문제를 고려하여 안전요원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본 축제는 인천지역 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형 종합음악축제'로 발전시켜 도심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락페스티벌의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나감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의 락페스티벌로 성장함<br>○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락뮤지션의 공연을 통해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국내 대표 야외뮤직 페스티벌로서 자리잡았으며, 여름밤에 젊은이들은 물론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되어 바람직함<br>○ 그러나 주요 행사가 유료행사이고 한정된 공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축제로서 성장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동 축제는 출연뮤지션의 음악공연이 메인인 행사로서 어떤 뮤지션이 출연하느냐가 축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br>- 10년차 축제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명 뮤지션의 출연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임<br>○ 명실상부한 락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명 유명 뮤지션에 중점을 둔 축제라는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락페스티벌의 특성을 강화하여 대중성과 실험성을 갖춘 뮤지션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는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br>○ 동 축제를 지역문화축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연과 공연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어 지역의 문화를 알리거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 3) 축제의 운영 | ○ 식음료 등 부대서비스를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행사기획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문화 홍보나 참가자의 선택의 제한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의 소규모 업체와 대기업의 후원을 적절히 받는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br>○ 가장 더운 시기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늘 존을 마련하거나,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천막공간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br>○ 축제장에서 영업하는 외식업체 및 주류업체의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이것이 불만인 참가자들이 많았음<br>- 주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이트나 앱에서 사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하였음(축제 후원 주류업체의 맥주 한 종류만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가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인천지역의 문화를 알리거나 지역의 특산물이나 먹거리 등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br>– 인천지역은 차이나타운의 중화요리에서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많은데, 협찬기업의 웨스턴 음식이 접근성이 좋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상업화된 인상을 줌. 인천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알리는 부스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함<br>○ 축제 기념품 종류와 상품판매가 저조한 실정으로 축제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기념품 기획이 요구됨<br>– 마니아층이 많은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이 선호할 만한 기념품(예를 들면, 참가자와 출연가수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처럼 컴퓨터 작업을 하여 사진으로 출력, 이를 컵, CD앨범 등으로 제작)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 핵심 상품으로 개발 필요<br>○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이용은 편리하나, 셔틀버스 운행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부터의 시작이 다소 아쉬웠으며, 축제 종료이후 야간조명과 출구 유도사인이 부족하고 주차장소를 찾는 것이 불편하였음<br>○ 안내요원은 친절하나 인원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장애인 안내시설은 부족함 |
| 4) 축제 발전성 | ○ 올해로 10회를 맞는 락음악축제로서 명성을 가진 축제로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도 개성 있는 축제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br>○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음악축제로서 공연하는 음악가들의 수준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락페스티벌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락페스티벌의 성격이 락마니아가 즐길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머무르고 있어 지역 문화관광축제로서의 발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br>○ 향후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장소를 달빛축제공원에서 인천시내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락페스티벌이라는 축제의 특성상 락마니아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짙으나, 훌륭한 뮤지션들의 공연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야외에서 음악을 밤새 즐길 수 있는 장이라는 것 등은 국내 문화관광축제의 한 장르로서 발전시켜나갈 만함<br>○ ‘참가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축제였다’라는 의미가 큰 축제이며, 지역관광과의 연계는 미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효과나 문화홍보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명실공히 지역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락페스티벌, 문화축제가 되어야하며, 락페스티벌 축제를 달빛축제공원을 중심에서 인천 시내의 주요 장소로 확대, 축제기간 동안 인천시내에서 락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

# 6 광주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7일(수) ~ 10월 11일(일) / 5일간**
- **장 소 : 광주광역시 문화전당,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
- **주 최 : 광주광역시 동구**
- **주 관 : 추억의 7080충장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주 제 : 추억 & 어울림
○ 슬로건 : 느끼자! 추억, 즐겨라! 충장축제
○ 구 성 : 3개 부문 28개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 추억 속으로 : 7개 프로그램 (추억의 테마거리, 추억의 고고장, 변사극 등)
- 충장 속으로 : 11개 프로그램 (전국창작예술경연대회, 충장DJ 페스티벌 등)
- 어울림 속으로 : 10개 프로그램 (거리퍼드, 충장댄스, 아 데이 등)

- **중점추진방향**

○ 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문화전당에 걸맞은 특설무대, 고품격 노천카페 운영
- 아시아문화전당 ⇔ 충장축제 상호 홍보

○ 세계인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존 운영
- 세계인 한마당의 집중 강화를 통한 글로벌 존 형성
- Take-Out형 먹거리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문화 형성
- 외국인 전담해설사 운영을 통한 외국인 참여 편의성 도모

○ 킬러콘텐츠 프로그램 고급화 및 확대 운영
- 13개洞 거리퍼레이드 전문가 연출 강화로 스토리형 퍼레이드 구성
- 체험형 추억의 테마거리 연출로 추억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연출
- 추억의 고고장의 고품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참여 공간 연출
- 충장댄스 집중 육성으로 또 하나의 대표 프로그램 정착

##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명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7080이라는 명확한 컨셉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등이 모두 우수하며 특히, 시설과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2014년에 비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음

○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음

○ 타 축제와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어울림 프로그램에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으며 세대 간의 어울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됨

○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및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축제장 내 동영상을 활용한 안내판이 이색적이며 새로운 축제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식 공연 수단 또한 매우 인상적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매년 지적된 사항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에 테마가 없어, 매년 수준은 높아지지만, 내용은 동일한 수준임

○ 아울러, 거리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공간의 인도 부분에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이동을 막고 있으며 안전에도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음

○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부족, 주차 정보 제공 미흡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다소 나타남

○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스폰서십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 마련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임

### 제안사항

○ 축제의 명확하고 이색적인 테마 설정이 요구되며,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매년 다른 테마(주제)를 선정하여 그 테마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서 퍼레이드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이색적이고 창조적일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미도 더해질 것이며 다음 해에도 축제 테마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 부분이 필요하며, 축제의 주인공을 설정하고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축제 기획의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

킬 수 있음

- 단, 스토리와 축제의 시설/프로그램이 상호 일맥상통해야 함

○ 관광객 체험 편의와 수익 증대 측면에서 패키지이용권 등의 판매가 필요함

-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용권 판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축제와 지역 숙박을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축제장과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다소 거리가 있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나 행사장과 숙박장소 간의 야간관광거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함. 아울러, 축제 홍보물에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체계도 함께 수록함

○ 보다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추억의 7080 축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축제의 기획, 관리운영, 결산까지 추진함<br>○ 축제 기획의 목적이 영리 목적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환원해 주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br>– 대표 프로그램인 거리퍼레이드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전국창작예술경연대회는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임<br>– 다만, 거리퍼레이드의 경우 매년 다른 테마를 부여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이색적인 퍼레이드 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br>– 축제의 주제가 없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유형의 재미를 지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재 거리퍼레이드는 어울림의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관람형 프로그램임. 축제 후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음<br>○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12회를 맞은 추억의 충장축제는 7080이라는 '세대/시대'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축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 간에 다양한 체험과 소통,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축제임<br>– 많은 관광객 참여가 축제의 특이성과 매력성이 높은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타 축제와의 차별성<br>- 전국창작예술경연대회, 충장댄스, 거리퍼레이드 등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br>- 아울러, 다른 지역의 경우 행사장소가 농촌, 해양, 산 등이지만 충장축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축제임<br>○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br>- 행사장 및 주변 상권에는 많은 연계성과 영향을 미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함<br>- 다만 아쉬운 점은 동구청 전체 또는 광주광역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미흡했다는 것임(예를 들어, 축제와 숙박시설 간, 축제와 관광자원 간의 연계 방안이 요구됨)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운영의 효율성<br>- 축제 해설판이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주차장을 활용한 외국인 공연장, 구청갤러리 등은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음<br>-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거리가 혼잡하여 쾌적성이 떨어지고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임<br>- 또한, 메인 관광안내소 외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넓은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실제로 중간 중간에 안내탁자가 있으나 담당자가 없거나 홍보물이 없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음<br>- 관광객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많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안내소 등 거점구역별로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음<br>- 이에 거점구역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찾아가는 안내 및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음<br>(행사장 곳곳에서는 진행요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음)<br>○ 축제 기획의 전문성<br>- 13개洞 거리퍼레이드에 전문가를 연계시켜 연출을 강화함으로서 스토리형 퍼레이드 구성하고 축제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다른 축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음<br>- 아울러, 지역 소재 대학교수 및 각종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여 반영함으로서 축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였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충장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의 발전목표와 로드맵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됨<br>- 타 지역에서 유사한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목표와 로드맵을 통해 충장축제가 가져가야 할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수 있으며, 부족한 스폰서십, 기념품 제작, 스토리텔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br>○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br>-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참여 체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사항이라 판단됨<br>- 다만, 상가연합회 등의 재정적 후원 유도가 필요, 축제 기간 중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상가 운영자들이므로, 축제의 부족한 재원의 일부라도 스폰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구청에서도 축제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br>- 2014년에 비해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일부 해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음<br>- 아쉬운 점은 일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현상이 충장축제에서도 일부 나타남<br>- 특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팜플렛, 안내판 등에 화장실 위치를 알려 줄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 확대는 한계가 있어, 축제 기간에 기존 상업시설의 화장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br>- 주차시설은 충분히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부족했으며, 주차안내가 매끄럽지 못해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출함<br>- 향후 어플리케이션 또는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축제 기간 중 주차 정보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할 것임<br>- 축제장 인근 학교, 교회 등 지역시설 활용이 필요, 주차장,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에서 축제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학교, 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주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교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처치스테이로 활용이 가능, 무엇보다도 교회 주차장 활용도 가능함<br>- 어린이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 손목띠, 유모차 확보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행사장에서의 미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 안전관리체계<br>-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동구청과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축제 기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br>- 또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이 인상적임<br>- 다만 아쉬운 점은 연간 축제안전관리계획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역주민, 관광종사원의 사전 안전교육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임 |
| 4) 축제 발전성 | ○ 지자체장의 육성의지<br>-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의 축제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br>-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br>- 아울러, 충장축제의 백서 제작을 통해 축제의 역사, 성공사례, 성과 등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 백서는 국내 최고의 거리 축제로서의 충장축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변경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br>○ 축제조직체 구성 및 축제 재정자립도<br>- 축제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매년 축제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참여가 축제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br>- 아쉬운 점은 축제의 규모와 인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됨 |
| 5) 축제 성과 | ○ 수익성 강화<br>-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관리운영의 효과성을 위한 재투자 측면에서 재정 확충이 필요, 다양한 기념품 개발, 스폰서십의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br>- 예를 들어, 자체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거리퍼레이드와 관련된 가면, 티셔츠 등을 빌려줄 수 있음(한옥마을의 한복 렌탈로 1시간에 1만원 수준)<br>- 또한, 사진을 찍어주고 이를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 주최 측에서 인증도장을 티셔츠에 찍어 줄 경우 기념품으로 매우 호응이 높을 것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관광객 유발 효과<br>- 관광객이 4,000,000명 이상 방문하여 관광객 유발 효과는 높음. 다만, 충장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고민해야 할 것임<br>○ 관광객 만족도<br>-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굴하고 관광객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볼 수 있었음<br>-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축제 시작 전 실시하는 교육 중에 서비스 마인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지역 경제파급 효과<br>- 축제 기간 중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행사장 지역 상권이 활성화됨. 다만, 축제 참여자들이 동구 및 광주 전역으로 분산되어 지자체 전체의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다소 부족함 |
| 6) 기타 | ○ 코레일과 연계를 통한 이색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br>- 코레일과 연계한 7080 열차를 운행하고 열차 내에서 7080 관련 퍼포먼스를 제공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에 7080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b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br>- 축제 홈페이지의 경우 PC버전만 제공되고 있어 핸드폰으로 축제 정보를 검색할 경우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 및 홍보를 강화함<br>- 충장축제 만의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광주광역시 축제을 모두 아우르는 광주광역시 축제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함<br>○ 외국인 모객 및 브랜드 강화<br>-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br>- 아직까지 충장축제가 수도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서울시와 협약, 동구청은 서울 거주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관광안내소 등에 축제를 홍보)<br>○ 축제 T-셔츠 제작 및 분위기 확산<br>- 보령머드축제는 주황색 축제 티셔츠를 제작·판매하기도 하기만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여 축제기간에는 모두 착용시킴으로서 분위기를 확산시킴<br>- 이에 충장축제와 관련된 티셔츠를 시민들에게 제공, 거리축제 때 입기 운동을 전개하며, 거리 퍼레이드 때 자원봉사단의 경우 티셔츠 입고 안내한다면 눈에 쉽게 띌 수 있음 |

# 7 광주 광산우리밀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2일(금) ~ 10월 4일(일) / 3일간**
-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유원지**
-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 관 : 광산우리밀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농업중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식품(주), (주)우리밀빵·맥, 어등지역자활센터, 호남대학교**
- **주요행사**

○ 시작&끝 Village : 개막식, 폐막식

○ 문화 Village : 호남대 DRP응원단, 송원대 퓨전비보이, 국악팝핀댄스팀, 직장인밴드, 남도소리, 거리악사

○ 경험 Village : 우리밀 요리체험, 우리밀 역사전시홍보관, 밀집공예, 우리밀 새싹화분만들기, 우리밀 모래놀이, 밀농업 허수아비, 이색체험 FACE POT(나만의 화분), 대나무 활 만들기, 천연향초 만들기, 도자기 오카리나 만들기, 세계전통 민속놀이,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캐리커쳐(캘리그라피 가훈쓰기), 세대공감문화체험, 나무인형 만들기 등

○ 전시 Village : 밀밭풍경 사진전, 광산어린이전, 우리밀 바람개비, 우리밀 포토존, 우리밀 제품 전시·판매

○ 자랑 Village : 사생대회, 전국우리밀요리경연대회, 톡톡튀는 발명왕 페스티벌, 국제 댄스페스티벌&경연대회, 스마트폰 사진대회

○ 참여 Village : 우리가족 소망메아리,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가족사랑캠프, 우리밀 OX 가족퀴즈, 우리밀 보물찾기

○ 미리미리학습 Village : 율동놀이 세미나, 우리자녀 교육프로젝트 에어바운스

○ 맛자랑 Village : 향토음식

## (2) 총 평

### 잘된 점

○ 광산우리밀축제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약 20%이상을 담당했던 국산밀 종갓집으로서, 수입밀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한 축제로서 가치는 우수함

○ '뿌리는 우리밀 거두는 가족사랑'를 주제로 전국우리밀경연대회, 스마트폰사진대회, 우리밀모래놀이 등 광산의 우리밀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확대한 부분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광산우리밀축제는 우리나라 밀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 축제 기획, 연출, 홍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발전 잠재력이 있는 축제라 사료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광산우리밀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운영 등 광산우리밀축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축제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하에 집행위원회 등 축제전반의 운영, 평가를 책임지는 전문조직 설치로 내적역량 강화가 요구됨

○ 축제 개최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밀을 파종하는 시기도 아니고, 수확하는 시기도 아닌 때에 개최되어 축제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됨

○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 아쉬움. 축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밀 밭의 체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준비 및 개최관련 주체들의 역할, 세부 추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으나, 현장운영은 이벤트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br>○ '뿌리는 우리밀 거두는 가족사랑'을 주제로 우리밀문화 행사를 위해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우리밀축제 행사를 위해 마련된 종합계획안 내용은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반면,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서의 지역 주민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의 도약과 관광유도형 축제로의 전환 목표설정과 계획이 요구됨<br>○ 광산구 주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 축제로의 기획방안으로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br>○ 광주송정역 앞 관광안내소의 안내원이 우리밀축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광산구와 관광안내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함<br>○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체험행사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축제장 구성 기획과 프로그램 안내가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우리밀에 대한 홍보도 잘 되어 있음. 그러나 방문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행사장 오시는 길 부분에서 셔틀버스 타는 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알림이 필요함<br>○ 홈페이지, 팜플릿, 현수막, 축제 부스의 마당별, 부스별로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으므로, 우리밀 서체를 개발함으로써 안정감 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우리밀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br>○ 우리밀 밭 연계, 우리밀 주제관, 우리밀 메인콘텐츠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br>○ 우리밀은 광산구가 갖는 브랜드 파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평가되며,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에 부응할 수 있는 소재의 특이성과 확장성 있는 주제의 축제임<br>○ 대표 주제인 우리밀과 관련된 우리밀 요리체험 및 모래놀이는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체험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음<br>○ 프로그램 분야별 외주로 인한 연출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감독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총괄 연출이 필요함<br>○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미미하게 발굴 및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주제가 명확한 대표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br>○ 우리밀축제의 야간프로그램 개발과 광주광역시와의 연계관광 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광산구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의 공간 구성의 재배치, 무대공간의 효율성, 우리밀 메인 프로그램 연출은 부족하며, 우리밀 밭의 체험 연계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지역주민 참여 위한 노력이 요구됨<br>○ 참가자들이 축제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텝, 자원봉사자 등 축제운영자로 환대 및 서비스, 우리밀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육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br>○ 행사장 내 주변에 구급차 상시 대기, 주행사장에 의료종합상황실 운영 등 행사장 안전사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축제 주요 행사장과 먹거리 장터를 충분히 이격하여 축제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8개village의 구역이 모호하고 동선이 뒤얽혀 각 village별 집중도를 높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br>○ 상업 가수의 공연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 개최 시기에 맞는 주제(소재) 관련 대표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됨<br>○ 축제장에 들어서는 첫 입구와 온전하게 축제장에 들어서는 두 번째 입구에 우리밀축제 주제 관련 상징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축제 8개 village는 관람객의 동선이 얽히는 구조로서 각 village별 독자적인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br>○ 축제의 주제인 우리밀에 충실한 프로그램 구성 및 주민 참여를 위해 우리밀 홍보관을 크게 키우고 우리밀 생산과정부터 체험공간까지 주제관 형태로 만들어 수준 있는 우리밀 해설사를 양성해 다양한 내용을 알리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br>○ 대부분 축제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몽골텐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밀축제 이미지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축제 장소 연출을 위해 밀집을 이용하여 부스를 만들거나 전통느낌이 나도록 몽골텐트에 전통디자인을 가미해 분위기를 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br>○ 축제장 첫 입구에 각설이를 동원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상화 서명운동은 부스 마련으로 축제를 이용하여 센터 직원들의 사유 목적을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축제 이미지를 흐린 것으로 축제가 공익외적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함<br>○ 축제장 관리 및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널려있어 미관상 좋지 않았고, 시설에서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미적 관리를 통해 깔끔한 공연장의 모습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br>○ 축제를 관리하는 스텝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시설장비들의 위험이 존재했고, 축제장 내 위생관리와 종사자의 친절도 등 기본적인 환대 및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자원봉사자들 또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우리밀축제에서 우리밀과 관련 전체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확충하고, 체험부스의 경우 재료를 넉넉히 준비하는 자세 필요함<br>○ 광산구는 2대의 행사장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16차례 왕복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음. 명확하게 셔틀버스 승하차장 안내와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물이 없어 방문객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됨<br>○ 우리밀모래놀이는 어린이들의 최고 인기 부스로 이용객이 많아 에어바운스가 바람이 빠져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고, 크기에 맞게 적정인원이 들어가 놀이해야 하나 안전요원의 제재 없이 적정인원보다 과다 입장되어 위험을 초래함. 안전수칙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함<br>○ 우리밀홍보관을 만든 의도는 좋으나 내용의 질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면 주제관에 우리밀의 파종부터 밀 수확까지의 자연생태와 체험공간 등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주제관 형태로 만들어 다양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br>○ 세계전통민속놀이체험은 각 나라별 놀이기구만 덩그러니 놓아져 있고, 방문객이 마음대로 놀거나 조그맣게 써 붙인 안내에 따라 놀이해야 함. 향후 나라별 전통복장을 갖춘 도우미의 놀이에 대한 전문안내 있어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음<br>○ 스마트폰사진대회는 온라인을 이용한 사진콘테스트로서 MC가 실황을 안내하지만 축제 방문객 입장에서는 실체 없는 방송만 있으므로 호응도가 높지 않았음. 향후 대형스크린에 제출된 사진을 실시간 영상 처리하여 방문객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br>○ 타임시트에 없는 비행기·드론 동호회에서 부스를 차지하고 비행 시행을 하는 바람에 안전의 위협이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를 하고 있었으나 급조된 기획인 듯 스텝의 저지가 없었음<br>○ 까다로운 음식부스 관리로 음식의 맛과 위생 등을 철저히 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먹거리 개발과 축제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필요가 있음. 먹거리부스의 메뉴 중 팜플릿에는 우리밀짜장이 있으나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밀과 관련된 음식이 아닌 일반적인 음식이었음<br>○ 우리밀을 이용한 메뉴로만 승부하는 먹거리부스로 거듭나야 할 것임. 매년 전국우리밀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입상된 팀을 다음해 축제 기간에 먹거리부스에 입점하게 한다면 연쇄적인 효과와 광산우리밀축제가 우리밀 대중화에 앞장서는 힘 발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됨<br>○ 주제가 명확한 축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밀 주제관의 확장 운영에 더 많은 예산과 전문 해설사의 배치, 우리밀 밭의 체험프로그램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2007년부터 '광산우리밀축제 추진위원회'가 계승, 축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주제가 명확한 축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밀 주제관의 확장 운영에 더 많은 예산과 전문 해설사의 배치, 우리밀 밭의 체험프로그램의 확장이 필요함<br>○ 광산우리밀축제는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행사로 먹거리 소재인 우리 밀을 축제화 함으로써, 다른 축제와 구별되는 변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축제로 사료됨<br>○ 우리밀을 이용한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유료화시킴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기대가 절실하며, 향후 규모나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 구축이 절실함<br>○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축제 자체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여행업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축제장을 방문 유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연계관광활성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br>○ 9회를 이어온 광산우리밀축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광산 우리밀 브랜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로 민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 5) 축제 성과 | ○ 축제의 핵심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역사회, 우리밀 관련단체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광산구의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br>○ 2015년에는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 달성<br>○ 축제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 지역사회, 우리밀 관련 단체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고 광산구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br>○ 지역 산학협력을 통한 축제장 및 광산의 관광지 시티투어, 여행업계·관광협회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 강화 노력이 필요함<br>○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우리밀축제의 명확한 지향가치(value)와 중장기적인 육성 로드맵이 없다는 문제점 보완과 국제적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광산우리밀축제 만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노력이 필요함 |

# 8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9일(금) ~ 10월 11일(일) / 3일간**
- **장 소 : 뿌리공원 및 스카이로드 일원**
- **주 최 : 대전광역시 중구**
- **주 관 : 효문화뿌리축제 준비위원회**
- **주요행사**
  - ○ 문중퍼레이드
  - ○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 ○ 수상창극

## (2) 총 평

- **잘된 점**
  - ○ 본 축제는 우리나라의 근본적 가치인 효를 주제로 한 축제로 축제를 통해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효의 정신을 일깨워줌으로써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에 계승하는 모범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축제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뿌리공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자체장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열정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축제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축제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축제에 대한 열정이 강하며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훌륭하나 부분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홍보 등 축제 규모나 역사에 비해 대표프로그램이나 행사장 운영 등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임. 특히 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이다 보니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젊은 세대와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행사장은

너무 정돈이 잘 되어있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좁은 진입로나 축제 상징물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기획은 프로그램이나 운영, 실행계획 등이 잘되어있고 체계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시킨 프로그램 등이 잘 정리되어 있음. 또한 일년간 준비한 흔적이 잘 나타나 있으나 미래비전이나 장기적인 플랜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전략과 축제의 미래비전에 관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본 축제의 특성은 우리나라의 근본적 가치를 주제로 주민화합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축제로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음<br>-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 문중퍼레이드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퍼레이드로 각 성씨별로 참가를 유도하여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타축제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됨. 특히 참가팀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더 완성된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임<br>-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축제캐릭터개발 : 문중퍼레이드나 청소년 동아리경연대회 등이 호응을 얻어 이제는 많은 참가자가 경쟁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어르신과 청소년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으나 끝나면 다소 지루한 개회식이 이러지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특히 퍼레이드를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슬로건, 캐릭터 등 현재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함<br>-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행사장이 옆의 강가와 어울러져 수상창극 등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음. 수려한 산세와 강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흔들다리나 케이블카설치계획과 연계된 대형뮤지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함 |
| 3) 축제의 운영 | ○ 일부 축제들이 대행사를 통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비해 본 축제는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축제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반면 디자인이나 수용태세, 프로그램 완성도 등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 부분적으로 대행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홍보의 효율성 면에서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소구를 하였다고 보지만 기사화 될만한 이슈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부족. 문중퍼레이드 및 청소년 행사, 수상창극 등을 좀 더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음<br>- 축제 주행사장 주변에 문중별로 설치·운영하는 체험부스는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앞으로 운영지원을 통해 활성화가 필요함<br>- 접근성 공간배치는 좁은 공간에 세련되게 부스를 설치하는 등 세심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중고등부의 행사장과 초등생의 행사장을 별도로 하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여 음향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음. 주차장, 화장실은 워낙 준비를 많이 하여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함<br>-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주로 음식을 제공하는 부스에 있었으나 청소 및 각 부스 참여 등 부분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었음. 대부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는 독도플래시몹 등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br>-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메뉴얼이나 기본계획 등은 잘 되어있으나 행사장이 강가와 인접하여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4) 축제 발전성 | ○ 본 축제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는 축제로써 특히 문중퍼레이드나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임<br>- 자치단체장의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함. 다만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여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이를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로 일부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br>- 축제준비위원회는 지역의 유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외부 축제 전문가나 교수 등을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영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축제를 보고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함<br>- 축제의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점점 중요시 되는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진주유등축제의 부교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축제의 재정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본 축제는 재정자립은 아니지만 문중별로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하여 각 문중에서 자발적인 예산을 투입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공원을 가꾸는데 도움이 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통해 전국의 각 문중의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이루어냄. 2,000명-3,000명 대규모 참여가 이루어짐. 특히, 축제행사 중 청소년 경연대회 등의 참가자수가 늘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참가함<br>○ 아직은 이렇다할 지역연계 효과가 있는 축제는 아니지만 뿌리공원과 다수의 관광자원을 효라는 정신문화와 함께 브랜드화시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br>○ 본 축제를 계기로 유치하여 현재 축제장과 인접하여 조성중인 효문화원조성사업(보건복지부)이 완료되면, 축제와 연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효문화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9 이천 쌀문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21일(수) ~ 10월 25일(일) / 5일간**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
- **주 최 : 이천시**
- **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문화마당 : 농심풍년큰잔치, 창작무용, 사물판굿, 봉산탈춤, 경품추첨 등
  - ○ 풍년마당 : 이천쌀홍보관, 전통혼례, 거북놀이 등
  - ○ 기원마당 : 놀보밥, 공양미삼백석, 쌀사랑깃발만들기, 풍년대장군, 윷놀이와 윷점 등
  - ○ 동화마당 : 가족인형극 마임&마술 농촌나드리, 벼탈곡, 모내기, 인절미 만들어먹기 등
  - ○ 햅쌀거리 : 길놀이(갯돌/월쑤/거북놀이), 사진전, 이천쌀진상행렬, 우마차운행 등
  - ○ 기원마당 : 풍년을 자축하는 마당극,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소원의 마당 등
  - ○ 놀이마당 : 풍년놀이, 전통놀이, 대동놀이 등
  - ○ 농경마당 : 마당형상설공연, 추억의놀이, 짚공예, 가마니짜기, 쌀짜뚜리 등
  - ○ 쌀밥카페 : 가마솥밥~이천명!이천원!, 이천쌀밥명인전, 세계쌀요리경연 등
  - ○ 주막거리 : 이천쌀밥, 술, 안주 판매 등
  - ○ 햅쌀장터 : 햅쌀/농특산물/한과판매, 도자기 바자회, 고기/돼지고기시식
  - ○ 동네마당 : 추수감사제 및 개막놀이, 노인회의 날, 이천시 씨름대회
  - ○ 그 외 : 설봉미술대회, 휘호대회, 사진전시회

## (2) 총 평

- **잘된 점**
  - ○ 이천쌀문화축제는 세계 쌀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천의 위상제고와 이천의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축제문화로 계승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축제방문객을 통한 이천쌀 홍보 및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거행되었음

○ “흥겨운 만남～♬ 행복한 나눔～”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축제 기간 동안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됨. 또한 농업인들만의 풍년행사를 자축하는 축제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도농교류의 축제로 지역민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연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 하려고 노력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15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음

○ 대한민국축제컨텐츠 대상은 국가 이미지 개선과 지역의 유, 무형 컨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축제를 선정해 수상함

○ 이천쌀문화축제가 대한민국축제컨텐츠 대상에서 특히 축제경제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 때문이라 생각됨

○ 이제는 축제자체의 운영에서 도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운영시스템이 구축해야 함

○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축제 프로그램 참여의 유료화는 필요요건이고 축제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축제기념품 제작과 판매 등 수익구조 다양화에 보다 적극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또한 가격설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

○ 또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여 옥외광고의 유치 뿐 만아니라 기업과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현재 축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으로 향후 쌀 혹은 농업관련 기업의 협찬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의 축제운영의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와 관광관련과의 협업을 통하여 축제를 기획·운영할 필요도 있음. 야간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하여야 할 것임. 축제에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을 축제 주최 측에서의 체계적인 통계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이천쌀문화축제는 추진방향을 농업인들이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농업인 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산물을 직거래 하는 도농교류축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의 고유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정함<br>○ 기본구상으로 나눔 마당을 설치하여 이천의 농업인들은 방문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쌀떡, 쌀음료, 쌀밥과 반찬, 화분, 축산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 수시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민들은 자신의 재능을 농업인 및 축제방문객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함. 이의 실현을 위하여 “나눔”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흥겨운 만남~ 행복한 나눔~” 이라는 슬로건으로 11개의 마당을 구성하여 공간별 차별화된 연출을 하였음<br>○ 그러나 2014년도에도 풍년나눔, 행복나눔의 슬로건으로 나눔을 설정하였는데 비슷한 주제보다는 새로운 주제의 설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도 이루어졌으면 함. 또한, 금번 축제의 기본구상인 도농교류의 축제로서 도시민들이 기부한 나눔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알림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성있는 특화문화상품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의 전환 및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 축제 콘텐츠의 또 다른 특성은 공연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체험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려하고 있고 특히 체험프로그램은 개별 참여형 보다는 집단 참여형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가 용이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면에서 금번의 축제에서 개막 대동놀이를 대공연장에서 운영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흥겨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임<br>○ 축제의 가장 큰 지향점은 ‘대동’으로, 이러한 대동의 공간마련을 "이천쌀문화축제에서는 이천 쌀을 소재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놀이거리를 농사를 짓던 놀이 문화 속에서 찾아낸 것은 바람직한 기획이었다고 보여짐<br>○ 대표축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초대형 가마솥에 2000명분의 맛있는 쌀밥을 지어 방문객이 2,000원을 내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프로그램과 같은 이천(2000)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보다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함<br>○ 이천쌀문화축제의 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들이 있었으나, 축제에서 그 캐릭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음. 캐릭터를 축제의 마스코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이용한 축제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했으면 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의 기념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축제의 기억을 오래도록 남기는 중요한 매개체이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표현할 수 있어서 방문객에게는 축제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주고,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br>○ 축제의 기념품은 국가 및 지역의 특성, 각 축제의 마스코트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공모전 및 협찬 업체 등에 의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기념품의 개발, 기념품 판매샵의 운영 등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표프로그램의 이슈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br>○ 축제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보였고 또한 야간프로그램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함. 특히 여러 마당에서 벌어지는 대동놀이와 마당극 등의 공연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것이 아닌 이천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기획도 필요하리라 생각됨 |
| 3) 축제의 운영 | o 행사장의 공간구성의 전제로 농업인, 예술인, 전문놀이꾼 등 참여단체 성격별로 공간을 분리하고 起(거북놀이)→承(농경문화)→轉(잔치와 놀이)→結(먹거리와 판매)순으로 구성하고 행렬 및 대동놀이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단위공간들의 연계성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편의시설들은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며, 축제장 곳곳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편의시설들은 모두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었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해두어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은 편의시설 외에도 이동식 ATM기를 설치해두어 관광객들의 소비활동의 편의성을 높임<br>o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확보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축제 편의시설 마련과 서비스 강화는 필수적임. 이는 관광축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을 이외에 일반 방문객을 위한 차양막, 택배시설, 물건보관함 등의 편의시설과 노약자와 장애우를 위한 휠체어, 점자 팸플릿 등의 차별화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시설 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음<br>o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축제 행사 진행요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음<br>o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할 겸 음식 판매부스에서 판매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음<br>o 쓰레기통을 배치하되 일반적인 쓰레기통이 아닌 이천쌀문화축제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쓰레기통을 만들면 축제 몰입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무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대시설도 농경시대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관람객의 몰입에 긍정적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됨. '무대가 쌀농사와 관련된 분위기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음<br>○ 11개의 마당을 구성하여 그 구성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나 동화마당의 경우 동화와 관련이 없는 부스가 일부 설치되어 동화마당이라는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았음. 이에 동화마당의 경우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 많은 공간을 이들 아이들의 꿈과 희망 등이 연출될 수 있는 특화 동화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면 함. 동화나라에서 인형극의 공연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되지만 그 주제를 이천지역의 인물과 유형적 유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요구됨 |
| 4) 축제 발전성 | ○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 지역 그리고 쌀문화와 관련된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 기존 한계점으로 인식되었던 교육적 형태의 축제가 아니라 방문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축제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함<br>○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축제 조직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축제에 투자할 수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조직체를 통하여 축제 관련 전담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상시적인 축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br>○ 축제장 내 유료프로그램은 많지 않았고 여러 경우 체험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점점 줄고 있는 요즘, 이러한 환경에서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유료화가 필요함. 또한 지역의 다른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컨텐츠를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br>○ 기업의 후원이 부족함. 축제장의 현수막 등에 기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후원 및 지원 확보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후원기업에 대한 알림에도 적극적이어야 함. 축제기간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운집하므로 쌀과 관련된 특정 제품이나 기업의 광고효과가 큰 이점을 이용하여 축제장내에 기업체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축제경비 일부를 기업체에서 지원 받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최근 전시와 운영의 기법은 현대인들의 감성과 기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최근 증가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HMD 기술과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이천쌀문화관련 공간이 있었으면 하며,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방문객들은 비일상적 경험을 하게 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지리라 생각됨 |
| 5) 축제 성과 | ○ 이천쌀문화축제를 통하여 이천은 쌀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천의 위상제고와 전통농경문화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농경문화에 대한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아이들에게는 농경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었음. 특히 축제방문객을 통한 이천쌀 홍보 및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 실현과 이천쌀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상승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생각됨<br>○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 정도가 낮았으며,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한 콘텐츠의 개발에도 관심을 보다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축제에서 지역민의 참여도는 높았으나 그에 비해 외지 축제 방문객들과 함께 즐기는 대동제적 성격의 놀이마당을 펼쳐 보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천쌀문화축제가 이천쌀 이외에 이천시를 대표하는 도자기, 온천, 복숭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10 가평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9일(금) ~ 10월 11일(일) / 3일간**
- **장 소 :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과 가평읍 일대**
- **주 최 : 가평군**
- **주 관 :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주요행사**

○ 재즈공연

| 프로그램 | 장 소 | 시 간 | 비고 |
|---|---|---|---|
| 재즈 아일랜드 | 자라섬 중도 내 잔디광장 | 16:30-21:00 | |
| 파티 스테이지 | 자라섬 중도 내 잔디광장 | 21:20-23:20 | |
| 페스티벌 라운지 | 자라섬 캠핑장 내 다목적 운동장 | 12:30-16:45 | |
| 재즈 팔레트 | 가평읍사무소 앞 | 12:30-16:20 | |
| 재즈 큐브 | 가평읍사무소 앞 | 21:30-00:20 | |
| JJ 화원 | 자라섬 옆 이화원 | 11:30-18:15 | |
| 웰컴 포스트 | 자라섬캠핑장 입구 | 12:00-23:45 | |
| 어쿠스틱 스테이지 | 자라섬캠핑장 내 | 13:00-15:45 | |
| 팝업 스테이지 | 자라섬 캠핑장 내 다목적 운동장 | 16:45-19:00 | |
| 미드나잇 재즈카페 | 가평읍 소재 3개 카페 | 21:30-23:45 | |

○ 부대 공연

- 오프밴드(54개팀), 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4박5일),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자라섬 올나잇 시네마, 가평 청소년 페스티벌 참여 프로그램(3개팀), 재즈모험단 재키즈

## (2) 총 평

- **잘된 점**

○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하 JJF)은 현재 국제적인 재즈행사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가평은 농업과 관광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음. 하지만 JJF 개최 12년이 지난 현재 가평은 '재즈축제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음. 따라서 JJF는 가평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보다 동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무료로 운영되어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JJF의 경우, 주요 콘텐츠가 대부분 유료 행사여서 재정 자립에 근접하고 있음.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즐긴다."는 기조 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관람객은 축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축제의 운영주체들은 관람객의 의도와 요구(needs)를 축제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선순환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JJF의 주요 타깃은 20~30대 마니아층임. 하지만 축제 공간의 경관이 수려하고, 캠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등 관람 환경이 뛰어난 점 때문에 재즈에 큰 관심이 없는 관광객까지 아우르고 있어 돋보였음

○ 축제 기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축제장 체류 시간이 평균 7시간 이상이었음(이하 축제에 관한 양적 평가자료는 "『제12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평가 분석』, 문화컨설팅 '바라', 2015. 11."을 인용한 것임). 축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고, 관람객 중 외지인의 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외지인 재방문율도 42.7%를 기록했음. 이런 점 등으로 볼 때 JJF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JJF 개최 후 가평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성해가고 있지만, 이 축제가 가평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속에서 전승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단계임. JJF가 지역민의 삶 속에 녹아든 지역축제로 정착하려면 가평이 '재즈축제의 도시'가 아니라 '재즈의 도시'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확장해서 지역민 다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 실행해야 할 것임

○ 축제의 중심공간인 자라섬을 벗어나 가평읍내에서도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올해의 경우, 재즈팔레트와 재즈큐브 공연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미드나잇 재즈 카페'는 수요에 비해 공간이 좁아서 아쉬웠음

○ 기업의 협찬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축제의 재정 자립에 기여하는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지역민의 상품판매부스가 '가평주민먹거리/전시체험홍보'에 집중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스는 기업 부스로 채워짐으로써, 비공연 영역의 축제공간이 '지역민의 장'이라기보다는 '협찬기업의 장'으로 비춰지는 점이 아쉬웠음. 향후 공연 영역은 물론 비공연 영역에서도 지역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전반적으로 볼 때 축제의 기획 목적이 명료하고 콘텐츠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음<br>○ 올해도 재즈 마니아들이 열광할만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초정해서 기대에 부응했음. 특히 독일의 뮤지션을 초청해 연주하는 'GERMANY FOCUS' 프로그램은 이 축제가 단순히 지역축제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 재즈문화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축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음<br>○ 세계적인 뮤지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 뮤지션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축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육성한 팀의 공연도 진행되었음(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 또한 재즈가 아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재즈 마니아와 함께 온 일반 관람객의 음악적 욕구까지 배려했음<br>○ 축제의 중심공간이 자라섬에 위치해 있어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평읍내에 '미드나잇 재즈카페', '재즈큐브' 등을 운영하였음<br>○ 공연이라는 콘텐츠와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진행한 체험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br>○ 운영, 홍보, 편의, 안전 등에 관한 계획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유료 공연 무대인 재즈아일랜드는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션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었음. 특히 스파이로 자이라, 리차드 보나, 클라우스 돌딩거's 패스포트 등의 뮤지션에 대한 반응이 좋았음. 관람객들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공연의 감흥을 춤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열띤 반응을 보였음<br>○ 무료 공연 무대인 페스티벌라운지, 어쿠스틱 스테이지 등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재즈 공연이 열렸으며, 힙합·락 등의 여러 가지 음악 장르도 편성되어 재즈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축제를 즐길 수 있었음<br>○ 유료(1일권 45,000원)와 무료 공연의 콘텐츠 및 관람환경(무대, 관람석 구획 등) 차이가 나타남. 유료 공연의 질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관람료가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유료 공연의 관람을 포기하는 이들을 고려해서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무료존에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 둘째 날에 열린 '파티스테이지'의 경우, 기획의도와 달리 관람객의 반응은 정적이었음. '재즈 아일랜드'의 마지막 공연(리차드 보나)이 매우 흥겨웠기에 그 느낌이 더 강했음. '파티'라는 컨셉에 부합하려면 보다 역동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임<br>○ 주최 측은 매년 특정 국가를 정해 그 나라의 여러 뮤지션을 초청하는데, 올해의 초청국은 독일이었음(GERMANY FOCUS).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 국가의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br>○ 이 축제의 매력 중 하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수려한 자연 경관에 둘러싸여 볼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축제가 열리는 시기가 단풍이 물들어가는 때여서 경관이 더 아름다웠음<br>○ 축제장 곳곳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짐. 지정된 좌석 없이 자신이 준비해온 돗자리· 간이의자·텐트 등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았음. 졸리면 잠도 청하고, 음식이나 와인 등을 먹고 마시는 편안한 분위기였음. 관람 환경이 자유로워서인지 어린 아이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눈에 많이 띄었음<br>○ '재즈모험단 재키즈'의 공연은 재즈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을 위한 시간이었음. 특히 공연이 welcome post라는 작은 무대에서 열려 관람객과 공연자가 소통하기에 용이했음. 관람객의 상당수가 재즈에 대해 잘 모르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단 재즈 교육이 재즈와 축제를 즐기는 선에서 그쳐야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교육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br>○ 주최 측은 재즈 육성 프로그램으로 '국제재즈콩쿨'(짝수해)과 '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올수해)를 운영함. 두 프로그램은 격년제로 번갈아서 운영되는데, 올해는 홀수해이므로 '크리에이티브 뮤직캠프'가 열렸음. 이 프로그램은 사전에 10명의 뮤지션을 선발해서 4박5일간 트레이닝 시킨 뒤 축제 무대에 올리는 것인데, 재즈아일랜드에서 공연하는 뮤지션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강사진의 수준이 높았음. 그래서인지 참가 뮤지션들은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 했으며, 이들의 공연을 본 관람객의 반응 역시 좋았음<br>○ '미드나잇 재즈 카페'는 가평읍 소재 카페 3곳에서 열린 작은 재즈 공연으로, 관람객의 동선을 자라섬에서 가평읍내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됨. 하지만 한 곳당 한 팀의 공연만 이뤄진데다, 평가자가 찾은 두 곳 모두 자리가 없어 늦게 온 사람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음. 이 프로그램은 가평읍내를 축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핵심 콘텐츠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관람객의 반응도 좋았던 만큼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가평읍사무소 앞에서 열린 '재즈팔레트'와 '재즈큐브'는 관람객이 적고 공연장의 분위기가 대체로 정적이었음. 가평읍내에서 벌이는 축제행사 가운데 메인 프로그램인 만큼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br>○ JJF의 대표 음료인 '자라섬 뱅쇼'는 맛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 음용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며, 지인에게 줄 작은 기념품으로도 적합했음. '재즈 와인'과 '재즈 막걸리'도 맛과 가격 면에서 만족스러운 상품이었음<br>○ 주최 측은 JJF 공식 페이스북를 통해 가평의 맛집을 소개했으며, 가평군 소재 기업 및 영농조합과 함께 재즈막걸리·재즈와인·자라섬뱅쇼를 만들었음. 그리고 입장권 구매 시 5,000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br>○ 한편, 가평군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및 가평 홍보 부스를 마련함. 홍보 부스에서는 가평의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무료로 배부해 관광객이 가평을 다시 찾거나, 더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함<br>○ '자라섬 올 나이트 시네마'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저렴한 가격(10,000원)에 음악 또는 초청국(독일)의 영화를 감상하는 프로그램임. 밤늦도록 축제를 즐기다가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놓치거나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음 |
| 3) 축제의 운영 | ○ JJF의 자원봉사자(자라지기)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 축제 기간 내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 선발하여 교육시킴으로써, 맡은 임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자라지기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했으며, 1인당 '1일입장권(45,000원 상당)'을 6장씩 주는 등 노고에 보답함<br>○ 자원봉사 경험자들은 대개 자원봉사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음. 높은 만족도는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졌으며, 다년간 참여한 숙련된 자원봉사자(으뜸자라지기)들은 축제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였음<br>○ 많은 축제의 개막식에서 기관단체장 등의 축사와 내빈 소개 등이 일방적이고 요식적으로 길게 이어져서 관람객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비해서, JJF의 개막식은 가평군수 등 4명이 나와 간단한 스피치를 하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북을 치는데 불과 3분 정도만 걸려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음<br>o 공연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음. 평가자는 공연이 여러 무대에서 열리는 만큼 어떤 공연을 볼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지체가 반복되어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했음. 심한 경우에는 40여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공연 시간에 맞춰 교통편을 예약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또 하나의 축제 공간인 가평 읍내와 축제장인 자라섬 사이의 길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 특히 '미드나잇 재즈 카페'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가기 힘들었음<br>○ 재즈아일랜드(유료)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4개나 달려 있어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음. 하지만 페스티벌라운지(무료) 무대에는 스크린이 없어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는 음악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음<br>○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시간에 서울로 가는 셔틀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음. 교통편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하지만 행선지가 서울 지역밖에 없고, 홍보가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음<br>○ 전문성을 지닌 총감독이 애착을 가지고 12년간 계속해서 활동해온 것이 축제 기획과 운영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총감독 휘하의 인력들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 운영에 숙달된 모습을 보여주었음<br>○ 주최 측은 지난해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연, 지역특화음식, 야간프로그램 등을 만들고, 지나친 상업성 및 유료존 입·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어린이를 위한 공연인 '재즈모험단 재키즈'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이 좋았음<br>○ 인쇄물, 홈페이지, 현수막, 기념품 등에 올해의 축제 코드를 일관되게 적용해 세련된 느낌이었음. 특히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음<br>○ 가장 눈에 띄는 홍보 방식은 페이스북 활용이었음. 공연자, 프로그램, 가평 맛집, 준비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서 소소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와 축제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감을 높이는데 기여했음<br>○ 외지인 재방문율이 42.7%로 상당히 높았음. 높은 재방문율은 곧 해당 축제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지인들에게 구전홍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구전홍보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대상에게 신뢰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br>○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축제장에 접근하는 데 무리가 없었음. 특히 가평역에서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있고 안내도 잘 되어 있었으며, 일정 지점부터는 재즈가 흘러나와 초행길임에도 지루하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음<br>O 유료존의 경우 돗자리, 의자, 텐트로 관람구역을 나누고, 통로도 잘 확보해두어 질서정연하였음. 반면 무료존에서는 다리가 달린 의자를 아무 곳에나 펼 수 있어 관람에 방해가 될 때가 있었음. 그리고 비가 올 때 우산을 쓴 사람이 많았는데, 시야를 가려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만큼 우천시 축제장 입구에서 우의 착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주차 공간 부족, 화장실 부족, 장시간의 유료존 입장 대기 등의 문제가 있었음. 그리고 페스티벌라운지와 재즈아일랜드에 관람객이 몰리면 전화와 무선 인터넷(LTE)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음<br>○ 축제 기간에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이 교통 안내 등을 맡아주었고, 관내 농협·학교·시설공단 등의 협조도 잘 이뤄졌음<br>○ 예외적이긴 해도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와 공연 시간이 당겨지거나, 일부 주민들이 축제를 '자신들과 상관없는 행사'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보임. 향후 지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화 전략' 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서, 주민들이 일정한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임<br>○ 자원봉사자와 사무국 요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별 무리 없이 축제를 운영하였음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가 안정적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br>○ 올해로 12회를 맞은 JJF는 세계적인 수준의 재즈는 물론 다양한 수준의 국내외 재즈를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음<br>○ 그리고 가평은 캠핑장, 펜션 등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어서 체류형 축제로 발전할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음. 축제의 주요한 향수층인 20~30대 재즈 마니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강점임<br>○ 축제는 총감독의 역량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의 확보가 중요함. 그런 면에서 가평군이 12년 간 총감독에게 보내고 있는 신뢰는 축제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짐<br>○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내에 JJF를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이 있어서 연중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재즈센터의 직원들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과 업무를 분장하여 축제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음<br>○ 올해의 경우 입장료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초대권의 발매 규모를 줄였으며, 협찬사의 협찬금을 증액했음. 그 결과 입장권 판매와 기업협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수입이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음<br>○ 이번 축제 기간 동안 210,000명(외국인 20,000명 포함)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전체 관람객 중 외지인의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가평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편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당일치기 관광객이 많았음. 향후 가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체류 일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br>○ 관람객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지인의 1인당 지출액이 110,983원을 넘었으며,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21,711백만 원을 기록했음<br>○ 면담 결과, 가평 읍내의 상인들 가운데는 축제 효과를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음. 이는 외지인들의 지출이 대부분 축제장인 자라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임. 향후 관광객의 동선을 가평읍내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비록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이 축제가 지역 이미지의 제고와 관광활성화 등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br>○ 관람객의 축제만족도는 축제 기간 중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음에도 지난해보다 높은 5.29점이었음. 세부적으로 보면 '축제의 재미' 항목이 7점 중 6점을 넘을 정도로 높았지만 '살거리'의 만족도는 4점대를 기록해 개선책이 필요함. 예컨대 현재의 농특산물 판매장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구입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br>○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한 만족도는 4.92점을 기록했음 |

# 11 여주 오곡나루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 3일간**
- **장 소 :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일원**
- **주 최 : 여주시**
- **주 관 : 여주 오곡나루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공식행사 : 진상행렬 퍼포먼스, 황포돛배 한양 진상품 환송 등
  - ○ 나 루 터 : 주막거리, 제련제철 및 대장간, 황포돛배, 은하수낙화놀이, 연날리기, 씨름마당, 노천소성콘서트, 고구마랑 가래떡네 등
  - ○ 나루마당 : 마당극(대왕님도 여주없인 못살아, 갑돌이와 갑순이), 북춤, 막간놀이(마임마술), 허수아비 포토존 등
  - ○ 동물농장 : 동물농장, 동물경주장, 남한강 민물고기 전시 등
  - ○ 오곡장터 : 여주 농특산물 판매, 축산단체 무료시식, 고구마 구워먹기, 인절미 떡메치기, 오곡장터유랑단, 여주쌀•고구마 요리조리 등
  - ○ 전통마당 : 마당극(최진사댁세째딸), 날보러와요(관람객의 재능기부), 전통짚풀공예체험, 민속놀이체험 및 각종체험부스 운영 등
  - ○ 잔치마당 : 가마솥 여주쌀•오곡 비빔밥먹기, 여주명품농특산물 전시 등
  - ○ 연계행사 : 한국전통문화남한강축제, 농업인한마당, 고구마캐기 체험, 여주 JCI회장배 씨름왕 대회, 여주시화전 등

## (2) 총 평

- ○ 여주오곡나루축제는 과거 각기 다른 주체의 여주진상명품축제와 여주고구마축제를 통합하여 오곡나루축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축제가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축제통합 운영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음
- ○ 2015년도 전반기 문화관광축제들은 메르스 전염병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으로 축제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여주오곡

나루축제는 축제분위기를 띠우고 여주의 농·특산품을 축제기간 동안 홍보매체 및 판매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인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인근지역 및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오곡나루 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 ○ 각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매력성 높은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여주오곡나루축제의 성장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음. 또한 축제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여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 합동 점검 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평가를 받았음
- ○ 축제의 소재가 농작물이라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축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근 밭을 임차한 고구마 캐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매력성 높은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여주 오곡나루축제의 성장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 또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개정추진, 공간구성을 위한 별도예산 확보 및 집행, 축제 전문조직체 구성을 위한 용역추진 등, 축제 발전을 위해 전년도 보다 많은 면에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눈에 돋보였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사전에 제출된 여주오곡나루축제의 계획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었으며 계획서에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여주의 대표농산물인 쌀, 고구마, 땅콩을 비롯한 여주 농·특산물을 총칭하여 오곡으로 부르고 있으며, 또한 축제장내 고구마 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주특산물인 고구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오곡과 더불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옛 조선시대 조포나루터를 이용하여 한양 마포나루로 곡물을 이동한 점을 주 컨텐츠로 하고 있으며, 옛 나루터에서 볼 수 있는 전통주막과, 대장간, 씨름 등 나루터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음<br>○ 이번 여주오곡나루축제에서는 축제 명칭에 알맞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남한강 조포나루터만이 가지고 있는 풍경과 정취를 살리기 위해 오곡장터와 나루장터를 몽골텐트대신 초가집과 초가부스를 활용하여 옛 모습을 재현하여 40-50대 이후의 관광객들에게는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느낄 수 있게 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특히, 축제장에 마련된 난전에서는 관광객들이 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여주 쌀과 고구마는 무료택배서비스를 처음 시행하였으며, 카드사용도 전년보다 많은 상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음<br>○ 축제의 많은 프로그램은 나루터가 있는 강변에서 진행되었으나, 오곡장터, 전통마당, 나루마당보다 나루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유도가 미흡하였음. 향후 남한강 수변개발과 더불어 축제인프라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나루터로 관람객이 유입되도록 유도 안내판 등이 많이 설치되어야 하겠음 |
| 3) 축제의 운영 | ○ 나루터의 재현을 위해 몽골텐트는 사용하지 않고 100% 초가부스로 나루터를 꾸미고 현대식 탁자대신 평상에서 나루터를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관광객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음<br>○ 축제 컨텐츠와 동떨어진 오곡나루가요제를 폐지하고, 대신 강가에서 옛 추억을 되새기는 통기타 공연이 모닥불 주변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음<br>○ 전년에는 장터 울타리 내에 놀이터가 자리잡고 있어 이동동선이 흐트러지고 판매가 잘되지 않았으나, 축제공간구성을 위해 놀이터를 이설하고 잡목을 제거함으로서 축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장터내 부스도 몽골텐트대신 전통초가부스 운영하였고, 전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산물 판매자 이력제를 추진하였음<br>○ 나루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유도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향후 축제를 거듭하면서 남한강 수변개발과 더불어 축제인프라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나루터로 관람객이 유입되도록 유도 안내판 등이 많이 설치되어야 하겠음<br>○ 또한 나루터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보완되어 옛 나루터의 모습 복원이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br>○ 행사장 내 판매상인등의 외부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서 방문객이 호감을 갖고 축제장내에서 즐거운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4) 축제 발전성 | o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기본적으로 맛과 품질에서 뛰어난 여주의 농·특산물을 농업인들이 축제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여 소득증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형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br>o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오곡장터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읍면동 부스를 올해 처음 시행하여 운영하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나 자칫 잘못하면 농산물 생산자나 유통자들만의 축제가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의 차별성과 특성화를 위해서는 컨텐츠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오곡장터(농·특산물)과 나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몇몇 프로그램은 대형화(킬러 컨텐츠)함으로써 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올해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축제 기획 단계부터 지역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적 목표를 추구하는 장으로 형성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br>○ 작년에 평가사항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택배시스템을 적절하게 갖추고 무료택배로 추진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최대한 카드단말기는 각 상점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br>○ 작년 평가사항으로 판매자 실명제를 올해 적절히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함 |

# 12 화천 산천어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 / 23일간**

**※ 선등거리 : 2014년 12월 20일(토) ~ 2015년 2월 22일(일)**

- **장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 **주 최 : 화천군**
- **주 관 : 재단법인 나라**
- **주요행사**

○ 슬로건 :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

○ 주요 프로그램

- 산천어 체험 : 현장/예약 얼음낚시, 영유아&외국인(MOU) 얼음낚시, 루어낚시, 맨손잡기 등
- 눈/얼음 체험 : 눈썰매, 봅슬레이, 얼곰이성, 얼곰이자전거, 얼음썰매, 창작썰매, 얼음축구, 아이스하키, 컬링, 놀이기구펀파크, 하늘가르기 등
- 문화/이벤트 : 여는마당, 창작썰매콘테스트, 겨울문화촌, 경품이벤트, 천사의날, 군장병(전의경)의날, 선등거리 점등식, 선등거리 이벤트, 천체투영실, 토종산천어 종복원 국제심포지엄, 목재문화체험장, 깜짝이벤트 등
- 편의/안전 : 종합안내센터, 몸녹임쉼터, 흡연부스, 얼음나라방송국, 재난구조대, 응급의료센터, 119안전센터, 무료셔틀, 낚시가이드, 자원봉사센터, 축제보험사, 이동도우미 등
- 먹거리/살거리 : 공식먹거리터, 산천어식당, 향토주전부리장, 산천어/축산구이터, 회센터, 농특산물판매장, 매점, 낚시점, 기념품판매점 등
- 사랑방마실 : 바로파로 겨울축제(간동면), 사방거리 동동축제(상서면), 동심산촌랜드(사내면)
- 시가지/연계행사 : 선등거리, 국내최대실내얼음조각광장, 서화산빙벽포토존, 산천어공방, 빛천지겨울왕국, 산천어커피박물관, 산천어시네마, 화천생태영상센터, 화천민속박물관, 화천갤러리, 화천조경철천문대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등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재)나라를 통한 전문성 있는 축제 기획과 함께 주민에게 소득 환원이라는 목적의식이 축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시설과 프로그램 기획 면에 있어서, 2014년에 비해 시설과 프로그램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음. 특히, 시설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 동선 편의에 맞춰 축제 공간 배치를 새롭게 하였으며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함.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선등거리 이벤트 개최, 신규 겨울스포츠 신설(아이스하키, 컬링) 등 다양성을 강화함
- 타 축제와의 다른 점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와 유치 노력이 인상적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낚시 장소 제공, 서울에서 셔틀버스 운행, 외국어 팜플렛 제작, 해외에서 직접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및 실제 MOU 관광객 유치 등은 화천산천어축제가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임
- 또한, 화천군 내 3개 읍면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산천어축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입장권 구매자에게 화천사랑상품권(5,000원)을 제공하여 축제 기간 중 화천군 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
- 스폰서십을 통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효과적이었으며(오뚜기, 쌍용자동차, 수자원공사, 하이트맥주 등), 축제 성공을 위해 민·관·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인상적임
-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실종아동보호 코드아담 모의훈련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화천산천어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화천군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축제장 내 안내판 설치가 미흡하고 메인 관광안내소 외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넓은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또한, 화장실 부족과 주차 정보 제공 미흡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다소 나타났으며 춘천역에서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
- 보다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축제의 규모와 인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되며 자체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대안도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축제 참여자들이 화천군 지역으로 분산되어 화천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제안사항**

○ 첫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 부분이 필요함. 산천어를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 발굴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산천어 축제 기획의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음. 스토리와 축제의 시설/프로그램이 상호 일맥상통해야 함

○ 둘째,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발굴이 필요함.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는 포토존 설치, 지인들에게 기념 편지를 쓸 수 있는 빨간우체통 설치(우정국 협조, 기념카드 판매 가능) 등이 있음

○ 셋째, 관광객 체험 편의와 수익 증대 측면에서 패키지이용권 판매가 필요함. 현재 패키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패키지 이용권이 여행사와 연계하여 판매되는데, 테마파크와 같이 1일 자유이용권, 5종 체험이용권 등 다양한 이용권 상품 판매가 필요함. 매우 많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넷째, 산천어라는 생물을 가지고 잡는 체험만 할 것이 아니라 산천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산천어의 일생, 이동경로, 부화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축제의 목적이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동식물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일깨우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 아울러, 산천어를 현재와 같이 개인이 5마리 정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산천어를 장난감 다루듯이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못함

○ 다섯째, 축제와 지역 숙박을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이 필요함. 선등거리 등 야간관광거리와 접목하고 다양한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화천군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화천산천어 축제는 재단법인 '나라'라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축제의 기획, 관리운영, 결산까지 총괄하도록 한 결과, 전문성 높은 축제 기획이 수행됨<br>○ 축제 기획의 목적 또한 재단법인의 영리 목적보다는 주민들에게 소득을 환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br>- 화천산천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산천어를 잡는 낚시라 할 수 있는데, 기존 얼음 낚시 이외에 루어낚시, 맨손잡기, 영유아 낚시, 외국인 전용 낚시 등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br>○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2003년부터 시작한 화천산천어 축제는 대표적인 겨울 체험 축제로서 많은 관광객 참여가 축제의 특이성과 매력성이 높은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음<br>○ 타 축제와의 차별성<br>- 다른 겨울 축제와의 차별성은 축제 규모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 기업 스폰서십 등이 있을 수 있음<br>- 축제 프로그램의 경우, 산천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외에도 눈과 얼음체험(얼곰이성, 얼음썰매, 눈썰매, 얼곰이 자전거, 봅슬레이, 얼음축제, 아이스하키, 컬링 등), 레저체험(짚라인, 사륜구동차 등), 문화체험(목제문화체험장, 공방 등) 등 다양성이 매우 강화됨. 프로그램 다양성에서는 국내 겨울 축제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고 많다고 할 수 있음<br>- 아울러, 하얼빈 빙등제 기술진을 초청하여 제작한 국내 최대 실내 얼음조각 광장, 산천어 선등거리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산천어 낚시와 함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br>- 아쉬운 점은 축제장과 선등거리 간의 도보길을 스토리와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활용한다며 매우 아름다고 이색적인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br>- 타 축제와 차별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MBC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오픈스튜디오'얼음나라방송국'이었는데, 축제기간 중 실시 간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제 강원도 내 방송이 중계되었음<br>- 다만, 아쉬운 점은 영어 멘트 등 일부 방송의 경우 음향이 낮아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br>- 타 축제와의 다른 점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와 유치 노력임. 외국인 관광객이 원할 경우, 별도의 산천어 낚시 장소을 마련하여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함. 아울러, 화천군이 여행사와 함께 직접 해외도시를 방문하면서 MOU를 성사시킨 결과 외국인 관광객 중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MOU 패키지 관광객이 50%를 차지함<br>○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br>- 화천군 내 3개 읍면 농촌마을과 연계하여 산천어축제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비록 화천산천어축제와 3개 읍면 축제가 약간의 일정 차이는 있지만 서로 시너지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간동면 바로파로겨울축제, 상서면 사방거리 동동축제, 사내면 동심산촌랜드)<br>- 다만 아쉬운 점은 화천 산천어축제 팜플렛에 3개 읍면 축제가 없다는 것임. 2016년에는 3개 읍면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으면 함<br>- 화천산천어 축제는 그 동안 입장권 구매자에게 화천사랑상품권(5,000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는 축제 기간 중 화천군 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타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축제기간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함. 다만, 아쉬운 점은 상품권이 축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거나 화천군을 방문하도록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입장객에게 축제기간 중 사용 상품권과 축제기간 이후 사용 가능한 상품권(쿠폰형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축제기간 이후의 상품권을 통해 지속적인 화천군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운영의 효율성<br>- 축제장 내에 영상시설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겸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특히, 스폰서십을 통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다른 축제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음<br>-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안내판 설치가 미흡함, 물론, 팜플렛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 팜플렛을 손에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행사장 곳곳에 대형안내판 설치가 필요함. 2015년에 설치된 안내판은 규모가 작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br>- 또한, 메인 관광안내소 외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넓은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br>- 외국인들의 경우,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며 얼음 위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관광객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보령 머드 축제의 경우 야간에 외국인들이 술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br>○ 축제 기획의 전문성<br>- (재)나라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기획하였기 때문에 전문성 담보되었다고 판단되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적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향후 화천산천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의 발전목표와 로드맵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됨. 타 지역에서 유사한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목표와 로드맵을 통해 산천어 축제가 가져가야 할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부족한 스폰서십, 기념품 제작, 스토리텔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br>○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br>- 민·관·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러한 참여 체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사항이라 판단됨(2015년 축제에서는 약 2,180명이 봉사자로 활동함)<br>- 상업시설의 경우 재단이사회심의를 통해 마을 기관에게 임대해 주고 있어 상점 관리의 효과성이 매우 높음<br>○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br>- 행사장 공간 배치를 2015년 새롭게 하여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임<br>- 또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청과 연계하여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내국관광객을 위해 화천군 내 셔틀버스를 운영함<br>- 아쉬운 점은 일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현상이 화천산천어축제에서도 나타남. 특히 화장실 확대 방안이 요구됨<br>- 주차시설의 경우 축제기간 중 6,000 ~ 7,000대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 관련 방송이나 주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부족했음. 아울러, 주차안내가 매끄럽지 못해 관광객들이 불만이 표출되었음. 향후 어플리케이션 또는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축제 기간 중 주차 정보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할 것임<br>- 또한, 춘천역에서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함.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관광객들이 만원 사태를 일으키고 있음. 물론 지역 버스업체와의 갈등도 있겠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결국 개별차량 증가로 이어져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br>○ 축제 안전관리체계<br>-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에서 마련하여 축제 기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보험회사 직원 상주)<br>- 또한, 실종아동보호 코드아담 모의훈련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이 인상적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다만 아쉬운 점은 매년 축제안전관리계획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마을주민, 관광종사원의 사전 안전교육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임<br>- 시설 안전적 측면에서는 터널에서 안내소까지 구간(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보길)이 빙판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일부 관광객이 술을 먹고 빙판 위로 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할 듯함<br>○ 축제 홍보의 효율성 및 적절성<br>- 협찬 기업과 연계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상파 및 케이블 TV, 자막광고, 스팟광고 등), 여행사와 연계한 설명회,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함<br>- 축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중집합장소, 중앙 및 지역 주요일간지, TV매체를 통해 홍보함<br>- 홈페이지가 1달 전에 개설되어 방문객들의 정보 편리성을 강화함 |
| 4) 축제 발전성 | ○ 지자체장의 육성의지<br>- 현재 화천군수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시절부터 산천어축제을 담당하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육성 의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유사 겨울축제(하얼빈 빙등제 등)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산천어축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함<br>-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br>- 아울러, 화천산천어 축제의 백서 제작을 통해 산천어 축제의 역사, 성공사례, 성과 등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 백서는 국내 최고 축제로서의 산천어축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이는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변경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br>○ 축제조직체 구성 및 축제 재정자립도<br>- 2003년부터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나라가 축제를 주관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음. (재)나라는 산천어축제 이외에도 쪽배축제 주관, 공공숙박시설 운영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화천군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현재 정규직원 7명 포함 총 23명)<br>- 특히, 민·관·군 2,1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재)나라와 함께 축제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티켓 판매와 경비 부분에 한 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br>- 아쉬운 점은 축제의 규모와 인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됨. 물론 지역주민에게 소득 환원이 되었다고 하지만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관리운영의 효과성을 위한 재투자 측면에서 재정 확충이 요구됨. 다양한 기념품 개발, 스폰서십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br>- 예를 들어, 자체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본인이 획득한 산천어축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고 이를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할 수 있음. 여기에 주최 측에서 인증도장을 티셔츠에 찍어 줄 경우, 기념품으로 매우 호응이 높을 것임. 실제 잡은 산천어를 들고 사진 찍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 5) 축제 성과 | ○ 관광객 유발 효과<br>- 1일 최대 186,500명이 방문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000,000만 명 이상 추정되어 관광객 유발 효과는 높음<br>-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인바운드 여행사 40%, MOU 패키지 50%, 개별관광객 10%로 구성되고 있어, 개별관광객들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br>- 아쉬운 점은 축제 이후에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됨<br>○ 지역 경제파급 효과<br>- 축제 기간 중 관광객 유입 및 화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며 축제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경우 1일 5만원의 소득창출도 발생함<br>- 다만, 축제 참여자들이 화천군 지역으로 분산되어 화천군 전체의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부족하다 할 수 있음<br>○ 관광객 만족도<br>-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굴하고 관광객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볼 수 있었음<br>- 다만,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불친절하게 설명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축제 시작 전 실시하는 교육 중에 서비스 마인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13 평창 효석문화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9월 4일 ~ 13일 / 10일간**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주 최 : 평창군**
- **주 관 : (사)이효석문학선양회**
- **주요행사**

○ 문학 프로그램 : 36회 전국효석백일장, 메밀꽃밭을 걷다, 작가와의 만남, 이효석문학상 시상식, 출발!문학산책, 독서토론회, 한책읽기, 거리백일장, 함께 만드는 시마당, 퀴즈대회, 추억의 보물찾기, 메밀꽃필 무렵 영화상영, 소설속 주인공 체험

○ 자연 프로그램 : 음악사연신청, 소중한 사람에게 엽서쓰기, 사랑하는 만큼 물벼락, 뗏목체험, 작은음악회, 2018돌다리 건너기, 섶다리 건너기, 소원빌어 풍등날리기, 스탬프렐리

○ 전통 프로그램 : 메밀음식마당, 메밀자료전시, 메밀아카데미, 전통민속공연, 전통민속놀이, 함께하는 메밀국수 체험, 봉숭아 물들이기, 대취타 공연, 전통찹쌀떡치기, 평창군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및 시상

## (2) 총 평

- **잘된 점**

○ 평창효석문화제는 축제기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메밀꽃과 축제의 정취 있는 분위기가 잘 어울려져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본 축제의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축제콘텐츠의 내면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하여 잘 관리 운영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축제의 장점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음. 특히 관광객들에게 매밀 꽃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제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단백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축제장으로 유인하고 있음

○ 평창효석문화제는 평창군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축제를 통해 마을 만들기와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실제로 평창군지역에 축

제가 전, 후방관광산업의 긍정적인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전국에 모범이 되는 민주도형 축제로 평가됨. 특히 17년간 민주도형 축제운영의 노하우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이어오면서, 자생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온 점이 높이 평가됨. 현재 (사)이효석문학선양회라는 민간조직이 지역주민의 상설조직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강구하고, 축제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 더욱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경비일부를 담당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특히, 올해는 SNS를 통해서 축제를 준비해가는 지역주민들의 현장준비사항과 주요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전년도 축제평가에 드러난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또한 축제의 성격을 문학, 자연, 전통마당이라는 공간재구성을 통해 전통축제문화콘텐츠를 실현해가는 모습들이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평창효석문화제는 2018 동계올림픽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문학이라는 문화를 표방하며 지역관광을 이끌어가는 민주도형축제로서 대한민국에 모범적 사례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판단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산 이효석 선생과 문학이라는 본질은 축제의 핵심임. 이런 면에서 부제를 2013년 '이효석의 꿈', 2014 '이효석의 고향'으로 이효석을 부각시키며 이끌어 갔는데, 2015년 '그리움'이라는 부제는 관광객들에게 다소 축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칫 지루하고 어려운 문학과 가산 이효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야간에 메인무대가 아닌 메밀꽃밭에서 즐길 수 있는 야간 킬러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문객이 체류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간과 야간 메밀꽃밭의 변화와 느낌을 경험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평창효석문화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관형 축제로 머무르지 않고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 개발의 노력이 필요함

○ 개막식과 문학상 시상식이 이어져서 진행되다 보니, 문학상시상식과 개막식시상이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개막식과 문학상 시상식은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평창효석문화제축제는 메밀꽃이라는 소설속의 무대를 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그 향취를 듬뿍 안겨주는 문화지향형축제로 조용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기획력이 돋보임. 특히 은은한 음악과 함께 어울려지는 야간행사는 본 축제의 백미로 여겨짐. 통상 타 축제에서 진행되는 야간행사와는 달리 관광객들이 문학과 메밀꽃에 쉽게 동화되도록 하는 분위기 연출은 축제의 주제를 충분히 살린 차별화 된 축제로 평가됨<br>○ 축제 전체가 음악과 문학이 잘 어울려 져 중앙상설무대에서의 라이브 무대공연도 신선한 맛이 있음. 단, 야간프로그램 행사진행에 있어 젊은이들을 위한 소규모 열린 공간에서의 잔잔한 음악회를 가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세대에 맞는 공간재배치와 효석문화제의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시, 소설 등 문화와 축제가 동화되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필요함<br>○ 본 축제의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프로그램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내면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에 대하여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는 점임. 즉, 물가에 놓인 돌다리하나, 갈대숲거리 배치 등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로 조화시키는 기획으로 관광객들에게 매밀 꽃의 추억과 단백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재방문으로 유도하고 있음. 단, 어린이들을 위한 백일장 등의 행사가 있으나 차제에 어른들을 위한 흥미로운 문학행사 및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미를 가미한 문화거리퍼포먼스도 기획할 필요가 있음<br>○ 본 축제에 특히 눈에 뛰는 것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이라는 메가이벤트와 연계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인 행사로 이끌고 있음. 즉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창효석문화제와 연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단, 평창효석문화제와 동계올림픽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해석, 재창조하여 국민들에게 평창효석문화제가 평창동계올림픽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봄<br>○ 전통마당, 문학마당, 자연마당프로그램제공은 축제의 주제와 어울리는 한마당으로 손색이 없음. 단,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진행요원들을 좀 더 많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본 축제의 최고의 강점은 이미 이효석과 메밀이라는 정확한 콘텐츠가 있음으로 봉평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평창이라는 지역의 이미지와 연관된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행히 마을전체가 효석의 흔적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고 있어, 차제에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연출기획이 가미되면 보다 집중력이 있는 축제가 될 것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평창효석문화제의 대표그램인 '메밀꽃 체험이벤트'프로그램은 포토존운영,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돌다리 조성, 남안교의 징검다리와 섶다리의 정취, 메밀꽃 속의 음악박스 정겨움, 하트섬의 거리공연 등 올해 유난히 풍성한 메밀꽃 및 축제전체공간에 흐르는 시와 정서적인 분위기연출이 이효석과 메밀꽃을 잘 조화시킨 메밀꽃체험축제로 평가됨. 여기에 더하여 메밀과 지역문화를 집대성한 보다 집중적이면서도 폭발적인 메밀꽃체험 킬러콘텐츠의 강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br>○ 평창효석문화제는 전국에서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체험하기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메밀꽃밭을 통해 가산 이효석의 문학을 만끽할 수 있는 맛깔스러운 축제임. 특히 효석문화마을의 전통과 시골이라는 농촌을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당시의 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그 가치성이 높은 축제임. 단, 관광객도 당시의 메밀밭주민이 되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은 평창축제의 내재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임<br>○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의 성격을 문학, 자연, 전통마당 이라는 3개의 키워드에서 도출해 냄으로써 축제문화콘텐츠를 구성해가는 모습들이 관광객들이 축제의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음. 또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콘텐츠를 통하여 축제 전반에 효석문학과 메밀꽃의 정서가 평창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어 쉽사리 관광객이 동화되는 축제의 특성을 갖고 있음. 단, 평창효석문화제의 특성에 맞게 소설속의 환경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적용시켜, 소설 속 인물을 캐릭터로 개발하고 실제로 관광객들에게 소설속의 분위기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 공간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br>○ 마당극의 경우 이효석소설의 입체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됨. 또한 효석문화마을 인근에 위치한 무이예술관 , 허브나라 등에서 그림 체험 및 연계투어셔틀버스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특히 휘닉스파크에서도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어 문화관광축제와 지역관광 사업체가 협업을 이루는 새로운 지역연계관광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됨. 따라서 이번 연계사업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지역사업과 연계한 효석문화축제의 발전모델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축제가 끝 난후에도 항시적인 운영메카니즘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차후축제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br>○ 이번축제에서의 메밀꽃의 테마가 '연인 & 사랑'으로서 축제 기간 내내 여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재미있고 감동어린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메밀꽃밭에서 사랑을 고백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설정하여 축제를 운영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슬로건이 축제장에서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됨. 따라서 지금까지 매년 축제슬로건을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으로 중점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 축제의 기본적인 바탕이 이효석과 메밀꽃인 관계로 여전히 킬러콘텐츠는 메밀꽃밭에서 풍겨오는 문학의 향기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로 고수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본 축제의 성공을 보장 할 것으로 사료됨 |
| 3) 축제의 운영 | ○ 평창문화축제의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민주도형축제로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창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지원만 하고 있으며 '(사)이효석문학선양회'라는 순수민간단체가 출제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효율적으로 콘트로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문화관광축제의 주용한 선행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축제현장에서 지역주민이 사회를 보고, 축제 안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오산대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음. 단, 민간주도라고 하나 군의 행정지원 시 민과 중복되는 업무발생 및 역할분담이 애매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상에 있어 민, 관의 명확한 업무구분 및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br>○ 그동안 축제기획 및 운영측면에서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17년간 실행해 온 노하우가 있는 관계로 축제장 조성 및 전반적인 운영 축제 예산을 절감시키는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 됨. 또한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는 축제가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대단하며 공무원들도 이에 맞추어 적극적인 업무지원이 실행되고 있어, 민간주도운영축제의 성공모델로 평가됨. 단,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기지역 문화축제와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전 충분한 교육을 통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br>○ 특히 이번축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체로서의 음식점주인들이 축제에 적극 동참하여 축제 기간 동안에 평소금액의 10%를 할인하는 행사를 벌였고, 지역숙박업체인 펜션은 50% 할인 행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축제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축제홍보측면에서도 행정과의 협업구조를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SNS를 통한 사전홍보도 돋보임. 하지만 평창문화축제에 대한 군의 홈페이지가 다소 평면적이어서 보다 다면적이고 차별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함. 또한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혼잡, 주차 등의 어려움과 편의시설의 부족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단계적으로 효율적인 동선처리와 축제공간배분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본 축제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축제유료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을 축제개최공간으로 활용하여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축제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단, 축제장소가 다소 분산되어 있고 많은 공연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산만하고 프로그램진행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따라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해석기능과 구체적인 장소표식 및 수월한 접근을 위한 통합적 안내시스템구축 및 관리운영이 필요함<br>○ '메밀꽃'주제로 향기가 있는 축제로서 전반적으로 행사장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화장실의 청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행사장 전체도 쾌적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선입관을 주고 있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안전매뉴얼 및 실행대처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제장 내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나 향후 관광객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대가 필요함 |
| 4) 축제 발전성 | ○ 평창효석문화제는 갖고 있는 메밀과 효석이라는 주제가 워낙 명확하여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자연, 낭만, 추억을 자아낼 수 있는 문화축제로 수월히 인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갖고 있음. 특히 해마다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우수한 프로그램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운영을 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됨. 상당기간 민간차원에서 운영되어온 관계로 축제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과 축제프로그램의 일관성이 있으며,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중,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갖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축제로 평가 됨.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광객 누구나 소설속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프로그램에 관한 개발이 필요함<br>○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창효석문화제가 평창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이자 창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것은 단순한 평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동계올림픽의 이미지를 사전에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강원도 및 평창군자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축제장 곳곳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신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홍보 전략들을 강구하고 있고, 올림픽과 연계한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평창효석문화마을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는 등 올림픽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단, 평창효석문화제의 국제화대응전략부문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으로, 향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조직위원회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br>○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확보라는 관점에서는 평창효현문화제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즉 그동안 (사)이효석문학선양회가 지역주민의 상설조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운영되어온 관계로 지역주민과 조직위원회 같은 동심체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많은 예산 절감을 이루어 오고 있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경비일부를 담당함으로써 기존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축제가 아닌 지역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어 경쟁력있는 축제로 평가됨. 단, 일부주민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평창군민전체가 작지만 성의를 보태자는 이념의 확산이 필요하며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br>○ 평창효석문화제는 민주도형축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축제로 축제자부담율이 높고, 유료 프로그램인 소설 속 메밀꽃밭 체험이라는 킬러콘텐츠가 보강되고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제고와 야간 프로그램 확충 및 연계관광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며 내용 있는 축제로 발 돋음 하고 있다. 실례로 전술한 바와 같이 평창효석문화제를 참여한 방문객들이 지역에 소재한 연계관광지인 휘닉스 파크, 양떼목장, 허브마을 등 인근 관광지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연계관광지들에 대한 소개 팸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축제가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매체가 됨으로써 주인의식과 자부심이 고취되고 있음<br>○ 본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평면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 에 있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 구성이 필요함. 즉 강원도지역대학교와 사전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계올림픽과 축제를 연계한 공동운영방향을 지금부터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창효석문화제의 세계화를 위한 논리적 정당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임 |
| 5) 축제 성과 | ○ 평창효석문화제는 축제기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대부분 축제의 정취 있는 분위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열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축제행사와 평창군내의 지역관광자원과 연계코스를 실행함으로써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조그마한 지역에 6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평창효석문화제가 향후 명실상부 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 --- |
| 5) 축제 성과 | ○ 주목할 만한 것은 축제를 통해 그동안 평창의 효석문화마을이 4계절 관광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연중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임.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효석문화마을의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향우 4계절 관광지로서의 기능 확대와 발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됨. 이것은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소득증대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이것은 1년에 단한번 하는 축제를 활용하여 평창군과 효석문화마을을 집중홍보함으로써 그동안 비수기 관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극복하고 평창이 4계절 관광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평창효석문화제의 진정한 성과로 간주됨<br>○ 지역수익성 확보차원에서 메밀꽃밭과 문학관 입장료의 축제유료화는 축제의 경쟁력강화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중요한 핵심과제이자 성과로 평가됨. 또한 식당 등 지역전통먹거리와 농특산물 판매가 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축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를 가꾸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관광사업체인 숙박업, 음식업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 특히 수익의 일부를 축제발전에 기부하는 등 마을관광과 지역의 상생발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축제의 성공을 기약하는 요소임<br>○ 축제가 끝나고 메밀꽃이 지면 수확한 메밀은 판매되어 추가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 수확이 있는 농가소득형축제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 또한 봉평메밀이 각종 웰빙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어 축제를 계기로 우수하고 질좋은 매밀 생산과 음식개발이 활발히 실행되고 있음. 따라서 본 축제가 이효석의 문학적인 테마와 메밀음식의 특화에 따른 음식관광이 조화를 이룰 때, 4계절 관광지로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노력들이 향후 더욱 과학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람<br>○ 올해 평창효석문화제는 예년과 달리 봉평면에서 개최되는 축제이나 평창군의 대표축제로서 모든 평창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분위가 바뀌고 있음. 특히 축제장에서 모든 평창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이것은 동계올림픽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올림픽을 긍정적인 발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다소 봉평 위주의 축제가 올림픽을 앞두고 화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되고 내부적으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 앞으로도 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축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개토론회나 정기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14 춘천 마임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24일(일) ~ 5월 31일(일) / 8일간**
- **장 소 : 춘천시 일원(중앙로, 축제극장 몸짓,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지천 의암공원, KT&G상상마당 춘천, 수변공원, 소양댐 등)**
- **주 최 : (사)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춘천MBC**
- **주 관 : (사)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
- **주요행사**
  - ○ 난장 : 아!水라장 / 미친금요일 / 도깨비난장
  - ○ 극장공연 : 'ETF 프로덕션'(영국) / 아삐 버티컬 시어터(프랑스) / 유진규(한국) / 'PTL 류블라나 댄스시어터'(슬로바니아)
  - ○ 기획프로젝트
    - 도깨비어워드 / 몸짓그룹 몸꾼 프로젝트 / 컨퍼런스 / 춘천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 ○ 부대프로그램
    - 페스티벌클럽 / 아!휘까페 / 아!라디오 / 체험프로그램 / 플리마켓

## (2) 총 평

- **잘된 점**
  - ○ 축제의 주제가 분명하고 기획력이 있는 축제로 개최를 거듭해나가면서 행사운영 및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으며, 여타의 축제와 예술성 면에서 뚜렷한 차별화를 가지는 점은 이 축제의 장점임
    -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축제 정보안내가 현장에서 게시판과 유인물을 통해 방문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되었으며, 모바일 어플을 통한 안내, 특히, 행사장 위치 안내 등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마임몰(프리마켓)에서는 춘천시내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의 수공예품, 작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지역주민 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음

- 도깨비난장이 열린 춘천상상마당의 장소성이 춘천마임축제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이는데 기여를 함. 춘천상상마당은 실내외로 구성된 공간이 자연과 어우러지게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동시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음에도 혼란스럽지 않고 매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음
- 주간은 물론 야간, 자정을 넘어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마임축제가 열리는 춘천상상마당 전체가 거대한 무대로서 마치 모두가 배우가 된듯한 즐거움을 느끼게 함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매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고 있으나 충분한 훈련이 안되어 있어서 축제서비스로서의 안내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여전히 축제 방문객들에게 먹거리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성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도깨비난장 푸드코트에서 몇 가지 간식을 팔고 있으나 춘천 마임축제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맛에 있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주차문제는 여전히 축제에 있어서 난제중의 하나임. 축제장 입구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다른 장소로의 주차를 요원들이 안내하였지만 대체 주차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결국 도로 옆에 불법주차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임. 향후에는 일정 지역을 주차지역으로 임시 지정하여 원활히 주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차안내사인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필요함(어플 등을 통해서 주차 안내를 실시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내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운행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 축제 홈페이지에 있어서 행사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플랫폼 구성을 보다 쉽게 할 필요가 있음(현재 홈페이지 일부 구성은 왼쪽에만 내용이 나오고 오른쪽은 여백으로 비워져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대중적이고 쉽게 플랫폼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보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의 내용의 전개와 개별 공연의 장소 및 시간,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기획력을 보임<br>o 특히 야간에는 공연이 끝나고 다른 공연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배우들이 횃불을 활용하여 기존 관객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냄으로 관객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움직임을 유도하는 등의 기획은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의 기획단계에서 축제 자원봉사자(안내자)들의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 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축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으나 처음 방문자는 공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음으로 공간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춘천마임축제는 마임이라는 특별 장르를 주요 내용으로 하야 27년을 지속해 온 축제로서 전문성과 특화성이 뛰어남. 대부분의 공연들이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음<br>- 극장공연, 미친금요일, 도깨비난장은 가격이 1만원에서 2만원에 달하나 이들 공연의 수준이 지불가격 이상의 수준을 제공하고 있어 관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br>- '미친 금요일'의 경우, 생각보다 참여 방문객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이해하여 어려운 난해한 공연이 많았음. 향후에는 일반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연의 비중을 높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음<br>- 춘천마임축제 마지막날 자정에 개최되는 '불의 도시'는 넓은 장소에 거대한 불의 벽을 만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불의 세계로 끌어들임으로써 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함<br>- 그러나 자정 초기에는 다른 공연장소에서도 동시에 공연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충분한 집중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br>○ 일반적인 공연에서와 달리 춘천마임축제의 경우는 배우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원활히 이루어지는 축제이며, 축제 참가자들의 참여 기회가 높아 만족도가 높음<br>- 모든 작품이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것은 아니지만 마임쇼, 물폭탄 등의 공연은 관객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br>○ 개최기간 8일 동안 개최되는 콘텐츠는 개최장소와 개최 내용이 다양하여 방문객들의 선호에 따른 참여가 가능하며 역동적임 |
| 3) 축제의 운영 | ○ 도깨비난장의 행사장인 춘천상상마당은 옥외공간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br>- 더욱이 춘천상상마당은 의암공원 공지천을 끼고 있는 장소로 불의 도시가 개최된 공지를 포함해서 축제 개최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로 보임(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의 쾌적성이 중요함)<br>- 이 장소는 문화공간으로 매년 마임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br>o 올해는 상상마당의 건물벽면과 미술관벽면을 활용한 프로그램(창작중심 단지)을 통하여 기존의 야외공연 장소에서 개최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신선함을 제공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상상마당의 옥외공연장은 물론 건물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도 혼잡하지 않게 함<br>○ 춘천마임축제 어플의 사용을 통한 참가자들의 참여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다고 사료됨<br>- 어플은 실시간으로 전 축제의 개최 상황, 다음 공연의 안내, 위치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므로 한번 익숙해지면 더 이상의 안내가 필요 없게 됨<br>- 어플에서 실시간 공연 개최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연의 선택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장소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여줌<br>- 공연장의 현장사진이나 참여인원수 등의 참가자가 궁금해 할 만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여 참여자의 정보이용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임<br>○ 주차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행사가 피크인 야간에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의암호와 연계된 곳은 교통 혼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br>- 주차현황에 대해서도 모바일 어플에 실시간 주차상황을 알려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 올해로 27년을 맞이하는 축제로서 그동안 우수축제, 최우수 축제하는 타이틀, 그리고 세계3대 마임축제로 불리우고 있음<br>○ 세계적인 마임축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사랑을 받고 있으나 운영의 측면에서는 아직 발전과 변화가 필요함<br>- 내용적 측면에서는 예술팀들의 개별 공연이 여러 장소에서 이뤄져 소규모의 다양한 공연을 방문객들이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컨셉도 이 축제의 차별점이며, 장점이라고 보여짐. 하지만, 이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 콘텐츠로 전체 참여자가 함께 하는 연합 공연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축제 장소 전체를 하나의 장소로 기획하여 보다 통합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br>- 운영적 측면에서는 주차, 먹거리, 안내요원의 서비스, 사전 숙박예약 서비스,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관광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o 참관 평가자로서 보는 축제의 성과는 축제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 축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 축제기간 동안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등이라고 판단됨<br>- 보다 구체적인 축제의 성과는 축제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축제참가자수, 수입 등에 의한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 15 통일고성 명태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29일(목) ~ 11월 1일(일) / 4일간**
- **장 소 :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일원**
- **주 최 : 고성군, 고성명태축제추진위원회**
- **주 관 : 고성명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공식행사 : 개폐막식, 풍어제, 식전공연, 제례행사 등
  - ○ 공연행사 : 육·해군군악대공연, 고성명태잡이소리 정기공연대회, 개막축하공연, 불꽃놀이
  - ○ 경연행사 : 명태노래자랑, 고성주민명태의 날(주민자치경연대회), 다문화가족 경연대회, 고성 군인 가족 및 장병 페스티벌(군장병 가족 초청 및 장병 장기자랑), 이색 다이빙 경연 및 체험, 군장병 명태요리경연대회
  - ○ 명태체험 : 명태걸기 덕장시연 ,명태 탁본 뜨기, 관태체험, 명태낚시체험, 명태투호, 명태경매, 명태룰렛게임, 명태 골든벨 등
  - ○ 해양레저체험 : 래프팅, 카약 무료체험, 플라이보드시연(바다), 오리배, 카누체험(하천)
  - ○ 항구문화체험 : 어선무료 시승체험 ,그물 후리기, 생선회 정량달기, 활어 다트게임, 물회 빨리먹기, 가족 활어 이어달리기 , 활어맨손잡기체험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거진항, 명태 등 지역의 자연과 생활자원을 축제로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비록 단기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봄
  - ○ 행사장 운영에서 주차장-행사장 기차의 효과적 운영이나 지역의 제 주체(군장병, 지역먹거리 생산자, 지역주민 등)를 축제에 참여하게 하는 지점에도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그러나 축제의 제목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축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이로 인해 대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때문에 짧은 축제기간에 너무 다양하고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대체로 기획사가 대행하는 이벤트형 행사, 체험 등으로 운영에서의 전문성이나 체계성도 떨어져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음
-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즉, 관광축제의 미션에 기반을 둔 핵심 프로그램의 분명한 기획과 운영, 부대 프로그램의 섬세한 기획과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임
- ○ 행사장 운영에서도 프로그램의 특성과 비중을 고려한 효과적인 행사장 구성과 동선연계 등이 필요하며, 행사장 음향관리 등 축제 프로그램별 장소별 운영체계의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지지체에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제대로 프로그램화한다는 맥락에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실행 위주의 행사대행사가 아니라 축제기획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축제전문 인력을 연계하고, 양성하는 중장기적 정책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유망축제 신규인 현 단계로부터 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축제비전이 강력한 가운데, 기획의 주요 내용은 대행사의 각종 이벤트 행사 위주의 행사기획이 주를 이루고 있음<br>○ 고성명태축제가 지역에서 어떤 목적으로 개최,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축제 미션이나 발전에 대한 지자체 및 축제위원회의 실질적 상이 분명하지 않은 채 기획사 중심의 수많은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고성명태축제에 통일이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성격이 모호해짐<br>○ 고성의 특산물인 명태를 소재로 삼은 각종 이벤트와 체험, 거진항을 활용한 각종 해양 체험이벤트, 명태 관련 작은 장터 등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전형적인 관광체험 이벤트형 축제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행사장은 작고 많은 다양한 체험행사와 이벤트, 버스킹 공연, 메인 무대 군악대 공연, 고성 등이 뒤섞여 매우 소음이 심했고(축제로서 최소한의 음향 간 충돌에 대한 방지책, 공연장 관리 등이 부재하였음), 수많은 체험행사는 기획사에서 진행하느라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와 상관없이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하게 보였음. 축제장으로서 들뜨고 즐겁고 이러한 축제적 현장감이 아니라 아수라장처럼 정신없는 장터와 같은 모습이 아쉬웠음<br>○ 고성명태특산물 축제라고 하기에는 명태 관련 특산물 관련 홍보, 판매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았고, 무대공연 및 각종 체험이벤트가 워낙 많이 산만하게 진행되어 고성 강진항 일대의 해양문화축제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며, 군인 참여율이 매우 높았지만 통일관련 주제를 담을 축제라고 하기에도 모호하여 전반적으로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부재하다고 하겠음. 이에 대해 축제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축제의 개최목적, 정체성, 프로그램 특성과 구조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운영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산만하고 전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음. 축제행사장이 강진항을 따라 길게 조성되어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다 음향이 정돈되지 않고 서로 부딪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들이 운영됨에 따라 전체 행사장을 매우 어수선하고 산만했음<br>○ 행사장 구성에서도 초입에 세계문화체험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의 존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정작 콘텐츠의 수준과 운영이 매우 미흡했고, 전체 통일고성 명태축제의 특성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에 가까워 행사 첫 이미지가 유원지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br>○ 그런데 주차장과 행사장 입구를 연결하는 셔틀기차 운영은 비교적 효과적이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
| 4) 축제 발전성 | ○ 현재 단계에서 본 축제의 발전성은 매우 단기적이라 판단됨. 당장에는 명태, 거진항 등의 소재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나 외부 방문객들이 축제를 방문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지속성을 가지거나 발전적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봄<br>○ 이는 앞서 제시한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어느 관광축제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성 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표 프로그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임. 또한 행사장 운영이 미숙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천연적 축제장으로서의 매력성을 잘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의 현 단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축제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행사성 중심의 기획사에게 축제진행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 전문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내 축제인력의 양성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현재로서 축제의 성과는 대단히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제한됨. 축제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 축제 방문객 수는 다소 과장된 경향이 있으며, 실제 방문객이 많다 하더라도 축제만족도나 향후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소 회의적임<br>○ 타 축제와 차별적인 거진항, 고성명태 등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여 특산물 관광축제로서의 콘텐츠 개발, 행사장 운영, 장터 운영 등의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성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16 괴산 고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27(목) ~ 8월 30(일) / 4일간**
- **장 소 : 괴산읍 수진교~괴산대교 하상 및 4차선도로, 홍범식 고택주변, 괴산읍 일원**
- **주 최 : 괴산축제위원회**
- **주 관 : 괴산군청**
- **주요행사**
  - ○ 고추별별 마당 (세계고추전시, 청결고추 품평회, 고추 오감체험, 괴산고추 홍보관, 고추속 체험)
  - ○ 고추 방아장터(고추장터, 고추세척기, 건조기 시연, 고추방앗간)
  - ○ 고추 놀이마당 (대동놀이 : 황금고추를 찾아라, 소원 고추금줄 만들기, 소소놀이:고추 깜짝 경매이벤트, 매운맛 최강대전, 고추지뢰밟기, 고추광주리를 채워라)
  - ○ 고추 핫 먹거리 마당(매운 닭갈비, 매운 닭발, 매운 냉국수, 고추튀김, 고추 주먹밥)
  - ○ 물장구 마당(물축구 대항전, 고추철인 3종 경기, 고추달린 물고기를 잡아라 등)
  - ○ 고추따기 체험
  - ○ 캠핑체험
  - ○ 홍가네 체험마당(임꺽정 퍼포먼스, 고추와 전통놀이 고추새참, 물지게체험, 관상 손금체험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2014 괴산고추축제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축제 운영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 가족단위 참가자를 배려한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기획과 축제 홍보안내판, 벤치 등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최 측의 세심한 노력이 엿보임

○ 고추가 주제인 축제인 만큼 고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범식 고택에서 진행된 임꺽정 퍼포먼스, 물지게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옛 향취를 느낄 수 있음. 또한, 개최기간이 무더운 늦여름인 만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고추물총대첩과 같은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즐거운 축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하여 캠핑장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캠핑의 지역관광 거점화 시도로 매우 바람직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킬러콘텐츠의 규모적인 개선이 필요함. 지역민과 관광객이 동시에 축제기간 내에 함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행사의 개발이 필요함. 괴산고추축제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행사의 선정과 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 축제장 내의 편의시설은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여전히 휴식처가 부족함. 무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휴식공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화장실 청결성 관리도 개선되어야 함. 축제장소 내에 위치한 다리의 좁은 인도 옆에 영업하는 노점상들로 인해 방문객들의 통행이 불편함. 노점상들의 위치를 행사 기간 동안 세심하게 관리하여 축제장의 쾌적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축제장소를 괴산읍내 일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장과 연계하여 읍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축제 참가자가 시장으로 유인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마련도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괴산고추축제는 고추를 주제로 한 고추따기체험, 황금고추찾기, 고추음식체험 등의 프로그램 외에도 무더운 8월에 개최되는 기간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고추물총대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br>○ 특히, '막고난장'의 경우 지역주민과 1,000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여 막걸리 파티로 여흥을 즐기며 고추축제를 시작하여 지역의 잔치와 같은 흥겨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어 적절한 기획이라고 여겨짐. 고추 및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개발을 통해 이 축제의 특징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가족단위 참가자를 배려한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기획과 축제 홍보안내판 설치 등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최측이 세심한 노력이 엿보임. 개막공연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략하게 진행하고 있어 참가자를 배려한 기획이 엿보임<br>○ '고추비빔밥 무료시식'은 보여지는 퍼포먼스는 훌륭하나 이천쌀축제와 유사하여 보다 새로운 기획이 이뤄지면 좋을 것임. 타 축제의 바람직한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본 축제에 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괴산고추축제의 주제에 맞게 보다 차별화하는 전략이 요구함. '고추물총대첩'도 단순히 물감으로 놀이판을 벌이는 것보다 심판관을 두고 동, 서, 남, 북으로 편을 갈라 물감을 많이 받은 쪽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규칙을 반영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br>○ 이 축제의 킬러 콘텐츠로서 8회에 걸쳐 진행된 '황금고추를 찾아라'는 기획력은 뛰어나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측면이 있어 집중력이 약해 보다 폭발적인 킬러콘텐츠로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br>○ 고추라는 단일품목의 한계가 있으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특화된 축제로서의 속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체 군민이 면단위로 고추를 수집하여 일명 '고추동산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모은 고추들을 불우이웃돕기 하는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나누는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 하는 발상이 필요함<br>○ '괴산고추음식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수 있겠음<br>○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하여 캠핑장을 제공하고, 지역의 관광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캠핑의 지역관광 거점화 시도로 매우 바람직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br>- 즉, 괴산의 주요 관광자원인 '산막이옛길'과 같은 관광명소 투어와 토속음식 체험과 고추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캠핑족만이 아닌 일반 참가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박2일, 2박3일 상품을 여행사와 함께 기획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의 외부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br>○ 축제 방문객들이 이 축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주위사람들에게 구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관광기념품이 이용될 수 있음. '고추'가 우리의 생활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고추모양의 고춧가루통과 같은 실용적인 기념품, 혹은 성(成)적인 의미를 담은 인상적인 기념품을 개발하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고추모양을 활용한 볼펜도 특색있는 기념품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며, 이를 좀 더 정교화하여 상품화하여도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짐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본 축제는 소위 CI전략이 눈에 띔. 휴지통에 고추로고 표식, 로고가 활용된 벤치 등 전반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고추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CI활용 노력이 돋보임<br>○ 축제의 소재 특성을 살려서 특색있는 성박물관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함. 현재 제주도, 경주에 있는 기존의 성박물관과는 달리, 고추가 우리 역사에서 성(性)을 상징했던 문화를 콘텐츠로 구성하여 일명'고추성문화박물관'과 같은 있는 박물관을 만든다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br>– 즉, 단순히 성을 테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식생활적 측면과 성(成)적 역사문화, 해학적인 측면에서 고추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 '다산' '풍요' '여유' '풍자'를 컨셉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을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함<br>○ 특히, 현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생산한 '남성상징형' 고추는 괴산고추가 독점적으로 상품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br>○ 축제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신혼부부나 연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여 축제수요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br>○ 사람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추열매를 특화하여 괴산고추축제의 새로운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단, 가족단위의 방문자들이 많은 만큼 자연스러운 홍보전략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br>○ 10개의 마당놀이프로그램은 매우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 단, 이러한 마당끼리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출발과 도착의 동선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br>○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광객들이 10개의 마당에 흠뻑 취하도록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대응전략이 필요함. 홍범고택에서 실행한 손금, 관상, 사주체험은 괴산고추축제의 문화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br>○ 홍범식의 역사문화적 내용이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br>○ 괴산고추축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분류할 필요 있음. 즉, 첫째, 괴산고추축제의 정체성 둘째, 괴산고추축제마당의 정체성, 셋째, 괴산고추축제의 문화정체성 확보 등으로 콘텐츠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 3) 축제의 운영 | ○ 괴산축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고추관련음식을 매운맛, 보통맛, 순한맛으로 분류하여 '맛따라 가는 괴산고추길'로 조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 있음. 괴산고추와 음식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고추를 활용한 음식을 소개하고 조리법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임꺽정 주막촌'의 안주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을 높일 필요 있음<br>○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음. 특히, 진행요원들은 축제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음.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이 축제에 자원봉사, 공연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함<br>○ 축제기간동안 고추관광안내소나 고추문화해설사 등 차별화된 괴산의 문화축제가 되도록 관광객 위주의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중요한 행사별로 집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고추문화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여 축제의 질을 높힐 필요 있음. 행사장 곳곳에서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이 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br>○ 축제장 내의 편의시설은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여전히 휴식처가 부족함. 특히, 무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임꺽정 주막거리의 화장실이 지저분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음. 보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br>○ 안전에 대한 각종 대응책은 있으나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고추축제의 특성상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으나 보다 근본적인 고객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안전홍보대책이 다소 미비함<br>○ 축제장소 내에 위치한 다리의 좁은 인도 옆에 큰 엔터테인먼트 업체 차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꼬치구이, 과일 등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어 방문객들이 다리를 통행하기에 매우 비좁아 불편함<br>○ 특히, 꼬치구이 연기와 냄새가 심해 불쾌감을 줌. 이러한 음식노점상들의 위치를 행사 기간 동안 세심하게 관리하여 축제장의 쾌적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br>○ 축제장소를 괴산읍내 일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장과 연계하여 읍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축제참가자가 시장으로 유인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마련도 요구됨 |
| 4) 축제 발전성 | ○ 이 축제는 한국전통 음식재료인 고추를 주제로 하고 있어 규모나 콘텐츠를 향상시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각국의 고추품종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어 차제에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전세계에 고추품종을 재배하는 나라를 해마다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나라 고추품종과 고추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도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참가국 수를 늘리면 문화관광축제와 함께 국제농업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또한, 고추와 연계한 융복합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함. 푸른 풋고추, 청량고추, 붉은 고추 및 각종 고춧가루 등을 가미한 전국의 음식들을 선별한 음식행사 개최한다거나, 한방고추음식, 건강고추김치, 어린이김치 등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응용하여 상품화하여 괴산고추도 알리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 5) 축제 성과 | ○ 본 축제는 단일품목인 고추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관광객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어 주목됨. 전년도에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이뤄졌음. 축제의 아이덴터티 구축을 위해 벤치나 안내표지판 등에 통일된 로고를 적용한 것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았으며, 고객을 배려한 세심한 기획과 서비스가 이뤄져 예년에 비해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br>○ 현장에서 고추를 판매하고, 직접 빻고 갈은 고춧가루를 파는 행사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행사 기간 중에 사전에 구매된 고추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음. 품질 좋은 고추를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입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해서 거래량이 작년보다 많았으며, 축제를 통해 홍보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고추를 사기 위해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적지 않음<br>○ 축제를 통해 고추 외에, 감자, 옥수수 등 괴산지역에서 나는 질좋은 농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괴산의 품질좋고 맛좋은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괴산고추축제가 도움이 되고 있음 |

# 17 충주 세계무술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22일(토) ~ 8월 30일(일) / 9일간**
- **장 소 : 충주 세계무술공원**
- **주 최 : 충주시**
- **주 관 : (재)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사)세계무술연맹**
- **주요행사**

○ 개/폐막, 무술행사, 공연행사, 체험 및 참여행사, 전시행사 등

- 기획콘텐츠 : 주제공연/개.폐막식, 택견한마당, 무술체험-드림팀 장비, 경주엑스포 교류, 주빈국의 날, 경품추첨, 소망등 달기, 돌미로원 이벤트, 물놀이 체험존 마련 등
- 무술콘텐츠 : 세계택견대회, 국제무예연무대회, K-1 대회, 태권도 고수회 대회, 무예교류장, 전통무예 체험, 전통무예연무단 등
- 문화콘텐츠 : 농특산품 판매장, 무술주제 그림 공모, 어린이 창작극"아리공주와 꼬꼬왕자",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충주으뜸문화자랑, 월드푸드 및 세계풍물관, 야생화/분재 전시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국내 유일의 종합무술축제로서 차별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임이 작년도 평가에 이어서 잘 나타나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별도로 조성된 세계무술공원과 세계무술박물관이라는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탄금대 등으로의 연계 관광도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도 매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등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전체적으로 작년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개선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축제의 발전을 위한 단계적 노력이 충분히 엿보임

○ 지난해(2014년) 무술축제, 정체성 일부분 회복을 기화로 보조무대 무술 프로그램 운영을 메인 무대로 올리는 등 노력했으며, 세계무예연무대회는 대표 무술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세계택견대회와 국제무예연무대회 등 핵심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적 정체성을 연결하는데 아직도 한계가 있으며, 집객 및 해외 관광객 대상 홍보 등도 주빈국 및 일부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세계택견대회' 등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관건임

○ 올해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콘텐츠를 마련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연등달기 등 이외에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마련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년 중 짧은 기간동안만 지역의 관심을 끄는 행사보다는 상시적으로 인프라와 연동되어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등 국민들이 참여,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축제화의 시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전년대비 지적사항들을 많이 수용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하고, 단순프로그램 보다는 콘텐츠별 프로그램 마련을 차별화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특히 유아 체험 등 차별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br>- 의례적이고 의전적인 행사의 간소화 및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의 유료프로그램 운영(엽전 교환) 및 지역연고 기업 후원 확대 및 연계관광(롯데맥주 등)을 통해 축제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한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인정됨.<br>○ 작년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세계성' 뿐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부스 마련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및 연등달기 등을 배치한 것도 바람직함.<br>- 특히,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소망등을 점등하여 충주시민들의 소망을 기원하고 홍보 및 참여(개당 10,000원) 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점 등이 인정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다만 후원기업들의 주제가 축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아파트 분양홍보, 맥주공장 견학), 관련 부스를 주요 동선 상에 위치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br>○ 향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성도 확보할 수 있는 중심적 연행(대표프로그램)의 설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작년에 이어 남아 있는데, 참여보다는 관람, '연무' 자체의 생소함 등으로 국제무예연무대회가 핵심프로그램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다양한 무예를 핵심 테마로 하여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종합무술축제로서 상징성 및 축제의 특성, 축제의 콘텐츠의 차별적 요인은 인정할만함<br>- 또한, 세계무술공원 및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등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이에 호응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매칭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br>- 축제와 함께 주빈국의 날(인도네시아), 세계택견대회, 국제무예연무대회, K-1 대회, 태권도 고수회 대회, 세계 무예 교류의 장 등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됨<br>- 대표프로그램은 국제무예연무대회, 세계택견대회, 태권도 고수회 대회 등으로서 이들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무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흥미진진한 시연의 지속적 관람과 체험을 통해 무예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음.<br>- 경주엑스포와 서로 교류하여 문화공연팀과 무술팀의 교류가 쌍방으로 이루어져서 차별성을 꾀한 점도 특이할만 함<br>○ 축제의 정체성이 무술에 있는 만큼 체험프로그램도 무술체험 뿐 아니라, TV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얻어 드림팀급 장비 체험, 세계무예교류의 장을 통한 체험 및 교류, 어린이 대상 특화 어린이놀이 체험장, 무술 어린이 유료놀이존 등 기획에 신경을 쓴 점이 인상적임<br>- 이에 낮 동안에는 아동 및 젊은 층 대상 참여 행사 및 콘텐츠에 주안점을 두고, 밤에는 다양한 무술 행사 및 관람 등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축제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한 점이 인정됨<br>- 관광의 경우에도 지역연고기업을 활용한 롯데맥주의 (클라우드)관광투어를 실시하고, 홍보하려고 한 점이 인정됨<br>- 개막 축하 콘서트를 폐지하고 무술주제공연 제작에 힘쓴 점도 좋았지만, 최소한으로 기획한 폐막식 인순이 공연의 경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으로 활력이 떨어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다만, 작년에 지적된 바와 유사하게, 대표프로그램인 연무대회와 다양한 무술행사는 관람 중심으로서, 행사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관람객들의 참여와 재미를 배가하는 측면에서의 역동성은 여전히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br>- 또한, 대상별 관람객의 기호를 고려할 때, 작년 지적사항에 따라 아마추어 e-sports대회를 폐지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에 따른 대안 프로그램이 부재함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가 오히려 미흡하다는 측면은 지적될 수 있음. 젊은이 대상 드림팀급 장비를 통한 3종 장애물 극복체험의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참여대상의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함<br>- 더불어, 유아 및 어린이 중심 체험 행사로 강조된 체험장의 경우, 엽전을 바꾸어 참가하는 유료존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바운스와 간단한 활쏘기 등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이 또한, 홍보 및 관리가 치밀하지 않아 단체 방문 시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다양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유료, 무료) 이에 대한 홍보 등을 사전에 기획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예시 : 사전 관내 유치원 및 학교 대상 홍보 및 참여 유도 등)<br>- 평일 집객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한 주최 측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전국 자유수호자 전진대회' 등의 축제와 상관없는 프로그램의 삽입은 일반 참가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3) 축제의 운영 | ○ 작년까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축제의 운영은 충주시 관광과와 주관기관이 직접 맡아 협력체제 하에서 운영되었으며, 역할 분담을 통해 별 무리 없이 축제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br>-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3배정도 많은 인력이 참여해 사전 모집 및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축제 운영과 연관된 매뉴얼을 숙지시켜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돋보임. 교통의 혼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모범운전자 봉사자들의 정리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짐<br>- 또한 별도로 운영요원들을 고용하여 각종 행사의 운영과 진행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한 점이 나타남<br>- 이전의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에 따라 동선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요 부스 및 프로그램 개최 장소의 매치,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부스의 마련, 축제장 내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를 통한 안내체계 강화 등으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한 점도 인정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메인무대를 공식행사 위주의 장에서 무술행사 위주의 장으로 바꾸고, 별도의 어린이존을 만들어 분리한 점도 인상깊음<br>- 작년과 달리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주관방송사가 없었음에도 지역방송사의 협조를 통한 개막식 중계, K-1 중계를 위한 HDTV 관련 방송사의 콘텐츠 중계 등 홍보에도 효과를 거둠. 이밖에도 방송과 신문, 인쇄매체, 온라인 매체, 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지역 내외에 홍보를 실시한 점이 인정됨<br>- 또한 운영분야 자원봉사자와는 별도로 안전분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경찰·소방·의료 등의 안전관련 상황실을 따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도 다른 축제장과 유사하나, 인정되는 부분임<br>○ 문제가 되었던 식당가를 뒤로 배치하고, 강제동선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부스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은 좋았으나, 정작 방문객이 방문했을 경우 바닥표시나 추천 동선 등을 찾기 어려워,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함. 관련 시범 동선의 입구 부착 및 안내 이정표의 확대 등이 요구될 수 있음<br>- 또한, 먹거리 장터의 서비스 및 음식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내세울만한 향토음식점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 먹거리 및 차별적인 요소가 부재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행사기간 중 태풍으로 인한 우천시 프로그램의 미흡(비를 피할 수 있는 돔형태 메인무대 위주의 운영) 및 부스 폐쇄, 향토음식점 동선의 불편함 등은 향후 개선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br>- 이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축제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br>- 9월말~10월말의 경우 낮에는 덥고 밤에 추운 날씨 때문에 축제에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으나, 문화의 달 등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필요하며, 하계휴가철이 끼어있을 경우 8월말이라고 하지만, 세부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집객효과 등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며, 태풍 등 날씨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임<br>- 8월말~9월초(방학 부분 포함) 경우, 건조한 시기로서 낮에는 덥지만 밤엔 야외 활동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습하고 더운 날씨를 제외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의 축제가 지속될 때는 태풍 등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함<br>- 홍보의 경우도 충주역 및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주요 접근 게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아쉬웠음. 팜플렛 몇장만을 비치하고, 포스터 1장만을 붙이는 등 다소 무성의한 홍보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일정표 및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웠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숙소가 몰려있는 충주역 인근 숙박업소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코레일과 협력하여 행사기간 내 증차 운행 이외에도 청년들 대상 '내일로' 티켓 구입 청년들의 경우 축제 방문시 기념품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 요소를 개발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 하는 등 부가적인 관광 유발 요인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운영에 누적으로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시민홍보단을 조직해 자발적 홍보를 진행하였음. 또한 지역의 각종 민간단체들이 축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향토음식점 운영을 꾀한 것도 그 예로 볼 수 있음<br>○ 작년에 이어 분재 및 야생화 전시회는 해당 동호회가, 시민프린지는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연함으로써 축제의 활력을 높인 점도 인정됨<br>○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롯데맥주 및 e-편한세상 등 후원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해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한 점도 인정됨<br>○ 다만,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지만 여전히 일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는 축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음. 자원봉사자들이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축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연중 그들과 소통하면서 축제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탄금대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축제에서는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이에 대한 연계관광의 안내 및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br>○ 더 많은 참여 및 홍보 바램 등을 위해 주말을 2번 끼워넣은 의도는 인정되나, 5일에서 9일로 축제기간을 늘린 것은 심도깊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br>- 실제 8일이라는 축제기간이 다소 길고,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모호한 상황에서 집객효과의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방향에 맞추어 흩어져있는 현재 나열식 프로그램의 정교화를 꾀하고, 일정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함 |
| 5) 축제 성과 | ○ 2015 축제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총 방문객수는 9일이라는 긴 기간 때문인지 85만명이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일별로는 토-일 주말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며, 6일이 경과한 월요일의 경우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시간대별로는 오후 7시 이후의 방문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바, 축제 기획의도와 맞게 성과가 나타남<br>- 다만, 2014년 대비 긴 축제기간 등으로 방문객수가 늘어난 것을 산술적으로 효과가 더 있었다고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방문객의 지역 및 방문목적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자체 평가 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br>○ 2015 축제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 498명 중 37.7%가 축제가 재미있었다고 답했으며, 보통과 약간 그렇다 등의 다른 응답까지 포함하며,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답을 함으로써,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br>- 이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그렇다- 30.3%)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며, 먹거리와 재방문 의도 조사 등의 경우에도 평균 이상의 호감도가 나타나고 있음<br>- 세부 항목별로는 재미, 안전성, 안내해설 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나 살거리, 사전 홍보 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br>- 전체적으로는 2014년 대비 만족도가 상향되어 있음이 나타남<br>○ 방문객 설문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과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음<br>○ 개선할 점은 수도권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방문객에서 외지 관광객들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음. 향후 특히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 18 강경 발효젓갈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14일(수) ~ 10월 18일(일) / 5일간**
- **장 소 : 강경포구,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등**
- **주 제 :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
- **부 제 : 넉넉한 덤! 최고의 강경맛깔젓!**
- **주 체 : 논산시**
- **주 관 :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문화 행사

- 주제공연 “빼파의 강경상경기”, 전국여고동창가요제, 개막 축하공연, 강경포구 전국어린이동요제, 보부상 난전재현놀이, 남사당 놀이공연, 논산예술단 “강경이 미래다”, 평양예술단, 찾아가는 국악공연, 갈대숲라이브공연, 충청도 웃다리 풍장공연, 논산두레풍물, 놀뫼풍물어울마당, 포구락콘서트, 통기타라이브, 폐막축하공연 등 16개

○ 체험 행사

- 젓갈김치담그기, 인력거문화유산탐방, 젓갈맞춤이벤트, 어린이물고기잡기체험, 소원성취종이배띄우기, 외국인 젓갈김치담그기, 젓갈체험관, 왕새우잡기체험(장어맨손잡기 등), 전통민속놀이, 강경포구 젓갈캐릭터 소원등달기, 가마솥햅쌀밥과 젓갈시식, 젓갈페이스페인팅 및 네일아트, 놀뫼공예체험, 강경포구 연날리기 등 15개

○ 특별 행사

- 다문화맛깔젓김치담그기 요리대회, 군가족맛깔젓김치담그기 요리대회, 전국학생 강경포구사생대회, 재경향우회 날, 세계민속공연, 충남국악경연대회, 놀뫼장기자랑, 논산트로트 전국가요제, 강경전성시대, 강나루 불꽃놀이, 놀뫼백일장, 축제연계공연 순창군, 주민자치발표대회, 젓갈김장열차, 할랄인증 홍보,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충남&논산 평생학습 온통박람회 등 17개

○ 상설 행사

- 황포돛배운영, 슬로우푸드전시관, 젓갈인형극장, 강경포구 주막, 축제연계전시관, 국화

포토존, 시대재현 퍼포먼스,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 농특산물 홍보·판매전, 사회적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전, 젓갈마당쇠 퍼포먼스, 갈대숲오솔길걷기, 강경 옛모습 및 축제사진전시, 추억의 교복포토존 운영, 젓갈뷔페식당, 향토음식점, 포구갈대카페, 강경포구 포토이벤트, 옛포구장터, 축산물 홍보·판매전등 20개

○ 부대 행사

- 젓갈시장통 길거리공연, 젓갈축제 홍보깃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각설이타령 등 4개

## (2) 총 평

### 잘된 점

○ 지역의 특산물과 역사문화가 결합되어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모범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음. 지역상인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장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뛰어난 점을 엿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강경포구의 역사성과 200여 년 동안 보존해 오고 발전해 온 강경젓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의 의미를 강화하고 주제성 강한 축제로 운영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강화, 장기적으로는 젓갈에 대한 브랜드화로 긍정적 지역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축제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강화 및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자력으로 지속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특히 테마 중심의 축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보임. 축제 테마와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전략 프로그램을 강화·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음

- 이는, 강경발효젓갈축제가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도 인상적이며 문화계와 종교계 등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관과 프로그램들을 축제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상황도 매우 바람직함

○ 지역의 특산물의 판촉을 넘어서서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 증진이나 음식/요리에 대한 젓갈의 활용도와 장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주요 프로그램들이 금강변에 위치한 행사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축제 행사장을 도심거리로 확대, 축제 분위기를 강경읍 전체로 고조시킬 필요가 있음. 도심권에 있는 역사문화 공간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지역 네트워킹 전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강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축제공간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강경을 넘어 논산의 여러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시간대별·장소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지금처럼 특정 장소에서의 장터식 판매와 체험보다는 도심의 다양한 업소와 주체들이 참여하는 도시 네크워크 축제로 변신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훌륭하나 부분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홍보 등 축제의 위상이나 규모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보임.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더욱 관심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국제화 부문은 단순한 지역차원의 발전이기보다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상승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축제담당자가 직접 해외 현장을 방문하고 벤치마킹 및 직접 수요를 창조하고 공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함.
- ○ 특히 행사장 위치와 구성이 지나치게 특산물 직거래 장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쾌적한 체험을 원하는 가족방문객이나 수도권 방문객들에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음. 판매공간, 체험공간, 공연공간 등이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판매장을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공간 구성 전체가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 ○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젓갈체험 프로그램도 비용이 다소 비싸고 불친절한 상인도 있어 개선이 필요함. 천막 위주의 판매장이나 체험장도 좋지만 좀 더 쾌적하고 세련된 구성이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음. 본 축제는 최우수축제로서 축제 중 많이 팔고자 하는 것보다 축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축제의 로드맵이나 장기적인 플랜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향후 발전  전략과 비전에 관한 부분이 이 시점에서 모색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지역 특산물 축제의 수준을 넘어서고 한국의 대표축제가 되며 국내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적 수준의 건강음식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의 역학관계를 넘어 개방적으로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지역의 특산물과 역사문화 및 산업생태계의 융합을 통해 강경발효젓갈축제만의 개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임<br>○ 지역민이나 젓갈상인들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키고 축제운영에 있어 책임을 주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 점은 축제의 내적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됨<br>○ 할랄(halal) 인증 홍보관 운영을 통해 젓갈의 품질 인증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도로 판단됨. 특히 할랄 인증은 최근의 글로벌 이슈이자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어 아시아 권역의 이슬람 국가에 시장에 수출을 증진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br>○ 조선의 3대 포구의 명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지역공연 등 축제를 활용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로 '젓갈'이라는 콘텐츠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의 역사와 산업의 현장과 결합시켜 체험과 도심체험을 강화시킨다면 더욱 완숙한 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사료됨<br>○ 축제의 메인 테마와 더불어 강경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을 결합하여 관광객들을 유인함과 동시에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지역민은 축제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축제행사에 모범적으로 참여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br>○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 주제가 젓갈이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는 상품이라 특별히 대표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젓갈체험이 실질적으로는 대표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체험비가 다소 비싸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젓갈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또한 참가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별도의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br>○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축제캐릭터개발 :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실제 참가자 개인에게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되어 있으나 제한적인 방문객에게만 혜택을 주어 보완이 필요하고 축제 캐릭터개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를 브랜딩하거나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단계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br>○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젓갈의 마케팅 이외에 강경의 역사와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자원을 젓갈축제와 연계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일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사진전만 있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축제가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테마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젓갈전시장, 젓갈시장과 더불어 금강과 갈대숲, 옥녀봉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문화를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br>○ 일부 축제들이 대행사를 통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비해 본 축제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담당 공무원과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축제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br>○ 반면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등에서 다소 지역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부 영역별로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br>○ 홍보의 효율성면에서는 부산 등 대도시에 아치탑을 세우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소구를 하였다고 보지만 기사화 될 만한 이슈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함. 예를 들어 축제의 대표적인 마스코트를 기억할 수 없고 일관성 있는 시각홍보물 등이 없고 난립해 있는 인상을 줌<br>○ 주차장, 화장실 등 기초 편의시설은 충분히 준비하여 불편한 점이 없었으나 공간배치는 다소 혼란스런 부분이 있었음. 물론 장터라는 역사적인 공간을 펼쳐놓아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 각각의 부스들이 정돈되지 못하고 다소 산만하게 배치가 되어 있음<br>○ 어느 축제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젓갈판매 상인들은 거의 참여하였으며, 안내 등 각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음. 또한 참여 주민의 대부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br>○ 그러나 젓갈상인 이외 다양한 분야의 지역주민의 참여가 독려되어 단순한 특산물 축제가 아닌 특산물이 매개가 되어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도심권으로의 축제장의 이동이나 지역의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참여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운영진의 별도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4) 축제 발전성 | ○ 지역 특산물을 축제 콘텐츠로 이끌어내어 경제 활성화 효과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형 축제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됨<br>○ 강경발효젓갈축제의 소재인 젓갈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 새우젓소금, 젓갈비빔밥, 딸기젓갈, 인삼젓갈, 젓갈만두 등 방문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관광 상품들은 강경발효젓갈축제만이 가지는 매력이 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중점추진전략으로 축제 후원업체의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다양한 후원업체의 축제 참여는 축제의 자생적 운영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지역기반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의 자생적 운영 토대를 마련해야 함<br>○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외부의 전략적인 요소의 전문가 영입이나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독립된 행사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통합을 유도하고 도심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전략 등이 대폭 발전이 있어야 더욱 고급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됨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서 강경 젓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역할 수행,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젓갈의 홍보와 판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br>○ 행사장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 육군훈련소, 다문화 가정 등 상대적으로 축제참여의 기회가 적었던 계층들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은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br>○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부여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행사를 다양화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이벤트 개발로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와 강경발효젓갈축제만의 특성을 살리고자 시도하였음.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총 5개 분야의 72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인형극에서부터 젓갈 김치 담그기, 양념 젓갈 만들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는 점이 긍정적이었다고 판단됨<br>○ 최우수축제의 품격과 강경젓갈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젓갈 품질인증에 대한 결과 논산시와 협회차원에서의 착한명품가게 선정을 하는 등 2015년 축제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 19 부여 서동연꽃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7월 10일(금) ~ 7월 19일(일) / 10일간**
- **장 소 : 부여서동공원(궁남지) 일원**
- **주 최 : 부여군**
- **주 관 : 부여문화원**
- **주요행사**
  -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주제공연, 불꽃쇼)
  - ○ 공연행사 : 개·폐막 주제공연(서동의 노래, 전심연화), 지역예술단체 및 유명예술단 공연
  - ○ 경연 및 시연 : 창작동요 부르기 대회, 사생대회
  - ○ 전시프로그램 : 연 음식 전시·시식, 마 전시회, 연필 다도시연, 시화전, 연꽃 및 부여 10경 사진전
  - ○ 상설프로그램 : 체험, 주제관, 전시, 테마존 운영
  - ○ 공모 선정 체험종목(11종), 자체 운영 체험 종목(10종)
  - ○ 주제관 운영(포룡정 일원), 야간 경관조명
  - ○ 테마존 운영 : 사랑존, 서동존, 학습존, 사랑의 별빛 정원, 유등존, 투사등, 백제 연화등
  - ○ 기타 : 서동선화 연극공연, 사랑의 풍등날리기, 포토 조형물 설치, 포토존 프레임 설치, 스토리텔링화, 행사장 배치도 및 사진인화서비스

## (2) 총 평

- **잘된 점**
  - ○ 부여서동연꽃축제의 개최 장소가 부여시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은 물론 외부방문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궁남지라는 점임. 뿐만 아니라 궁남지의 넓은 면적에 수년간 연꽃을 심어 장관을 연출하여 경관성이 우수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 ○ 축제기간동안 지역민과 관광객이 수려한 연꽃을 배경으로 휴식과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더욱이 야간 경관조명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야간행

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한여름밤의 축제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궁남지 공원에 LED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야간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람객에게 높은 호응을 받음

○ 축제행사의 관리 측면에서도 주차 관리가 양호하며, 난장이 펼쳐진 장소와 분리, 이격되어 있어서 충돌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되었음

○ 저녁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주행사 무대에는 한정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못 주변으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 현황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세시한 기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진정한 축제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주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중 몇 개를 제외하고는 외부업체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형식으로 시민위로잔치 분위기임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10일간 지속되는 행사이지만 축제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꽃길 걷기, 사진찍기, 공연감상, 체험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1일 이상 체류하게 하는 요인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은 있으나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있어 청·장년층 등 연령대별로 흥미로운 프로그램 기획이 부족함

○ 축제운영요원과 자원봉사요원은 배치되어 있으나 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음. 단지 축제안내판에서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개최되는 지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가 없음

○ 축제행사에서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주차의 경우, 주차장 혼잡을 예상하여 일방통행으로 하여 주차장에 대한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임시주차장에 대한 안내판 등이 잘 안되어 있어 위치 및 통로 등을 찾기가 어려움. 주차 안내 요원도 차량을 빨리 소통하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니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함(추후에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안내표지가 있었으면 하며, 어느 정도 주차가 더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다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향후에는 미리 예약을 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여 셔틀버스로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7월로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개최되고 있어 축제 참가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br>○ 서동연꽃 축제장은 궁남지로 한정하고 민간 판매시설은 공원 밖으로 유도함으로써 축제장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하였음. 그러나 축제장 출입구에서부터 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커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향후 이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주요 행사시간 고려)<br>○ 축제장 주변으로 부여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 등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축제 개최의 지역경제 효과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함<br>○ 서동연꽃축제는 '서동(무왕)'과 '연꽃'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축제가 뚜렷하게 고유 특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있음(연꽃만을 주제로 한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되지만 두 개의 주제가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듯함)<br>○ 주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임. 예를 들어 연꽃을 활용한 요리경연 대회, 영쉐프대회 등 20대와 40~50대 등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함<br>○ 매일 이루어지는 주무대의 공연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지역만의 특성있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접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br>○ 축제 배너, 축제 안내장 등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는 등 디자인 기획이 잘되어 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서동연꽃축제는 '연꽃(자연)'과 '서동(문화, 이야기)'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축제로서 두 개의 테마가 완벽하게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연꽃(자연)은 궁남지에 펼쳐진 연꽃의 장관을 연출하여 배경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동(문화, 이야기)은 극이나 조형물 등에서 주제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br>○ 작년부터 시작된 야간 프로그램으로 LED 조명이 장치된 조형물은 야간에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 궁남지를 거닐기에도 좋게 장식되어 있어 축제의 흥을 돋우고 있음. 특히 LED전구 장착한 '서동선화 나이트 퍼레이드'는 재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br>○ 축제를 찾는 방문객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학생, 젊은이들, 장년층과 고령자층등 연령대가 다양하게 나타남. 그러나 장년층과 고령자층에게는 연꽃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공프로그램이 부족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부여서동연꽃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였고 메인 무대에서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축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핵심콘텐츠가 약한 것이 현실임<br>○ 향후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 3) 축제의 운영 | ○ 궁남지는 부여시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공원일 뿐만 아니라 부여시내에 입지하고 있어 축제장의 위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찾아가는 것이 매우 용이함<br>○ 주차 및 안내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어, 궁남지로 향하는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처리함으로써 주차장을 찾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였음<br>- 그러나 기존의 주차장이외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하게 하였으나 임시주차장에 대한 안내판이 잘 안되어 있어 축제장에서 임시주차장을 찾기는 쉽지 않았음<br>○ 주무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여 궁남지 주변으로 스크린을 설치하여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함<br>○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등은 잘 되고 있음. 특히 궁남지 카누투어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인기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br>○ 축제장에서의 음식 먹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으로 바람직하나 축제장에서 부여의 특성 있는 먹거리(간식거리)를 맛보는 것도 중요한 체험임으로 지역음식점과 협력하여 축제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br>○ 축제장이 궁남지를 중심으로 환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험장소를 찾고 이동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행사의 주무대와 주차장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전체 행사장 안내판만 되어 있어 장소를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 접근이 편리한 도심 내 공원(궁남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축제장소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은 축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임<br>○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이 발전하고 있으며, 궁남지의 서동연꽃축제가 부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중의 하나로 잡리 잡게 되었다고 판단됨<br>O 다만 아직까지 서동이라는 문화적 스토리가 완전히 축제에 녹여나지 않은 듯함. 서동보다는 연꽃의 주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동과 연꽃을 서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발굴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서동연꽃축제가 부여시내의 궁남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의 축제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여의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루트 계획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2015년 서동연꽃축제는 백제역사문화유사의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 확정 이후에 개최됨으로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부여 및 축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br>○ 축제가 도시내에서 개최됨으로 주변 상권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보다 지역주민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의 판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br>○ 궁남지의 연꽃이 해를 거듭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어 언론 매체에서도 관심을 두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 TV 등 방송매체에서 축제에 대하여 방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 및 축제 홍보가 이루어짐 |

# 20 서산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9일 ~ 10월 11일 / 3일간**
- **장 소 :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
- **주 최 : 서산시**
- **주 관 : 서산해미읍성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야간문화공연, MGBQ, 읍성축성마당, 축성일꾼 새참마당, 읍성관아마당, 읍성병영마당, 읍성생활마당, 성 밖 마당, 마당극, 농악경연대회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의 기획 방향을 600년 역사의 숨결을 바탕으로 해미읍성 600년 시간여행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음. 해미읍성을 토대로 성곽을 경계로 하여 과거로의 여행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획이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음

○ 관광객의 참여 유도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축성마당·생활마당 등의 형태로 마당(Zone)을 구성하여 프로그램들 간의 특색을 유지하려 노력한 흔적이 돋보임

○ 차 없는 거리, 자원봉사자 및 유관 기관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교통 정리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며, 서산문화원 주도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참여도와 거버넌스 관계 등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주말 기간에 차지단체장의 직접 참여 및 의지를 축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거중기 체험의 경우에는 어린이 방문객들이 체험하기 적절한 프로그램이면서도 과거 그리고 해미읍성의 성곽과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었음

○ MGBQ (Miss Global Beauty Qneen) 초청 팸투어를 통한 홍보사절들의 입소문효과가 기대되며,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됨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관광객들의 참여 및 체험을 독려하고 있어 콘텐츠의 차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함. 새끼 꼬기 및 다듬이돌 및 관람 및 특히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중기 체험 등 학습효과가 높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 좋은 인상을 줌

○ 작년 교황 방문시 흔적 및 가로명 변경 등 브랜드 효과 창출에 노력한 점도 엿보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해미읍성 자체가 대표적인 브랜드이지만, 이와 시너지를 낼만한 프로그램의 이슈화와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한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음

○ 3일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축제를 시행하다 보니, 주차장 준비 등 노력하였음에도, 주말의 경우 주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보임. 특정 시간대 및 몰리는 시간을 예측하여, 관리인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안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친절함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홍보하는 미소 교육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 전국농악명인 경연대회 프로그램의 경우 행사 장소가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다소 모르고 지나치는 측면도 아쉬움.

○ 해미읍성 뒤편의 넓은 소나무 숲을 활용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성벽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야간 조명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있음

○ 셔틀버스 등의 이용도 무난하나, 시각 및 타는 곳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은 아쉬움

○ 홍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홈페이지 홍보 및 서산 SNS 서포터즈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방법 및 자랑거리 등에 대한 소개가 미리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좋을 것임

○ MGBQ 등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었음에도 대표 체험 프로그램의 입간판 등에 영어 안내문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개별 방문객들에게 자원봉사자가 하는 안내도 좋으나, 세밀한 관심이 더 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갑작스런 소나기로 인해, 관람객이 피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우천시 대책 마련, 피신장소 안내 등 다각적인 대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성벽을 살아있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성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주관한 측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br>○ 전년도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주차, 안내, 휴식, 먹거리 등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음. 축제 기간이 단축되고 주말 행사로 이루지면서 주차 혼잡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주최기관과 주관단체 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br>○ 해미읍성의 역사 체험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 완성도를 좀 더 보강하게 된다면 더욱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임.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스토리를 발굴하려는 노력에서는 주제의 발전성이 보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성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과거의 역사와 체험을 위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목표시장이라 할 수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br>○ 전국농악명인 경연대회의 경우에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 공간의 선정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였음<br>○ 해미읍성 자체가 브랜드가 되면서 역사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본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의 명확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매년 주제를 설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미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3) 축제의 운영 | ○ 해미읍성 뒤편의 소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및 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시정할 요소로 작용함. 또한 성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공간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미읍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br>○ 행사장 내 추천 동선을 제안하여 관람객들의 효율적인 축제장 동선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br>○ 주말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주차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었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리는 방안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 및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을 예측하여 관리 인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요율적인 안내 및 관리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측면은 전국의 모든 축제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일 것임. 하지만 이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의 정도는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음. 사전 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오는 방문객을 친절히 맞이하도록 하는 교육이 좀 더 보강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짐<br>○ 홍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홈페이지 홍보 및 서산 SNS 서포터즈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및 수도권 지역에서 오는 방법 및 자랑거리 등에 대한 소개가 미리 이루어지고 그 홍보의 양도<br>○ MGBQ 등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었음에도 대표 체험 프로그램의 입간판 등에 영어 안내문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개별 방문객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안내도 좋으나, 세밀한 관심이 더 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임<br>○ 갑작스런 소나기로 인해, 관람객이 피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날짜 조정 및 우천 시 대책 마련, 피신장소 안내 등 다각적인 대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4) 축제 발전성 | ○ 매년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표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다면 한국의 성곽문화 및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역사체험축제로서의 위상을 간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br>○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면서 차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문화행사로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이러한 문화행사를 전국단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문화와 역사를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임<br>○ 야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주간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존재함. 야간 프로그램의 확장 및 성곽을 이용한 야간 볼거리 및 프로그램을 보강하게 되면 숙박관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것임 |
| 5) 축제 성과 | ○ 지역주민과 외래 방문객들에게 600년 역사 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성곽문화를 주제로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또한 직거래 장터 확대 및 수산물 시식코너를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br>o MGBQ 등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시티투어와 팸투어 등을 통하여 서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홍보를 시행하여 축제로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 문화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 21 홍성 역사인물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9월 11일(금) ~ 9월 13일(일) / 3일간**
- **장 소 :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
- **주 최 : 홍성군**
- **주 관 : 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대표 프로그램

- 생생한 역사현장체험(주제체험 : 충절의 역사 체험, 아픔의 역사 체험, 예술의 역사 체험)

○ 주제 공연 프로그램

- 역사인물 퓨전극, 역사인물 小小 마당극, 브론즈 퍼포먼스

○ 야간 프로그램

- 홍주읍성 야간 보물찾기, 별빛 쏟아지는 燈 포토존, 홍화문! 역사인물 미디어 쇼!

○ 지역테마마을 체험

- 팜투어 1박2일, 홍성농촌체험마을

## (2) 총 평

- **잘된 점**

○ 홍성군의 인문적 가치, 역사인물의 문화적 가치 등을 축제를 통해 발견하고, 홍성군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문화관광 유망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수반하는 축제 미션의 정립, 대표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에서 일정한 틀을 갖추어 가고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주체(행정, 민간전문가, 시민조직, 주민대표 등)가 축제준비 과정에 참여하여 축제를 함께 만들고 있는 과정은 바람직함. 축제현장에도 이러한 과정에서의 성과들이 나타나 다양한 층위의 민간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만족도 등이 현장에서도 느껴짐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그러나 아직은 대표 프로그램의 기획적 완성도, 프로그램 콘텐츠의 구성력, 운영체계성 등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단계라 판단함. 주제공연 프로그램 등도 관광축제로서의 볼거리나 완성도보다는 주민참여방식의 시민공연 형식이 많아 프로그램 볼거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었음. 야간 프로그램일부는 볼거리도 되고 콘텐츠 완성도 면에서도 일정한 수준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메인 무대의 공연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메인과 서브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대외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보다는 참여시민들의 즐거움과 만족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어 관광축제로서의 프로그램 특성이 약한 편임

○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즉, 관광축제의 미션에 기반을 둔 핵심 프로그램의 분명한 기획과 운영, 부대 프로그램의 섬세한 기획과 운영 등이 필요할 것임

○ 행사장 운영에서도 프로그램의 특성과 비중을 고려한 효과적인 행사장 구성과 동선연계 등이 필요하며, 축제 프로그램별 장소별 운영체계의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점은 중장기적으로 발전의 주요한 내재적 요소이지만 관광축제로서의 방문객을 전제한 프로그램 운영의 차원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홍주 천년, 역사인물열전”이라는 주제를 설정, 축제기간 3일 동안 홍주성 일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성관련 역사인물에 대한 학습, 문화적 체험을 축제화하고자 한 노력이 축제계획 추진과정 및 축제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본 축제는 지역의 역사인물을 축제의 소재이자 주제로 삼은 학습형 체험축제로서의 특성이 주요함.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을 생생한 역사현장체험으로 기획, 주제인물 6인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체험, 학습하는 콘텐츠로 진행함. 그러나 역사인물에 대한 지식적 조망도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축제 프로그램으로서의 기획완성도, 운영에서의 섬세함 등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축제가 학교 밖 교실처럼 학습의 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무리이며, 축제적인 상상력과 즐거움이 필요할 것임. 이후 대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현재보다 세련된 상상력과 기획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유료 체험존은 축제수익성 등의 고려가 있었겠지만 유료로서의 프로그램 수준이나 운영완성도에서 충분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유료 콘텐츠는 콘텐츠 매력성과 운영 전문성 등이 수반될 때 지속성과 발전성이 담보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방문객의 재방문 및 입소문 등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br>○ 그 외 주제공연, 야간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었는데 프로그램의 완성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고르지 않은 채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 방문객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다소 자족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음. 관광축제로서의 프로그램 완성도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 배치와 운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운영이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각 프로그램 운영체계, 축제장소별 관리체계 등에서 허술한 부분이 많음. 예를 들어 체험존에는 관람객이 많든 적든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재현 등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관람객 방문 숫자나 시간대에 따라서 운영체계가 변동이 많아 축제장 운영이 일관되지 않았음<br>○ 또한 행사장 배치에 있어서도 입구로부터 메인 프로그램이 잘 연결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현재는 메인 프로그램이 체험존으로 연결되어 있고 공연장 및 지역먹거리 장터는 전체 축제장소의 주변부에 위치한 듯해서 축제장소가 다소 산만하며 장소간 연계가 잘 보이지 않음. 또한 입구 바로 옆으로 축제와 무관한 먹거리 장터가 있고 소음이 커서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데 혼선이 있었음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기획의도 및 준비의 과정이 홍성군과 홍성군 내 지역문화 관련 민간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본 축제의 발전성에 가장 큰 요소라 생각됨.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지점이 축제를 지역적인 시각으로 가두는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음.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관광축제로서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지역내부의 활동력을 살리되 지역내외의 전문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축제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br>○ 역사인물축제로서 축제 발전모델을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그 비전에 맞게 단계적으로 축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체계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함. 현재는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보다는 당장의 축제운영에 천착하고 있어 이 축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 발전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축제에서 잘 보이지는 않음. 즉, 대표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발전성이 분명하지 않고 축제 현장에서도 대표 프로그램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통해 홍성지역의 옛 지명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 역사문화 인물의 존재와 가치를 끄집어내고, 지역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 지역의 행정, 민간 활동가 및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장이 되고 있는 것으 좋은 성과임<br>○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결속과 협력을 통해 관광축제로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의 성과는 아쉬운 지점이 있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방문객들과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 22 금강 여울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7월 24일(금) ~ 7년 26일(일) / 3일간**
- **장 소 :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일원**
- **주 최 : 금산문화원**
- **주 관 : 물페기농요보존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
- **주요행사**

○ 슬로건 : "강촌 외가집의 아련한 여름 추억"

○ 주요 프로그램

- 체험행사 : 강촌'물'체험-신나는 물체험, 노내기샘 금강족욕, 전통뗏목타기, 민물고기·다슬기잡기, 여울 속 종이배 체험, 대나무 물총만들기, 금강'물'터널, 농촌'외갓집'체험-경운기 투어 및 농작물 수확체험, 금강여울열차, 잠자리잡기, 여치집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천연염색 체험
- 전시행사 : 물문화체험관, 농바우끄시기전시관, 물페기농요전시관, 금강생태사진전
- 공연행사 : 전통민속공연 - 금산농악판굿, 물페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무대공연 – 강변콘서트, 여울콘서트
- 판매행사 : 외가집 시골밥상, 특산물 판매코너

## (2) 총 평

- **잘된 점**

○ 금강여울축제가 어린 시절 외갓집의 아련한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어린시절 시골에서의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동반하여 무더운 여름에 금강의 여울과 강촌의 정서와 시원함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이 물페기농요·농바우끄시기와 같은 금산 전통민속공연 뿐만 아니라 경운기투어, 농작물수확체험, 천연염색 등 축제의 모든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축제로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무더운 여름을 잊을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프로그램과 고향 시골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지만, 아쉽게도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 행사장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어, 시내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무더운 햇살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나 차양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방문객들이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이므로, 다음 행사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금강여울축제가 어린 시절 외갓집의 아련한 추억과 낭만을 주제로 어린시절 시골에서의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방문객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동반하여 무더운 여름에 금강의 여울과 강촌의 정서와 시원함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br>○ 무더운 날씨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놀이 체험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내기샘 금강족욕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문객 모두가 한여름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보여짐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무더운 여름을 잊을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 체험프로그램과 고향 시골에서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지만, 아쉽게도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br>○ 노내기샘 금강족욕프로그램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던 축의 흥미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었고 판단됨<br>○ 시골에서의 추억과 낭만을 떠오르게 하는 농작물 수확체험, 여치집만들기, 대나무물총만들기, 경운기투어와 같은 외갓집 체험패키지 프로그램들은 축제의 주제와 잘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여짐<br>○ 방문객들은 더운 여름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물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이며 향후 방문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기존 프로그램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장의 시설물 설치, 노내기샘 금강족욕체험장, 뗏목체험장, 원두막, 평상 등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설치하였던 점에서 효율적 운영이었던 점으로 보여짐<br>○ 지역주민이 물페기농요·농바우끄시기와 같은 금산전통민속공연뿐만 아니라 경운기투어, 농작물수확체험, 천연염색 등 축제의 모든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축제로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됨<br>○ 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영측면에서 숙련성과 세련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행사장이 강변으로 주변에 부대시설이 전혀 없어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먹거리장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들이 불편을 야기했고 음식내용물도 다소 부실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켰던 것으로 판단됨<br>○ 다만, 무더운 햇살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나 차양막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방문객들이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였고, 또한 행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짐<br>○ 민물고기·다슬기 잡기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행사장과 멀리 떨어져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무더운 햇살에 단지 조그만 천막 하나만 설치하였고, 그나마 운영요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더위에 지치게 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 금강여울축제는 어린시절 시골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켜 어린이들과 동반하여 무더운 여름에 금강의 여울과 강촌의 정서와 시원함을 느끼며 함께 즐기고 체험하고 싶은 축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br>○ 금강여울축제 행사장은 강과 어우러진 수변풍광과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있어 여름철 방문객들의 피서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캠핑장들을 벤치마킹하여 캠핑형 축제 컨셉을 접목하면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br>○ 금산인삼축제와 더불어 여름에 금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더욱 강한 의지가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물페기농요·농바우끄시기와 같은 금산전통민속공연뿐만 아니라 경운기투어, 농작물수확체험, 천연염색 등 축제의 모든 체험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여 주민참여형 축제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짐<br>○ 축제의 재정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23 김제 지평선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7일 ~ 10월 11일 / 5일간**
- **장 소 :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 **주최 및 주관 :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 **주 제 :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STORY ~**
- **주요행사**

○ 전통 행사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벼고을 민속놀이마당,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벽골제 제사, 전국 그네뛰기 경연대회 등

○ 체험 행사

- 지평선 참살이 쌀쌀쌀 체험마당, 삼시세끼 아궁이 쌀밥체험, 지평이 에코랜드, 황금들녘 메뚜기 잡기, 도롱이 워터터널,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벼 수학 새끼 꼬기/가마니 체험, 전통혼례체험, 벼고을 용두레! 맞두레! 농기구체험 등

○ 부대 행사

- 김제시 농촌마을 '생태놀이체험장', 벽골제 수상체험, 로컬푸드존 &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 등

○ 상설 행사

-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시/판매, 농촌풍경 3D 홍보관, 귀농귀촌 홍보관, 지평선 황금나침반, 향토 산업/로컬 푸드 홍보관, 들녘 새참/막걸리 드세요 등

○ 야간 행사

- 벽골제 횃불퍼레이드, 벽골제 오색별빛의 향연, 쌍룡서치&고고쇼 등

○ 문화 행사

- 워낭소리존, 김제벽골제 문화재발굴체험, 지평선 전국 청소년 페스티벌, 벼고을 농악 큰잔치, 벼고을 민속놀이마당, 지평선 말 문화 홍보 페스티벌 등

○ 시내권 행사

- 지평선 가요제, 직장인 밴드 "뮤직엔 패션", 지평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평선 초,중,고 백일장 대회, 전국 실버 장기자랑, 지평선 장기·바둑대회, 지평선 청소년가요제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정형화된 무대 공간이 아닌 축제 랜드마크인 쌍룡조형물 앞에서, 쌍룡의 설화를 삽입한 개막식 퍼포먼스는 지평선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작이었다고 평가함

○ 또한 폐막피날레에서 새로운 지평선축제를 향한 희망과 화합, 바람과 설램을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어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을 연출함

○ 김제 지평선축제의 우수한 점은 전년도 축제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반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있었음. 행사구성이 7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주행사장은 10개의 마당으로 테마별 스토리텔링형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무대공연 중심의 행사가 아닌 체험중심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임

○ 지금까지 김제 지평선축제의 가장 고민거리인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문제를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행사장 접근의 편의성을 위하여,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확대운영도 교통문제 해결에 주효했다고 판단함

○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벽골제 쌍룡횃불퍼레이드', 불꽃놀이 '쌍룡서치& 고고쇼', 관광객이 주도하여 만든 야간콘텐츠 '김제夜 놀자' 등 내실 있는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의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판단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다보니 주차장이나 접근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관광객들이 이동 중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축제장 외곽에 대규모 주차시설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축제장 가까이에 주차하려고 해서 많은 주차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주차관리가 요구됨

○ 축제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집중함에 따라 셔틀버스,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대가 요구되며 화재, 낙상 등 안전태세에 대한 점검도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김제지평선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행사장인 벽골제 이외의 김제지역에는 그다지 파급효과가 높지 않음. 벽골제축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됨

○ 축제기간이 축제성수기와 맞물려 있어, 서울 등 수도권과의 광역교통이 혼잡함. (특히, 주말에는 기차표 구매하기 어려움), 이에, 코레일과 협의하여 축제기간 중에 김제역에 정차와 증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축제기간 내 광역 교통체계 강화 필요(코레일과 협력)

○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관된 축제 어플리케이션은

부재한 상태임. 아울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날씨, 교통 등 실시간 안내가 필요함

○ 김제지평선축제는 주제가 농경 생활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지역의 고유성에 부합하며 지역 내 1·2차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평선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기반 확대, 지역사회 파급효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을 위한 홍보·마케팅 확대, 숙박 등 관광인프라 정비와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o 사전에 제출된 김제지평선축제의 계획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었으며 계획서에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o 2015 김제지평선축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축제로서 면모를 보여주었고, 특히 프로그램측면에서 농경문화 체험축제로서 타 축제와 차별성을 두고 김제시만의 독특한 전통을 살려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충분했다고 판단함<br>o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축제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축제행사장내에 지역맛집 홍보관을 설치하고, 농촌체험 마을에서 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체험상품 프로그램은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함<br>o 김제 지평선 축제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기획하여 지역적 연관성이 매우 높고 농경문화를 활용한 관련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기획·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품 판매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br>o 축제기간에 우천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우천 상황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br>o 야간 프로그램 개최 시 화재, 실족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체계화하여 혼잡으로 인한 불만족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 3) 축제의 운영 | o 대한민국 대표축제답게 안전 매뉴얼을 구비하여 사전에 진행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교육에 활용하고, 이 외 공무원, 경찰, 소방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br>o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무료 주차장 및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였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행사장 전반에 걸친 청결, 위생 상태는 양호하며, 축제 기간 내내 쓰레기 관리 등이 실시간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였음<br>○ 도로 확장, 주차장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진입도로가 혼잡하여 축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축제장까지 셔틀을 이용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기존 셔틀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증차도 고려하여야 함 |
| 4) 축제 발전성 | ○ 주차장 유료화, 판매부스 유료화, 체험행사 유료화 등을 통하여 수입 창출형 축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품 판매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br>○ 매년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축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각 프로그램별로 유지, 신규, 보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br>○ 김제시는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업을 기반으로 1·2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어 지평선 축제는 이러한 바탕위에 3차 산업을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br>○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서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품질 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

# 24 무주 반딧불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29일(토) ~ 2015년 9월 6일(일) / 9일간**
- **장 소 : 무주군 일원**
- **주 최 : 전라북도 무주군**
- **주 관 :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 환경 곤충체험행사, 문화 예술 놀이 행사, 민속체험, 연계 부대행사

## (2) 총 평

- **잘된 점**
  - ○ 축제의 기획안이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축제부제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이 주제관체험과 개막식으로 연결되고 있음
  - ○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축제의 효과가 무주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행정기관의 협력과 협조로 무주군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축제 프로그램 중 생태적 컨셉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함
  - ○ 생태성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필요함
  - ○ 전체적으로 내년의 축제만이 아니라 10년 후 축제모습을 그릴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기획의 기본방향과 지향점이 6개(환경 문화 관광축제, 인류화합축제, 반딧불과 빛의 테마축제, 체험축제, 참여축제, 군민소득증대 축제)로 선정되어 있음<br>–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담으려 할 경우 지향점이 분산될 수 있음<br>○ 축제기획에는 담아야할 내용들이 충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공간배치와 환경조성, 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 행정 운영지원계획 등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br>○ 그 중 마을로 가는 축제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축제효과'가 단위 마을까지 연계되고, 전체 군을 축제화 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짐<br>○ 축제의 주제를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으로 제시함. 하지만 설명에서 '나아가다, 퍼지다, 올리다'와 연관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함. 부제로 설정한 '빛으로 울리는 무주연가'를 중심으로 올 해 축제를 기획하고 있음. 다만 일정별 주제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해 관계자가 미리 장소를 물색하고, 제반 접근성을 확보하였음. 야간에 이루어지고 거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축제 관계자와 군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음. 자연 상태에서 관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달빛'이나 날씨 등 통제불 가능한 환경변수에 대한 한계를 가짐<br>○ 향후 자연환경의 프로그램을 지속하되, 보완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필요함. '반딧불'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상징화 하여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와주의 사랑이야기' 등을 체험화하고 방문객의 집단놀이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br>○ '무와 주의 사랑이야기' 전시는 스토리와 체험이 연계되어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이 스토리는 개막식 공연으로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맥락이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특히, 다른 축제의 모범이 되는 주제체험관은 예술과 반딧불을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br>○ 축제 차별화 6대 전략 마련을 통해 본 축제의 특성화와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음. '마을로 가는 축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축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로 평가함. '반딧불이와 친구들'은 전시관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일부 유료로 시도하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o 농특산물 특화거리조성은 경제수익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음. '문화공연 52팀'의 경우는 무주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제주제와의 부합성에서는 향후 개선여지가 있음. '오감만족 공간연출'에서 축제장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 중 '낚시대회와 맨손 송어잡기'의 경우 인기가 있지만 '생태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함. 많은 프로그램보다는 축제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프로그램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도 있음<br>○ 무주리조트와 와인터널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가 원활하고 연계셔틀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 3) 축제의 운영 | ○ 무주군과 제전위원회 간에 협조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아직은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주효하게 성과를 내고 있음<br>○ 쉼터, 포토존, 편의시설, 이동화장실, 홍보판, 종합안내,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수유실 등 전반적 환경조성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음<br>○ 무주리조트와 주변 숙박시설 등의 할인을 유도함으로써 축제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음<br>○ 방문객 응대를 위한 교육, 종합상황실을 통한 전체 진행과정에 대한 조정통제를 하고 있음. 축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를 두고 관리하고 있음. 남대천에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 수위조절을 위한 평탄작업 등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주변 유명 음식점의 경우, 1인 방문객에게는 음식주문을 받지 않으려함. 해외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와 소송에 의한 처벌을 하고 있음. 전체인구에서 1인 가구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에서 시정이 요구되며 축제장에서만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모든 음식점에 대한 고객응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br>○ 주차장 확보와 관리를 위해 7개소의 임시주차장과 VIP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br>○ 무주교육청과 학교, 관련부대의 협조, 경찰서, 소방서 등의 협조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o 자치단체장의 유성의지와 지역관련 인사들의 축제에 대한 지원 및 기대가 높음<br>o 축제조직은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음. 축제 프로그램 중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축제의 재정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함.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축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ㅇ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 의해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음. 2009년에는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 축제부문 대상에 수상되기도 하였음. 2013-15년에는 연속으로 문화관광축제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성과를 내고 있음<br>ㅇ 신문기사(뉴스메이커, 09.06)에 따르면, 20여만 명, 유료티켓 판매수는 7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입금은 약 7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함<br>ㅇ 축제의 메인행사인 신비탐사에는 6,700 여명이 참여했으며, 마을로 가는 축제에도 3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향후 신비의 탐사는 좀 더 제한적으로 참가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생태축제의 위상에 맞을 것으로 판단함 |

# 25 순창 장류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29일(목) ~ 11. 1일(일) / 4일간**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읍 일품공원 일원**
- **주 최 : 순창군**
- **주 관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공식행사(3종) : 개막식(식전공연, 개막퍼포먼스), 개막 축하 공연, 폐막식
  - ○ 학술행사(2종) : 제11회 장류포럼, 제2회 순창 국제기능수 학술대회
  - ○ 문화공연프로그램(15종) : 청정원 개막축하공연, 뮤지컬 고추장, 순창5대 명창 추모공연, “소리노리” 난타공연 등
  - ○ 참여프로그램(12종) : Red-Day 이벤트,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2015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2015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청정원과 함께하는 고추장 비빔밥 등
  - ○ 놀이/체험 프로그램(13종) : 장류체험, 어린이 발효과학 체험, 청국장 쿠키 만들기, 순창고추장 임금님 수라상체험(포토존), 콩알콩알나그네 등
  - ○ 전시판매프로그램(12종) : 세계소스박람회, 축제공식기념품판매, 청년아이디어 몰, 전통장류판매장 등
  - ○ 웰빙 장류먹거리(4종) : 월드소스 테마관, The 건강한 점심,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순창한우 직판장
  - ○ 경연프로그램(6종) : 제 12회 순창고추장 요리경연 전국대회, 제27회 순창군 민속놀이 경연대회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제10회 순창장류축제는 축제의 행사내용이 전반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 또한 한국전통문화를 듬뿍 담은 우리의 장류를 주된 테마로 선정한 한국 유일의

문화행사라는 측면에서 본 축제의 장점이 도출됨

- 제시된 행사프로그램들도 차별화된 특성과 알찬내용들로 진행되고 있고 춘천장류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개인셔틀택시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음. 이것은 차량의 혼잡도까지 줄여줌으로써 주차공간의 확보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소득을 가져다주고 있음
- 또한 순창에 소스박물관을 처음으로 건축하여 명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소스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축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이것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일상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축제의 다양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본 축제의 강점은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체험행사들이 많고 비교적 대규모의 참여행사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 더욱이 순창장류축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차별화된 장류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것을 지역문화와 승화시킨 전통문화축제로 인식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수월히 접근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장류터널 등은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갖고 있어 관광객들의 민속촌 방문을 일상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본 축제는 총체적으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며 연계성 확보가 다소 미약하여 공간상의 이질성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타 축제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제시되고 있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2015인 떡볶이 만들기 행사는 차별적인 행사로 평가되나 고추장비빔밥은 보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관람객들의 상당부분이 민속마을 등을 둘러보는 수준에 있고 상단 안쪽에는 여전히 유입관람객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새로운 동선배치와 근본적인 안내체계개선이 필요함. 또한 축제장 관람객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이제 순천장류축제는 국내의 시각에서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전통음식과 연계하여 세계인을 순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대로 구사해야 할 시기에 왔다는 점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시기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직결된 수익모델개발과 프로그램들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제10회 순창장류축제는 예년과 달리 많은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이 확대됨. 또한 일품공원개방으로 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군내에서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단, 메인축제장이 아닌 관계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호응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일품공원행사에는 하루정도 전 축제 행사를 집중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br>○ 축제의 전반적인 행사내용이 지역적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고, 한국전통의 순수한 장류를 주제로 기획된 유일한 행사라는 점에서 본 축제의 가치성이 돋보임. 행사프로그램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 춘천장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진행되는 행사라는 관점에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프로그램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연계성 확보가 다소 미약하여 공간상의 이질성이 엿보임<br>○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순창에 소스박물관을 처음으로 건축하여 명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여기에 다가 소스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축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이것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일상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축제의 다양화, 충실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좋은 편임. 단, 본 행사장과 소스박물관과의 거리의 차이(이격)로 인해 양지역 간에 인적흐름이 원활이 이어지고 있지 않음. 중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완하여 자연스레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br>○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거리'에 관한 발상은 훌륭함. 단, 관람객들의 상당부분이 민속마을 등을 둘러보는 수준이어 상단 안쪽에는 여전히 유입관람객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축제장 관람객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br>○ 본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제시한 2015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2015인분 순창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청정원과 함께하는 고추장 비빔밥은 장류축제의 특성과 부합하는 행사로 평가 됨. 단, 최근에 음식문화축제들이 대부분 유사한 행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떡볶이 만들기 행사는 차별적인 행사로 평가 됨. 단, 고추장비빔밥은 유사행사가 많은 관계로 보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br>○ 이번축제는 주제별로 분류가 잘되어 있고 8개 분야 67개의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순천전통고추민속마을의 기능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기법으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여 축제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 됨. 뮤지컬 '고추장'과 순창 5대 명장 추모공연 등은 기존의 대중가수 일변도의 공연과는 차별화 되는 공연으로 평가됨. 단, 주제와 맞지 않는 소수프로그램들이 있어 옥에 티로 작용함<br>○ 당나귀 체험, 가족대항 전통집 만들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장류이야기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매우 신선한 행사로 평가 됨. 또한 야간조명 및 야간 프로그램을 흥미 있게 운영하고 있어 야간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각 요일별로 차별화되는 다양한 테마를 통한 문화공연이 기획·운영되고 있어 흥미를 배가하고 있음. 단, 관람객 발길이 드문 장소에 각종 공연이나 체험활동 등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br>○ 국제적 요소를 구비하고자 '세계 푸드 존'을 만들고 몇 개 국가들의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더욱이 전시 또는 판매물품이 조잡하고 다양하지 못해 생색내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br>○ 축제 개최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물론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 다소 늦게 개최되는 상황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낮을 제외하고는 추워서 관람객이 참관하기 불편한 현실임. 실제로 축제성공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관광객들이 아무 불편 없이 즐기고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하나 야간의 추위는 축제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요소가 됨. 따라서 방문객의 80%가 외지인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시기를 앞당긴다면 장류축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는 상당한 수의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며 축제의 시기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br>○ 본 축제콘텐츠의 특성은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어울려 각종 체험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규모와 대규모의 참여행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단, 제기한 바와 같이 세계음식들과 그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기획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최근 경향인 음식관광에 대한 상품개발전략들도 축제를 통해 강구될 필요가 있음<br>○ '발길이 머무는 축제장'과 다양한 볼거리 포토존 운영은 기존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디테일한 측면이 돋보임. 단, 공급차원에서의 상세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세밀한 안내시스템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br>○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무료셔틀택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더욱이 차량의 혼잡도까지 줄여줌으로써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소득을 가져다주고 있음. 아직은 충분한 차량이 공급되지 않은 시범운영을 하고있어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특히 택시 운수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영, 운영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br>○ 교통체계의 경우 여전히 일반개인차량과 단체관광버스의 분리된 공간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차제에 여행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중교통우선적인 교통동선체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br>○ 고정 시설물(민속마을)과 가변 시설물(텐트 등)은 소비자들의 동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 노력이 돋보임. 특히 큰 변화로서는 고정시설물이 작년과 달리 중앙무대에 대형 천막텐트를 설치하여 타 공간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음. 단,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음향이나 조명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음<br>○ 타 지역 축제와 달리 상업시설물(음식점)을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 위주로 최소화함으로써 축제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특히 행사장소가 민속마을에 위치해 있어 장류축제의 콘텐츠가 갖는 있는 특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음<br>○ 두개 입구에 실측요원을 배치하여 실제 방문객 수를 측정하는 시도를 확인함. 이는 최근 지역축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객 부풀리기가 아닌 자체적으로 축제의 실제적 효과를 스스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br>○ 자원봉사자들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쓰레기 청소차량이 수시로 운행, 점검하는 등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한 행사장을 만들고 있음. 더욱이 축제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지역민 등 참가자의 태도나 표정이 밝고 활기찼으며 친절하게 안내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음<br>○ 공간배치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각종 체험부스나 음식점들이 동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주차장이 어수선하여 고품질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또한 관광객이 농산물을 부스에 직접 구매할 경우, 차량까지 거리가 멀어 짐을 가져다주는 도우미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br>○ 'The 건강한음식'의 경우 순창의 장류를 이용한 웰빙음식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특히 당뇨병 등 맞춤형 힐링음식을 맛과 영양을 고려한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싼 값에 제공하고 있어 향후 충분히 상품화 가능성이 있음. 단, 축제 건너편 한적한 것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히 관심있는 관광객 이외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메인 축제장으로 이전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단풍철을 맞아 인근의 강천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축제장을 방문하고 있어 순창장류축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br>○ 또한 이들을 축제장으로 유입을 위해 산 입구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QR 코스를 찍어오면 행사장에서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등산객들의 유인 및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줌. 단, 많은 관광객들이 인터넷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고 있어 쉽게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br>○ 이제는 시기적으로 순창장류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해야 시점에 와있음. 보다 중요한 것은 순천장류를 활용하여 국내 뿐 아니라 축재를 통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벤트행사가 필요함. 행사가운데에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어 순천장류축제의 세계화 가능성이 보임. 단, 국제화를 위한 안내체계문제, 외국인을 축제에 유도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 유투브 등을 통한 국제화 홍보 전략 부재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음<br>○ 전국에서 장류 생산 및 집하지로 유명한 순창은 유일한 한국의 문화자원 장류를 테마로 하고 있어 축제의 역사는 비록 짧으나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평가 됨. 또한 국내의 시각에서 머물지 않고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음식과 연계하여 세계인을 순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제대로 구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br>○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판매와 직결되는 수익모델을 많이 개발해야 하며, 전문적인 가술과 전문가들의 집중화 된 프로그램운영들이 축제전반에 걸쳐 실행될 필요가 있음 |
| 5) 축제 성과 | ○ 제10회 순창장류축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차별화된 장류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것을 지역문화와 승화시킨 전통문화축제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장류연구소와 새로 만들어진 장류터널 등은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민속촌 방문을 일상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br>○ 슬로건으로 제시한 더 깨끗하고, 더 재미있고, 더 편리하고, 더 의미있고, 더 유익하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축제전체 프로그램을 재분류할 수 있음.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순천장류축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br>O 일품공원의 분리된 행사가 비록 조촐하게 진행되었으나, 군 시가지 중심에 개최됨으로써 순천장류축제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는 모든 축제를 일품공원에서 진행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군민의 관심을 주도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순창축제에 드러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발족이 필요함. 이 기관을 통해 관광객, 지역민, 지방정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br>○ 해마다 시행되는 축제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모든 행사들을 근본적으로 재생산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없는 아이템은 과감하게 구조정해야 함은 물론 비록 인기가 있더라도 미세한 변화들을 가미하여 점진적인 발전전략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공급차원에서는 미세하게 인지되나 관광객 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느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26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2일(금) ~ 10월 4일(일) / 10일간**
- **장 소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 **주 최 : 완주군**
- **주 관 :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 **주 제 : 벌떡이는 펄떡이는 야생의 추억**
- **주요행사**
  - ○ 개·폐막식 공연 : 개막식 공연(식전행사 : 우석대 태권도단, 창포마을다듬이공연단, 해외자매결연도시 예술공연, 개막식 : 축하영상 및 CBS축하공연(추억콘서트)), 폐막식 공연(폐막공연 : 소통·완통 콘서트), 지역예술단체 및 유명예술단 공연
  - ○ 상설 프로그램 : 상상마칭 퍼레이드, 와일드쿠킹쇼, 감자삼굿 개봉, 옛날 인형극, 시랑천 프로그램(천렴체험, 족대잡기), 와일드맨을 찾아라, 와일드물총놀이터, 무궁화 동산 투어
  - ○ 대표 프로그램 : 천렵 체험, 화덕체험, 감자삼굿
  - ○ 와일드푸드 : 꿀벌애벌레 부치게, 즙, 벌집아이스크림, 개구리·메뚜기 튀김, 귀뚜라미 볶음, 갈색거저리(분말), 황토진흙닭구이, 밀떡구이&가재구이, 대통구이
  - ○ 와일드체험 : 벌잡이 체험, 지렁이 체험, 메뚜기·우렁, 미꾸라지잡기 체험, 흙화덕만들기 체험
  - ○ 향수체험 : 추억의 7080, 옛날인형극장9완주 콩쥐팥쥐이야기, 민물고기 향수음식, 기타 음식만들기 향수 체험
  - ○ 방문객 참여·체험 프로그램 : 와푸족 체험, 도전! 와일드맨을 찾아라, 전래놀이체험 문화체험, 별별음식 와일드쿠킹쇼, 와일드놀이터, 관내주민들이 함께하는 소무대 행사

## (2) 총 평

- **잘된 점**
  -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야생음식 체험과 야생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주제로 하고 있어 기존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푸드축제의 특성상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와 농업생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 ○ 와일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와일드 체험, 와일드 푸드가 핵심 콘텐츠로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고령자까지 즐길 수 있는 소재로서 바람직함
- ○ 축제장 주입구가 명확하여 축제방문객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관리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고산면에서 축제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축제방문객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좁은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을 통행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음
- ○ 특히 와일드푸드축제는 13개 읍면에서 직접 참여하여 음식체험 및 판매를 하고 있어 어느 축제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임. 또한 로컬푸드 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도 지역상인이 직접 축제장에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어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처음 축제를 접하는 사람은 '와일드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가 안 되고 축제의 주제(벌떡이는 야생의 추억)를 기억하기 어려움
- ○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의 기존 시설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 야영장이 축제장으로 활용되다보니 고정적인 축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장 구성에 있어서 이동 동선이 단조롭고 혼잡한 것이 단점이 되고 있음
- ○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축제 직접 참여도가 높은 것은 장점이나 현재까지는 축제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섭외, 설치, 운영 등을 완주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체제이다보니 관주도적인 축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
- ○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기획·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기획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 특히 축제의 특성이 먹거리가 주인 관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휴지통 주변에 다량의 쓰레기가 쌓이게 됨. 향후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가 요망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 개최시기는 대부분의 추수가 끝나고 새로운 곡식을 포함한 먹거리가 산출되고 야생의 계절인 가을인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와일드푸드축제로서 시기적인 적합성을 지니고 있음<br>○ 와일드푸드축제장이 지역 산물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소에서는 떨어져 있는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다소 축제 주체와 개최장소의 성격이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br>○ 그러나 와일드푸드축제가 13개 읍·면에서 참여하고 있고 단지 농산물만이 아니라 야생의 생활문화체험 등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동 체험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였다는 측면에서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은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됨<br>○ 특히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은 고산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험과학관, 무궁화전시관 등이 조성되어 있고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시설 및 환경 조건이 좋음<br>○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야생음식 체험과 야생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축제와는 차별화된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푸드축제의 특성상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와 농업생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축제의 소재가 ‘와일드와 푸드’이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와일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와일드 체험, 와일드 푸드가 핵심 콘텐츠로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고령자까지 즐길 수 있는 소재로서 바람직함<br>○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와일드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축제에 참여하는 동안 야생을 체험과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음<br>○ 와일드푸드축제장은 크지 않지만 동시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음식 체험 및 공연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가능함.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이라 함은 ‘와일드푸드’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야생프로그램의 체험과 야생음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음<br>○ 축제장이 산림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자원 및 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축제방문객들이 완주 지역 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어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거나 주변 지역을 알려주는 지역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장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지역과는 떨어져 있어 야간 프로그램 시간에는 방문객이 많지 않은 상황임. 다만 메인무대의 공연과 향수나라 무대 공연은 축제방문객들이 야간에도 즐기고 있었음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축제장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축제장 입구는 물론 축제장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하고 있었으며, 체험장과 판매장에는 지역주민 및 행사관계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빈번히 행사장을 둘러보고 축제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음(5년차인 축제로서는 인력 운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br>○ 축제장이 기존 체험과학관과 같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편의시설이 다른 축제장보다는 양호한 편임<br>○ 그러나 축제의 특성이 먹거리가 주인 관계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휴지통 주변에 다량의 쓰레기가 쌓이게 됨. 향후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리가 요망됨<br>○ 완주 와일드축제는 행사장 주입구가 명확하여 축제방문객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관리도 비교적 용이함. 고산면에서 축제장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 방문객 이동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좁은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을 통행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함<br>○ 완주 와일드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라기보다는 전라북도, 특히 전주·완주 지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임. 이는 축제의 홍보에 있어서도 지역에 그치고 있는 것에서도 보이며,. 향후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서 푸드 축제로서 전국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br>○ 고산자연휴양림 내 조성되어 있는 야영장이 축제장이 되다보니 고정적인 축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움과 이동 동선의 단조롭고 혼잡스러운 것이 단점임<br>○ 와일드푸드축제는 13개 읍면에서 직접 참여하여 음식체험 및 판매를 하고 있어 어느 축제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편임. 로컬푸드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도 지역상인이 직접 축제장에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어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음<br>○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많은 편으로 짚풀 모래 등과 같은 자연 재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이용통제 등을 적절히 하고 있어 관람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br>○ 와일드푸드축제는 지역의 13개 읍·면이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매우 높음. 단지 3일간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개막식, 폐막식을 물론 3일 내내 2~3번씩 축제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축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아직은 축제의 지명도나 축제의 주제(벌떡이는 야생이 추억)가 쉽게 방문객에게 다가가지는 않지만 축제의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대규모 축제에 손색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임<br>○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축제 직접 참여도가 높으나 현재까지는 축제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섭외, 설치, 운영 등을 완주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체제이다 보니 관주도적인 축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br>○ 물론 축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축제의 기획·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기획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br>○ 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파급효과가 큰 편이나 축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수익 환원 방안 혹은 일부 프로그램의 공동 수익 관리제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방문객을 2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1일 평균 7만 명으로 하고 있음. 체감적으로 이보다는 적지만 3일 내내 축제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인기가 높음. 특히 주말을 이용한 전주 지역민의 방문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참여가 보였음<br>○ 완주 지역이 로컬푸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와일드푸드 축제는 완주의 자연을 함께 홍보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판매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br>○ 축제장의 프로그램 내용이 먹거리와 살거리, 체험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축제보다 소비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제상품권도 운영하고 있음<br>○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남녀노소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와일드푸드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

# 27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3월 20일(금) ~ 3월 23일(월) / 4일간**
- **장 소 :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 **주 최 : 진도군**
- **주 관 :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 **주요행사**
  - ○ 신비의 바닷길 체험
  - ○ 새벽 바닷길 횃불 퍼레이드
  - ○ 영등살 놀이(뽕할머니 전설 재현)
    - 뽕할머니 제례, 바닷길 뽕할머니 가족상봉(농악놀이) 등
  - ○ 뽕할머니 가족 대행진

## (2) 총 평

- **잘된 점**
  - ○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외부 기관 위탁운영이 아니라 진도군이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우수함
  - ○ 대표 프로그램(새벽 횃불 퍼레이드, 뽕할머니 소망띠 잇기)을 방문객들의 참여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함
  - ○ 진도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횃불 재사용, 행사 홍보 현수막 재사용 등 자구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새벽 횃불 퍼레이드의 경우 짧은 행사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일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보완 등). 전반적으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많은 조치를 하였으나 일부 해안도로 지역에는 낙석 위험이 존재함

○ 축제 참가 내·외국인을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강화함으로써 신비한 자연현상 중심 축제를 이야기(의미, 가치)가 있는 축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오랜 기간 진도군이 직접 기획·운영한 축제로 프로그램, 행사 운영 등에 대한 기획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br>- 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축제답게 행사 구성, 세부 프로그램, 홍보 계획, 운영 계획, 업무 분장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br>- 진도군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진도 무형문화재 공연,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국악 공연, 진돗개 공연 등) 기획이 양호하다고 평가됨<br>-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에 반영(뽕 할머니 소망띠 잇기)한 부분은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음<br>- 다만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현상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예 : 해맞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메인 프로그램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바닷길이라는 독특한 자연현상을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로 타 축제와 차별화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음<br>○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br>[새벽 횃불 퍼레이드]<br>• 세부 프로그램 : 걸쌈패 사물놀이, 바닷길 횃불 체험, 진도 북놀이 공연 등<br>• 외국인 참가자가 많고 참가자들이 직접 횃불을 들고 퍼레이드에 흥겹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도 철저함. 다만 행사가 개최되는 시간이 새벽(04:30-06:00)이라 바닷길이 열리는 경관을 감상하는데 한계가 있음<br>• 핵심 프로그램인 횃불 퍼레이드는 약 1시간 내외로 끝나게 되는데 일출 행사와 연계하는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br>[뽕 할머니 소망띠 잇기]<br>• 바닷길이 열리는 날 뽕 할머니처럼 회동 뿔치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에 근거하여 국내외 참관객들의 소원을 기원하게 하는 독창성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행사였음<br>• 각각 2.4km 길이의 청띠(회동)와 홍띠(모도)의 천에 참관객들이 소원을 적어 이들이 직접 바닷길로 행진하며 바닷길의 열림을 성스럽게 표현한 소망띠 잇기 프로그램은 신비의 바닷길 체험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퍼포먼스로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다만, 소망띠가 이어지는 순간 바닷길 중간이나 회동/모도 양쪽에서 불꽃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등 상징적인 이벤트가 가미되었다면 더욱 볼만한 행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br>○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바닷길이 열려 섬과 섬이 연결되는 현상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라 판단됨<br>- 독특한 자연 현상 관람뿐만 아니라 그 현상과 연계된 전설 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족, 만남, 인연 등의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예 : 연인이 축제에 참가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br>○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br>- 독특한 자연 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타 축제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큰 차별성이라 평가됨<br>- 특히 2015년 축제의 경우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희망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됨<br>○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br>- 행사장에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진도군의 연계 관광지 정보를 제공함<br>-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임시 숙소를 운영하고 Global Zone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체류 및 야간 활동에 대한 기획이 마련되어 있음<br>- 연예인 공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타 축제와 달리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공연관련 예산 20% 삭감) |
| 3) 축제의 운영 | ○ 외부 위탁운영을 하지 않고 진도군이 직접 행사를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관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br>○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br>- 진도군과 관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오랜 기간 개최해온 축제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장되어 있고 협력 속에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br>- 진도군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인력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음<br>O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br>- 진도군의 재정 여건상 외부 기관에 축제의 기획·운영을 위탁할 수 없어 진도군에서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이 우선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축제 운영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br>- 행사 예산의 한계로 인해 홍보에 충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도군 공무원들이 직접 축제 홍보자료를 갖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해 자료를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홍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br>- 행사장에 설치하는 홍보물(현수막 등)의 경우에도 행사 개최 시기(연도, 날짜)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인쇄함으로써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br>○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br>-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 현상이 발생하는 곳에서 개최해야 하는 축제 특성상 행사장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임<br>- 행사장 외부에 먹거리 장터 등 상업지역을 배치하여 행사장 내 혼잡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br>- 먹거리 장터 등 상업시설의 경우 지역 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과 외부 상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구역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축제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있음<br>-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Global Zone을 설치하여 외국인간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씨름 등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함<br>- 행사장 내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음(기존 건물 내 화장실 + 임시 화장실). 화장실 내부의 경우 청결 상태도 양호하였음<br>- 행사장의 양쪽 끝 외부에 주차장을 마련하여 방문객 차량이 행사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차 공간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br>○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br>- 지역 노인회에서 횃불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단체,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축제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br>-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부스도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음<br>○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br>- 바닷길이 열리는 곳에서 개최되는 축제 특성상 방문객이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축제임<br>- 행사장에는 경찰, 해양경찰 등이 조명, 방송 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진행요원들이 방문객 철수 등을 관리하고 있음<br>- 다만 해안도로의 바다 반대 측 도로변에는 낙석의 위험이 있으나 '위험, 출입금지' 안내줄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 안전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진도군청을 중심으로 축제 기획·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못해 충분한 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됨<br>○ 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등 발전 가능성<br>- 진도군 단체장의 1번 공약이 관광객 500만 명 유치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됨<br>○ 축제조직체 구성 여부 및 축제 재정자립도<br>- 진도군이 직접 축제를 기획·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인 축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br>- 진도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제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약 7.4억원의 축제 예산 중 2.5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이며 나머지는 모두 군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음)<br>- 보다 안정적인 축제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 등을 위하여 축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br>○ 축제기간 이외에도 발생하는 바닷길 현상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발굴 필요<br>- 축제기간 이외에도 1년에 몇 번 바닷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br>- 축제기간 이외 바닷길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자연현상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br>- 이탈리아 베니스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바닷물에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함.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현상인데 베니스에 관광하는 동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매우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현상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음<br>- 진도 관광 중 바닷길 현상을 경험한다면 가족과의 행복, 연인과의 사랑 등이 이루어진다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축제 이외의 현상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
| 5) 축제 성과 | ○ 2014년 대비 양적(관광객 수, 관광 수입)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br>○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br>- 언론 보도(한국경제, 4월 16일 기사; 바닷길 축제 성황...진도 경제 기지개)에 의하면 금번 축제 방문객은 61만명(2014년 대비 3만명 증가), 입장권 수입 약 5.9억원 규모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진도군의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상황임. 이들에게 신기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뽕할머니 전설 등 축제의 이야기(의미, 가치)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홍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br>o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br>-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번 축제의 입장권 수입 약 5.9억원 규모임. 이는 행사 예산(약 7.4억원)보다는 작은 규모이나, 관광객들의 특산품 구입, 숙박비 및 식음료비 지출 등을 고려하면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되었던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br>- 매년 동일한 자연 현상을 주제로 개최되는 특성상 재방문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28 강진 청자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1일(토) ~ 8월 9일(일) / 9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 **주 최 : 전라남도 강진군**
- **주 관 :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기획행사 (13종) : 명품청자 전시·판매전,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움 등
  - ○ 전시행사 (8종) :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 국내 도예작가 초대전 등
  - ○ 체험행사(17종) : 물레 성형하기, 청자 상감 체험 등
  - ○ 공연행사(17종), 의식행사(3종), 부대행사(20종), 연계행사(5종)

## (2) 총 평

- **잘된 점**
  - ○ 축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여름철 식품안전확보를 위하여 음식부스에 식중독 알림이를 설치한 점은 적절한 축제장 안전대책이었음
  - ○ 강진 청자축제는 지역관광활성화와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청자판매특별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음
  - ○ 지난해와 달리 축제장에 한옥청자판매장이 완공되어 명품청자를 전시 판매한 것과 한국민화뮤지엄을 완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관광객을 유치하였다는 점은 축제기간은 물론 축제시간이외에도 기반시설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인 점은 높게 평가 할 만함
  - ○ 기존의 프로그램을 대체한 신규 프로그램인'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운반행렬',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즐기자 ! 버스킹!(길거리공연)'은 처음 실시한 행사여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참여를 유도하여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내용을 보완하여 추후 축제 시 주요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육성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 금번 축제는 시설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음. 명품청자전시판매관(한옥청자판매장)을 남문입구에 신규로 건축하였고 향토음식관의 위치도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남문 쪽에

설치,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축제장 도로 곳곳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막을 확대 설치, 실개천 쉼터 조성, 파라솔 시설 보강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마량놀토수산시장, 가우도, 초당림 물놀이장, V랜드 등 청자축제와 연계한 강진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단순히 축제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진의 여러 곳을 방문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강진군이 하나의 축제장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올해 처음 진행된 '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운반행렬'프로그램을 관광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나  진행과정상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방문객 참여에 제약이 있었음. 또한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는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만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바 향후 현장 신청 관광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객들이 안전선 밖에서 참관할 수밖에 없어 관광객과 함께 하기에는 다소 개선해야할 요인들이 있음. 안전요원이 배치되었으나 프로그램 자체가 도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음으로 추후 진행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프로그램 중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한 '환상적인 빛의 향연! 청자 레이져쇼'는 영상이 선명하지 못하여 관광객의 이목을 끌지 못했고, '청자 트릭아트 체험'은 설명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체험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물레성형체험의 경우 체험장 위치가 행사장 주요 동선에서 벗어나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관광객이 체험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 또한 일부 체험부스는 다른 체험부스와 동떨어져 있어 관광객이 찾기 어려움. 체험부스를 한곳에 모아서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보다 여러 가지 체험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스 위치 조정이 필요함. 체험 부스, 판매 부스, 전시 부스를 임의대로 배치하기 보다는 부스별로 연계·통합하여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부스별 공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축제 음식관의 기본적인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련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는바 향후 향토음식관의  음식 맛 제고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자박물관은 청자와 관련된 체험 및 학술회의, 한국민화뮤지엄은 민화와 관련된 전시와 체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향후문화프로그램유치를 통한 축제 공간 활용의 극대화가 필요함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해서 축제장 내에서도 주변 관광자원을 방문할 수 있는 설명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축제를 즐기는 법 '이라든지 축제장 인근 가볼만한 곳 등을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를 테마로 차별화된 축제 기획과 구성이 돋보였으며 청자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청자를 구매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광객의 참여도를 높였음<br>○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식상함을 없애기 위해 대표 프로그램인 '고려왕실 행차 퍼레이드'를 폐지, '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운반행렬',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즐기자! 버스킹!(길거리공연)', 청자판매활성화를 위한 '청자 판매경품이벤트'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임<br>○ 축제기간이 가장 무더운 여름철임을 감안하여, 축제장 일대에 그늘막과 우산터널, 넝쿨식물터널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매년 프로그램 자체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최우수축제로서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라는 고유의 테마를 가지고 청자를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br>○ 그 동안 축제의 프로그램이 청자의 성형과 소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청자를 소성하기 위해 필요한 장작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진행한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극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음<br>○ 축제기간 공연은 주민 참여형 공연이 주를 이루었는데 강진 음악인, 문화예술인, 읍면주민 자치센터, 청소년 동아리, 어린이, 전통 민속놀이 단체 등 지역문화 인력,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음<br>○ 마량놀토 수산시장의 먹거리, 칠량면 국내 최대 인공림인 초당림 물놀이장, 강진읍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가고 싶은 섬 가우도 등 축제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청자축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음<br>○ 이외에도 축제기간 중 마량항을 이용한 음악회, 서중마을 및 하저마을의 어촌체험 등도 이루어져 지역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장 내 안내와 해설은 종합안내소를 동문 등 3개 출입구에 설치, 자원봉사자들이 축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각 출입구에 대형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축제장을 안내함<br>○ 리플릿과 함께 배포한 '청자축제 100% 즐기기 홍보물'은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한눈에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관광객을 위한 국어·영어·일어·중국어판 행사일정 리플릿과 프로그램별 홍보물 등 배부도 양호하게 이루어졌음<br>○ 각 지역에서 축제장으로 오는 국도변과 주요 갈림길에 행사장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고, 청자축제 프로그램을 알리는 광고탑, 육교 현수막, 세로형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참여 열기 제고를 위한 노력은 양호하였음. 다만 전년에 비해 행사장 내 안내판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껴 개선이 필요해 보임<br>○ 고려청자박물관이나 한국민화뮤지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별도의 민화해설 전문가가 상주 대기하면서 해설을 담당하여 관광객들에게 청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음<br>○ 축제장 기반조성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로 축제경비를 절감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보였음. 올해 신규로 건축한 한옥청자판매장에서 명품청자를 판매함으로써 대형텐트 설치비 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음. 또한 올해 개장한 한국민화뮤지엄은 민화와 관련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기간 중 많은 관광객의 방문하였고 축제 이후에도 방문객 유치에 많은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건물들이 구축됨으로써 축제의 기반조성이 확대되고 관광지로서의 기반도 확보되고 있음<br>○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축제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 각종 그늘막, 실개천을 활용하여 쉼터를 제공하였음. 모유 수유실,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상담소, 식수 제공, 만남의 장소제공, 물품보관소,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충전소, 휠체어 및 유모차 제공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음<br>○ 청자축제가 가장 무더운 시기에 개최되는 축제임을 감안할 때 야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 구축에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임. 그동안 지적사항이었던 야간프로그램 부재 지적에 따라 야간 볼거리로 '환상적인 빛의 향연! 청자 레이저쇼!'를 기획하여 야간프로그램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나,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영상 또한 선명하지 못해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고 향후 이의 개선이 요구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강진청자축제를 주관하는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자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강진군에서 행정적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 향우회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축제임<br>○ 공연은 대중연예인 참여를 최소화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문화 인력을 활용한 공연행사가 대부분을 이루었음. 이러한 공연은 지역문화인들에게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화 인력들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함<br>○ 축제장 곳곳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행사안내, 축제장 환경정화 활동,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미아 보호, 분실물 보관 등의 역할을 전담하는 18개 단체 90명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7월 한국축제박람회에는 3개 축제 공동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음. 또한 '강진청자축제'와 '정남진 장흥물 축제' 간에는 지역신문 16개소에 광고를 함께 게재하는 등 공동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br>○ 축제 재정자립도 향상과 함께 경영형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요 활성화와 청자판매 확대, 자유이용권(쿠폰) 발행, 유료 체험행사 확대, 부스 임대료 징수 등을 시행하고 있음 |
| 5) 축제 성과 | ○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를 통하여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청자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br>○ 청자판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음. 2015년 5월 청자공동판매장을 개장하고 관요에서는 고가의 예술청자를 재현하는 한편 개인요에서는 생활자기를 집중 생산하는 '투-트랙'전략을 사용하여 개인요에서 판매하는 생활자기의 매출이 26% 증가하였고, 청자백화진사모란당초문매병(시가 800만원), 황금상감겹문양호(시가 500만원) 등 고가의 청자작품 판매도 늘었음<br>○ 청자판매 매출액과 함께 청자촌에 함께 조성된 한국민화뮤지엄 개관으로 민화체험이 신규 개설돼 작년 대비 체험료 전체 수익이 114% 이상 증가하였음 |

# 29 담양 대나무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5일(화) / 5일간
- 장 소 :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주 제 : 대숲의 속삭임, 세계와 어울림
- 주 최 : 담양군
- 주 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군 기관·단체
- 주요행사

○ 대북타고식(의전중심의 개막식을 없앤 개막 퍼포먼스)

○ 운(運) 댓고을 힐링마당

- 대나무 스토리미션 (7단계 : 고사성어 퍼즐맞추기, 죽마고우, 파죽지세, 맹종지효, 죽죽방방, 우후죽순, 공명수죽백), 대숲속의 외국인 원정대, 명품숲길 휴(休) 체험

○ 수(數) 대숲향기 속으로

- 운수대통 한마당, 한지 전통공예 체험, 꽃차 전시·판매, 대나무 박람회 홍보, 친환경 농·특산품관, 대나무 문화산업 체험·판매관, 대나무골 청정생태관, 낙죽체험, 죽마고우 문화학교(전국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관광객 추억의 그림그리기), 담양관광 홍보관, 노천카페, 건강홍보관, 대나무생태체험(빠끔살이),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캠프마을), 담양군 공예인 전시·판매관

○ 대(大) 댓고을 신비체험

- 대나무 깃발 시화전,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대나무 활쏘기, 운수대통 소원패 달기, 대나무놀이 체험마당, 대나무 뗏목타기,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대나무 공예품 만들기, 대나무 악세사리 만들기, 대나무 부채 그림그리기, 대나무 천연염색 체험, 오방솟대 만들기, 한지체험, 운수대통 밀랍초 만들기, 대통 도자기 만들기, 운수대통 압화만들기

○ 통(通) 댓고을 문화체험

- 추억의 죽물시장(뽀빠이 이상용의 유랑극단), 죽제품 제작시연, 대나무 수상자전거 타기, 토속먹거리장터, 다문화 체험관, 웰빙음식관, 죽죽이와 뽀다미의 건강여행, 대나

무 놀이기구 체험, 죽신제품 만들기

○ 공연 및 부대행사

- 공연·경연대회 : 광주MBC문화콘서트 난장, 뽀빠이 이상용의
- 유랑극단, 찾아가는 음악회, 대나무 타악그룹 공명 콘서트,
- 출향연예인 대숲콘서트, 대숲맑은 국악한마당, 대숲의 향기(도립대), 상설무대 공연
- 차 없는 거리 운영(마임·삐에로 공연, 버스킹 공연,
- 프리마켓 운영, 연날리기 시연), 죽신제 운영(대나무축제 기원재현),
- 부대행사 : 희망리본 달기 퍼포먼스

##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기간 중 도로의 폐쇄를 통하여 축제장 공간 활용성을 높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함

○ 행사장에 설치된 부스와 무대, 현수막 등이 초록색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대나무축제의 의미와 힐링의 느낌을 전달함

○ 행사장 구역을 운수대통으로 분류하고 대박놀이 체험장,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 네이밍을 통하여 축제의 연상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함

○ 운수대통 소망술 담그기 체험은 본인이 직접 이름과 그림 등을 각인한 대나무에 술을 담가 축제장에 보관하였다가 다음 해에 찾아가게 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함

○ 행사장 전역에 설치된 대나무 소망터널, 대나무를 활용한 등, 대나무 솟대와 대나무 공예품 등을 설치함으로써 축제장 경관은 잘 조성되어 있음

○ 먹거리 장터였던 향토 음식관을 과감히 없애 축제장의 분위기를 새롭게 함

○ 의식행사 축소 폐지 및 문화공연 강화하고 개·폐막식을 대신한 퍼포먼스 행사 추진, 개막식을 없애고 대북타고 이벤트를 통한 개막 퍼포먼스와 폐막식 대신 대나무 창작 뮤지컬(지역 문화예술단체)을 도입, 전문 공연 프로그램과 대중 공연을 조화시켜축제의 정체성 강화 및 대표프로그램 완성도를 제고함

○ 국수거리 하천으로 주 무대를 이동하여 죽물시장 재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죽신제를 개최하여 대나무 축제의 기원을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추억의 죽물시장, 죽물시장 가는길 운영개선 : 나무부스 운영, 죽물시장 가는 길 재현은 6개면씩 하루 1회, 축제기간 2회 실시

○ 대나무박람회 연계행사 추진 및 차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울 운영함

○ 관광객 참여 문화공연(버스킹, 마임, 아트 프리마켓 등) 확대 및 축제장내 관광객 동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보행의 자유를 확대시킴

- ○ 대나무 박람회 홍보관 및 이벤트 진행 및 대나무축제 프로그램 참여자 박람회 입장권을 배부하고 축제장 내 각종 박람회 홍보 이벤트 및 홍보관을 운영함
- ○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 부스 참가비 납부로 경제성 강화와 함께 축제장 내 향토음식관 폐지를 통한 지역 음식점 이용을 유도, 축제의 장을 군 전체로 확대하여 먹거리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문화공원 내에 설치된 상설마당이 소무대로 꾸며졌는데, 마당놀이 형식의 무대 설치가 축제장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체험은 체험료를 받고 반바지를 대여 해주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진행요원 들이 회수 된 반바지를 직접 세탁 및 탈수하는 과정이 노출되었으며, 탈의실의 경우 락커 공간이 없는 등 시설과 운영이 미흡하였음
- ○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운영인력의 참여태도 개선 등 운영상의 미비점과 외부 관광객에 대한 축제장 안내를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해야 할 사항도 보였음
- ○ 전반적으로 축제의 디자인이나 시각적 요소의 수준이 미흡하며 공간의 연출이 다소 난삽하여 공간연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공연 등의 활용도가 대나무의 주제가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음
- ○ 대나무 축제 특유의 정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보다는 장터같은 분위기가 다소 시끄럽고 혼잡한 느낌이 있음
- ○ 시내와의 연계성에 있어서 시내의 방문 자원들에 대한 홍보가 크게 부각되지 않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라는 9월 개최예정 국제행사의 사전준비 성격으로 인해 차 없는 거리 운영, 향토음식관 폐지, 주무대 이동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축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됨<br>○ 축제의 얼굴이 되는 대표프로그램인 죽물시장 가는 길 재현행사 기획 시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규모화를 꾀한 노력은 보이나 관광객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대나무를 주제로 한 50여종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행사장과 죽녹원 사이공간을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긍정적임<br>○ 운·수·대·통 테마별 공간구성을 통한 축제장 구성 및 주 무대 이동을 통한 축제의 뿌리찾기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br>○ 상설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의 노력이 부족함<br>(2014년 운영프로그램과 거의 동일) |
| 3) 축제의 운영 | ○ 금년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그 공간에 아트 프리마켓 운영과 마임,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br>○ 차 없는 거리 운영시 차량 전면통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사전안내 및 조직간 유기적인 협조로 최소화 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임<br>○ 대나무 편상 및 대나무 쓰레기통 등 대나무박람회를 앞둔 대나무 소재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한 점은 담양만의 특색을 살린 의미있는 축제 운영이라 생각됨<br>○ 체험 프로그램 운영요원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br>○ 박람회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에 공사 중인 곳이 있어 다소 산만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음 |
| 4) 축제 발전성 | ○ 대나무라는 축제의 소재는 어느 축제와도 크게 차별화되는 대나무 축제만의 강점이라고 생각됨<br>○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에 따른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점을 볼 때 내년 대나무축제시 축제인프라 개선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됨<br>○ 앞서 축제 기획 분야에서 언급했듯이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을 통해 축제의 역량을 키워야할 필요가 있음 |
| 5) 축제 성과 | ○ 차 없는 거리 운영, 향토음식관 폐지, 주무대 이동 등 새롭게 시도된 변화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문화 관광축제다운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됨<br>○ 전체적인 군정의 관심사가 9월에 개최되는 대나무 박람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나무축제의 행사장 구성 및 연계 관광지 정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축제 완성도에 아쉬움이 있었음 |

# 30 장흥 정남진장흥물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7월 31일(금) ~ 8월 6일(목) / 7일간**
- **장 소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 최 : 장흥군**
- **주 관 : 정남진장흥물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주제프로그램 : 지상최대물싸움, 천연약초힐링풀,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개막퍼레이드살수대첩 등
  - ○ 놀이·체험 프로그램 : 수상프로그램(야외풀장 운영, 뗏목타기 등), 육상프로그램 (육상 수영장 운영, 도전드림팀 등)
  - ○ 공식행사·경연대회 : 전국 대학 뮤지컬 갈라 페스티벌 등
  - ○ 전시부대행사 : 장흥茶관, 물 과학체험, 등
  - ○ 군민·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연, 수상 줄다리기 등
  - ○ 연계 행사 :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제8회 세미누드 촬영대회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본 축제의 강점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임. 무엇보다 관광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즉, 세밀하고 구체적인 관리체재를 상호연계시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다리를 건너는 관광객들에게 물 분수를 제공하여 더위를 가시게 할 뿐 아니라 각종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하여 세심한 안전 배려와 즐거운 물놀이로 유도하고 있음
  - ○ 프로그램 간 동선 처리도 비교적 잘 연계되어 관광객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함. 특히 지상최대물싸움, 천연 약초힐링풀,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에'물'이라는 보편적 소재로 동심을 자아내고 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킴으로써, 글로벌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에 버금갈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축제로 평가됨

○ 올해 개막행사의 경우 축사는 아주 짧게 진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방식인 일방적인 가수공연을 지양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적 공연이 조화를 이루는 행사진행이 돋보임. 더욱이 개막공연행사에 장흥고등학교 학생들을 사회봉사 일환으로 참여시켜 주민친화형 축제를 시도하고 있어 호응도가 높고, 공연주제의 역사문화성이 돋보임. 특히 관중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개막공연 중간에 연령별 대중가수를 깜작 출연시킴으로써, 개막공연을 전통문화의 교육성과 대중문화의 재미성을 동시에 가미하고 있음

○ 지난해에 '태풍'을 이겨내고 축제를 끝까지 성공시킨 공무원들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며, 이것이 축제의 전반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여 활력이 넘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음.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 새로이 신설된 거리퍼레이드인 '살수대첩'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킬러콘텐츠인 '지상최대의 물싸움'에 버금가는 주제프로그램적 성격으로서 손색이 없는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사료됨.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 축제가 전반적으로 기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행사공간배치 및 운영전략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세밀히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물놀이 특성상 예견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관광객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제반적인 안전시스템을 충분히 가동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장흥축제가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테마별 스토리텔링의 체계적인 작업들과 가치를 전달하는 해석체계가 보완되어야 함.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가치성에 대해 사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설기능의 강화 및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됨. 따라서 진행요원과 전문해설요원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수월히 축제의 진정힌 의미와 가치 및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처음으로 실행하는 행사의 경우 시도는 좋으나 다소 기획력의 보강이 필요함. 살수대첩의 경우 군수님 이하 고을 유지들을 참여시켜 주민들과 함께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퍼레이드의 연출은 돋보이나, 단순히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총이나 물싸움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함. 예를 들어 관광객과 주민을 사전 청팀, 백팀, 홍팀 등으로 나누어 색깔별 티셔츠와 보색물감을 넣은 물총을 배부하여 '서바이벌 게임'을 유도하여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목적지향형 게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신설된 수상줄다리기의 경우도 수면이 너무 얕아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보다 깊은 수심에서 줄다리기를 하여야 흥미를 배가시킬 것임.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착오 등을 하나하나 수정하여 해마다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획안이 들이 제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안전시스템이나 안전장치는 잘되어있으나 위기상항 매뉴얼에 대한 사전 조치와 정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축제행사명의 경우, 지금의 '장남진장흥물축제'보다는 '제 9회 생명의 水! 장흥물축제(안)'와 같이 정남진과 장흥의 같은 의미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행사명 변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특히 장흥이 왜 '물'이라는 주제를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미 분류와 조작적정의가 필요 함. 즉 '태아의 양수와 같은 생명수', '탐진강의 장수하는 물', '장흥만이 갖고 있는 신선한 물' 등과 같은 '장흥물'에 대한 정체성확보가 필요함. 또한 축제를 통하여 '장흥물'과 연계한 브랜드개발과 지역소득창출 및 장흥물의 세계화를 위한 물선진국과의 네트워크형성 등 정남진장흥물축제의 국제화전략에 대한 논의들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본 축제는 전반적으로 기획력이 우수하며 세심한 부분까지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음. 더욱이 본 축제는 매우 더운 여름에 개최되고 있어 물을 주제로 한 여름축제의 백미를 제공해주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타이밍도 잘 맞음<br>– 특히 야간 개막공연의 경우 작년과 달리 수상무대에서 연출됨으로서 무대 분위기나 관중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음. 단, 관중들이 관람하는 객석의 경우, 뒤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좌석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다 정밀한 기획력 보완이 필요함<br>○ 물 축제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관계로 가족동반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많은 공간들을 가족을 위한 쉼터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주최 측의 배려가 돋보임. 이에 더하여 어린이에게 명찰배부, 유모차대여 및 별도 키즈존을 설치하여 어린이들 위한 집중화된 서비스보완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음<br>○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축제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극성수기에 축제시기를 조정의 검토도 고려해볼 팔요 있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의 개막공연은 타 축제에 비해 매우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었음<br>– 이에 공격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서울시나 광역지자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광역적인 개막공연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 있음.<br>– 이와 함께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체험 통합권' 발매 등을 추진할 필요 있음. 많은 프로그램을 구경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입장권이나 체험권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와 함께 통합권 판매도 고려해 보아야 함(테마파크 선례참조)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관광객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축제와는 달리 개막식에서 지역관계자들의 인사말과 축사를 대폭 생략함으로서 지루함으로 최소화하여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받음<br>○ '지상최대의 물싸움'의 경우, 최대의 킬러콘텐츠로서의 선택과 집중이 잘되어 있으나 너무 같은 음과 물높이로 일관하고 있어 주제명과 달리 다소 지루한 느낌을 줌. 따라서 시간대별로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하다가 음악의 강도와 무희들의 춤사위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도와 높이가 커지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두어 최대한의 물높이와 축포를 터트리는 퍼포먼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봄. 그래야 킬러콘텐츠가 됨. 또한 진행자의 장흥물에 대한 나레이션과 영상을 통한 장흥문화에 대한 소개를 겸하면, 천상일미 콘텐츠가 될 것임<br>○ 장흥물축제 관련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함. 축제관련 홈페이지는 잘구축되어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관된 축제 어플리케이션은 부재한 상태라 보완이 필요 함. 스마트폰으로 PC버전 축제내용을 보면. 구축한 내용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요구됨(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아울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날씨, 교통 등 실시간 안내를 통해 관광객에게 필요한 지초정보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br>○ 장흥 물축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인근도시 거주자에게는 홍보가 많이 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전국 광역지자체에는 홍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축제 홍보 및 축제 내용, 결과 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의 상부기관지원도 요청도 필요함. 특히, 입장료 및 체험료 등 대부분 지원금들이 유니세프 기금으로 기부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홍보함으로서 축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br>○ 정남진(正南津)은 서울의 정남쪽 또는 정남쪽에 있는 나루터를 의미하는데, 관광객들이 정남진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음. 따라서 동해안에 '정동진'과 비견하는 정남진의 의미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예를 들어, 정남쪽에 위치해 있으니 정오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지역, 정오에 해가 잘 보이는 지역이라는 의미로서 축제 중 정오에 행사장 한 가운데 해를 상징하는 '박'을 매달아 놓고 물총으로 쏘게 하는 행사 등이 가능함<br>○ 역시 강조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이색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지역주민 의견 반영).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 공모를 하여 공모에 당선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사전 홍보 및 이색 프로그램 발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몇몇 축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이로 만들어 물에 뚤 수 있는 탈거리 경주대회', '종이로 만들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거리 대회' 혹은 '시민들이 만든 지역명품 먹거리' 등은 축제를 통해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이번 8회 장흥물축제에서 돋보이는 것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매우 좋다는 것임. 축제장 어디에서나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모두 축제 티셔츠로 통일하여 멀리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 전 사전 교육을 통해 축제장 안내, 주변편의시설, 행사일정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br>○ 물'을 주제로 한 즐거움이 있는 축제인 만큼 다양한 관련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사장관리가 우수함. 화장실의 경우도 비록 임시화장실이나 청결상태가 매우 양호함. 행사를 마친 후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지역주민들의 야간 무단침입이 없도록 펜스를 치고 순찰을 도는 등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br>- 특히 수질 검사 등을 명확히 하여 수질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강물도 상부의 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엿보임. 아울러, 행사가 마치면 비록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오폐수 처리가 말끔하여 다음날 행사시 매우 쾌적한 분위기로 진행하고 있음<br>○ 많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안내소 등 거점구역별로 집결해 있는 관계로 거점구역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에게 찾아가는 안내 및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음. 행사장 곳곳에서는 진행요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br>○ 유망축제 답지 않게 안전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적정한 안전매뉴얼을 갖추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의 보완이 절실함. 따라서 축제 안전매뉴얼을 별도로 구비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공무원, 경찰, 소방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br>○ 축제장 내 편의시설 확대 필요가 필요 함.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다보니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샤워장의 경우 남성과 여성 칸이 동일하게 조성되어 있어 여성 전용칸의 확대가 절실함<br>- 특히, 별도의 탈의실이 없어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후에 탈수기를 비치하여 물에 젖은 관광객들의 옷가지를 탈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br>○ 지역주민 협력/지원 강화가 필요함. 축제 전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하지만 여전히 지역 내 상인들, 주민들 간에 협력이 미흡함<br>- 따라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특히, 축제기간 동안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장흥군, 상인, 지역주민 간의 협력이 미흡함(주변 상인들로 인해 축제장 내 치맥 이벤트로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br>- 따라서 축제가 끝나면 바로 축제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평가, 발전방안,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ㅇ 본 축제는 관광객의 반응이 나쁜 프로그램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음. 이어서 새로운 축제프로그램모델을 해마다 새로이 적용시키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축제임. 그러나 지속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개발이 적극 추진될 필요 있음<br>ㅇ 장흥군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제 핵심프로그램으로 거듭날 때 한국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축제 첫날 상가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을 얻어낸'살수대첩 퍼레이드'진행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 평가됨. 단, 살수대첩 퍼레이드는 지역 중심지역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물난리를 벌이는 태국 '송끄란' 축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전통성과 재미가 가미된 동심과 추억을 줄 수 있는 행사와 목적지향형 게임을 도입하는 등의 기획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임.<br>ㅇ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교와 협력이 절대 필요함. 인근 광주광역시 등에 위치한 대학교와 협력하여 축제 기획, 운영 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서도 해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음으로 장흥물축제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호 도움을 주는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제 기획 시 인근 대학교수 등과 협력하고 축제 운영요원으로 기획에 참여한 대학교수 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음(봉사점수 부여).<br>ㅇ 특히, 행사의 특성 상 안전관리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인근 대학 체육학과와 연계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체육대학생들은 수영강사,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본 축제가 어린이가 많이 오는 축제인 관계로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발전전략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 5) 축제 성과 | ㅇ 축제성공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노력한 결과가 보임. 축제 장소인 탐진강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 및 친수 공간 활용에 법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청 등과의 장기간·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점이 높이평가 됨. 특히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하천수량 유입, 식수공급 등 다양한 후원을 유도함으로서 축제운영을 원활히 수행함<br>ㅇ 축제를 많은 부분 장흥은 지역관광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흥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관광수(水)제품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단순한 생수판매가 아닌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전략과 수익성확보전략이 다각도로 실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현재 무료로 시행하는 '보관함'의 경우 지역협회에서 부담되지 않는 요금(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아도 되고, 본인의 얼굴이 새겨진 축제 티셔츠 판매, 물총 판매, 외국인에게 기념엽서 판매 및 지인에 송부 등 세부적인 실행 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궁극적으로는 "에비아"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 있음<br>○ '장흥물축제백서'를 제작할 필요 있음. 매년 추진하고 있는 축제 관련 내용들을 백서로 제작할 필요가 있음. 축제 관련 서류, 논의사항, 추진시 어려운 점, 축제 내용, 축제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그 내용을 공유할 필요 있음. 축제 백서는 축제 매뉴얼로 활용이 가능하고 축제 담당자가 바뀌어도 백서를 통해 쉽게 축제 관련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함<br>○ 단체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가 필요함. 행사장 중심을 제외하고 제트스키장, 캠핑장 등이 있는 강 상부에는 관광객들의 체험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함.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체객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며 유수의 여행사를 통한 단체객을 유치할 경우, 여행일정상 4-5시간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기존 행사장과는 별도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현재 활용도가 낮은 강 상부 공간에 단체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 |

# 31 목포 항구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7월 24일(금) ~ 7월 28일(화) / 5일간**
- **장 소 : 목포시 삼학도, 목포항**
- **주 최 : 목포시**
- **주 관 :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대표 프로그램 : 천년의 사랑'갯가 풍어 길놀이', 목포는 항구다 풍어제, 목포항애가 폐막식, 어물난장 파시 등
  - ○ 차별화 프로그램 : 사랑의 다리, 삼합존 삼합데이, 어선에서 노래하다, 뱃고동 어선 집어등 페스티벌, 물고기 등 페스티벌 등
  - ○ 기타 프로그램 : 공연/경연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2014년도 지적되었던 축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음
    - 축제명이 해양문화축제에서 목포항구축제로 변경됨에 따라, 축제의 특성에 맞게 주제의 선명성이 더해짐
    - 핵심 콘텐츠인 파시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변경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바지선상에서 이루어지던 파시의 공간이 바깥쪽 부두 쪽으로 넓게 형성이 되면서 여유가 있어짐
  - ○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관리방안이 매우 철저히 수립하였음. 해양축제의 특성상 안전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항구축제의 다양성이라는 주제 아래 너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람객이 일목요연하게 행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메인무대, 파시마당, 프린지무대 등 구

분되어진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5일 동안의 행사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핵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파시'의 경우 추억이라는 코드와 바지선상에 이루어지는 옛날 모습의 재현 등이 중요한 차별화요소임. 하지만 이를 부두 쪽으로 빼고, 추억의 이발관 등 핵심적인 요소를 제외함에 따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일반적인 장터 개념이 되어버림. '파시'의 차별화 요소를 강조하여, '추억'의 코드를 살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콘텐츠를 더 부각시키고, 목포 항구의 옛 추억(특히, 시민들의 체험적인 요소)을 재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초청워크숍, 명칭변경 논의, 참여프로그램 협의, 축제와 노인일자리 모색 등을 진행함<br>○ 기본방향을 '목포는 항구다'로 정하고 항구적인 곳, 서민적인 곳,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함<br>○ 이번 축제의 주제는 '신명나는 항구의 한 판!'으로 정하고 진행함. 하지만 이런 주제는 이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음. 보다 구체적이거나 철학을 표현하는 주제를 만들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br>○ 전반적 기획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축제 기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문기획가 또는 대학 등의 전문연구소 등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프로그램인 '파시'를 위해 공연단체와 선주협회가 협력하여 진행함. 파시 장터를 연출하고 마당극, 거리극으로 엮어 당시의 놀이문화를 재현하고자 함. 파시시장은 경매와 조기 털기 등으로 진행됨. 주막골과 거리극, 삼합맛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항구축제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함<br>○ 어민들이 수산물을 손질하여 판매하는 '어생'프로그램은 경매형식으로 진행되어 방문객의 주목을 받고 참여를 유도함<br>○ 개막식과 길놀이 등이 어선 퍼레이드와 함께 축제주제인 '목포는 항구다'를 표현하고자 함. 하지만 올해 제시한 '신명나는 항구의 한 판!'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연관되지 못함. 축제주제와 슬로건, 부제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필요함<br>○ 차별화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사랑의 다리, 삼합존, 어선에서 노래하다. 집어등 페스티벌, 불을 쏘다 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전반적인 컨셉과 모델은 다른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신 여기에 삼학선녀의 스토리를 접목하여 목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평가할만함. 집어등을 통해 야간 축제의 조명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함<br>○ 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디테일과 세련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특히, 서민적인 투박함만으로 관광객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은 다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관광축제의 다음 단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br>○ 유달장수와 삼학선녀 선발전 등 몇몇 프로그램은 전반적 축제 기획의 차원에서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전반적으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방문객 차원의 프로그램이 혼용되어 있음. 시민을 위한 축제는 매우 중요하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핵심적 요소이지만, 이것이 관광객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예술문화와 결합된 세련된 연출이 필요함<br>○ 선박을 활용하여 선박 위를 경험하고 선박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본 축제의 차별화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함<br>○ 전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주제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음. 수가 많은 것 보다는 잘 꾸며지고 연출된 프로그램이 감동을 줄 수 있음. 핵심적이고 주제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3) 축제의 운영 | ○ 음식부스 선정에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선주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고르게 배치하고자 노력함<br>○ 자원봉사자는 18세 이상 대학생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145명을 모집하고 있음(1일 29명). 향후에는 교육시스템과 사후관리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br>○ 안전관리메뉴얼을 참조하여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축제 재난안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축제장을 임의로 12개 섹터로 구분하여 책임관리 및 비상시 조치상황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해상과 어선안전관리 등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br>○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 안내 유도판 설치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br>○ 유관기관의 협조(해양항만청, 경찰서, 소방서, 해군3함대사령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음. 특히, 축제담당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임<br>○ 향후 발전적 축제조직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설조직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민간의 상설조직을 통해 기획안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 재정자립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현재 사랑의 다리 정도가 아니라 축제전반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협찬과 상품판매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자체 평가에 따르면, 관광객 중 만족했다는 응답이 91% 정도이며, 관광객 1인당 평균 7만 5540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br>○ 종합평가에서 축제시설의 안전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br>○ 메르스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중국 관광객 유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팸투어 40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함<br>○ 축제개최 후 지역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앵콜공연을 펼치는 등 지역전반에 축제가 천착되어가는 성과를 보여줌<br>○ 향후 재방문 등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차별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변화되는 축제기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 32 보성 다향대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22일(금) ~ 5월 26일(화) / 5일간**
- **장 소 : 전남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 **주 최 : 보성차생산자조합**
- **주 관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 **주요행사**
  - ○ 차문화 행사 : 다신제, 티아트페스티벌, 한국명차선정대회, 다례시연, 차와 북 콘서트 등
  - ○ 체험 행사 : 차만들기, 찻잎따기, 녹차뷰티미용체험, 녹차족욕, 차밭나들이, 보성소리 배우기, 다도예절체험, 전통놀이. 녹차전통음식만들기, 소원함 동전넣기, 전통악기 만들기, , 천연염색체험, 보성차시음회, 보성삼베체험, 시티투어
  - ○ 경연·공연행사 : 개막축하공연, 길거리퍼레이드, 전국학생차예절경연대회, 다문화전통혼례 보성녹차·키조개 전국요리경연대회, 전국녹차사진촬영대회 등
  - ○ 전시판매 행사 : 할머니장터, 녹차전시판매, 농특산물판매전, 차나무분재전시전, 전통찻사발전시 등
  - ○ 기타 :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일림산철쭉제, 한우와 녹차의 향연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보성다향대축제는 전국 차 생산량의 34%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차 주산지이며, 차 산업의 발상지로 녹차수도 보성의 특색을 지역브랜드로 승화시켜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판단됨
  - ○ 주요 프로그램인 다신제는 참여자들의 복식과 전통악 연주 등 전통왕실의 제례의식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제헌관의 어려운 제례 언어를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등의 진행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축제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몽골텐트 형태의 부스를 배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백나무를 활용한 부스설치는 축제의 주 소재인 녹차를 부각시키며, 친환경적인 축제공간 구성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12개 각 읍면을 소개하는 지역주민 행렬과 이순신 장군 행렬이 이어지는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다신제, 티아트페스티벌, 전국녹차사진촬영대회, 전국학생차예절경연대회, 한국명차선정대회, 녹차+키조개 전국요리경연대회 등 보성의 살아있는 역사와 함께 차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부분이 우수하다고 평가됨

○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보성다향대축제는 축제를 개최하면서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축제추진위원회 및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축제이며, 우리나라 차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보성다향대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운영 등 보성다향대축제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축제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산하에 집행위원회 등 축제전반의 운영, 평가를 책임지는 전문조직 설치로 내적역량 강화가 요구됨

○ 상업 가수들의 공연을 자제하는 것인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메인 행사인 다신제의 경우 단체장이 왕의 행차와 다신제에 중복 출연으로 의복을 갈아입는 시간 등이 길어져 원할한 진행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여 '다향제 왕 선발대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이벤트로서 홍보효과를 도모하는 전략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축제의 자생력 확보 및 축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관에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단체나 기업, 즉 보성을 대표하는 다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축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가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계획 등 체계적 기획력이 우수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보성녹차'를 주제로 차문화 행사를 대폭 확대한 부분과 축제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임무,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 계획, 분야별 추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메인행사장까지의 방문객 이동을 고려한 향기, 미각, 소리, 소망, 다향이라는 각각의 터널 5개를 설치하여 터널마다 정해진 테마에 따라 체험과 관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기획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됨<br>○ 차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학생부, 일반부 구분하여 녹차음식 경연대회와 녹차음식 전시, 녹차뷰티미용체험, 분수대를 활용한 녹차 족욕체험장, 할머니장터 등의 기획발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br>○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서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산업형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화합을 기본으로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의 도약과 관광유도형 축제로의 전환 목표설정이 요구됨<br>○ 보성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류형 축제로의 기획방안으로 축제장과 보성시내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보다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br>○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안내가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보성의 축제 홍보도 잘 되어 있으나 축제의 성격상 대다수 SNS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과 체험행사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축제장 구성 기획이 필요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지역에서 생산되는 편백나무를 활용한 부스설치는 축제의 주 소재인 녹차를 부각시키며, 친환경적인 축제공간 구성으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br>○ 지역주민들의 지연공동체의식과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12개 각 읍면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가장행렬을 퍼레이드에 합류시켜 보성의 살아있는 역사와 함께 보성 녹차에 대한 지역주민 연대감을 조성함<br>○ 다신제의 연결 프로그램으로 41회를 맞이하는 보성다향대축제를 기념하는 41미터의 녹차인절미 만들기는 지역주민의 결집과 대동을 추구하고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함으로써 연출없이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으로 사료됨<br>○ 기존의 축제현장에 설치한 몽골텐트 부스가 아닌 편백나무로 만든 부스를 설치해 전통성을 강화하고, 축제장의 분수대를 활용한 녹차족욕체험장은 관광객들에게 녹차향과 편백향 가득한 쉼터의 공간과 여독을 풀 수 있는 장소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br>O 차와 판소리로 유명한 보성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장에서의 다도예절체험과 득음정의 소리체험프로그램은 축제와 잘 어울리는 컨텐츠로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사료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보성다향대축제 스마트폰 사진 인화', '차밭생태체험' 및 스탬프 랠리를 활용한 프로그램(한국차박물관, 찻잎 따기, 다도예절 체험, 보성소리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음<br>○ 메인테마인 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서를 찾아내 남녀노소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br>○ 분야별 외주로 인한 프로그램 연출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감독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총괄 연출이 필요함<br>○ 왕의행차와 다신제는 참여자들의 복식과 전통악 연주 등 전통왕실의 제례의식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으나, 진행MC의 복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득음정에서의 소리체험 또한 소리선생님들의 복장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의 옥에 티로 평가됨<br>○ 주 무대의 축제를 알리는 메인 설치물이 공식행사인 다신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때마다 사용되는 조형물로 인해 가려지는 등, 초기 설치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디테일한 장소 디자인연출이 요구됨<br>○ 차와 함께 보성을 알리는 판소리를 보성다향대축제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판소리 공연 외의 시간에도 축제장 전반에 판소리를 들을 수 음향시설과 득음정과 북루를 활용한 퍼포먼스 기획으로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요구됨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 개막전 자원봉사자들의(볼거리) 취소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축제조직위원회와 지역주민, 지자체의 단합된 대응력으로 우수한 축제진행을 보여줌<br>– 축제 개막전 300여명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가 볼거리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이 취소되었으나 축제조직위원회와 지역주민, 지자체의 단합된 위기대응력으로 자원봉사자의 부재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우수한 축제진행을 보여줌<br>○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전국에서 20개 팀의 요리사들이 참가해 명품 보성녹차와 청정해역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키조개를 이용한 '녹차+키조개 요리경연대회'를 기획하여 녹차의 활용도와 보성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 마련과 볼거리를 제공함<br>○ 축제장 내 음식부스의 경우 불만민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에는 입점할 수 없는 운영체제로 음식의 맛은 물론 깨끗한 위생관리와 종사자의 친절도 등이 높이 평가됨<br>O 축제 내용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원봉사자가 찻잎 따기 체험장 등 일부 안전사고 발생 가능지역에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근무행사장 내 다향라디오 실시간 방송을 통해 행사 안내, 미아 찾기, 분실물 신고 등 실시간 생중계 진행이 우수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차 축제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차를 테마로 이루어진다면 지루하고 재미없으므로 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서를 찾아내 남녀노소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br>○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팜플릿은 배치되어 있지만 내용은 주로 공연이름과 공연시간 안내 뿐, 공연내용이나 공연을 보기위한 장소이동 경로 안내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물 제작과 안내가 요구됨<br>○ 까다로운 음식부스 관리로 음식의 맛과 위생 등의 관리는 우수하나 축제장 방문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먹거리 개발과 축제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br>○ 지역특산물축제의 성격상 축제장은 보성차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다양한 홍보와 시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원들이 카드사용이 되지 않아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축제장 내의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
| 4) 축제 발전성 | ○ 전국 차 생산량의 34%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차 주산지이며, 차 산업의 발상지로 녹차수도 보성의 특색을 지역브랜드로 승화시켜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평가됨<br>○ 다변화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차산업 발전을 위한 보성 녹차 상품 외에도, 지역특산물인 키조개, 편백나무 등을 활용한 연계 상품 홍보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음<br>○ 보성다향대축제는 대단히 정적인 소재인 차를 다양한 형태의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화 함으로써, 다른 축제와 구별되는 변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다원들의 소득향상과 연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축제로 사료됨<br>○ 41회를 이어온 전통 있고 저력있는 보성다향대축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보성 녹차 브랜드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로 민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br>○ 차를 모티브로 하는 공연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적절한 조화로 보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보성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축제로 평가됨<br>O 글로벌화를 위한 보성다향축제는 국제적인 인지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인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보성 전체 관광전략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성다향축제 국제화전략 및 브랜드마케팅 추진이 요구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장을 찾는 대부분의 관람객은 축제장 인근의 다원을 방문하므로 축제기간 축제조직위는 다원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하여 무료입장이나 입장료 할인 등 지역사회 기업이 축제와 동참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br>○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축제 자체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여행업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축제장을 방문 유도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연계관광활성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 5) 축제 성과 | ○ 양적인 측면에서는 약 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축제의 핵심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br>○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및 다양한 홍보 전략을 실시한 노력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줌. 2015년 약 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과거에 비해 외국인(중국 유학생 350여명, 외국인 300여명 등) 방문객이 급증함<br>○ 2015년 보성다향대축제는 네팔 영사, 나이지리아 차석대사, 대만 참사관, 유엔평화대사, 에디오피아 부대사, 오스트리아 부대사, 잠비아 부대사 등 7개국의 대사들이 개막식 자리에 참석으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면모를 제시함<br>○ 크고 작은 다원의 차생산자들이 함께 축제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지역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차를 지역브랜드로 연계함으로써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됨<br>○ 제41회 보성다향대축제는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구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주요행사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참여 확대와 관심 증대, 차인들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차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문화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축제로 사료됨<br>○ 기존 5일간(금요일~화요일) 개최하던 축제 기간을 10일간(금요일~일요일)으로 일정을 확대함으로써 해외 관광객과 수도권 장거리 관광객을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br>O 지역 산학협력을 통한 축제장 및 보성의 관광지 시티투어, 외국인 유치 전략으로 주한외국대사 초청 팸투어 실시, 여행업계·관광협회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 강화 노력이 필요함<br>O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성다향축제의 명확한 지향가치(value)와 중장기적인 육성로드맵이 없다는 문제점 보완과 국제적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성다향대축제 만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노력이 필요함 |

# 33 영암 왕인문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4월 9일(목) ~ 4월 12일(일) / 4일간**
- **장 소 :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영암군 일원**
- **주 최 : 영암군**
- **주 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 위원회**
- **주요행사**

○ 메인 프로그램 (2종)

• 氣 찬 Musicarade '왕인박사 일본가오!'

- 일 시 : 4. 11(토) ~ 4. 12(일) 14:00 ~ 15:30
- 행렬 코스 : 왕인박사 탄생지 → 홍살문 → 봉선대 → 상대포 역사공원

• 빛의 향연 '왕인 미디어 파사드쇼'

- 일 시 : 4. 9(목) ~ 4. 11(토) 야간행사 종료 후
- 왕인박사 춘향대제, 두드림 난장, 氣찬 풍년놀이, 영암민속놀이, 왕인 학생예술대회 등 개최

○ 체험행사 : 기찬 전통놀이 마당, 천자문 놀이마당, 왕인테마 놀이마당 등

## (2) 총 평

- **잘된 점**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백제 시대 때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여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선각자, 왕인박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이며, '왕인의 빛, 소통·상생의 길을 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체험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운영됨

○ 기존의 교육적 형태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형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 하려고 노력함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이제 곧 성년을 맞이하는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전략으로 축제 프로그램 참여의 유료화는 필요 요건이고, 축제의 아이덴티티 개념을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축제기념품 제작과 판매에 보다 적극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또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여 옥외광고의 유치 뿐 만아니라 기업과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기본방향으로 문화관광축제 위상에 걸맞는 축제완성도 제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별 리뉴얼, 관광객 중심의 축제장 재구성 및 집적화된 프로그래밍, 군민이 행복한 축제 개최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대한 기여로 설정함<br>○ 이의 실현을 위하여 왕인의 빛 소통 상생의 길을 열다! 라는 주제로 5개 부분(왕인 氣찬칠품, 왕인 氣찬난장, 왕인 氣찬놀이, 왕인 氣찬투어, 왕인 氣찬랜드) 48종의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암의 브랜드인 '기(氣)'를 활용한 것으로 왕인문화축제와 지역을 동시에 홍보하는 효과를 유발시킴<br>○ 이를 통하여 영암은 왕인박사라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컨텐츠가 존재하고 또한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힐링과 연계될 수 있는 '기(氣)'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표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축제주제관련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으로 '왕인박사 일본가오!'라는 Musicarade는 뮤지컬과 다양한 퍼포먼스들로 이루어짐. 퍼레이드는 흥을 느낄 수 있게 전문 퍼레이드 연주가들을 초청하여 퍼레이드의 선두에 세우고 그 뒤에 왕인 박사 캐릭터와 영암 마스코트들이 뒤를 따르고 마지막으로 영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별 특산물을 실제로 들고 행렬을 따름으로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영암지역의 유명한 특산물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가 있었음. 또한 청소년 들을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다'라는 글귀와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축제의 주최자들이 영암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음<br>○ 영암 구림은 퇴사정과 4개의 문중들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등 어느 지역보다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구림마을 왕인열차투어'와 '구림마을 자전거탐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제장에 찾은 사람들을 구림마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함<br>○ 2015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축제에 영암 고장의 브랜드인 氣(기)를 활용, 축제 속에 월출산 힐링 氣체험, 월출산 氣찬묏길 트레킹, 氣찬건강 내 몸 바로알기 체험관 등, 영암의 브랜드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암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힘<br>○ 축제의 가장 큰 지향점은 '대동'으로, 대동이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놀이를 참여하면서 일탈과 재미를 느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영암왕인문화축제에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방문객이 축제에 참여하기보다는 구경, 관람하는 성향이 강함 축제에 방문객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즉, 대동제적 성격을 가진 놀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왕인문화축제의 또 다른 대표프로그램인 '왕인 미디어 파사드쇼'는 밤의 특성을 잘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왕인의 빛, 소통·상생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와 관련된 모습이 보다 많이 들어있으면 함<br>○ 왕인박사, 붓, 머루, 벚꽃 등 축제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들이 있었으나, 축제에서 그 캐릭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왕인문화축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없었음. 캐릭터를 축제의 마스코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이용한 축제 기념품(왕인박사 캐릭터를 이용한 천자문 만화책, 캐릭터 퍼즐 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br>○ 축제 주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줄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이 축제의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프로그램들이 보임 |
| 3) 축제의 운영 | ○ 행사장의 편의시설들은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축제장 곳곳에 화장실, 미아보호센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편의시설들은 모두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었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해두어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부스, 월출녹차 다도체험 부스 등 축제장 곳곳에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함. 이와 같은 편의시설 외에도 이동식 ATM기를 설치해두어 관광객들의 편의와 소비활동을 도왔고,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함<br>○ 왕인문화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축제 행사 진행요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특히 영암민속놀이 등은 지역민이 주최가 된 것으로 영암 지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전용셔틀버스의 배치와 시외버스 배차시간 간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물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몰고 오는 형태를 보이지만 이는 또 다른 주차 문제 및 교통 혼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축제 전용 주차공간을 터미널 근처에 확보하여 이곳에서 전용 셔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에 비해 배차시간이 너무 길게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br>○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할 겸 음식 판매부스에서 판매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음. 예를 들자면 단순한 파전 도토리묵 이 아닌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를 섞어 무화과 파전, 무화과 도토리묵 등 기존의 음식에 영암의 특산물을 믹스해서 파는 형태, 또는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하여 이를 축제를 통해 판매함으로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임<br>○ 관광객 수용인원에 비해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 쓰레기통을 배치하되 일반적인 쓰레기통이 아닌 왕인박사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쓰레기통을 만들면 축제 몰입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br>○ 자원봉사자들에게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중요한 장소의 위치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탈을 쓰고 다니는 사람과 체험마당 등의 현장 진행 요원들이 축제의 주제와 축제의 대표인물인 왕인 박사와 영암군의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질문에 적절한 응대를 할 수 있어야하나 일부 자원봉사자의 경우 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함<br>○ 영암왕인문화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 가오 퍼레이드의 동선 안내 홍보가 필요함.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갈 때 정해진 동선 없이 우왕좌왕 하고 관광객들이 퍼레이드 행렬을 막는 경우도 있어서 정체되는 현상도 발생되었고, 퍼레이드 도중 도로를 건널 때 교통통제도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함<br>○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무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임.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양반춤, 민속예술단 공연과 같은 것들인데 무대시설들은 다 현대적이었음. '무대가 공연 배경에 맞는 분위기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음 |
| 4) 축제 발전성 |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왕인박사 일본 가오!, 춘향대제 등과 같은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한계점으로 인식되었던 교육적 형태의 축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축제를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o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축제 조직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축제에 투자할 수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br>○ 축제장 내 유료 프로그램은 '구림열차투어'와 '기(氣)찬 버스투어'뿐 본 축제를 대표할 만한 유료프로그램이 없었고,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와 무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점점 줄고 있는 요즘, 이러한 환경에서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유료화가 필요함<br>○ 기업의 후원이 부족하다고 보이며, 축제장의 현수막, 홍보 풍선 등에 다양한 기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아주 적은 정도의 후원이었으리라 생각됨.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후원 및 지원 확보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 5) 축제 성과 | ○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상품을 더욱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함. 로컬 푸드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든지 왕인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br>○ 영암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중심으로 왕인박사유적지와 천년고찰 도갑사, 2000년 전통의 구림마을 등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의 보고(寶庫)이며, 축제 전반에 걸쳐 영암의 브랜드인 '기(氣)'를 활용하여 축제와 지역을 동시에 홍보하는 효과를 유발시킴<br>○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본대사를 비롯한 8개국의 대사들의 방문으로 영암 문화축제가 세계화로 갈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건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영암 내 특산물을 해외로 수출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축제를 통한 지역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br>○ 천 가지 꿈이 담긴 이야기를 주제로 '왕인 천인벽화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직접 천자문 한 글자와 자기만의 그림과 글을 담은 타일벽화를 만들어 축제장내 영구 시설로 활용,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 한다는 점에서 잘된 점이라고 생각함<br>○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 정도가 낮으므로,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전 및 사후 축제홍보에 신경 쓰고,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임<br>○ 축제에서 지역민의 참여도는 높았으나 그에 비해 외지 축제 방문객들과 함께 즐기는 대동제적 성격의 놀이마당을 펼쳐 보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 "탈 일상의 재미"와 같은 축제의 기본적 기능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았음<br>○ 축제의 로고, 심볼, 엠블렘, 캐릭터 등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으며,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특화된 농산물 판매 전략이 부족함<br>○ 왕인 박사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 일본과의 연계를 통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 많은 일본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 34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10일(일) / 10일간**
- **장 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온천 일대**
- **주 최 : 문경시**
- **주 관 : (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공식행사 : 개막식, 시상식
  - ○ 기획전시 :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국제찻사발공모대전, 문경전통도자기명품전, 도예명장특별전, 찻사발국제교류전, 어린이사기장전, 문경생활도자기관, 중국도자기관, 일본도자기관, 회령도자국제관
  - ○ 특별행사 : 문경전통발물레경연대회, 찻사발깜짝경매, 선조도공추모제, 문경문화퍼포먼스, 국제도자기워크숍, 상평통보엽전상품권, 뮤지컬'사기장이야기', 찻사발과 사기장의 만남
  - ○ 체험행사 : 도자기 빚기, 망댕이가마 소성 체험, 찻사발그림그리기, 다례체험, 문경관광30선다트게임, 찻사발 쌓기, 찻사발티셔츠핸드페인팅, 소원 담은 장작 던지기, 찻사발엽전받기, 찻사발페이스페인팅, 도자기소원쓰기, 발물레 빨리 돌리기, 문경관광 30선 스마트폰 사진 인화, QR찻사발장원급제, 리틀 망댕이 가마 만들기, "문경사기장의 하루"체험단, 차담이의 찰진 인절미, 완과 비, 조선시대복장체험, 다포만들기
  - ○ 알찬행사 : 시민의 날, 공예·특산물관, 차인의 날, 축제 사진 콘테스트, 축제후기공모전, 입장권경품추첨, 문경밤사랑축제(야간 프로그램), 대형말차나눔행사

## (2) 총 평

- **잘된 점**
  - ○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찻사발'로 초점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통일된 이미지의 다양한 변주'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올해에는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면서 다양성이 더 강화됨
  - ○ 축제공간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전통성을 확보하여 축제의 소재와 잘 어울리고, 주

변 경관이 빼어나서 관광매력을 갖고 있음

- ○ 축제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지역 찻사발 장인들의 참여도가 높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꾸준히 유도하고 있는 데다, 국내외 도예인 및 관광객들을 겨냥해 일정 수준을 갖춘 경연, 시연, 전시, 체험, 판매 등이 다채롭게 이루어져 품격 있는 '전통공예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문경 밤 사랑 축제'는 문경읍 온천타운 일대에서 이루어진 야간 프로그램으로서, 정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이하 찻사발축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관람객의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음
- ○ 축제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함으로써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한 것임
- ○ 이밖에도 스토리텔링에 착안해서 '사기장의 하루 체험'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점, 축제장에서 통용되는 '축제화폐'를 발행해서 호응을 얻은 점, 장인들과 만남을 확대해서 문경도자기에 관한 이해를 넓힌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지난해 문화관광축제 평가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망댕이가마 소성체험'과 '사기장의 하루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부각시켰음. 둘 다 문경의 도자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사기장의 하루체험'은 관람객의 참여를 소수로 제한한 점이 아쉬웠음
- ○ '문경 밤 사랑 축제'는 바람직한 시도였지만, 공연 콘텐츠 대부분을 지역 내 연행자들에게 의존하여 질적 수준과 레퍼토리의 다양성, 그리고 외부 관광객의 참여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음
- ○ 이들 행사를 활성화시키려는 축제 주최 측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이번 축제의 주제는 "망댕이가마 불 지피는 사기장의 하루"였음.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 망댕이가마 소성 및 사기장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설정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찻사발축제의 가장 큰 매력인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체험료도 저렴해졌음<br>○ '사기장과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찻사발을 직접 만들고, 만든 작품을 우송해줌으로써,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기획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됨<br>○ 축제 공간을 지역의 생활공간까지 확장하고,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경 밤 사랑 축제'라는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것도 바람직한 시도였음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주최 측은 주제에 부합하는 대표프로그램으로 '망댕이 가마 소성체험'과 '사기장의 하루 체험'을 내세웠음<br>○ '망댕이가마 소성체험'은 관람객들이 직접 가마에 불을 지펴보고, 망댕이가마와 찻사발이 구워지는 과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특히 장작을 던질 때 망댕이 가마의 입구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온몸으로 느껴져 인상 깊었음. 그리고 장작에 소원지를 묶어 가마 안으로 던지는 '소원담은 장작 던지기 체험'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행사에 기복성(祈福性)을 더한 것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br>○ 또 다른 대표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 체험'은 찻사발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해볼 수 있고, 사기장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장인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체험단 T-셔츠와 자신이 만든 작품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심식사로 문경의 향토음식이 제공되어 지역을 알리는 역할도 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축제가 열리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였는데, 하루에 10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여 소규모의 인원(115명)만이 참여했음. 향후 참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br>○ 찻사발축제는 축제의 소재를 '찻사발'로 초점화하여 다른 축제와 차별화했음. 40여개 문경전통도자기관, 27개의 체험프로그램, 외국 장인의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전통찻사발'이라는 하나의 코드로 묶여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운영되었음. 또한 물질(찻사발)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대형말차 나눔행사와 다례 체험장(3곳)을 운영하여 차(茶) 문화와 연결시키고 있었음. 다례 체험장에서는 말차·전차·보이차 등을 찻사발에 담아 마셔 볼 수 있어 축제의 소재와 조화를 이루었음<br>○ 축제의 소재인 찻사발과 축제공간인 오픈세트장의 이미지가 '전통'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문경새재의 수려한 경관이 축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점도 이 축제의 매력 가운데 하나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문경 밤 사랑 축제'는 문경읍 온천타운 곳곳에 무대를 설치하고, 각 무대를 '청춘마당', '사랑마당', '자유거리'로 특화시킨 야간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을 문경읍내로 유도하고, 체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었음. 그리고 공연과 함께 오미자 와인, 문경 한우 꼬치구이 등의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게 문경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행사였음<br>○ 하지만 콘텐츠 대다수가 지역의 공연자로 채워져 질적 수준과 레퍼토리의 다양성, 그리고 외부 관광객의 참여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었음. 지역민의 주체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려는 것이 기획 의도인 만큼 공연의 수준과 콘텐츠의 구성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음<br>○ '문경관광 30선 스마트폰 사진 인화' 프로그램은 30가지의 문경 관광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축제의 추억과 문경의 관광지를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인상적이었음<br>○ 문경시레포츠협회와 협약을 통해 축제장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지역 레포츠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고, 입장권의 쓰임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하지만 그 혜택이 레포츠에 한정되어 있어 아쉬웠음. 가능하다면 할인 혜택 협약을 문경 지역의 관광지와 숙박업계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br>○ 'QR찻사발장원급제'는 관람객들이 축제장 곳곳을 돌아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하고, 그들이 무심결에 지나칠 수 있는 축제의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었음. 그리고 QR코드를 일정 기준 이상 획득하면 '장원급제'한 것으로 보고, 찻사발·친환경쌀·오미자김 등 문경지역특산품을 상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도 좋았음<br>○ 생활도자기관은 찻사발축제에 참가한 문경 지역 사기장들이 만든 생활도자기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음. 이곳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생활도자기가 전시, 판매되어 관광객들이 적은 부담으로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었음<br>○ 뮤지컬 '사기장 이야기'는 찻사발 제작과정에 담긴 애환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축제 주제와 부합하는 공연이었음. 하지만 공연 장소가 야외 무대여서 집중도가 떨어짐. 관람객들이 공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br>○ 축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사야 하는데, 그때 함께 받는 상평통보를 '축제화폐'(2,000원)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반응이 좋았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축제의 정의, 찻사발축제의 현주소,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됨. 이러한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축제자원봉사자 교육이 축제프로그램 소개와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을 위주로 하는 것에 비해 알찼던 것으로 보임<br>○ 자원봉사자 운용은,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종일 봉사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매일 봉사자가 바뀌어서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축제 기간 동안 장기 봉사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일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우하고 연중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br>○ 지난해 축제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체험프로그램 확충(17개→27개), 체험료 인하(4,000원→2,000원), 식당에 신용카드기 및 에어컨 설치, 식당 위생환경 개선, 야간 프로그램 개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강화 등을 행하였음<br>○ 홍보활동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짐. 축제 기간에 'MBC 전국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찻사발축제 특별 방송이 방영되었으며(5월 6일) 다양한 방송·신문·야외광고판·박람회 등을 이용해 축제를 홍보했음.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이처럼 기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진 데 비해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SNS 상의 축제홍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SNS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br>○ 주차장과 축제장 간 거리가 2km정도여서 사람에 따라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었음. 하지만 주변 경관이 워낙 수려하여 걷기에 좋았으며,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해 전동차를 운영하였음<br>○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축제장에 문턱이 많아 노약자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서, 판자 등을 설치해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br>○ 찻사발축제의 공간은 크게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유료존)과 그렇지 않은 곳(무료존)으로 나눌 수 있음. 찻사발축제의 주요 공간인 유료존에는 문경도자기관·체험관·차도구 및 차판매장 등이 있었음. 또한 무료존에는 먹거리장터·일반공예품판매장·특산물홍보관 등이 있었음<br>○ 먹거리·특산물 장터가 유료존과 분리되어 있어 축제장이 전반적으로 잘 정돈된 느낌이었음. 그렇다고 축제장에 먹거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커피전문점·분식점 등이 있어 관람객들이 갈증을 해소하거나 허기를 달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음. 하지만 입점 업체가 프랜차이즈점이거나 일반적인 분식을 파는 곳이어서 아쉬웠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문화관광축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역상품의 마케팅에 있으므로 오미자 뱅쇼와 오미자 에이드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필요가 있음<br>○ 축제장 지도와 안내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유료존에서는 문경전통도자기관, 체험프로그램, 외국 장인의 작품 전시 등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만큼 안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따라서 보다 간명한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고 곳곳에 현장 안내원을 배치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br>○ 먹거리 장터가 유료존과 분리되어 있어 축제의 주요 공간이 깔끔해보였지만, 위치가 축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었음. 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천장이 높았으며 식탁 간 거리가 충분해 쾌적했음. 특히 지난해 지적사항을 수용, 흙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로폼과 카펫을 깔아 놓았음<br>○ '문경 밤 사랑 축제'의 무대에 오른 공연팀 대다수가 지역의 공연팀이었고, 시민의 날 행사에 14개 읍면동민이 나와 어울림의 마당을 만들었음. 그리고 학생, 주부 등 4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축제에 참가하였음<br>○ 축제안전관리계획을 도 및 유관기관을 통해 심사받았음. 그리고 각 부스마다 소화기를 배치해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 특히 축제장 곳곳에 안전총괄책임자의 연락처를 공지한 부분이 눈에 띄었음. 그 결과 올해에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
| 4) 축제 발전성 | ○ 문경에서 개최되는 다른 축제에 비해 이 축제의 예산이 월등히 많고, 각종 홍보 자료에서도 찻사발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자치단체장의 축제육성의지가 매우 높아 보임<br>○ 축제 입장료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부스 분양금과 체험료 수익까지 합하면 재정자립도가 35%정도임.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금의 비율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br>○ 지난해 (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사무국에 3명의 상근직원(사무국장 포함)이 근무하고 있어 1년 동안 축제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br>○ 변별력 있는 축제 소재와 경관이 뛰어난 축제공간, 그리고 지역의 전통 있는 도예문화와 도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외지 관광객들의 증가 추세 등으로 볼 때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올해 관광객 수는 233,449명으로 지난해(180,304명)보다 약 29% 증가하였음. 특히 유료 관광객 비중이 38%정도 높아졌음(28,669명→39,733명). 그리고 전체 관광객 중 외지인의 비율이 90%(209,871명)를 넘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음<br>○ 지역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 관광홍보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br>○ 관광객 중 외지인(71,489원)의 1인당 지출액이 지역민(21,615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음. 직접 경제 효과가 2013년 96여억 원, 2014년 123여억 원, 2015년 155여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간접 경제효과인 생산유발효과는 258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61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53명으로 나타남<br>○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음(5.14점). 특히 재미(5.36점)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5.38점)가 높았음. 반면 먹거리(4.89점)와 살거리(4.81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보완이 필요함<br>○ 한편 30대 이하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음. 그중에서도 특히 20대의 만족도가 4.83점으로 낮게 나타남. 따라서 젊은 층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br>○ 대표 프로그램은 아니었으나 다포만들기(6.09점), 문경관광 30선 스마트폰 사진 인화(6.04점), 찻사발 엽전 받기(5.96점), 소원담은 장작 던지기 체험(5.96점), 다례체험(5.86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br>○ 이에 비해 국제도자기워크숍(4.00점), 시상식(4.22점), 선조도공추모제(4.75점), 개막식(4.85점), 어린이 사기장전(4.97점)은 만족도가 낮았음. 결과를 두고 볼 때, 관광객을 타자화 시키는 교육적, 의례적 프로그램보다는 관광객을 주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br>○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소비자모니터링 결과 만족도는 5.48점을 기록했음 |

※ 이하 축제에 관한 양적 평가자료는 “『2015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축제평가보고서』,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관광축제연구소, 2015. 06.”을 인용한 것임

# 35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4월 9일(목) ~ 4월 12일(일) / 4일간**
- **장 소 : 대가야 역사 테마파크, 대가야 박물관 및 대가야 읍 일원**
- **주 최 : 고령군**
- **주 관 : (사)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 주 제 관 : 대가야의 융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시설사업소 1층)
  - ○ 대가야 유물체험 : 금동관 제작 체험, 유물발굴체험, 산성 쌓기 체험
  - ○ 대가야 생활체험 : 움집제작, 복식체험, 저울추무게달기, 생활체험
  - ○ 대가야 용사체험 : 활, 칼, 투구, 갑옷 만들기, 용사선발대회 (성인대상)
  - ○ 대가야 예술체험 : 목공예, 입체가면 만들기, 생활아트체험
  - ○ 대가야 토기체험 : 토기제작체험
  - ○ 대가야 문화체험 : 순장체험, 철기방, 체험수료증
  - ○ 암각화로 여는 대가야 구역 : 탁본, 문양체험
  - ○ 농촌과 전통문화 : 딸기수확체험, 녹색테마 생태관, 가족사랑 딸기이벤트
  - ○ 기타 프로그램 : 마당극 '효자 성풍세 외 소규모 공연,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대가야 고상가옥생활체험, 소원지 달기, 문화예술 단체공연
  - ○ 연계행사 : 대가야왕릉제, 가요대행진, 악성우륵추모제, 고령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고천원제 및 학술대회, 이조년 선생추모 전국백일장

## (2) 총 평

- **잘된 점**
  - ○ 대가야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테마관광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주제와 인프라를 적절하게 운영 하였으며 대가야 왕릉전시관과 박물관, 농촌체험특구를 축제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적인 체험 효과 및 방문객을 유도하는 등의 기획이 돋보였음.

또한 체류형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로 축제장과 연결된 농촌체험특구에 캠핑사이트 200면을 조성하고, 인터넷 캠핑동호회에 홍보함으로써 조기 예약완료로 훌륭한 시도로 판단됨

- ○ 가야문화권 (5시도 15개시군)의 지자체인 성주군, 합천군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프로그램은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라 평가함
- ○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홍보관, 고령읍→대가야읍 명칭변경 등을 운영하여 축제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음
- ○ 2015 대가야체험축제는 그동안 개선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과 방문객 체류시간의 증가, 더 많은 방문객의 참가를 유도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대표할만한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key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그래야 지역 수준을 넘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음. 공무원이나 방문객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축제를 대표할 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 축제기간 중 고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함. 고령군 고분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콘텐츠로, 현재 계획 중인 고분 주변 조명시설을 통해 야간관광 프로그램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조명시설은 은은한 밝기가 바람직함. 간혹 조명이 밝아 고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시설 완료 전에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고령군 초입(다리)에서부터 고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명 경관 색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임
- ○ 공원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축제 계획 필요함. 고령 대가야 축제장은 다른 축제장과는 달리 기존 체험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재 축제의 체험거리 대부분은 공원방문객들이 상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임. 이에, 축제 프로그램 개발 시 상시 공원에서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별하여 공원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축제장 내에 일부 유휴시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활용할 경우,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물 놀이터의 경우 바닥에 물을 빼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바닥재질 상 충분히 물을 빼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사전에 제출된 고령 대가야체험축제의 계획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었으며 계획서에 따라서 축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2015 대가야체험축제의 주제는 '대가야의 융성' 으로, 대가야가 영·호남을 아우르고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왜와 남제와 교류를 했던 전성기를 주제로 표현한 각 체험프로그램이 돋보였음. 특히, 야간 공연프로그램은 유명한 공연 프로그램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했음<br>○ 메인 주제 이외에 대가야시대의 생활과 문화, 예술 등 대가야인들의 생활 전체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가야시대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하였다고 평가함<br>○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고령의 특산물인 딸기를 주제로 딸기수확체험, 농특산물 판매부스, 관광기념품 판매부스 등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대가야문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함<br>○ 공연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함. 뮤지컬 공연은 수준이 높고 매우 흥미로웠으나 관객들이 다소 소란했던 것이 문제이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뮤지컬 내용을 사전 관광객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아 집중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함. 무대 옆에 화면용 스크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졌음. 유명 뮤지컬이나 공연 등에서는 무대 옆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각 장, 막의 내용을 화면에 나타내게 함으로서 관객이 현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br>○ 대표 프로그램의 육성 필요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대표할만한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또한 체험은 있으나 이야기는 없음 : 스토리형, 테마별 공간 구성/공간 배치가 필요.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테마를 부여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장신구, 가야금, 토기 등)<br>○ 이에 대가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이 공간 지식 능력을 높이고 흥미를 높일 수 있음. 대가야 축제장은 애버랜드와 같이 테마파크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어린 우륵과 함께하는 대가야 여행' 이라는 이야기로 접근하여 방문객들을 어른 우륵의 친구들로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2015 대가야 체험축제는 곳곳에 진행요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안내 받기가 용이하였고, 지역대학 및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및 협력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함<br>○ 고령군에서는 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행사장 상황유지 및 재해대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축제 전 도청 안전부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체 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 후 보완·조치하여 축제장 전체에 대한 안전도를 높일 수 있었음<br>○ 또한 2015 대가야체험축제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었으며 방문객들의 참여가 높았는데 특히 어린이 참여율이 높았음. 다른 축제장에 비해 쓰레기 등 공원 내 청결 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음. 야간공연프로그램이 있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행사장내 교통 및 질서통제, 긴급대비 인력, 소방차, 구급차 배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음<br>○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체험부스에 영어, 일어를 병기하였으며 축제행사장 주·부 안내소에 대가야 복식을 착용한 영·일·중국어 통역도우미를 배치하여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특히 별도 통역 도우미를 편성하여 통역 가능한 언어를 표기한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장내 순회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br>○ 축제관련 홍보는 방송국 CF, 지방신문 인터넷매체 등 다양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특히 올해부터 SNS를 이용한 웹진 제작발송 등의 시도가 이루어져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음<br>○ 축제장 입구 등 경관 개선이 필요함. 출입구에서 축제장으로 오는 길, 행사장 곳곳에 공사장용 띠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어 쾌적성이 매우 저하됨(방문객 통제구역, 안내 동선 등). 이에, 대가야축제 로고, 슬로건, 축제명 등이 새겨져 있는 띠를 만들어 활용할 경우, 축제장 입구나 곳곳의 분위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임<br>○ 관광객들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쇼핑백 준비 등). 대가야 축제는 다양한 체험이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손수 만든 물건(도자기 등)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도자기 굽는 체험이 인기가 매우 높아 많은 관광객은 직접 빚은 도자기를 가져가는데. 들고 다닐 방법이 없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음. 이에, 고령 대가야축제 홍보용 쇼핑백 또는 들 수 있게 하는 도자기박스 등을 구비하여 도자기 체험객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아울러, 대가야 문구가 새겨진 쇼핑백의 경우, 간접적인 축제 홍보가 가능한데, 대구, 서울 등 대도시 방문객의 경우 집에 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쇼핑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제 노출이 가능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위탁업체 진행요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외국어, 축제 관련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친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인 반면, 위탁업체 진행요원들의 경우 다소 불친절한 모습이었음<br>- 특히, 위탁을 맡은 경비업체의 경우 차량 안내에 대한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으며 실제 매점이나 시설 위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br>- 예를 들어, 평가자가 저녁 7시경 매점을 물어 보았는데 차량 안내 요원은 축제장에는 없고 시내로 나가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숙박시설이나 축제시설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답변하지 못했음. 이에, 위탁업체 진행요원에 대한 서비스 및 축제 전반적인 내용 등의 교육이 요구됨<br>○ 응급환자 진료소 위치 변경이 필요함. 현재 응급환자 진료소가 축제 입구 지자체 체험부스 사이에 입지해 있는데, 이를 상황실 옆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음. 상황실이 축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음. 현재 위치는 방문객들이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입지함<br>○ 일부 차량의 무단 주차 방지가 필요함. 축제장 내에는 방문객 차량 출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 심지어, 축제장 내부의 숙박시설(통나무집) 투숙객들의 차량, 공무원 차량까지도 통제하고 있었음. 그러나 축제장 입구 초입 부분(공원 형태)에서 다수의 주차 차량이 발견되어 방문객들이 불멘소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매우 보기 안 좋았음)<br>- 차량 형태로 보아, 고령군 지역 유지들로 보여 졌는데, 축제 매뉴얼에 진입 가능 차량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켜야 할 듯함<br>○ 야간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야간에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폐장한 후,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축제시간에 활용했던 시설물, 부스 내 지자재, 도자기 만들던 진흙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흙이 쌓여져 있는 곳의 경우 일부 학생들이 노는 보습을 볼 수 있었음. 부스는 잠그고 야외시설물들은 덮어 놓는 방안이 필요함<br>○ 안전 매뉴얼 구비가 필요함. 대가야 축제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응급치료를 위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양한 안전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br>- 대가야 축제 정도의 경험 있는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안전 매뉴얼을 제작/구비하여 사전에 매뉴얼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2015 대가야체험축제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연인원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실경뮤지컬 '가야금' 총 98명 출연자 중 70명 이상이 순수 군민 예술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열의가 대가야체험축제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으로 평가됨<br>○ 축제장 내 부대행사장인 전시판매 부스, 농촌체험마을 등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축제성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축제를 계기로 농산물 홍보·판매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체험마을의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음<br>○ 대가야체험축제는 제1회 축제부터 사단법인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0년간의 운영경험으로 체험축제의 진행은 성숙단계인 것으로 보임<br>○ 방문객들에게 대가야축제의 의미 인식 제고방안이 필요함. 방문객들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보이나, 일부 방문객들에게 인터뷰한 결과, 대가야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인지 및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팜플렛이나 대형 입간판, 포토촬영 조형물, 포장지 등에 대가야 문화에 대한 의미와 우수성을 알리는 문구, 내용 등이 필요함. 그래서 단순히 즐기고 가는 축제만이 아니라 보다 교육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함 |
| 5) 축제 성과 | ○ 외국인 관광객 유도 및 홍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캠프헨리, 캠프워크, 왜관부대) 가족단위 관광객을 2,000여명을 유치하여 올해 행사뿐 아니라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함<br>○ 2015 대가야체험축제에서는 주행사장에서 입장료(3000원)를 징수하여 금액 일부(2,000원)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축제장 및 고령군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내 경제유발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함<br>○ 올해 축제에서는 예년에 비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캠핑장 조성 등 의 영향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음<br>○ 10년간의 대가야체험축제 홍보성과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고령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체계적인 행정·예산 지원 가능하다고 함 |

# 36 봉화 은어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1일(토) ~ 8월 8일(토) / 8일간**
- **장 소 : 봉화군 봉화읍 체육공원/내성천 일원**
- **주 최 : 봉화군**
- **주 관 : (사)봉화군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공연행사 :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예술문화한마당, 지역문화한마당, 7080콘서트, 은어환경콘서트, 은어가요제, 전통나눔시장음악회, 한여름밤의 쿨시네마, 폐막공연

○ 체험 행사 : 수상자전거, 어린이놀이동산, 어린이물놀이장, 박스아트만들기,네일아트/페이스페인팅, 천염염색, 캐리커쳐, 봉화보존화전시체험, 도예체험, 돌가루체험, 추억사진관, 창의과학체험, 전통활/목검체험, 승마체험 등

○ 주제 행사 : 은어반두잡이, 은어맨손잡이, 야간반두잡이, 은어숯불구이, 은어주제관, 은어낚시체험, 물난장 페스티벌, Water War(수중달리기, 수중줄다리기, 부표건너기), 워터슬라이드, 은어낚시체험, 반딧불 생태체험관, 어린이 놀이동산, 봉화인 한마당, 수상놀이존, 은어 열차, 캐릭터 댄스타임 등

○ 연계 행사 : 반딧불 방류행사, 건강걷기대회, 봉화문화유적탐방버스투어, 봉화워터파크운영. 봉화인 한마당, 은어종이배 경연대회, 단체별 맨손잡이 경연대회

○ 전시 부대행사 : 은어토피어리 포토존, B트릭아트 포토존, 캐릭터 유등 전시, 선등거리, 은어먹거리 촌, 토속음식판매, 농·특산물판매, 은어튀김 서비스, 은어 활어판매 등

## (2) 총 평

- **잘된 점**

○ 봉화은어축제는 상류 하천의 맑고 깨끗한 1급수에 서식하는 은어를 테마로 청정지역으로써 지역을 마케팅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철 가족형 체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음

○ 봉화은어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우수축제로서 전체적으로 축제의 콘텐츠와 프로그

램, 행사진행과 운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 “은어맨손잡이”, “은어반두잡이”는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가족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킬러 컨텐츠로 각광받고 있음
- ○ 특히 주어진 시간에 맞춰 시작 신호와 함께 다 같이 내성천 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은어반두잡이 체험 장면은 매우 인상적임. 은어반두잡이 체험외에도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위해 어린이 물놀이장, 수상놀이장, 워터슬라이드 등을 금년 확대 운영한 점은 평가할 만함
- ○ 잡은 은어를 구워먹을 수 있는 은어 숯불구이 체험 행사는 체험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연계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음
- ○ 최근의 캠핑붐과 연계하여 행사장 주변 고수부지 나무 그늘을 활용하여 캠핑장을 개설함으로써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점, 여름 축제인 점을 고려하여 은어잡이체험장 주변에 충분한 그늘막과 휴식공간, 물안개 분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점은 매우 평가할 만함
- ○ 은어맨손잡이, 은어반두잡이, 워터슬라이드 등 이용료 통합티케팅 전산화로 축제 수익을 투명하고 관리하고 있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축제 진행요원,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서비스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봉화은어축제를 여름 물놀이축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역마케팅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비전과 성장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은어잡기나 먹기, 물놀이 일변도의 ‘재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은어가 살 만큼 깨끗한 자연과 그 자연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브랜드로 만드는 ‘의미’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할 것임
- ○ 지역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사장과 인접한 봉화신시장과 봉화구시장 및 시가지 맛집, 상가와 연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관내 주요 계곡과 명소, 농촌체험마을, 민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축제의 공간과 무대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 ‘은어 맨손잡이’는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대기공간에 그늘막(차양막)을 확대 설치하고, 대기시간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작은 공연 또는 체험,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전체적으로 축제장 전체가 물놀이 공간이므로 남녀 충분한 탈의실과 샤워장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금년 도임된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공간의 경우 탈의실, 샤워실이 부족함
- ○ 은어반두잡이 체험장인 내성천의 수질 및 수온의 적정 관리가 체험프로그램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행사기간 관리 필요

○ 은어 주제관은 은어와 관련된 민물어류를 잘 보여주는 전시라고 판단되지만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콘텐츠가 빈약하여 은어를 보다 잘 부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차별성있는 특화문화상품으로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의 전환 및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봉화은어축제는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환경축제의 성격을 지닌 특화문화상품임. 이러한 성격을 감안할 때 은어축제의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기보다는 청정봉화라는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봉화의 브랜드이미지 구축이라 생각함. 이를 위해서 청정봉화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기획 또한 필요함<br>○ 축제기획서는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행사취지나 운영, 방향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미래비전이나 장기적인 플랜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전략과 축제의 미래비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최근 축제 콘텐츠의 특성은 공연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체험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려하고 있고 특히 체험프로그램의 대형화 와 참여가 용이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면에서 은어잡이체험, 야간반두잡이체험 등은 쉽게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형프로그램으로 킬러콘텐츠로서 긍정적임<br>○ 은어축제의 컨셉은 여름철 가족이 즐기는 물놀이 축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킬러 콘텐츠는 '은어맨손잡이', '은어반두잡이'이며, 잡은 은어튀김과 구이가 부대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축제 콘텐츠는 타 축제에 비해 명확하고 경쟁력이 있음. 그러나 축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미와 함께 의미와 가치, 진정성을 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은어-맑은 물-깊은 숲으로 이어지는 컨셉라인을 설정하여 봉화의 브랜드로 설정한 "산림휴양도시"와 연계한 홍보 및 전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함<br>○ 따라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여 은어와 하천생태, 은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을 전시 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은어 서식지 생태탐사, 은어지킴이 자원봉사단 모집 등)<br>○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판매유도는 좋았으나 지역 특산물 전시장과 판매장 환경은 열악함. 계절적으로 지역특산물을 연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농특산물이 매우 부족함. 축제와 연계한 지역 농특산물 생산, 가공, 판촉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먹거리 부스는 외부 상인들이 입점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가 대부분임. 축제 재정 자립을 위해 먹거리 부스 등에 지역 또는 은어축제와 관련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
| 3) 축제의 운영 | ○ 봉화은어축제는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축제에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br>○ 최근 축제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 경영시스템의 구축임. 이를 위하여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함<br>○ 축제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맞는 수익사업 발굴 및 스폰서 적극 유치, 축제의 유료화 등을 통한 안정적 수입원 확보는 필수조건임. 이는 축제의 품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축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키 위한 전략임<br>○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단순 자원봉사로 한정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여건을 기획, 운영 평가 등으로 확대하여 축제를 도와주고 앞장서며 축제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즉, 봉화군민이 손님이 아닌 행사의 주인으로 역할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br>○ 금번 축제에서는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은어주제관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청정봉화를 알리려는 나비/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의 운영은 긍정적이었음. 그러나 전시와 운영의 기법이 변화되는 현대인들의 감성과 기호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했다 생각됨. 예를 들면 최근 최근 증가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은어 주제관과 생태체험관은 HMD 기술과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함. 이러한 공간을 통하여 방문객들은 비일상적 경험을 하게 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더욱 더 높아지리라 생각됨<br>○ 봉화은어축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홍보영상과 8일간의 축제일정과 행사내용 그리고 주변관광안내와 음식, 숙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함은 긍정적임<br>○ 내성천을 중심으로 양측 고수부지에 마련된 행사장의 구성이 잘 되었음. 신시가지방향은 쉽터와 먹거리 특산물존, 반대편 구시가지방향은 운영본부와 메인무대, 워터슬라이드와 맨손잡기 체험장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점은 바람직함. 주차 공간의 확충과 안내가 개선되어야 할 점임. 읍내 진입부에서부터 주차장 안내가 필요하며, 행사장 아래쪽 고수부지, 군청 인근의 대형 주차장 신설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샤워실과 탈의실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함. 맨손잡이 체험장,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 운영 본부 쪽 행사장에는 없었음<br>○ 지역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사장과 인접한 봉화신시장과 봉화 구시장 및 시가지 맛집, 상가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행사장 안내도 이외에 시가지 맛집 지도와 팜플렛 등의 제작, 시장과 시가지내 연계 행사와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 행사장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동선이 자연스럽게 지역 전통시장과 연결하여 지역상품권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지역 시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br>○ 관내 주요 계곡과 명소, 농촌체험마을, 민박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낮 시간 동안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축제의 공간과 무대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br>○ 입장권과 봉화사랑 상품권을 연계한 아이디어는 바람직함. 무더위 위생과 혼잡을 고려할 때 음식점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인근 시가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4) 축제 발전성 | ○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br>○ 축제위원회는 지역의 유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외부 축제 전문가나 교수 등을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영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축제 발전방향을 자문받을 필요가 있음<br>○ 은어잡이 등 체험행사를 유료화 한 것은 축제의 재정 자립과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임. 입장권에 상품권 3천원을 포함시킨 점, 통합매표소를 통해 전산발매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br>○ 은어를 테마로 한 물놀이 축제에서 개념적, 공간적으로 확장한다면 우수축제에 걸맞는 발전이 기대됨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축제위원회는 지역의 유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외부 축제 전문가나 교수 등을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영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축제 발전방향을 자문 받을 필요가 있음<br>○ 은어잡이 등 체험행사를 유료화 한 것은 축제의 재정 자립과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임. 입장권에 상품권 3천원을 포함시킨 점, 통합매표소를 통해 전산발매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br>○ 은어를 테마로 한 물놀이 축제에서 개념적, 공간적으로 확장한다면 우수축제에 걸맞는 발전이 기대됨 |

# 37 포항 국제불빛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7월 30일(목) ~ 8월 2일(일) / 4일간**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및 형산강체육공원 일원**
- **주 최 : 포항시**
- **주 관 : 포항시축제위원회, POSCO**
- **주요행사**
  - ○ 메인행사 : 멀티퍼포밍 국제불꽃쇼, Daily 뮤직불꽃쇼, 불의노래-빛의바다! 불빛쇼, 포항 불빛버스킹 페스티벌, 으랏차차! 대한민국 불빛퍼레이드, 으랏차차 대한민국 앉은 불빛 줄달리기
  - ○ 공연행사 : 심쿵! 불빛 금사빠(Bar), 모닥불 피워놓고, 불빛하모니, 불빛 락페스티벌
  - ○ 체험행사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두껍아 두껍아, Light 터널 체험, 불빛 promise 포토존, 영일대 샌드 썰매장, 포항의 5대 불빛을 찾아라, 불빛 마법학교, 불빛 연 날리기, 모래에 그리는 빛 그림, 식품과학 놀이터, 3D 프린터 체험, 불빛 우드버닝 메시지 쓰기, 불빛 추억만들기
  - ○ 기타행사 : 불빛 미술대전, 불빛 시티투어, 불빛 장터, 불빛축제 기념 오픈 배드민턴 대회,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 (2) 총 평

- **잘된 점**
  - ○ 2015년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미래를 비추는 창조의 불빛'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불과 빛의 도시 포항' 이라는 포항시의 지역이미지를 담아내는 축제로서, 지자체와 국가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함께 협력하여 축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서로 상생하고 있음
  - ○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기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축제기간 동안 기상 상태가 양호하여 불빛 연출 및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준비,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체계로 특별한 사고 없이 개최되었음

○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구체적으로 축제 세부실행 계획, 상황별 추진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축제운영매뉴얼 작성과 배부를 통하여 축제 관계자들간의 정보공유,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축제의 안정성을 기하였음

○ 음악과 함께 연출하는 Daily 뮤직불꽃쇼와 함께 빔 조명과 레이저를 이용한 파노라마 라이트쇼를 연출함으로 효과를 높였으며 관람객의 호응도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포항국제불빛축제의 핵심프로그램은 밤하늘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수놓는 '국제불꽃쇼'라 할 수 있으나, 이번에 참여한 국제팀은 한 팀 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제불꽃쇼와 국제불빛축제라는 명성에는 부족하고 미흡하였음

○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일원과 남구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장소가 이원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외지 방문객의 축제장소에 대한 혼선, 이동에 대한 혼란과 시내 교통 혼잡이 유발되고 있으며, 축제예산의 중복 지출 부담 등이 야기되고 있음

○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불빛 관련 다양한 산업의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넓혀 나가야 하며, 또한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많은 불꽃놀이와는 차원이 다른 포항의 차별화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함

○ 축제의 주제성과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대동형 놀이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참여하게 하는 역동적 축제로 만들어 가는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장소가 이원화되어 개최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타지의 방문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이동을 위한 불편함 등이 초래되었음<br>○ 또한 예산과 인력의 분산으로 인한 낭비적 요인과 교통의 혼잡 등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음<br>○ 불꽃축제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꽃과 불빛의 융합과 각각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엿보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국제불꽃쇼에 참여한 국가가 적고 연출, 내용면에서도 미흡함<br>○ 매일 뮤직 불꽃쇼와 함께 레이저 불빛 연출을 통한 연출 효과성이 증대되었음<br>○ 빛 콘텐츠 강화를 위한 Light 터널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콘텐츠가 미흡하고 관람객 참여가 저조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불빛하모니, 심쿵불빛금사빠, 불빛해변라디오 등 재미성을 제공하여 축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br>○ 지역의 민속 앉은 줄다리기 등을 통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관광객에게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흥미유발을 도모하였음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기간 중 무더운 날씨를 위한 편의시설 쿨존 등을 설치 운영하였나 설치장소 및 실내공간 면에서 실용성이 미흡함<br>○ 불꽃쇼가 열리는 형산강체육공원 관람석을 전체 통제함으로써 혼란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석 유료화를 통하여 축제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었음<br>○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먹거리를 위한 부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이면 도로 및 기존 한옥 휴게시설 등의 쾌적한 활용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운영이 필요함<br>○ 도로에 설치된 행사장 배치도는 중간 중간에 입간판 형태로 잘 설치되어있었으나, 배치도 자체가 주 동선인 인도에서 바라볼 때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혼란스러웠음<br>○ 잉키음악 공연 등이 넓은 백사장에서 공연되지 않고 인도 인근에서 공연됨으로 인해 구경꾼들로 인한 원활한 도보 통행이 방해되고 있었음<br>○ 샤워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길게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야기되었음<br>○ 텐트 및 취사 금지구역 현수막이 붙어 있는 구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 4) 축제 발전성 | ○ 포항시와 포스코라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축제로서 축제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음<br>○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불꽃축제와 차별화 및 경쟁 우위를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br>○ 축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유치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축제의 지역정체성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도록 하여야 함 |
| 5) 축제 성과 | ○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엄청난 피서 방문객들이 해수욕과 축제를 함께 즐기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음<br>○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거듭되는 개최에 따른 인지도와 더불어 장소적 특성 등에 힘입어 젊은층 및 외국인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 38 경주 신라소리문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8일(목) ~ 10월 11일(일) / 4일간**
- **장 소 : 경북 경주시 첨성대 일원(옛 신라 왕궁터)**
- **주 최 : BBS 불교방송**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등**
- **주요행사**
  - ○ 공식 행사 : 길놀이, 에밀레전 점등식, 개막식, 대동탑(등) 돌이
  - ○ 공연 행사 : 실크로드 공연, 신라소리, 전통승무, 청춘마당 등
  - ○ 전시·체험 : 鐘燈실물전, 산라 왕·왕비옷 입기, 전통 명주짜기, 신라복장 옷입기, 청국장 쿠키 만들기 등
  - ○ 부대 행사 : 신라관등놀이, 신라전통차 시음, 방문기념 포토존, 천연기념물 동경이와 함께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축제장에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지 않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민간(BBS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행사이며, 공공부문(경상북도, 경주시 등) 은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원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예 : 프로그램 발굴, 실크로드 경주 등과의 연계성, 홍보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핵심 테마(소리)를 활용한 전시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BBS 중심의 행사 기획임. 기획 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경주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기획 내용을 풍부히 하고 효율적인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br>○ 축제가 BBS 불교방송 주최로 기획 및 운영되기 때문에 BBS가 모든 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음<br>- 축제의 기획팀, 연출팀, 지원팀, 홍보팀 등 모든 부문에서 BBS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br>○ 민간 중심의 축제 기획 및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발전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민간부문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경주시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을 보완하다면 더 좋은 축제가 기획될 것으로 예상됨<br>-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지원(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경주시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경주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br>○ 소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상이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양적·질적 차원에서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br>- 양적 차원 : 소리 주제 프로그램 수<br>- 질적 차원 : 소리 주제 프로그램의 수준(메시지 전달력 등)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에밀레종 등 신라의 소리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메시지, 체험활동 등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향후 소리라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요구됨<br>○ 일반적으로 소리를 주제로 한 축제들은 노래, 음악 등이 중심 영역인데 본 축제는 에밀레종 등 신라의 종소리를 축제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br>- 주제 : 다시 살아 숨 쉬는 신라 천년의 소리<br>- 부제 : 신라 왕경에서 울리는 창조의 울림<br>○ 또한 동일시기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실크로드 2015 경주' 행사와 연계한 운영 등을 통해서 경주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이와 같은 핵심 주제(소리)를 활용한 콘텐츠로는 에밀레 주제곡, LED 종, 에밀레 주제관 등이 있으나 메시지 전달력은 다소 약하다고 평가됨<br>○ 오히려 경주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각종 체험 프로그램, 전시물 등)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방문객들도 대부분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핵심 주제 및 메시지를 부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br>– 목공예 체험, 손글씨 쓰기 체험 등에 방문객들의 활동이 집중되고, 야간 조형물 점등 등이 소리라는 축제 주제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축제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됨<br>○ 표면적인 주제를 신라의 소리(종소리)로 한정짓기 보다는 음악, 역사, 문화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맞는 명칭을 발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3) 축제의 운영 | ○ 행사장 부지가 개방적이어서 접근이 쉽고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임. BBS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경주시 소재 대학교 학생들이 진행에 참여하여 원활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br>○ 축제 장소가 개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확인하는데 용이하며, 축제장 외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됨<br>○ 경주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관광학 전공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안내와 행사 진행 등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객 기준 대비 원활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br>○ 행사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만 행사장이 2차선 왕복도로와 첨성대에 인접하여 자가용 주차 등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판단됨<br>○ 축제가 BBS 주최로 기획 및 운영됨으로 인해서 홍보 채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경주시 등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4) 축제 발전성 | ○ 경주시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행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본 축제는 의미가 있는 행사라 판단됨. 하지만 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 발굴, 경주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br>○ 경주시가 '신라'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본 축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4) 축제 발전성 | ○ 하지만 현재와 같이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가 지속된다면 경주시 차원에서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br>○ 경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의 비전, 목표, 전략, 사업 등과 연계하여 본 축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정리하고 세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야 본 축제 개최로 인한 효과를 제고하고 향후 지속적인 행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br>○ 현재와 같이 민간부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축제의 기획, 홍보, 운영, 성과 발굴 등 전반에서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통해서 경주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br>○ 경주시 자체가 우리나라의 주요한 관광목적지이며 본 축제 개최 시기에 '실크로드 경주 2015' 등의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본 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됨<br>○ 축제에 참가한 참가자들 역시 즐겁게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전반적인 만족도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됨<br>○ 본 축제를 통해서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이미지는 강화할 수 있지만 '소리'라는 주제와 연관된 이미지 형성 및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br>○ 향후 본 축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주 관광에 있어 본 축제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 39 산청 한방약초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5월 1일(금) ~ 5월 10일(일) / 10일간**
- **장 소 : 축제광장 및 동의보감촌 일원**
- **주 최 : 산청군**
- **주 관 : 산청한방약초축제 조직위원회**
- **주요행사**
  - ○ 한방·항노화 체험
  - ○ 산청혜민서 무료진료, 산청한약방재현
  - ○ 마당극'허준', 산청힐링 목화패션쇼

## (2) 총 평

- **잘된 점**
  - ○ 본 축제는 축제가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축제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모범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축제가 성장할 수 있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축제를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원할하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훌륭하나 부분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홍보 등 축제 규모에 비해 대표프로그램이나 행사장 설치 등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임. 특히 산청의 약초에 대한 슬로건이나 CI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널리 홍보하는 데에 비해 아직 지명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동의보감촌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매력물을 연계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부분이고 특히 대표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이슈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더 낼 필요가 있음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기획서는 프로그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행사취지나 운영, 방향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미래비전이나 장기적인 플랜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전략과 축제의 미래비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본 축제의 특성은 철저한 산업형 축제로 축제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음<br>-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 대표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에는 한방체험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복패션쇼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방약초와 연관되어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며 건강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br>-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축제 캐릭터개발 : 산청한방무료진료 등 실제 참가자 개인에게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차별화되어 있으나 제한적인 방문객에게만 혜택을 주어 보완이 필요하고 축제 캐릭터개발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를 브랜딩하거나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님<br>-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실제로 산청에는 펜션과 콘도, 휴양림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나 많은 방문객들이 산청의 숙박시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동의보감촌 등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와 셔틀 등이 부족함. 또한 야간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해가 떨어지면 귀가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보임 |
| 3) 축제의 운영 | ○ 일부 축제들이 대행사를 통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비해 본 축제는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의사소통이 원할하며 축제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반면 디자인이나 수용태세, 프로그램 등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 부분적으로 대행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br>- 홍보의 효율성면에서는 부산 등 대도시에 아치탑을 세우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소구를 하였다고 보지만 기사화 될만한 이슈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부족. 예를 들어‘50인의 한의사와 함께하는 산청의 아침’등 이슈가 될만한 키워드를 찾아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함<br>- 접근성 공간배치는 다소 혼란스런 부분이 있음. 물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사장에 들어섰을때 각각의 부스들이 정돈되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다소 산만하게 배치가 되어 있음. 주차장, 화장실은 워낙 준비를 많이 하여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축제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축제로 볼 수 있음. 특히 약초재배농가는 거의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부스를 유료로 전환하였음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임. 또한 안내 등 각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br>-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메뉴얼이나 기본계획 등은 잘 되어있으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대책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4) 축제 발전성 | ○ 본 축제는 산청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산업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으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br>- 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의 유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하다면 외부 축제 전문가나 교수 등을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영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축제를 보고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함<br>- 축제의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점점 중요시 되는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진주유등축제의 부교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축제의 재정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산청은 금년 축제부터 부분적으로 지역주민의 부스임대 등 자체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5) 축제 성과 | ○ 축제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한방약초산업을 육성한 결과 '한방 약초'가 산청군의 브랜드로 정착함<br>○ 산청군의 인구가 축제의 성공이후 조금씩 증가함(귀농인구가 늘고 있음)<br>○ 약초재배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09년 1,037 -> 14년 1,333) 축제를 통한 약초의 판매와 홍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12일(수) ~ 8월 16일(일) / 5일간**
- **장 소 : 문화마당(조선수군군영), 통제영 세병관, 이순신 공원 등 통영시 일원**
- **주 최 : 통영시, 해군진행기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 **주 관 :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 **주요행사**

○ 삼도수군 통제영 군점 및 통제사 행렬재현

- 400여년 전부터 삼도수군 통제영을 지휘하는 통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군무의 하나로서 군의 임무를 점검하고 전투력 향상과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통제영의 군점은 춘조와 추조로 매년 2회 실시하였는데 각 수군 진영 및 읍진의 군선·군사·집물 등을 포함한 제반 군사를 확인하는 군사훈련을 재현함

○ 한산대첩 학익진 재현 및 승전축하 주막

- 실제 한산대첩이 일어난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해양경찰과 관내 어선 100여척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진행되는 단일 행사로는 국내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행사로서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임

○ 김한민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명량' 다시보기

- 전국 1,700만 관객 동원의 역사적인 영화 '명량'을 상영하여 지역민에게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의 우수성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우고자 기획된 행사

○ 중국 진린제독 및 계금장군 후손 축제 초청 등 축제 세계화 추진

- 임진왜란에서 중국 광동성 운부시 출신의 명나라 장수, 진린제독과 온령시의 계금장군의 후손을 초청하여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초석 마련
- 올해에는 장수 후손뿐만 아니라 운부시와의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를 위하여 행정, 기업체 관계자가 초청하는 행사로 확대

○ 통제영 수책 가설

- 삼도수군통제영의 수문인 수책을 임시로 가설하여 통파수, 서파수의 군영분위기를 연출하고 현 동층 끝에서 남망산공원 입구로 해상을 연결하는 다리 가설

- 군점과 동층 끝에 가설할 수책(수문)을 지키는 동파수, 서파수와 문화마당임시 수항루와 거북선, 판옥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한산해전의 격전지 분위기 연출

## (2) 총 평

### 잘된 점

○ 전체적으로 올해의 통영한산대첩축제는 확실한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됨

○ 한산대첩재현과 군점 재현행사는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 열기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올해 축제는 한산대첩 정체성에 알맞은 다양한 소주제 발굴과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 축제장의 환경조성에 있어서도 주 무대인 강구안에 거북선이나 판옥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축제공간이 크게 문화마당과 세병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메인행사는 문화마당에서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세병관의 역사성이 덜 조명받는 느낌이 있어 축제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좁은 공간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나 보니 관람객들이 프로그램 개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따라서 축제장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현장 홍보 및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축제개최시기가 여름 성수기로 인해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일부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 주차 시까지 소요된 시간이 두 시간을 넘어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음. 따라서 축제 공간 활용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기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주요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축제 일정표 외의 정보는 없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일반적으로 축제기획서에는 기획목적,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축제 기획이 잘 이루어져야 하나 이번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이러한 축제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음<br>○ 단, 한삼도수군통제영 군점 및 통제사 행렬재현, 한산대첩 재현 미 승전축하 주막, 김한민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명량” 다시보기, 중국 진린제독 및 계금장군 후손 초청 등 축제 세계화 추진, 통제영 수책 가설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음<br>○ 이외에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은 이루어져 있지 않음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군점 및 통제사 행렬행사와 한산대첩 재현 행사임<br>○ 한산해전 재현은 실제 한산대첩이 일어난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행사로, 왜적의 배를 견내량으로 유인하여 학익진으로 적을 섬멸하는 광경을 극적으로 재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함<br>○ 삼도수군통제영 군점 및 행렬재현은 한산대첩 승전 축하 의전행사와 300년 삼도수군통제사께서 매년 2차례 진행하던 군사점호를 연출한 행사로 통제영 세병관에서 군점재현이 끝나고 통제사를 중심으로 행렬을 지어 병선마당(현 문화마당)까지 행렬을 재현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뚜렷이 부각시킨 프로그램으로 평가됨. 단, 세병관을 중심으로 군점행사가 있어 노출이 쉽지 않았으며,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해설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김한민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명량” 다시보기 행사는 김한민 감독을 초청하여 충무공에 대한 감독의 인식과 영화의 제작배경, 향후 한산대첩에 관한 영화 제작의도 등을 청취함으로써 관광객, 지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음<br>○ 축제의 세계화 차원에서 추진된 중국 진린제독 및 계금장군 후손 축제 초청 행사는 통영한산대첩 홍보와 함께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된 행사로 축제의 중화권 진출, 세계 4대 해전에 대한 국가별 교류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br>○ 올해 축제는 공연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이순신학교, 통제영학당, 통영전통공예 만들기, 조선수군훈련, 전통놀이 체험, 통제영12공방 체험 및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도남동 해양레저체험 블루오션 파크와 병선마당 해양레저스포츠체험, 한산풀장 등 친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은 높이 평가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여러 단체의 홍보 및 체험부스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아 차년도 축제 개최시 신청기관의 심사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br>○ 한산대첩 축제의 메인 공간중의 하나인 통제영은 대부분 공연 내지 전시행사가 많아 방문객이 많지 않으므로 축제공간 활용 차원에서 통제영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강구안 병선마당이 축제의 메인 장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영에서 주요 행사가 이루어지는 조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산대첩의 교육적, 역사적 이야기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통제영 활용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br>○ 세병관에서는 대한민국탈춤제가 개최되었는데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세병관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진지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어땠을 까 하는 생각도 듬. 실제로 공연프로그램 중 일부 방문객들은 세병관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으나 공연이 열리는 바람에 안내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음<br>○ 축제가 강구안과 세병관 등에서 개최되어 중앙시장, 동피랑 등과의 인접해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단, 통영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인 문화유적지, 한려해상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축제 참여증대를 위해 축제 안내 팜플릿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축제와 관광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사전 접수 및 선발 관리하는 등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됨. 특히 기관단체 및 모범운전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관리와 거리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그러나 축제방문객에게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축제장까지의 대중교통 임시구간 지정 운행 및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 편의 제공하여 축제참여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br>○ 주 무대가 설치된 강구안 병선마당에 거북선이나 판옥선 등 주제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장점이 있었으며 전통시장과 인접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은 통영한산대첩축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됨<br>○ 축제장 곳곳에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행사장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방송시설 등을 완비한 점은 높이 평가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올해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장인들과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체험콘텐츠를 보강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공연과 체험을 확대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됨<br>○ 축제의 운영에 있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임. 축제기간 중 많은 관광객들이 통영을 방문함에 따라 매년 고질적인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부족 등에 따른 관람객의 불편이 커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br>○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축제가 개최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 등 축제장 인근을 찾으면서 혼잡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광객 분산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4) 축제 발전성 | ○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세계 해전사에 기록되는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축제로서 확실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축제로 발전 가능한 축제라고 사료됨. 더욱이 최근 영화 “명량”의 성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조명됨으로써 당분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br>○ 최근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 동피랑 마을, 중앙시장 활성화 등으로 통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한산대첩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됨<br>○ 축제개최에 있어 진해해군기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개최되는 만큼 이 축제는 통영시만의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음<br>○ 통영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와 문화예술인 배출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예향으로서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은 것은 통영한산대첩축제의 미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임<br>○ 통영시는 명나라 진린제독의 고향인 중국 광동성 운부시 운안현 사람들을 초청하는 등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5) 축제 성과 | ○ 통영의 전통과 문화, 한산대첩의 승리와 평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발, 세계 속의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은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가장 큰 성과임<br>○ 특히 한산대첩축제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한산대첩 재현 및 삼도수군통제영 군점재현이라는 킬러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집중하고 있으며 연차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관람객의 재미와 참여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높이 살만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 --- |
| 5) 축제 성과 | ○ 또한 축제의 가장 큰 성과는 통영을 남해안 제일의 관광도시로 각인시켰다는 것임. 물론 축제만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근 통영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괄목할만한 관광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축제가 지역브랜드 및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임<br>○ 마지막으로 한산대첩축제는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 오락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의 전형적인 역사교육형 축제로 평가할 수 있음 |

# 41 마산 가고파국화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10월 30일(금) ~ 11월 8일(일) / 10일간**
- **장 소 : 마산항 제1부두 일원**
- **주 최 : 창원시**
- **주 관 : 마산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주 제 : 희망의 꽃, 도약의 꽃
○ 슬로건 : 바다품은 오색국화 - 빛나는 창원
○ 구 성 : 개막행사, 폐막행사, 국향대전, 특별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 공식행사 : 개막행사, 폐막행사
- 국향대전 : 국화작품 8개 분야 / 7,600점, 꽃 생산 / 92,400본
- 전시행사 : 국화분재, 분재, 수석, 야생화 등
- 문화행사 : 국향콘서트, 오싹무도회(할로윈데이), 청소년 춤페스티벌 등
- 경연행사 : 국화가요제, 국화 꽃그림 그리기 대회 등
- 체험행사 : 국화주 시음, 국화떡 만들기, 국화비누 만들기 등 국화관련 체험
- 판매행사 : 국화차, 국화음식, 국화공예, 국화된장 등
- 기원행사 : 소망탑(국화작품) 탑돌이 및 기원문 쓰기
- 특별행사 : 국화축제 홍보관, 국화산업 홍보관, 지역특산물 홍보관, 해양레포츠 체험

- **주요행사**

○ 전시장 조성 및 연출
- 바다를 살린 축제장 조성과 랜드마크 의미를 담은 '갈매기의 꿈' 설치
- 출입공간, 전시공간, 공연공간, 체험공간으로 독립적인 공간 체계 마련
○ 체험·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 국화작품 전시 단순 관람형에서 국화를 컨셉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충
- 국화를 테마로 하는 경연행사 및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는 공연행사 진행

- 스탬프-투어 실시로 창원시 주요 관광지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 홍보기법 및 집객효과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축제 소개 및 고객을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전개
-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

○ 축제평가 및 환류 기능

-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기관 평가 의뢰
-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관광객 의견수렴을 위해 '축제 사후 설문조사' 시행

## (2) 총 평

### 잘된 점

○ 축제 명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국화'라는 명확한 컨셉을 지니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재인 축제임

○ 전체적으로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등이 모두 우수함. 특히, 시설과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2014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음

○ 시설 측면에서 꽃벽, 지역주민 공모 꽃조형물,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최다 다륜대작 등이 매우 인상적임

○ 아울러, 장소적 특이성을 살린 디지털 불꽃쇼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으며 야간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함

○ 국화는 창원시의 주요산업으로서 국내 국화 생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창원시가 축제장에 국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안전관리 측면에서 사전에 응급처치 교육 실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 무엇보다도 창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축제기획매뉴얼, 안전매뉴얼을 수준 높게 기획, 제작하여 각 부서 간 공유하고 있음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국화조형물, 테마원 등은 매우 인상적이고 이색적이었는데 콘텐츠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전체적인 테마를 부여하여 그 테마에 맞게 조형물과 테마원을 꾸민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스토리적일 것임. 도심 속의 국화테마파크 개념으로 스토리텔링이 요구됨

○ 이 경우, 매년 테마를 다르게 한다면 늘 새로운 축제라는 느낌을 받을 것임. 그렇지 않

다면 내년에도 잘 만든 조형물을 감상하는데 그쳐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음

- ○ 축제장과 지역자원 및 지역상권 간의 연계성 강화가 요구됨. 단순히 축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체류하고 창원 내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함
- ○ 자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스폰서십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 마련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임

### 제안사항

- ○ 첫째, 축제의 명확하고 이색적인 테마 설정이 요구됨. 매년 테마(주제)를 선정하여 그 테마에 맞는 다양한 국화조형물을 공모/발굴한다면 재미도 더 해질 것이고 다음 축제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것임
- ○ 둘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 강화 부분이 요구됨. 축제의 주인공을 설정하고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축제 기획의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음. 스토리와 축제의 시설/프로그램이 상호 일맥상통해야 함
- ○ 셋째, 관광객 체험 편의와 수익 증대 측면에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단순히 입장료라면 반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장흥 물축제와 같이 입장료의 일부를 유네스코에 기부한다든지, 국화축제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등으로 활용한다면 관광객도 동의할 것임
- ○ 넷째, 축제와 지역 숙박을 연계하는 체류형 상품 개발이 필요함. 축제장과 숙박시설 밀집지역이 다소 거리가 있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나 행사장과 숙박장소 간의 야간관광거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함. 아울러, 축제 홍보물에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체계도 함께 수록함
- ○ 보다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가고파국화축제는 창원시 및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축제의 기획, 관리운영, 결산까지 추진하고 있음<br>○ 축제 기획의 목적이 영리 목적보다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여가공간 창출 등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br>- 대표 프로그램인 국향대전은 국화작품 8개 분야 7,600점이 전시되고 세계최대 다륜대작이 전시되는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임<br>- 다만, 국향대전에 테마와 스토리를 부여한다면 보다 재미있고 오래 기억남는 축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매년 테마(주제)를 달리함으로서 늘 새로운 축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br>○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br>- 가고파국화축제는 국화라는 식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로 매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이 있는 축제임. 많은 관광객 참여가 축제의 특이성과 매력성이 높은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음<br>○ 타 축제와의 차별성<br>- 우선적으로 살아있는 식물을 소재로 한 것부터 차별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국화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br>- 아울러, 지역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서 지역참여를 적극 유도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음<br>- 또한 행사장소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br>- 아쉬운 점은 국화로 만든 하드웨어, 시설은 우수하나 콘텐츠는 다소 미흡함. 국화를 통해 창원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육성시키고자 하는 분야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br>○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br>- 지역자원인 국화를 활용하여 축제로 발전시킨 부문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br>- 단지 아쉬운 점은 행사장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창원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함. 예를 들어, 축제와 숙박시설 간, 축제와 관광자원 간의 연계 방안이 요구됨 |
| 3) 축제의 운영 | ○ 축제운영의 효율성<br>- 축제장 내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창원시, 자원봉사자,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음<br>- 아울러 지역주민과 국화 관련 생산자, 동호회 등의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이들이 직접 해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안내판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함<br>- 또한, 관광객을 찾아가는 찾아 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많은 진행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관광안내부스 및 거점부스에 집결해 있는데, 거점구역에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사진도 찍어 주는 등의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음. 행사장 곳곳에서는 진행요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음<br>-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요구됨. 국화축제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 명찰을 발부하거나 유모차를 대여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함<br>○ 축제 기획의 전문성<br>- 다른 축제와는 달리 공무원이 직접 기획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실제 작성된 계획서와 매뉴얼은 전문업체의 계획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임<br>- 그러나 국화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발전목표와 로드맵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됨. 타 지역에서 유사한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목표와 로드맵을 통해 국화축제가 가져가야 할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부족한 스폰서십, 기념품 제작, 스토리텔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br>- 국화조형물이 창의적이고 작품 수도 많은 반면,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국화꽃 품종에 대한 해설이 없어, 관광객들이 아쉬워함<br>- 축제 시설 전반적으로 해설판 등 해설 서비스가 아쉬웠음. 해설 서비스만 보완해도 더 좋은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음<br>- 방파제 쪽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방파제가 드러나 경관적인 아쉬움이 있음. 이에 방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듯함. 방파제 돌 사이에 국화를 꽂는다든지, 그림을 비치한다든지 방파제라는 생각보다는 큰 야외 캠퍼스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듯함. 스폰서 광고도 가능함<br>- 실내시설 내 동선이 좁아 혼잡도를 유발함. 특히 국화차 시음 등의 곳은 매우 붐빔<br>○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br>- 지역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국화조형물을 만들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국화생산자들의 협조가 또한 양호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br>- 2014년에 비해 행사장 환경 및 편의시설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일부 해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음<br>- 아쉬운 점은 일시에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현상이 국화축제에서도 일부 나타남. 특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팜플렛, 안내판 등에 화장실 위치도를 알려 줄 필요가 있음<br>- 주차시설은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주차안내서비스가 부족함. 주차요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눈에 띄지 않았음. 또한, 주차동선과 도보동선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었음<br>- 우천 시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발생하므로 바닥 관리가 필요함<br>○ 축제 안전관리체계<br>- 축제 안전관리 계획은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축제 기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br>- 또한, 사전 재해대처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구성 운영, 119 안전센터 운영 등이 인상적임<br>- 다만 아쉬운 점은 연간 축제안전관리계획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역주민, 관광종사원의 사전 안전교육지침서로 활용해야 할 것임 |
| 4) 축제 발전성 | ○ 지자체장의 육성의지<br>- 현재 창원시의 축제 육성에 대한 의지는 매우 높음<br>- 다만, 아쉬운 점은 지자체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해외 외국인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br>- 아울러, 국화축제의 백서 제작을 통해 축제의 역사, 성공사례, 성과 등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 백서는 국내 최고의 국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 변경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br>○ 축제조직체 구성 및 축제 재정자립도<br>- 축제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이 매년 축제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참여가 축제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br>- 아쉬운 점은 축제의 규모와 인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축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수익성 강화<br>-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관리운영의 효과성을 위한 재투자 측면에서 재정 확충이 요구됨. 다양한 기념품 개발, 스폰서십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br>- 예를 들어, 자체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국화 물들인 국화 티셔츠를 판매하고 여기에 주최 측에서 인증도장을 티셔츠에 찍어 줄 경우, 기념품으로 매우 호응이 높을 것임<br>- 아울러, 국화빵이나 국화떡을 지속적으로 계량해서 특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올레꿀빵 등이 예임<br>- 물론 이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자체 수익을 위한 노력은 필요함<br>- 보관함을 설치하고 부담되지 않는 요금(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아도 되고, 기념엽서 판매 및 지인에 송부 등이 가능함<br>○ 관광객 유발 효과<br>- 2015년 기준 약 1백만명 정도의 관광객 유발 효과가 있음<br>- 다만, 국화축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고민해야 할 것임<br>○ 지역 경제파급 효과<br>- 축제 참여자들이 창원시 전역으로 분산되어 지자체 전체의 지역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은 다소 부족함<br>○ 관광객 만족도<br>-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굴하고 관광객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볼 수 있었음 |
| 6) 기타 의견 | ○ 코레일과 연계를 통한 이색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br>- 코레일과 연계한 국화열차를 운행하고 열차 내에서 국화차 제공 등 이벤트를 제공한다든지 용산역, 서울역 등 거점역에 국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국화 축제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임<b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br>- 축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관된 축제 어플리케이션은 부재한 상태임<br>- 스마트폰으로 PC버전 축제내용을 보면.. 구축한 내용이 깨지는 경우가 있음. 이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요구됨(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br>- 아울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날씨, 교통 등 실시간 안내가 필요함<br>○ 외국인 모객 및 브랜드 강화<br>-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 - 아직까지 국화축제가 수도권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서울시 및 광역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함. 예를 들어, 서울시와 협약하여 창원시는 서울거주자에게는 기념품, 할인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 관광안내소 등에 축제를 홍보해 줄 수 있음<br>○ 축제 T-셔츠 제작 및 분위기 확산<br>- 보령머드축제는 주황색 축제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기만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주어, 1년 중 축제기간에는 착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분위기를 확산시킴<br>- 이에 국화축제와 관련된 티셔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1년에 축제 때 입기 운동을 전개함 |
| 6) 기타 의견 | ○ 축제명 검토 필요<br>-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가고파는 창원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브랜드라고는 하나, 축제를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고파'이라는 의미를 모름. 특히, 축제장 어디에도 '가고파'에 대한 홍보가 없는 실정임<br>- 인지도 높은 축제의 경우, 단순하게 '지역+축제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br>-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명칭이 한 눈에, 한 귀에 들어오지 많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어려움. 마산과 가고파, 2개의 의미를 국화축제와 함께 인지시켜야 하기 때문임<br>- 이에, '마산국화축제'로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축제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요구됨<br>- 현재의 축제 명을 유지할 경우, 홍보물에 가고파를 먼저,, 작게 쓰던지, '가고파, 마산국화축제'으로 쉼표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 42 제주 들불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3월 5일(금) ~ 3월 8일(일) / 3일간**
- **장 소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
- **주 최 : 제주시**
- **주 관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주요행사**
  - ○ 체험 행사 : 오름불놓기 , 무사안녕 횃불 대행진, 오름"눌"태우기, 전통 아궁이 체험, 힐링쉼터운영, 축제캐릭터 만들기 체험, 제주의 소릿길 체험, 제주전통음식 체험 코너, 들불 희망트리 만들기 체험, 들불 연날리기, 들불희망기원제, 별빛누리 체험, 부리부리가 고민을 태워 없애요!, 희망기원 마당운영, 오름트레킹 체험, 잔디 썰매장 운영, 들불 운수대통 이벤트, 들불 소원주머니 만들기, 승마 체험 교실, 도민대통합 줄다리기
  - ○ 경연·공연행사 : 희망기원 전도 풍물 대행진, 들불축제 성공기원 플래쉬몹 '들불과 함께 춤을', 들불축제 성공기원 '들불 음악회', 제주도민 들불 프린지 무대, 희망기원 교류도시 특별공연(독일 민속공연), 개막공연"들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 세계문화 교류 특별공연(제주·중국·미국·독일), 마상마예 공연, 축제사진 전국 콘테스트, 들불과 함께하는 젊음의 축제, 들불특집 "우리동네 차차차", "눌" 만들기 경연대회, 집줄놓기 경연, 듬돌들기 경연대회, 넉둥베기 경연대회 등
  - ○ 야간 행사 : 대형 희망 불씨 점화, 희망의 메시지 써주기, 오름정상 화산불꽃쇼, 오름 레이져 타이프 그래피티쇼(도민, 관광객 소원 레이져쇼),
  - ○ 기타 : 제주 청정 농·수·축산물 장터 운영(들불축제에 '큰 장'이 열리다), 마조제 및 말사진 전시운영, 외국인전용카페운영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제주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매년 늦겨울에서 경칩에 이르는 기간에 불을 놓았던 옛 목축 문화인 들불놓기 「방애」

와 고유의 전통민속을 재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축제로써 제주의 지역적 고유성을 살린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 2015제주들불축제는 축제 개최시기를 좀 더 따뜻한 경칩 주간으로 조정하고, 축제일정을 3일에서 4일로 조정하였으며, 메인프로그램인 '오름불놓기'를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 야간에서 셋째날 토요일 야간으로 변경한 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서부소방서가 주관하는 방화선 구축, 소방차 대기, 소방대원의 상주, 관람객 통제 등 축제장 화재안전대책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이루어짐
- 축제 주제 및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들불축제 스마트폰 전광판 만들기 경연, 제주들불 운수대통 이벤트, 제주들불 희망트리 만들기 체험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그동안 18회 축제를 개최하면서 형성된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수축제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됨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제주 들불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 컨셉과 운영, 공간장 구성,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편과 로드맵이 필요하며, 전문가(전문조직)이 상시 기획·마케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축제 지정을 계기로 들불축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지금처럼 행정(공무원)이 주도하는 축제로는 최우수 축제는 물론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제주시는 물론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의 일환으로 들불 축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도차원에서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들불축제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및 인프라의 국제화와 함께 재정확충 방안이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축제장 공간 구성 및 연출에도 향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공간 연출의 키워드는 들풀로 가득한 제주 중·산간지대 목초지의 거친 자연의 분위기 즉, 야생성(wildness)을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로써 관람객들이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칠면서도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임
- 제주의 고유 목축문화에서 출발한 축제 배경을 고려한다면 제주의 목축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듬돌들기처럼 좀 더 제주다운 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축제의 진행도 소원을 기원하는 진지한 의례(儀禮)행위와 절차를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메인 행사인 오름불놓기의 경우 불을 붙이고 타오르는 순간인 클라이막스에서 메인무대 사회자의 시끄러운 마이크소리와 음악, 축제장의 어지러운 불빛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였으며, 진지함과 관객들의 감정의 변화를 고려한 축제 진행이 필요함.

○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걸맞은 수용태세 구축을 통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축제 개최시기를 좀 더 따뜻한 경칩 주간으로 조정하고, 축제일정을 3일에서 4일로 조정하였으며, 메인프로그램인 '오름불놓기'를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축제 마지막날인 일요일 야간에서 셋째날 토요일 야간으로 변경한 점은 관광객 유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br>○ 주제 및 프로그램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공모, 최우수작으로 선정한 '들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를 2015년 축제 주제로 채택, 공모 결과 78건 중 '제주 들불 플래쉬몹' 등 8건을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점은 시민참여형 축제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br>○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장내 기반시설과 행사장내 진입로를 확장하여 예년에 비해 축제장 진입과 교통 체증을 완화한 점은 긍정적임. 축제장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면서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무대 주변을 잔디블럭으로 포장한 점은 잘된 점이면서도 들풀축제의 정체성인 야생성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점임<br>○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된 만큼 지역화합형 축제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축제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함. 지역 주민 화합을 기본으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적인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들불축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함<br>○ 제주 들불축제의 기획과 운영이 제주시의 주도로 이루어져 일사분란하고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지금처럼 행정(공무원)이 주도하는 축제로는 최우수 축제는 물론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축제 컨셉과 운영, 공간구성, 프로그램의 전편적인 개편과 로드맵이 필요하며, 전문가/전문조직이 상시 기획·마케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br>○ 축제 컨셉과 공간 구성, 연출은 개선이 필요함. 관람객이 들불축제에서 '무엇을 느끼도록 할 것인가'의 핵심은 제주의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과 함께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문화일 것임.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따라서 들풀로 가득한 제주 중산간지대 목초지의 거친 자연의 분위기 즉, 야생성(wildness)을 연출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람객들이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칠면서도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도록 연출하는 것이 핵심 컨셉이 되어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들불을 통한 소원의 기원이 핵심 주제가 될 것임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오름 전체를 태우는 들불의 웅장함은 이벤트나 축제로서 국제도시 제주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br>○ 새별오름을 통째로 태우는 '오름불놓기'와 오름불놓기 직전의 '눌태우기', 오름불놓기 후의 '오름정상 연화연출 및 레이저쇼' 등의 프로그램은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하여 차별적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음<br>○ 제주도의 도내 풍물패가 참여하는 대규모 풍물놀이(대동놀이), 오름 "눌" 만들기 경연대회, 마지막날에 진행된 지역특산물 그랜드세일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축제 콘텐츠는 주민들의 화합과 자부심 고양, 나아가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br>○ 2015년 들불축제에서는 '들불축제 스마트폰 전광판 만들기 경연', '제주들불 운수대통 이벤트', '들불 희망트리 만들기 체험', '부리부리가 고민을 태워 없애요!' 등 관람객들이 직접 소원지를 작성하여 본인의 소원을 비는 프로그램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음<br>○ 기마경찰대와 사진찍기, 소방관과 함께 한 소화기 작동법 등의 체험프로그램은 부대행사였음에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의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들불축제의 개최 배경과 포스터를 전시한 종합홍보부스도 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관람객의 방문이 많았음<br>○ 킬러콘텐츠로서 '오름불놓기'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매우 차별적이며 압도적인 콘텐츠로 평가됨. 다만 들불축제는 불을 소재로 하는 특성상 메인프로그램의 진행이 야간에 그것도 축제 3일째 단1회에 이루어지므로 '눌' 만들기, 마상마예공연 등의 몇몇 프로그램이 있으나 주간에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프로그램의 행사가 다소 빈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br>○ 프로그램 연출은 분야별 외주를 주다보니 통일성있는 연출이 부족하므로 총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설정하고 연출할 필요가 있음<br>○ 제주의 고유 목축문화에서 출발한 축제 배경을 고려한다면 제주 목축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더 제주다운 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은 줄이고 제주다운 체험 및 경연행사는 금년 진행한 듬돌들기 경연대회, 넉둥베기 경연대회, 마상마예공연 등 축제의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2) 축제 특성/ 축제 콘텐츠 | ○ 부스에서 제공되는 체험행사는 다소 단순하고 진행이 미숙하고, 참여도도 떨어지므로 기존의 부스형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리부리가 고민을 태워 없애요!'등 일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작성한 소원지를 좀 더 격식있게 태우고 소원을 기원하는 일련의 의례행위를 추가하는 등 참여의 진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br>○ 축제장 공간 구성에 있어 메인 구역(zone)에 야시장 상인들이 입지하고 주민부스들은 뒷편 또는 주변으로 배치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상인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들의 참가가 불가피 하더라도 축제장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br>○ 현수막으로 제작된 메인 게이트의 디자인은 들풀축제에 대한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느낄 수 없었으며, 억새와 들풀로 연출할 필요가 있음. 행사장 주변에 성화도 한 개소가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야간 경관연출을 위해서는 행사장 좌우측 능선부에 다수를 설치하는 등 축제 공간 전체를 활용한 연출이 필요함<br>○ 주차장 확보 및 배치도 고민해야 할 문제임. 축제 끝난 후 차량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빚어지는 정체현상은 불가피 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함. 축제장은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하거나 제주목축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축제장의 사계절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3) 축제의 운영 | ○ 어떤 축제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경찰과 자원봉사자에 의한 주차 및 안내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서부소방서가 주관하는 화재 안전사고 대비도 완벽할 정도로 훌륭했음.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공무원들을 역할을 분담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함<br>○ 임시정류소, 주차질서요원 배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견인차량 임차, 주진입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등 교통관리가 원활하였음. 다만 임시화장실 확충 등 매년 지적된 화장실 부족문제를 개선했다는 하지만 여전히 화장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음<br>○ 축제기간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을별로 제공한 점은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장점이며, 그 자체로 훌륭한 축제 콘텐츠가 되었음. 지역주민이 해당 마을부스에 와 머물고 함께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광객을 위한 판매시설 중심의 부스만 운영되는 타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음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메인 행사인 오름불놓기의 전반적인 진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소원을 기원하는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축제 행위를 통해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불을 붙이고 타오르는 순간 클라이막스에서 메인무대 사회자의 시끄러운 진행과 음악, 축제장의 불빛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였으며, 관객들의 감정선을 고려한 축제 진행이 필요함<br>○ 메인스트리트 운영 부스는 6시면 대부분 문을 닫고 철시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향토음식점의 청결, 서비스도 개선 필요함<br>○ 축제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행사장내 설치된 부스의 야간 조명을 좀 더 다채롭게 또는 통일성 있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행사용 천막도 들불축제에 걸맞게 디자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br>○ 행사장내 안내방송은 영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어 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타 '외국인 관광객 전용쉼터'등을 준비했으나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카페부스였으며, 따라서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무했음 |
| 4) 축제 발전성 | ○ 우수축제 선정이후 축제 발전을 위한 제주시의 의지가 높아 향후 축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무엇보다 2015년 축제시기와 일정, 프로그램, 주민과 관광객 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br>○ 2015 제주들불축제의 슬로건인 '들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처럼 제주 입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축제의 국제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선정으로 평가됨<br>○ 특히,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의 기호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특히 여행업계와의 협조로 축제장을 방문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제주다운 전통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먹거리 및 편의공간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br>○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 방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매력 요인이 있어야 함. 따라서 연계이용시 할인제도 등 들불축제와 지역관광자원과 적극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br>○ 국제적인 들불축제 인지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등 들불축제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향후 제주도 전체 관광전략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제주들불축제 국제화전략 및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br>○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걸맞은 수용태세 구축을 통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필요함 |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5) 축제 성과 | ○ 2015 제주들불축제에서는 기존 15% 정도의 프로그램을 퇴출하고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주들불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였음. 무엇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점은 잘된 점임<br>○ 국제우호협력도시(5개국 12개 도시)에 대해서는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행업계·관광협회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 강화하는 등 국제화노력을 추진하였음<br>○ 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축제 국제화의 준비나 통번역 서비스지원에도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임<br>○ 축제장을 사계절 활용 가능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였음<br>○ 기존 금~일 개최하던 것을 목~토로 일정을 변경하여 관광객 유인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오름불놓기를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고 4일로 일정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있었음<br>○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불축제의 명확한 지향가치(value)와 중장기적인 육성로드맵이 없다보니 18년째 큰 틀에서 축제의 형식이 변화가 없으며, 신규 조성되는 인프라도 도시공원 조성 맥락에서 포장과식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임 |
| 6) 기타 사항 | ○ 기타 본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평가에 제주시는 큰 관심이 없었음. 이는 축제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지만 지원금은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집행됨에 따른 것으로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브랜드 효과는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직접적인 예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됨 |

# 43 제주 도두오래물축제

## (1) 개 요

- **기 간 : 2015년 8월 14일(금) ~ 8월 16일(일) / 3일간**
- **장 소 : 제주시 도두항, 오래물광장 일원**
- **주 최 : 도두동 주민센터**
- **주 관 : 도두오래물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 대표프로그램 : 오래물 용천수 체험-분수터널, 에어바운스, 발담그기, 노천당 체험
  - ○ 기타주제 프로그램 : 도두봉 올레길, 보물찾기, 수산물잡기 체험
  - ○ 체험 프로그램 : 노래자랑, 럭셔리 요트타기, 전통향토음식 만들기 체험
  - ○ 차별화 프로그램 : 물을 이용한 과학체험, 물폭죽, 쿨링포그, 한라민속예술단 공연, 장애인과 함께하는 올레길 걷기 등

## (2) 총 평

- **잘된 점**
  - ○ 작은 축제(마을형 축제)로서의 전형을 보여줌. 전체 주민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자생적 축제모형을 보여주고 있음
  - ○ 도두오래물은 지역적으로 귀한 자원이며 관광적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오래물 노천목욕탕의 경우 제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관광매력을 지니고 있음.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여름시즌 제주를 갈 때 반듯이 들려야 할 만큼의 관광적 가치가 높음
  - ○ 마을 분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방문객에게 환대하는 모습은 제주다운 인간적 매력을 전하고 있음. 규모는 작지만 재미있는 구성과 공동체를 보여주는 축제임

-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
  - ○ 문화관광축제의 범주를 재조정하여 도두오래물축제의 경우는 '강소형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 현재의 다른 문화관광축제 수준과 비교했을 경우, 규모, 서비스, 콘텐츠(특히 핵심콘텐츠),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축제기획이 전문가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주제와 상관없는 것이 많아 조정이 필요함.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현재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형 축제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문화관광축제로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함

## (3) 항목별 평가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1) 축제 기획 | ○ 전년도에 비해 용천수를 활용해 쿨링-포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음<br>○ 축제기획은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으며, 용천수 체험을 중심으로 분수터널, 용천수 어린이 놀이터, 지암석 발담그기, 노천창 운영으로 이루어짐<br>○ 하지만 아직 축제기획서에 담겨야할 축제 컨셉, 주제, 방향,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함<br>○ 전반적 기획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축제 기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문기획가 또는 대학 등의 전문연구소 등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
| 2) 축제 특성/<br>축제 콘텐츠 | ○ 오래물이 주제이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래물 용천수 체험'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음. 오래물 노천탕의 경우 매우 이색적인 경험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함<br>○ 올레길과 연결되어 있어 도두봉 올레길 걷기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주변 도두항을 활용하여 요트타기 프로그램, 전통 향토음식 만들기, 바닷물고기 맨손잡기, 노래자랑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br>○ 개막식은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개막 선언 시 물폭죽 등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음. 하지만 지역인사들의 노래공연 등은 '문화관광축제'급의 행사로는 맞지 않는 수준이었음<br>○ 차별화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것 중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올레길 걷기 및 장애인 체험 등은 의미있는 프로그램임. 하지만 다른 공연, 불꽃놀이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타 축제와 차별화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br>○ 전반적으로 마을 수준에서는 의미있고 공동체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아직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할만한 규모와 콘텐츠, 운영방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제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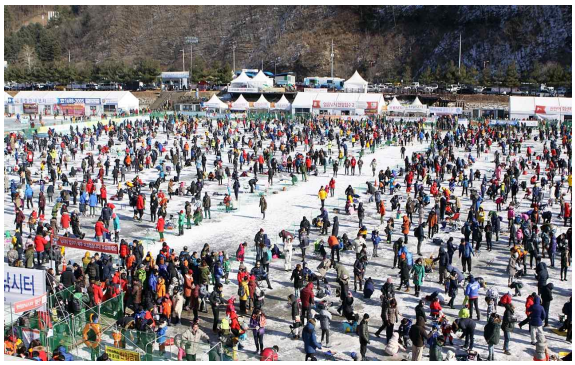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
| 3) 축제의 운영 | ○ 음식부스에서 고유의 향토음식 만들기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빙떡, 메밀범벅, 상애떡 등 제주의 전통음식을 선보이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br>○ 대부분의 행사가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본 축제의 자랑거리임<br>○ 다만, 전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계획서가 부족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함. 특히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축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구비하고 미리 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 4) 축제 발전성 | ○ 지역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음.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치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br>○ 발전적 축제조직을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설조직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음. 향후 민간의 상설조직을 구축하여 기획안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br>○ 축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함. 축제 전반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협찬과 상품판매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
| 5) 축제 성과 | ○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문객 1만 5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요트와 카약체험에 1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br>○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협력성과 공동체성을 높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br>○ 축제 주요 방문객은 아직 지역주민과 도민중심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핵심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제 운영의 혁신 등 전반적 개혁이 필요함<br>○ 향후 본 축제는 일반적인 문화관광축제와는 다른 차별화된 축제발전모형을 구상할 필요도 있음. 따라서 축제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매년 축제의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 축제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br>○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 제주시 역시 도두오래물축제 같이 '작지만 강한 매력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 제도 이외에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V 축제별 이미지



# 1 2015 대표축제

## 〈 화천산천어축제 〉



산천어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 〈 김제지평선축제 〉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 2 2015 최우수축제

## 〈 추억의7080충장축제 〉



전국 거리 퍼레이드



충장 댄스 대형 플래시몹

## 〈 이천쌀문화축제 〉



무지개 가래떡 뽑기



용 줄다리기

##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자라섬 국제 재즈 콩쿠르




국제 재즈 페스티벌 공연

## 〈 강경발효젓갈축제 〉



젓갈 김치 담그기



왕새우 잡기

## 〈 무주반딧불축제 〉



반딧불이 곤충생태 체험관



마을로 가는 축제(무주의 삶 체험)

## 〈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



뽕할머니 전설 재현

## 〈 강진청자축제 〉



명품청자 전시 판매전



관광객과 함께하는 청자 운반 행렬

## 〈 문경전통찻사발축제 〉



도자기 빚기



다례체험

## 〈 산청한방약초축제 〉



도전 허준 골든벨



한방과 융합한 항노화 체험관 운영

# 3 2015 우수축제

## 〈 평창효석문화제 〉



물가 동네 한마당



연인을 위한 풍등 날리기

## 〈 부여서동연꽃축제 〉



서동의 노래 공연



연지탐험

## 〈 순창장류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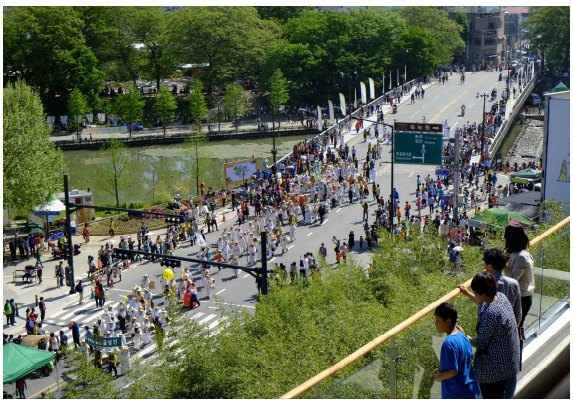


2015인분 순창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 〈 담양대나무축제 〉



추억의 죽물시장 재현



죽마고우 문화 학교



뮤지컬 가야금 공연



대가야 생활 체험

## 〈 봉화은어축제 〉



은어 잡이



어족 자원 보호 워터 슬라이드

## 〈 통영한산대첩축제 〉



한산 대첩 재현



거북선 노젓기 대회

## 〈 마산가고파국화축제 〉



세계 최다 다륜대작



대규모 국화정원

## 〈 제주들불축제 〉



오름 불 놓기



희망 달집 만들기 체험

# 4 2015 유망축제

## 〈 한성백제문화제 〉




역사 문화 거리 행렬



한성 백제 체험 마을

## 〈 성북다문화음식축제 〉



거리공연




국가대표요리사

## 〈 부산동래읍성역사축제 〉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동래부사 행차 길놀이

##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



전승기예(한약재 썰기 경연대회)



한방 무료 힐링 센터

##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



국내·외의 유명 라이브 뮤지션 라이브 공연




신인 아티스트 선발

## 〈 광산우리밀축제 〉



우리밀요리경연대회




여치집 만들기

〈 대전효문화뿌리축제 〉



문중퍼레이드



문중 명량 운동회

〈 여주오곡나루축제 〉



가마솥 여주쌀 오곡밥 지어 비빔밥 먹기



남한강 황포돛배 탑승 체험

〈 춘천국제마임축제 〉



도깨비 난장 아!水라장



미친금요일

## 〈 통일고성명태축제 〉



명태낚시체험



오리배, 카누체험

## 〈 괴산고추축제 〉



황금고추를 찾아라



고추방아장터

## 〈 충주세계무술축제 〉



국제무예연무대회



세계무술교류장

## 〈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태종 대왕 강무



전통놀이 체험(조선시대 운동회)

## 〈 금강여울축제 〉



신나는 물체험



전통뗏목타기

## 〈 홍성역사인물축제 〉



주제관 – 역사인물 육위 열전




개막공연 - 역사인물열전 뮤지컬

##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천렵 체험



와일드 푸드 체험

## 〈 보성다향대축제 〉



차 만들기 체험



녹차 족욕 체험

## 〈 목포항구축제 〉



갯가 풍어길 놀이



뱃사공 노젓기 체험

## 〈 정남진장흥물축제 〉



지상최대의 물싸움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 〈 영암왕인문화축제 〉



왕인박사 일본가오!(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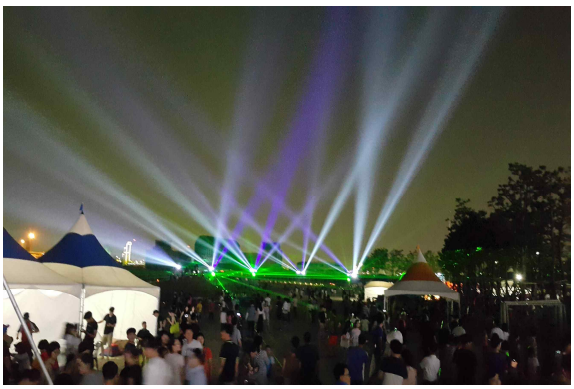


삼호 강강술래

## 〈 포항국제불빛축제 〉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



불의 노래 빛의 바다 불빛 쇼

## 〈 경주신라소리축제 〉



모형종 타종



전통북 체험

## 〈 도두오래물축제 〉



바닷물고기 맨손잡기 체험



요트타기

# 201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기획 · 편집
김 태 훈 (관광정책관)
강 석 원 (관광산업과장)
김 은 희 (관광산업과 사무관)
고 희 영 (관광산업과 주무관)

◈ 설문조사결과 종합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 2015년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강 신 겸 (전남대 교수)
강 해 상 (동서대 교수)
김 영 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 재 호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김 주 연 (신한대 교수)
김 창 수 (경기대 교수)
나 상 훈 (한국관광공사 실장)
민 양 기 (충청대 교수)
변 우 희 (경주대 교수)
심 원 섭 (목포대 교수)
유 기 준 (공주대 교수)
이 훈 (한양대 교수)
이 규 민 (경희대 교수)
이 병 민 (건국대 교수)
이 선 철 (용인대교수)
이 수 범 (경희대 교수)
최 승 묵 (청운대 교수)
최 영 기 (전주대 교수)
추 미 경 (성공회대 교수)
한 양 명 (안동대 교수)



발 행 : 2016. 3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http://www.mcst.go.kr
관광산업과 (TEL : 044)203-2839)

ISBN 978-89-7820-803-1 93320